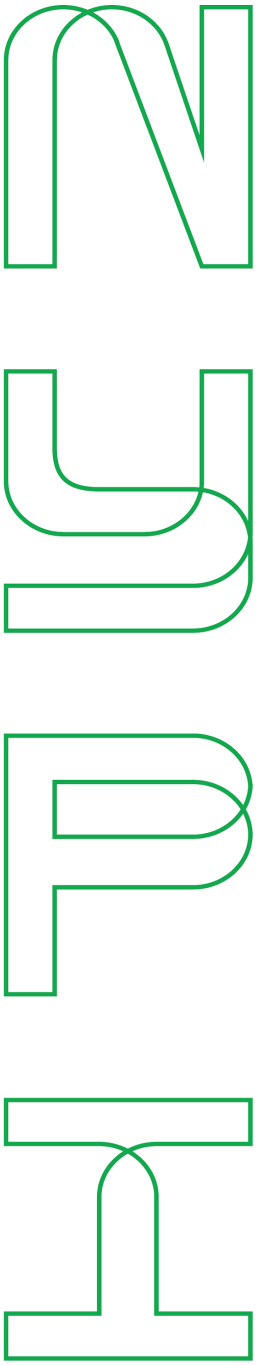
연구보고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양계민

공동연구원 윤민종 신현옥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윤민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신현옥(한양대학교글로벌다문화연구원·연구원)
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연구보조원 : 한주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년인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한국사회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주요 관심 주제로 등장하고, 정부 각 부처와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 수행된 지 벌써 10여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주로 부족한 점과 결핍된 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둔 결과, 우리 사회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하는 등 객관적 근거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6년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해 내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정책들을 제언해 왔습니다. 2016년은 다문화패널종단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기로 본격적으로 진로와 진학을 생각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중심으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비교하고, 이들의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모든 분석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적 발달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구분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국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발달변화 양상을 구분하여 각 발달유형의 특성과 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중 2016년도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대상 6년차 종단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의식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제고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지원정책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간의 진로발달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째,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를 포함한 1,332가구 및 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패널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둘째, 설문에 참여한 가구 중 일부를 지역별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교사 및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셋째,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의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학습지원과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학업포부수준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현실적 어려움을 점점 더 느끼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은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낮고 진로장벽인식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벽인식 중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벽인식의 수준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학업지원, 직업체험기회 확대, 진로상담기회 제공 등을 원하고 있었고,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들이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부족과 언어부족 등으로 자녀지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아서 참여의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되는 종단연구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발달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

2016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청소년 대상 6년차 종단패널자료를 구축한다.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의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 제고방안의 근거를 마련한다.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지원정책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2. 연구방법

- 패널설문조사

중학교 3학년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 1,332가구를 대상으로 CAPI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

  -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 어머니의 출신국가 및 청소년을 지역별로 4~5명씩 표집하여

23쌍의 46명을 면접함.

- 다문화학생 담당 학교교사 5명을 면접 조사함.
- 현장전문가 4명을 면접 조사함.

○ 콜로키움

미국의 이민정책과 청소년,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현황에 대해 각각 콜로키움을 개최함.

○ 정책분석

교육부, 여가부, 노동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들을 분석하고, 지역의 지원사례를 분석함.

○ 전문가 자문회의

학계전문가, 공무원, 다문화청소년 관련 업무 중 교육부 관련 업무와 여가부 관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자문회의를 실시함

○ 정책협의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다문화지원팀 담당 공무원과 정책협의회 실시함

3. 주요결과

1) 6년간 종단변화 추이

○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습과 진로에 대한 지원요구가 점차 높아짐.

○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함.

○ 학업포부수준도 중학교 진학 이후 점차 감소함.

○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

○ 학습지원과 미래의 진로준비를 위한 요구가 점차 증가함.
○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교사 모두 학습지원과 진로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

2)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현황

○ 다문화청소년은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진로의식은 낮고, 진로장벽인식 수준은 높음.
○ 다문화청소년은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이 높음.
○ 다문화청소년의 학업포부수준은 학부모보다 낮음.
○ 다문화청소년은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낮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더 높음.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취요인임.
○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침.

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요구

○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보임.
○ 자녀의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더 강함.
○ 학교 진로지도는 대부분 진로라기보다는 진학에 초점을 맞춤.
○ 지역사회 내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서비스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임.
○ 대부분 진로교육은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 효과성이 낮음.
○ 멘토링에 대해 학생들은 만족하는 편이나 학부모들은 불만족하는 편이었음.
○ 다문화청소년들은 학업지원, 직업체험기회 확대, 진로상담기회 제공 등을 원하고 있었음.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진로를 지원해 줄 전문가가 필요함.
○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학업적 포부 기대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음.
○ 학부모들은 한국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부족과 언어부족 등으로 자녀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학부모가 지닌 사회문화적 자본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침.
○ 학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지역의 다문화관련 기관의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참여도도 높음.
- 이중언어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는 높으나 현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청소년들은 어머니나라 말 배우는 것을 싫어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 이중언어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 학부모와 다문화청소년 모두 낮게 지각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과 진로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학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진로지도는 단순히 집체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례관리가 되어야 함.
- 학부모교육이 중요하나, 그 내용이 학부모의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학부모교육은 학교보다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관련기관 및 학교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4. 정책제언

- 전략 1: 다문화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정책과제 1-1: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정책과제 1-2: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정책과제 1-3: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정책과제 1-3: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 전략 2: 지지집단 진로지도 역량 강화

  정책과제 2-1: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정책과제 2-2: 교사 진로지도 전문성 강화

정책과제 2-3: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전문성 강화

○ 전략 3: 지역사회 진로지원망 구축

정책과제 3-1: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협의체 구성
정책과제 3-2: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 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추진경과 ····· 7
3. 연구추진체계 ····· 11
4. 연구내용 및 방법 ····· 12

Ⅱ. 이론적 배경 ····· 19
1. 청소년의 진로발달 ····· 21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 25
3. 요약 및 소결 ····· 31

Ⅲ. 패널조사 및 패널관리 ····· 33
1. 패널조사의 개요 ····· 35
2. 표본설계 ····· 35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 37
4. 조사방법 ····· 55
5. 패널관리 ····· 55

Ⅳ. 6년간 종단 변화 추이 ····· 81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 ····· 83
2. 다문화청소년의 6년간 발달변화 추이 비교 ····· 86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의 변화 추이 ····· 116
4. 요약 및 소결 ····· 129

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 131
1.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의 현황 ····· 133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요구분석 ····· 194
3. 요약 및 소결 ····· 309

Ⅵ.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현황 및 정책제언 ····· 311
1.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정책현황 ····· 313
2. 정책제언 ····· 333

참고문헌 ····· 353

Abstract ····· 363

표 목 차

〈표 Ⅰ-1〉 다문화종단연구의 단계별 연구목적 ····· 5
〈표 Ⅰ-2〉 대상별 설문지의 종류 ····· 13
〈표 Ⅰ-3〉 면접조사의 요소 및 내용 ····· 14
〈표 Ⅰ-4〉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 14
〈표 Ⅰ-5〉 콜로키움의 내용 ····· 15
〈표 Ⅲ-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 내역 ····· 36
〈표 Ⅲ-2〉 청소년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 40
〈표 Ⅲ-3〉 2016년도 청소년용 설문지 변경사항 ····· 42
〈표 Ⅲ-4〉 2016년도 청소년용 설문지 신규문항 ····· 44
〈표 Ⅲ-5〉 어머니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 45
〈표 Ⅲ-6〉 2016년도 외국인 어머니용 설문문항 변경사항 ····· 47
〈표 Ⅲ-7〉 2016년도 어머니용 설문지 신규문항 ····· 48
〈표 Ⅲ-8〉 교사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 49
〈표 Ⅲ-9〉 2016년도 교사용 설문문항 변경사항 ····· 50
〈표 Ⅲ-10〉 2016년도 교사용 설문지 신규문항 ····· 53
〈표 Ⅲ-11〉 학업중단청소년용 설문지에만 해당되는 문항 ····· 53
〈표 Ⅲ-12〉 학업중단청소년의 어머니용 설문지에만 해당되는 내용 ····· 54
〈표 Ⅲ-13〉 조사원 1인당 평균 담당 가구 수 ····· 57
〈표 Ⅲ-1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68
〈표 Ⅲ-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이탈 사유 ····· 69
〈표 Ⅲ-16〉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70
〈표 Ⅲ-17〉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이탈) ····· 71
〈표 Ⅲ-18〉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72
〈표 Ⅲ-19〉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 이탈) ····· 72
〈표 Ⅲ-20〉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73
〈표 Ⅲ-21〉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 이탈) ····· 73

〈표 Ⅲ-22〉 어머니 직업 여부 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74
〈표 Ⅲ-23〉 어머니 직업 여부 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 이탈) ····· 74
〈표 Ⅲ-24〉 어머니 학력 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 75
〈표 Ⅲ-25〉 어머니 학력 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 이탈) ····· 75
〈표 Ⅲ-26〉 조사원 이탈 현황 ····· 76
〈표 Ⅲ-27〉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용된 종속변수 ····· 78
〈표 Ⅲ-28〉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이용된 종속변수 ····· 78
〈표 Ⅲ-29〉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패널 이탈에 영향을 주는 특성 ····· 80
〈표 Ⅳ-1〉 조사대상 청소년의 수 ····· 83
〈표 Ⅳ-2〉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 84
〈표 Ⅳ-3〉 어머니의 출신국 분포 ····· 85
〈표 Ⅳ-4〉 아버지의 출신국 분포 ····· 86
〈표 Ⅳ-5〉 다문화가정 청소년 6년간 변화추이 비교 영역(2011년~2016년) ····· 87
〈표 Ⅳ-6〉 부모 결혼상태의 변화추이 ····· 88
〈표 Ⅳ-7〉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화추이 ····· 89
〈표 Ⅳ-8〉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 90
〈표 Ⅳ-9〉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 90
〈표 Ⅳ-10〉 부모양육태도의 변화추이: 감독 ····· 91
〈표 Ⅳ-11〉 부모양육태도의 변화추이: 방임 ····· 92
〈표 Ⅳ-12〉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중복응답) 변화추이 ····· 93
〈표 Ⅳ-13〉 학교 공부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 변화추이 ····· 94
〈표 Ⅳ-14〉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학습활동 ····· 95
〈표 Ⅳ-15〉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교사관계 ····· 96
〈표 Ⅳ-16〉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교우관계 ····· 96
〈표 Ⅳ-17〉 학교성적수준 변화추이 ····· 97
〈표 Ⅳ-18〉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추이 ····· 98
〈표 Ⅳ-19〉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변화추이 ····· 98

〈표 Ⅳ-20〉 성취동기 변화추이 ····· 99
〈표 Ⅳ-21〉 학업적 포부 변화추이 ····· 100
〈표 Ⅳ-22〉 자아존중감 변화추이 ····· 101
〈표 Ⅳ-23〉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 102
〈표 Ⅳ-24〉 신체만족도 변화추이 ····· 102
〈표 Ⅳ-25〉 우울 변화추이 ····· 103
〈표 Ⅳ-26〉 사회적 위축 변화추이 ····· 104
〈표 Ⅳ-27〉 가족지지의 변화추이 ····· 104
〈표 Ⅳ-28〉 교사지지의 변화추이 ····· 105
〈표 Ⅳ-29〉 친구지지의 변화추이 ····· 106
〈표 Ⅳ-30〉 친한 친구의 수 변화추이 ····· 106
〈표 Ⅳ-31〉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 107
〈표 Ⅳ-32〉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 107
〈표 Ⅳ-33〉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변화추이 ····· 108
〈표 Ⅳ-34〉 한국인 정체성 변화추이 ····· 109
〈표 Ⅳ-35〉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 110
〈표 Ⅳ-36〉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추이 ····· 110
〈표 Ⅳ-37〉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추이 ····· 111
〈표 Ⅳ-38〉 키 차이(연도별) ····· 112
〈표 Ⅳ-39〉 키 차이(성별) ····· 112
〈표 Ⅳ-40〉 몸무게 차이(연도별) ····· 113
〈표 Ⅳ-41〉 몸무게 차이(성별) ····· 113
〈표 Ⅳ-42〉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추이 ····· 114
〈표 Ⅳ-43〉 6년간 변화추이 비교 영역(2011년~2016년) ····· 115
〈표 Ⅳ-44〉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청소년 ····· 117

〈표 Ⅳ-45〉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 ·····117
〈표 Ⅳ-46〉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 ·····118
〈표 Ⅳ-47〉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청소년 ·····118
〈표 Ⅳ-48〉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청소년 ·····119
〈표 Ⅳ-49〉 자녀의 지원 경험 여부: 어머니 ·····120
〈표 Ⅳ-50〉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 어머니 ·····120
〈표 Ⅳ-51〉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 정도: 어머니 ·····121
〈표 Ⅳ-52〉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어머니 ·····121
〈표 Ⅳ-53〉 희망하는 자녀 지원: 어머니 ·····122
〈표 Ⅳ-54〉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어머니(2016) ·····123
〈표 Ⅳ-55〉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의 도움 여부: 어머니(2016) ·····123
〈표 Ⅳ-56〉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중복응답): 교사 ·····124
〈표 Ⅳ-57〉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교사 ·····125
〈표 Ⅳ-58〉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방향: 교사 ·····126
〈표 Ⅳ-59〉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교사 ·····127
〈표 Ⅴ-1〉 진로관련 변인의 주요 영역과 변인 ·····134
〈표 Ⅴ-2〉 다문화청소년의 학업포부 수준 ·····135
〈표 Ⅴ-3〉 다문화청소년의 희망 대학 수준 ·····136
〈표 Ⅴ-4〉 장래희망 직업의 특성별 빈도 ·····137
〈표 Ⅴ-5〉 다문화청소년의 원하는 직업순위(N=1,332) ·····138
〈표 Ⅴ-6〉 다문화청소년 학부모의 원하는 직업순위(N=1,301) ·····139
〈표 Ⅴ-7〉 진로의식 변화추이 ·····140
〈표 Ⅴ-8〉 진로를 의논하는 상대 ·····141
〈표 Ⅴ-9〉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비교 ·····143
〈표 Ⅴ-10〉 진로장벽인식의 집단 간 차이 ·····143
〈표 Ⅴ-11〉 어머니 진로지원의 집단 간 차이 ·····144
〈표 Ⅴ-12〉 아버지 진로지원의 집단 간 차이 ·····144

〈표 Ⅴ-13〉 청소년의 거주지 규모별 빈도(%) ·····146
〈표 Ⅴ-14〉 청소년의 성별 빈도(%) ·····146
〈표 Ⅴ-15〉 부모 학력수준 ·····146
〈표 Ⅴ-16〉 부모 학력수준: 5범주 ·····147
〈표 Ⅴ-17〉 가정 월 평균 소득수준의 범주별 빈도 ·····147
〈표 Ⅴ-18〉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빈도 ·····148
〈표 Ⅴ-19〉 거주지 규모에 따른 학업적 포부수준의 차이 ·····148
〈표 Ⅴ-20〉 거주지 규모에 따른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의 차이 ·····149
〈표 Ⅴ-21〉 거주지 규모에 따른 진로관련 인식의 차이 ·····150
〈표 Ⅴ-22〉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 ·····151
〈표 Ⅴ-23〉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진로관련 태도 및 행동의 차이 ·····152
〈표 Ⅴ-24〉 거주지 규모에 따른 학교생활요인의 차이 ·····152
〈표 Ⅴ-25〉 성별에 따른 학업적 포부수준의 차이 ·····153
〈표 Ⅴ-26〉 성별에 따른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의 차이 ·····154
〈표 Ⅴ-27〉 진로관련 인식의 성별 차이 ·····155
〈표 Ⅴ-28〉 부모의 지원에 대한 청소년 인식의 성별 차이 ·····155
〈표 Ⅴ-29〉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진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성별 차이 ·····156
〈표 Ⅴ-30〉 학교생활요인의 성별 차이 ·····156
〈표 Ⅴ-31〉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진로계획의 차이 ·····157
〈표 Ⅴ-32〉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진로계획의 차이 ·····158
〈표 Ⅴ-33〉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차이 ·····158
〈표 Ⅴ-34〉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차이 ·····159
〈표 Ⅴ-35〉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인식 요인의 차이 ·····160
〈표 Ⅴ-36〉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인식 요인의 차이 ·····161
〈표 Ⅴ-37〉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자녀인식 차이 ·····162
〈표 Ⅴ-38〉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자녀인식 차이 ·····163
〈표 Ⅴ-39〉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자녀진로관련 태도 및 인식의 차이 ·····164

〈표 Ⅴ-40〉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자녀진로관련 태도 및 인식의 차이 ·····165
〈표 Ⅴ-41〉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요인의 차이 ·····166
〈표 Ⅴ-42〉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요인의 차이 ·····166
〈표 Ⅴ-43〉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 학업적 포부수준의 차이 ·····168
〈표 Ⅴ-44〉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차이 ·····168
〈표 Ⅴ-45〉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관련 인식 차이 ·····169
〈표 Ⅴ-46〉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 ·····170
〈표 Ⅴ-47〉 월 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진로관련 태도 및 행동의 차이 ·····171
〈표 Ⅴ-48〉 월 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요인의 차이 ·····172
〈표 Ⅴ-49〉 배경변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전체) ·····174
〈표 Ⅴ-50〉 배경변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대도시) ·····176
〈표 Ⅴ-51〉 배경변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중소도시) ·····178
〈표 Ⅴ-52〉 배경변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읍면지역) ·····180
〈표 Ⅴ-53〉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전체) ·····182
〈표 Ⅴ-54〉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대도시) ·····184
〈표 Ⅴ-55〉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중소도시) ·····186
〈표 Ⅴ-56〉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읍면지역) ·····187
〈표 Ⅴ-57〉 진로관련 요인의 요인분석 ·····190
〈표 Ⅴ-58〉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1
〈표 Ⅴ-59〉 설문조사 요구분석의 대상 및 내용 ·····195
〈표 Ⅴ-60〉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 ·····196
〈표 Ⅴ-61〉 희망하는 지원 순위: 청소년 ·····197
〈표 Ⅴ-62〉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 어머니 ·····198
〈표 Ⅴ-63〉 연도별 희망 지원: 어머니 ·····199
〈표 Ⅴ-64〉 자녀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어머니 ·····200
〈표 Ⅴ-65〉 자녀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200

〈표 Ⅴ-66〉 거주지 규모에 따른 자녀진로관련 요구도 ·····201
〈표 Ⅴ-67〉 자녀 방과후 교육 경험 유무 ·····201
〈표 Ⅴ-68〉 자녀 방과후 교육을 받은 이유 ·····202
〈표 Ⅴ-69〉 자녀 방과후 교육비의 가계부담 정도 ·····202
〈표 Ⅴ-70〉 자녀 방과후 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203
〈표 Ⅴ-71〉 지역별 교사분포 ·····204
〈표 Ⅴ-72〉 응답 교사의 성별 분포 ·····204
〈표 Ⅴ-73〉 응답 교사의 연령대별 분포 ·····204
〈표 Ⅴ-74〉 다문화정책학교 유형별 빈도 ·····205
〈표 Ⅴ-75〉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와의 모임 빈도 ·····205
〈표 Ⅴ-76〉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중복응답): 교사 ·····206
〈표 Ⅴ-77〉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교사 ·····207
〈표 Ⅴ-78〉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208
〈표 Ⅴ-79〉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209
〈표 Ⅴ-80〉 비다문화가정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들 특성의 비교 ·····210
〈표 Ⅴ-81〉 면접조사 요구분석의 대상 및 내용 ·····212
〈표 Ⅴ-82〉 2016 심층면접 대상자: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213
〈표 Ⅴ-83〉 2016 면접조사 지역별 일시 및 장소 ·····213
〈표 Ⅴ-84〉 면접 내용(청소년) ·····214
〈표 Ⅴ-85〉 2016 면접 결과 요약: 청소년 ·····231
〈표 Ⅴ-86〉 면접 내용: 어머니 ·····232
〈표 Ⅴ-87〉 2016 면접 결과 요약: 어머니 ·····282
〈표 Ⅴ-88〉 2016 면접조사 지역별 일시 및 장소 ·····283
〈표 Ⅴ-89〉 면접 내용: 학교교사 및 현장전문가 ·····283
〈표 Ⅴ-90〉 2016 면접 결과 요약: 학교교사 및 현장전문가 ·····308
〈표 Ⅵ-1〉 진로교육법과 진로교육법시행령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조항 ·····314
〈표 Ⅵ-2〉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2016-2020)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부분 ·····315

〈표 Ⅵ-3〉 글로벌브릿지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단 수 ·····316
〈표 Ⅵ-4〉 2016년도 글로벌브릿지사업의 권역별 사업단별 프로그램 내용 ·····317
〈표 Ⅵ-5〉 2016 교육부 다문화학생 직업교육지정기관 ·····318
〈표 Ⅵ-6〉 다문화멘토링사업의 연도별 현황 ·····320
〈표 Ⅵ-7〉 교육부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교육과정 ·····322
〈표 Ⅵ-8〉 다재다능사업의 추진체계 및 서비스 내용 ·····325
〈표 Ⅵ-9〉 무지개 Job아라의 교육 내용 및 시간 ·····326
〈표 Ⅵ-10〉 내-일을 Job아라의 교육 내용 및 시간 ·····327
〈표 Ⅵ-11〉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진로지원 사업 ·····330
〈표 Ⅵ-1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336
〈표 Ⅵ-1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352

그림 목차

【그림 Ⅰ-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1단계 연구의 내용 ····· 8
【그림 Ⅰ-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2단계 연구의 내용(2013 ~ 2017년) ····· 10
【그림 Ⅰ-3】 2016년 연구추진체계 ····· 11
【그림 Ⅰ-4】 연구의 흐름도 ····· 16
【그림 Ⅲ-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모형 ····· 36
【그림 Ⅲ-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관리 체계 ····· 56
【그림 Ⅲ-3】 조사원 지침서 및 교육일정 ····· 58
【그림 Ⅲ-4】 조사원 교육 내용 ····· 59
【그림 Ⅲ-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 60
【그림 Ⅲ-6】 가구 및 가구원 정보 관리시스템 화면 ····· 61
【그림 Ⅲ-7】 가구 인포시트 ····· 61
【그림 Ⅲ-8】 리플릿 ····· 63
【그림 Ⅲ-9】 가구정보 알림 게시판 ····· 64
【그림 Ⅲ-1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지현황 ····· 67
【그림 Ⅵ-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 333
【그림 Ⅵ-2】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기본원칙, 전략 및 정책과제 ····· 335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경과
3. 연구추진체계
4.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Ⅰ 장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다문화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글로벌 다문화적 역량 함양 및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근거로 다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다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하여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키는 근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가 위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그 중 결혼이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청소년도 증가하게 되었다. 2015년 11월 1일 현재 국내에 다문화가정 자녀[2)]의 수는 19만 7천 55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행정자치부, 2015), 그 중 높은 비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부정적인 특성들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다문화가정'이라고 분류되는 집단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1) 1장은 양계민이 집필함.
2) 행정자치부에서는 '외국인주민자녀'로 칭하고, 이 범위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부모 모두 한국인인 가정에서 출생했으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포함됨.

수준 및 이주의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개념이 '부족'이나 '결핍'을 연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래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에게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 낙인찍히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을 내면화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성장을 억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부족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횡단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추적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객관적인 비교하고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구 및 분석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간의 발달격차가 발견되는 지점을 확인하게 된다면, 격차가 유발되는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제기되는 다문화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 기존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전체가 동질적인 하나의 정책 대상이 되어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집단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고정관념화 시키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개선하여 실제로 취약한 집단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0년 예비조사부터 시작하여 2012년도까지 3년간 1단계 연구가 수행되었고, 다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2단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두 단계의 연구는 물론 같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되는 연구이고, 2011년도 초기 패널참여자가 2016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한 연구의 연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단계별로 연구의 지향하는 바가 약간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1단계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격차를 보이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양계민, 김승경, 2010, p. 5) 이 목적이었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2단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발달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p. 5).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의 목적은 i)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ii)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발달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표 Ⅰ-1 다문화종단연구의 단계별 연구목적

단계	연도	단계별 연구의 목적
1단계	2010년 ~ 2012년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일반가정 청소년과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2단계	2013년 ~ 2017년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발달의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출처: 양계민, 박주희(2013, p. 7)

본 연구는 최종적인 목표와 별개로 해마다 연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연도별 목적을 구성하고 있다. 2016년도의 연구목적은 기존의 목적과 다르지 않으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대한 분석과 그와 관련된 정책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축적해 온 다문화청소년 대상 종단자료의 6차년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의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지원정책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2016년도 연구의 목적

첫째, 다문화청소년 대상 6년차 종단패널자료를 구축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의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제고방안의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지원정책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간의 진로발달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우선 그 대상과 기간, 그리고 조사의 내용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대상과 기간의 차별성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없다. 물론 기존의 일반 한국가청소년,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들이 존재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본 조사가 유일하다. 국내외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모두 횡단적으로 몇 개의 단편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발달양상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11년부터 중학교 3학년인 2016년까지 6년간의 추적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달의 양상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해 내는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부모인 어머니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기존의 패널의 경우도 6년 이상 지속되는 연구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표본이 80% 이상이 지속되는 등 성공적 유지율을 지니고 있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의 정도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의 영향 등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패널들도 역시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연구하지만 특정한 정책적 지원의 정도를 종단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는 없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성은 기존의 패널 연구들이 자료를 생산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년 주제별로 정책적 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자아정체감, 진로의식 등에 대한 분석과 그를 기초로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책제언의 근거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다른 패널연구 및 청소년 대상연구, 또는 다문화청소년 대상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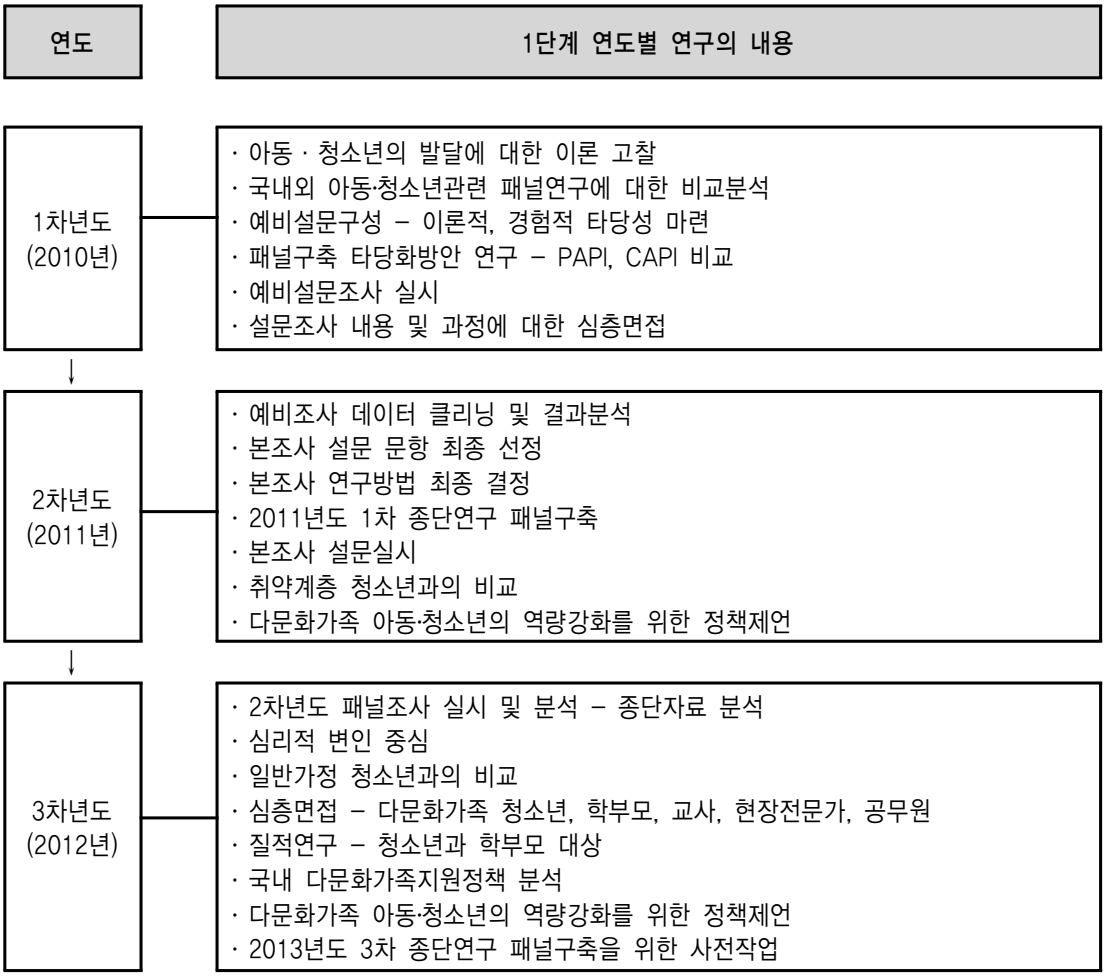
1) 연도별 연구내용 개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과 2012년까지 총 3년간 1단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시 2단계 연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다. 1단계 연구의 명칭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Ⅰ~Ⅲ」이었고, 5년간 수행되는 2단계 연구는 명칭을 변경하여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Ⅰ~Ⅴ」로 수행되고 있다. 그 중 2016년의 본 연구는 6차 패널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패널구축 초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조사대상자들이 현재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였다.

(1) 1단계 연구

본 연구의 연도별 연구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도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연구였다. 따라서 패널설계를 위한 문헌고찰, 설문지 개발, 패널구축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2011년도의 본 조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이어 2011년도는 본 패널의 첫 번째 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포함한 총 1,625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2012년도는 2차 패널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원에서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의 조사대상인 일반청소

년과 비교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청소년에 비해 떨어지는 집단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중간계층과 고소득층에서는 일반 청소년 패널의 대상자들과 차이가 없거나 또는 더 뛰어난 특성을 보여 다문화청소년이 지니는 결핍이나 부족의 문제가 경제적인 계층의 문제라는 점, 따라서 모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함의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의 집중적 지원이 바람직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 출처: 양계민, 박주희, 2013, p. 10의 수정

【그림 Ⅰ-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1단계 연구의 내용

(2) 2단계 연구

다음으로 2013년도부터 다시 시작된 2단계 연구는 2017년까지 총 5년간 종단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로, 2016년도는 2단계 연구로써는 4차 연구가 되고, 1단계 연구부터 보자면 6차 연구에 해당된다. 2단계 연구 역시 많은 함의를 도출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발달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가장 취약한 집단의 경우는 3년 연속 발달의 수준이 낮게 머무른 집단이며, 점차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집단 역시 취약한 집단으로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지원을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014년도는 패널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 해로, 그리 많지는 않으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점차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설문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고, 심리, 정서,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때의 발달양상이 중학교에서도 거의 유지되고 있어서 초등연령의 적응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고,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 측면에서 초등학교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격차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하였다. 또한 학교의 다문화정책과 지역사회의 다문화지원정책은 청소년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다문화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안해 주었다.

2015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종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주제는 자아정체성과 이중문화정체성이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는 수준이었으며, 본인들도 '다문화청소년'으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016년도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시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심층분석의 주제를 진로의식과 태도로 잡았다. 2016년도 역시 패널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면접조사와 정책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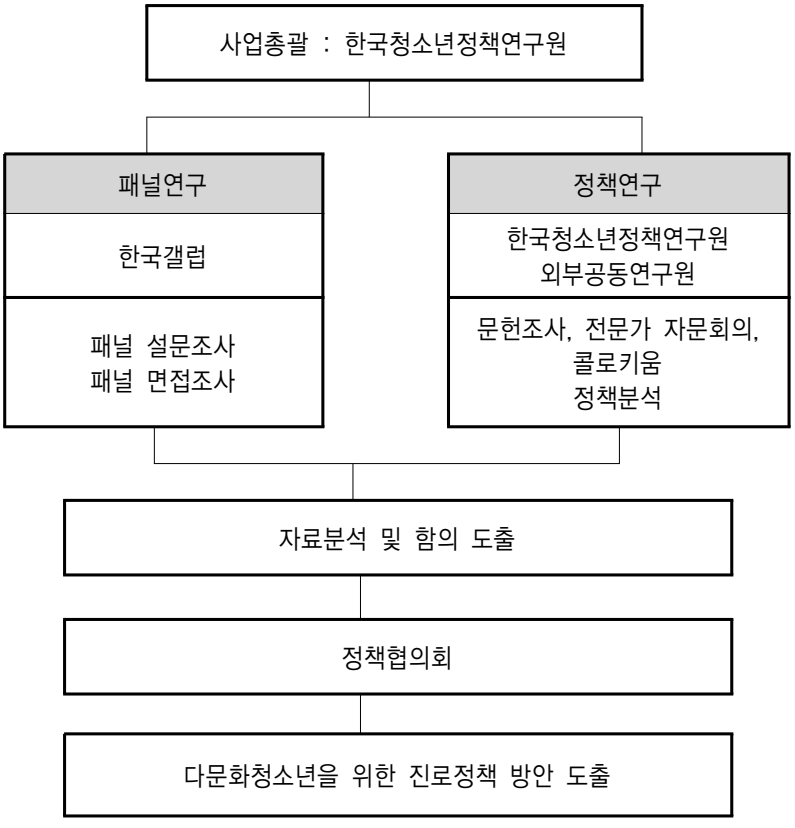


(※ 출처: 양계민 외, 2014, p. 12)

【그림 Ⅰ-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2단계 연구의 내용(2013 ~ 2017년)

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 패널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도출하는 정책연구이다. 우선 패널연구에는 2011년부터 축적된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경우는 전체 대상 중 지역별로 4~5개 가구를 선정하여 청소년과 어머니를 쌍으로 면접하였다. 정책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문헌조사,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에 대한 문헌 및 자료조사, 콜로키움 등을 실시하였고, 두 영역에서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도출하였다. 패널연구 중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면접조사는 한국갤럽에 대상자를 선발 및 섭외한 후 연구자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정책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자 및 공동연구원이 함께 실시하였다.



【그림 Ⅰ-3】 2016년 연구추진체계

4. 연구내용 및 방법

2016년도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태도 관련 국내외 문헌분석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연구분석 및 결과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올해의 주요 주제가 진로의식 및 태도인 만큼, 선행연구는 진로의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는데, 우선 국내외 일반청소년들의 진로의식 및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2) 패널설문조사

패널설문조사는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2011년 당시 4학년이었던 패널들을 추적하여 2015년 최종적으로 조사에 응한 1,350가구의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7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표본은 기 구축된 패널 전수가 대상이 되고 CAPI를 활용하여 가구 및 학교방문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반가구, 학업중단청소년가구, 그리고 재참여가구이다. 각 범주별로 학생용, 외국인부모용, 한국인부모용, 대체양육자용 설문지가 패널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업중단청소년을 제외한 경우 교사용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교사용은 매년 해당 청소년의 담임교사나 학교의 다문화담당 교사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패널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패널설문지만 설문의 종류는 총 12종이고, 교사용 설문을 합하면 총 13종이다. 이 때 외국인부모용 설문지는 총 9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제공되고 있고, 대체양육자용 설문지는 현재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경우 참여청소년을 주로 돌보는 어른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2016년도 설문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특히 2014년 통계품질진단시 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분석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지를 축약 및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패널 참여 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진로의 영역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고, 초기단계에 필요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 연령에서

필요하지 않은 문항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문항을 수정하였다.

표 Ⅰ-2 대상별 설문지의 종류

범주	설문종류	비고
일반가구	■ 학생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 교사용 설문지(패널 아님)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의 경우는 9개 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함께 제시됨: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대만어, 필리핀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 대체양육자 설문지는 현재 어머니가 주양육자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맡고 있는 어른이 작성함.
학업중단청소년가구	■ 학생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재참여가구	■ 학생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 교사용 설문지(패널 아님)	

3)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패널참여 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예년과 달리 2016년도의 주제가 진로의식 및 태도인 관계로 집단면접이 가능하고, 또 예산상 기존의 방식으로 개별 가구방문을 통한 질적조사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면접조사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는 일반적인 진로의식과 진로와 관련된 현황, 향후 진로에 대한 태도, 정책적 요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학교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방안의 올바른 방향과 지원의 타당성, 구체적인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Ⅰ-3 면접조사의 요소 및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면접조사 참여자	• 다문화청소년 23명 •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23명 • 학교교사 5명 • 다문화청소년 관련기관의 현장전문가 3명
면담방식	• FGI(Focus Group Interview)
면담내용	• 청소년, 어머니: 진로의식, 진로계획, 진로관련 요구도, 진로설정의 어려움 • 학교교사, 현장전문가: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의 현황, 진로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및 근거, 방향성
면담자	• 연구진

4) 전문가 자문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2016년도 설문지 조사문항을 축소 및 수정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본 조사의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 및 패널관리를 위하여 통계청 공무원과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셋째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방안을 위한 방향성 및 과제 도출을 위하여 다문화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Ⅰ-4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횟수	자문영역(내용)	일시	자문진
1회	조사문항 수정	2016. 3. 4	학계전문가
2회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 및 패널관리	2016. 1. 25	통계청 품질관리과
3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2016. 10. 20	학계전문가

5) 콜로키움

본 연구에서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 2회 콜로키움을 기획하였고, 계획에 따라 2회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이민정책과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미국 UC Riverside의 Center for Korean American Studies의 장태한 교수가 발표하였는데, 미국의 청소년 대상 이민정책의 현황과 방향, 한계 등을 강의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국내 진로현황 및 진로정책의 한계,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하여 안산 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강은이 센터장이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표 Ⅰ-5 콜로키움의 내용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1회	미국의 이민정책과 청소년	장태한(UC Riverside, Center for Korean American Studies 소장)	2016. 5. 16
2회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현황	강은이(안산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센터장)	2016. 10. 11

6) 국내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 분석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일반청소년 진로지원정책 및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의 현황을 부처별로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 모색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7)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과제 도출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위에서 수행한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자문, 콜로키움, 국내외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의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8) 정책실무협의회

정책실무협의회는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방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의 다문화교육지원팀과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2016년도의 연구내용 및 연구의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Ⅰ-4】 연구의 흐름도(양계민, 박주희, 2013, p. 16의 수정)

2) 보고서 구성 및 내용

본 보고서는 총 두 권으로 총괄보고서와 기초분석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보고서에서는 2016년도 실시한 패널설문조사, 면접조사, 정책분석 및 정책제안 등이 제시되어 있고, 기초분석보고서에는 2016년도 패널설문조사에 포함된 변인들에 대하여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으로 나누어 각각 청소년성별, 어머니 출신국,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제시하였다. 각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Ⅰ: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Ⅳ: 총괄보고서
보고서 Ⅱ: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Ⅳ: 기초분석보고서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진로발달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3. 요약 및 소결

제 II 장
이론적 배경[3)]

이 장에서는 2016년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의 심층 분석 주제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의식 실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가 2011년도부터 수행된 연속사업이라는 특성상 다문화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특성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이전 보고서에서 이미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없고, 2016년도의 주요 연구 주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첫째, 일반청소년의 진로발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청소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 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공헌과 연구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본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청소년의 진로발달

1) 진로발달의 개념 및 범주

청소년 진로발달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일의 진가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하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생애발달론적 관점에 기초한 진로발달 이론은 청소년의 진로의식은 특정 시기에 발현되는 것이 아닌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김봉환, 1997). Herr와 Cramer(1996)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발달 이론을 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따른 각각의 수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 진로발달은 초등학교 시절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진로준비를 위한 기초 소양을 키우는

3) 2장은 윤민종이 집필함.

단계에서 시작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구축한 진로발달 기본 소양을 토대로 중학교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진로 세계를 경험하고 미래 진로를 준비하는 진로탐색 시기를 거치게 된다. 이때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이 본격화되며 향후 자신의 진로를 구상하는 실천준비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황미경, 문영주, 2012). 고등학교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중학교에서 형성한 진로역량을 토대로 본격적인 진로준비 행동 단계로 이행된다(Herr, & Cramer, 1996; 강상경, 2011).

청소년 진로발달 수준은 진로성숙도라는 이론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이론에서 태생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개인이 진로에 관해 가진 지식이나, 태도와 같이 미래의 진로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동일 연령층 대비 상대적인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황미경, 문영주 2012). Super(1957)은 진로성숙도에 대해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관성,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계획성, 자기 특성의 구체적 이해,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능력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정윤경, 2005; 재인용). 이러한 개념에 기초해 Crites(1978)는 진로성숙도의 하위개념을 1)결정성, 2)참여도, 3)독립성, 4)성향, 5)타협성으로 체계화 시켰다. 여기에서 진로결정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진로결정에 도달했는지는 참여도와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성향이라는 개념은 청소년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정보와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타협성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의 현실성 고려를 의미한다. Crites(1978)의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성숙도검사 에서 진로성숙도 하위 개념을 진로성숙 태도 영역(독립성, 일의 중요성 및 직업에 대한 태도, 계획성), 능력 영역(자기이해, 진로정보 활용 및 의사결정 능력, 직업에 대한 지식), 준비행동 영역으로 체계화 시킨 바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여부 역시 청소년 진로발달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로 논의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진로결정/진로미결정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이후 진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은 전공, 고교계열 선택, 취업 및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규정되는 반면, 진로미결정은 진로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진로결정 여부는 연구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는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일반고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중요한 진로결정 척도가 된다. 한편,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여부는 향후 대학 진학/취업 결정, 전공 선택, 취업 및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을 기준으로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신희경, 김우영, 2005).

그러나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은 이분법적인 논의를 넘어 연속적인 단일차원 개념, 즉 진로결정 수준 또는 정도의 차이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김봉환, 1997;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이들의 논의에 의하면 진로결정 수준은 청소년들이 향후 자신의 진로에 관해 방향 및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하는 정도로서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된다(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p. 201). 이를 통해 진로결정 수준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진로 관련 정보, 확신, 관심, 불안 정도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Osipow, Carney, Winder, Yanico, & Koschier, 1980;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이를 토대로 최근 진로결정 관련 연구들은 진로를 결정한 집단과 결정하지 못한 집단 내에서도 각기 진로결정 수준에 따라 다른 형태의 청소년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신희경, 김우영, 2005). 예컨대, 허자영(1996)은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진로미결정 집단을 세분화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집단, 진로에 무관심한 집단, 그리고 불안정한 집단으로 구분한 바 있다. Gati와 Saka(2001) 역시 진로결정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을 '단순 진로미결정 집단'과 '만성적인 무결정 집단'으로 범주화 한 바 있다. 여기에서 '단순 진로미결정 집단'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과정상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한편, '만성적인 무결정 집단'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로 구분된다. '만성적인 무결정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로서, 향후 진로 탐색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내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Gati, & Saka, 2001). 이처럼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여부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때 진로미결정 청소년들은 집단별 특성에 따른 분류가 가능해지며, 각 청소년 집단에게 요구되는 개별적 정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2)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 진로발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신희경, 김우영, 2005). 우선, 소규모 실험설계에 기초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부족, 높은 진로장벽 인식, 헌신공포(fear of commitment)와 같은 청소년들 개인의 심리·태도 요인에 주목해 왔다(Leong, & Chervinko, 1996). 실제로 Bandura(1977)는 진로미결정은 낮은 자아효능감에서 비롯되며,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일 수록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신희경, 김우영, 2005; 재인용). 국내 실증 연구들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동기부족,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부족과 같은 진로장벽 인식은 청소년들의 진로포부수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진로준비도를 저하시켜 청소년들을 진로결정유예 또는 진로미결정 상태로 이행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한귀녀, 유순화, 송현아, 2009;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송병국, 전주연, 2006).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 외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대표성을 갖는 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한 김경식과 이현철(2007)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일 수록 향후 진로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홍향연, 유태명, 2008; 진성미, 2011; 양남희, 홍은실, 2011).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신희경과 김우영(2005) 연구에서도 부모 학력은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연구들에서 모 학력은 부 학력에 비해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고 3학년 재학 당시 미래 직업결정 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기영락, 임성택, 2010).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가정 내 문화·사회 자본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사회적지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매개 변인으로 또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미, 권유정, 2015;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가정 내 문화의 영향력을 탐구해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부모와 자녀 간 신뢰관계가 돈독히 형성된 가정의 청소년들은 고졸 후 진로모색과 진로준비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김충기, 천귀순, 2003) . 특히 부모의 높은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높여 청소년들이 진로설정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유예하기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을 통해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이재희, 이지민, 2012).

청소년의 학업능력 역시 진로의식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진

성미, 2011; 김경식, 이현철, 2007; 송병국, 전주연, 2006). 종단 데이터를 활용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들이 보이는 진로성숙도 증가량은 사회경제적 배경 및 부모와의 관계 변인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학업성적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유미, 권유정, 2015). 특히 학업수준(상, 중, 하)이 높은 청소년들일 수록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진로장벽 의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병국, 전주연,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에서 언급된 요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1)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의 특성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민자 가정 청소년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직업포부 수준 또는 진로성숙도는 인종과 다문화 이력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Rojewski, 1994). 특히 히스패닉과 아시아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Mau, & Bikos, 2000; Rojewski, 1994).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경우 백인 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는 한편 진로결정 상황에서 높은 부모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Leong, 1991). 구체적으로 중국계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Ma와 Yeh(2010)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 실력과 학업능력을 보이는 중국계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진로발달 수준이 떨어지고 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보다는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지지와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계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진로발달 수준과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Ma, & Yeh, 2010).

히스패닉 가정의 청소년들 역시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진로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흑인 청소년들에 비해서도 낮은 진로발달 수준을 보이는데, 이들의 경우 진로장벽 인식이 높을 뿐 아니라 진로장벽을 극복 할 수 없을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Ojeda, & Flores, 2008). 이에 대해 Ojeda와 Flores(2008)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자아정체성을 히스패닉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로장벽 인식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Ojeda, & Flores, 2008; Lent, Brown, & Hackett., 2000). 또한, McWhirter와 그의 동료들(2007)은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히스패닉 부모의 경우 자녀들의 진로포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cWhirter, Torres, Salgado, & Valdez, 2007).

국내 연구들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역시 모호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장임숙, 김희재, 2013).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업·직업탐색과 진로계획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남부현, 최충옥, 2012). 구체적으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초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살펴본 김효영(2011)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은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진로선택의 합리성과 같은 모든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에서 일반 가정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전남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가정의 학생들에 전반적인 진로인식을 비롯한 자기이해, 직업세계인식, 진로태도와 같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조봉환, 2011). 그 중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직 영역에 속하는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영은, 정철영, 이건남, 2012).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경, 류재윤, 방흥복, 2012).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떨어지는 반면, 진로장벽 인식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지민, 오인수, 2013).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취약한 환경이 진로 목표 형성 및 동기부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선혜연, 2015).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일반 가정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조붕환, 2011; 김효영, 2011).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소규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다문화청소년 인구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은 채 연구들의 경우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차이를 과대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chneider et al., 2007).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연구는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수준이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수준 차이를 살펴본 연구 외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 요인 뿐 아닌 이주배경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적지지 등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1) 심리적 요인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Bandura(1977)는 진로미결정은 낮은 자아효능감에서 비롯되며,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청소년일수록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신희경, 김우영, 2005;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 및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민경, 2014; 최윤희, 김순자, 2011; 최윤미, 이문희, 2011).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하위 변인인 미래진로 결정성, 독립성 및 능동적인 진로참여 과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희, 김순자, 2011). 반면, 자아정체성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일 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뿐 아니라 미래 진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김민경, 2014). 실제로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들 중 자기수용성, 독립성, 미래확신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아름, 2013; 김민경,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보다 더 큰 것으로 다양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윤아름, 2013; 김민경, 2014).

(2)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미래 진로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사실은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홍향연, 유태명, 2008; 진성미, 2011; 양남희, 홍은실, 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설정 및 진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Whirter, Torres, Salgado, & Valdez, 2007).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히스패닉 부모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진로목표설정 및 진로준비 행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Ojeda, & Flores, 2008). 특히 부모의 학력 수준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사회적지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매개 요인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McWhirter, Torres, Salgado, & Valdez, 2007). 남부현과 최충옥(2012)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생활형편 수준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가정형편이 ‘상’집단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계획 구체성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남부현과 최충옥(2012)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낮은 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정형편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남부현, 최충옥, 2012).

(3) 가정 구성원의 유대 관계 및 가족 건강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가족 건강성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가족의 문제 해결 수행 능력, 가치 체계 공유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민경, 2014; 김혜민, 2011). 실제로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일 수록 성숙된 진로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족의 기능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태도, 진로성숙도 전 영역에 걸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민경, 2014).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돈독한 청소년들은 진로설정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유예하기보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민, 2011).

(4) 부모와 자녀의 관계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자녀의 진로계획에 관여 하는지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6; 이지민, 오인수, 2013). 이들 연구는 대체로 다문화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주목하며 부모애착,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애착 형성이 진로장벽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지민과 오인수(2013)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부모 애착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중학생들일수록 낮은 진로장벽 인식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애착이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애착 정도에 비해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인식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외국인 출신 어머니의 언어능력 부족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6).

(5) 사회적 지지

유의미한 타자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역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소영, 2013; 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소영(201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지지는 물론 교사와 동료의 사회적지지 역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장벽 인식을 낮추는 동시에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 행동을 향상 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유소영, 2013; 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김혜민, 2011). 특히 유소영 (2013)과 윤아름(2013) 연구에 의하면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가족건강성의 영향력 보다 두 배 가까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부모와 교사 또는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유의미한 타자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윤아름, 2013).

(6) 학업능력 및 학업흥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능력, 학업흥미, 한국어 능력 같은 요인들 역시 진로발달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부현, 최충옥, 2012; 조붕환, 2011). 학업능력 수준을 상, 중, 하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다문화 가장 학생들의 진로의식 수준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학업능력이 우수한 집단의 학생일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남부현, 최충옥, 2012). 특히 학업능력이 '상'집단에 속하며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사회관계 인식 과, 진로계획 과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부현, 최충옥,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조붕환(2011) 역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흥미도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국어 및 다른 예체능 관련 교과에 대한 학업흥미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흥미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 가정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더 낮은 진로발달수준을 보이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인지 가정의 경제적 계층 등의 변인에 의한 것인지 특정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다문화 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살펴본 연구들의 경우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들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닌 특정 지역에 기초한 소규모 자료를 사용하였고, 청소년들의 학업능력 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요인과 같은 관련 변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은 채 분석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차이를 과대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chneider et al., 2007).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횡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은 생애발달론적 관점에서 고찰 될 필요가 있다는 진로발달 관련 이론들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시계열적 관점에서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종단 자료를 활용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효과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Ⅲ 장

패널조사 및 패널관리

1. 패널조사의 개요
2. 표본설계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4. 조사방법
5. 패널관리

제 III 장
패널조사 및 패널관리[4)]

1. 패널조사의 개요

2016년도 다문화 종단 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참여해온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님, 그리고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6년 간 다문화가정 패널조사를 담당해 온 전문 조사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들과 부모를 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사의 경우 조사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조사는 CAPI 시스템을 활용하여 노트북으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담당서버에 자동 기록된다. 설문지는 외국인 부모들을 고려해 약 9개의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설문지 수정에 따른 추가 번역 작업 역시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도 다문화청소년 종단 조사는 예년에 비해 약 한 달 먼저 착수하여 약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 표본설계

1) 조사설계

다문화가정 청소년 종단 조사의 모집단은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어머니)이다(양계민 외, 2014, p.32). 교육부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표집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 가구는 소수에 불과한 데 반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는 패널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4) 3장은 윤민종과 최홍일이 집필함

표집 구성은 다문화가정의 부모 중 한쪽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로 이루어져 있다.

표 Ⅲ-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 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① 목표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② 조사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 ③ 표본추출틀 ·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족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리스트 · 2011년 4월 기준, 각 지방 교육청의 학교 리스트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1,625가구(2011년도 패널 구축 당시)/1,322가구(2016년 10월 기준)
표본추출방식 (층화,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 16개 시/도 ② 표본 추출단위(2011년 당시) · 1차(psu) : 학교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가족 4학년 학생 전수 ③ 표본추출 : 확률비례추출
표본배정방식	– 비례배분법

단계	연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1단계	2010년 (예비)	○						
	2011년 (1차)	wave1						
	2012년 (2차)		wave2					
2단계	2013년 (3차)			wave3				
	2014년 (4차)				wave4			
	2015년 (5차)					wave5		
	2016년 (6차)						wave6	
	2017년 (7차)							wave7

【그림 Ⅲ-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모형 (출처: 양계민, 박주희, 2013, p.38)

이 연구의 공식적인 패널조사명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통계청 승인번호 40203호) 이다. 패널조사의 모집단은 2011년 당시 국내 거주하며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다. 표본 추출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 리스트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연구진은 전국 지역을 고려해 약 1,000개의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전수를 대상으로 기본 패널을 구축하였다. 2011년도 기초 자료에 의하면 평균 약 1.8명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최종 조사대상 규모는 전국 1,000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00명이 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기본 표집 틀로 활용한 이유는 전국 단위 표집 틀을 구축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부모출신별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1) 2016년도 설문지 구성 절차

2016년 조사에서는 기존 문항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문 문항을 수정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기존의 청소년 진로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 진로계획, 진로장벽 등 청소년들의 진로의식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수준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 설문 문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진로 관련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5)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학교를 표집한 후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을 층화표집 방법은 모집단 추정을 위한 좋은 대안이다.

(2)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도해 온 현장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의 설문문항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또 패널 조사가 거듭될수록 다소 반복적이거나 더 이상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에게 다소 예민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일부 삭제·수정하였다.

(3) 학계전문가 자문회의

다문화청소년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인 학계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학계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설문 문항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청소년 진로발달과 관련된 문항들의 이론적·방법론적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4) 조사 참여자 및 조사원 대상 FGI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부모, 조사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기존 설문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FGI의 주된 목적은 학부모와 청소년이 느끼기에 불필요하거나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문항들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또 조사원들과의 FGI를 통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해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5) 연구진 검토회의

원내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각종 자문회의 및 문헌연구를 통해 거론된 설문 문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조사담당연구팀과 협의를 통해 기존 문항들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정 작업을 비롯해 논리적 연결성과 설문 로직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6) 기초분석

지난 5년 동안 축적된 패널 자료를 토대로 일부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관되게 로딩 값이 낮은 변인들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7) 최종 문항 선정

원내 연구진들의 기초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학부모, 조사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의 설문문항들 수정·보완하였다. 아울러, 2016년도 다문화 종단 조사 연구 주제인 청소년 진로발달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선정하고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8) 통계작성변경 승인

2016년도에 수정된 설문지에 대한 통계청 승인을 받기 위해 2016년 3월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진행하여 2016년 4월 5일자 기준 통계청 변경승인을 통보받았다.

2) 2016년도 설문구성 및 내용

(1) 청소년용 설문지

2016년도 패널조사에서 활용한 청소년용 설문문항 및 구성내용은 다음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의 영역, 내용 그리고 설문지상에서 해당 문항의 번호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2 청소년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영역		내용	해당문항	비고(역문항)
다문화 특성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1번	
		·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2번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3번	
		·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4번	
		· 사용가능한 외국어	5번, 5-1번	
		·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6번	
	이중 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7번	
		· 외국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8번, 8-1번	
		· 외국출신부모 가족의 한국방문경험여부	9번	
		· 외국출신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10번	
		· 문화적응 스트레스	22번	22-(10)번
		· 국가정체성	23번	
		· 이중문화수용태도	24번	
		· 다문화수용성	46번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경험: 지원의 중복 여부, 지원내용, 지원의 적정성, 특별지원의 필요성 특별지원 방식	47번, 47-1번, 47-2번 48번, 48-1번	
		· 다문화가족 공개 여부	39번~39-5번	
		· 선호하는 지원방식	49번	
		· 향후 지원요구내용	50번	
개인 특성	신체	· 건강상태	13번	13번
		· 신체만족도	21번	20-(3)번, 20-(6)번
	사회·정서 ·행동	· 자아존중감	20번	
		· 삶의 만족도	41번	
		· 우울	44번	
		· 사회적 위축	45번	
		· 비행경험	57번	
		· 학업중단 위험요인	58번	
	인지	· 학교성적	31번	
		· 성취동기	15번	

영역		내용	해당문항	비고(역문항)
		· 성적에 대한 만족도	32번	31번
		· 중학교 졸업 후 계획	17번	
		· 장래 희망 직업	18번	
		·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19번	
		· 희망 학력수준	16번, 16-1번, 16-2번	
	진로	· 진로의식	51번	51-(2)번, (4)~(6)번, (9)번, (10)번
		· 진로의논	52번	
		· 학생의 현재 상태	53번	
		· 부모님에 대한 질문	54번	
환경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 가족의 지지	26번	
		· 부모에 대한 생각	28번~30-1번	
		· 부모의 양육태도	42번	42-(4)~(8)번
		· 부모의 교육적 지원 · 기대	27번	
	친구	· 친한 친구 수	11번	
		· 친구의 지지	34번	
		· 교우관계(적응)	38번	38-(4)번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25번	
		· 비행친구와의 접촉	59번	
	학교 생활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12번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14번	
		· 학습활동(적응)	37번	37-(5)번
		· 교사의 지지	33번	
		· 교사와의 관계(적응)	40번	
		·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35번, 35-1번	
	방과 후 활동	· 방과후 학습활동, 예체능 활동	55번, 56번	
	지역사회 지지망	·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36번, 36-1번	
		·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43번	43-(3)번

※ 문항에 대한 출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Ⅱ (양계민 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4, p.36)」를 참조하기 바람.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문지와 기존 년도 대비 수정사항은 다음 <표 Ⅲ-3>에서 제시하였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를 표시하였으며 새롭게 변경된 설문지 문항의 내용과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 2016년도 청소년용 설문지 변경사항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표지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에서 기입합니다.	표지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80-570-3580(수신자부담)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에서 기입합니다.	문의사항 안내처 추가	변경
문5	한국어 실력	-	-	대부분이 현재 한국에서 중학교 과정의 정규교육을 받고 있고, 한국 거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 실력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삭제
문 12	친한 친구 수	문 11	_____명 ※ 친한 친구란 한국에 있는 친구 중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친한 친구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부가 설명 추가	변경
문 13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문13.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을 세 가지만 답해주세요.	문 12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문12.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을 세 가지만 답해주세요.	워딩을 보다 자연스럽게 수정	변경
문 15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문15.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문 14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문14.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워딩을 보다 자연스럽게 수정	변경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	–	문 16 / 문 16-1 문 16-2	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희망 교육수준에 대해 학부모 문항과 동일하게 질문	신규
–	–	문 17	학생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의 진학 계획을 질문	신규
–	–	문 19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이 나중에 갖고 싶은 직업 응답 문항 추가 (주관식 응답)	신규
문 18	희망 교육수준	–	–		삭제
문 32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6개 항목)	문 33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3개 항목)	응답자의 응답 부담,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 항목 축소	변경
문 33	친구들과의 관계 (7개 항목)	문 34	친구들과의 관계 (3개 항목)	응답자의 응답 부담,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 항목 축소	변경
문 39	자신에 대한 생각	–	–		삭제
문 46-2	동일한 지원 중복 여부	–	–		삭제
문 46-3/ 문 46-4	중복 지원된 내용 및 중복 참여한 내용	–	–		삭제
문 47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의 필요 여부 문47. 다문화가족 자녀를 일반가정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 48	다문화가족 자녀를 다문화가족이 아닌 가정의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48. 다문화가족 자녀를 다문화가족이 아닌 가정의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이 아닌 가정의 자녀로 워딩 수정	변경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 49/ 문 49-1	다문화가족 자녀 공개 여부 문49. 학교 친구들은 내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 39/ 문 39-1	다문화가족 자녀 공개 여부 문39. 학교 친구들은 학생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학생이로 워딩 수정	변경
-	-	문 53	진로장벽인식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현재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문항 추가	신규
-	-	문 54	부모 진로관련 행동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의 현재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문항 추가	신규
문 54	평소 생활 및 태도 5. 부모와 자주 싸운다 8. 내 친구 중 학교가지 말고 놀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	문 58	평소 생활 및 태도 5. 부모님과 자주 싸운다 8. 내 친구 중 학교에 가지 말고 놀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	워딩을 보다 자연스럽게 수정	변경
문 55	과외 활동 시간 (공부 관련 학습 활동) 6. 방과후학교	문 55	과외 활동 시간 (공부 관련 학습 활동) 6. 방과후학교(예체능 제외)	응답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가 설명 추가	변경
-	-	문 A	모바일 메신저 ID	연락두절 시 보조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ID 수집 문항 추가	신규

2016년도 패널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신규 문항을 포함시켰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은 다음 <표 Ⅲ-4>에 제시되고 있다.

표 Ⅲ-4 2016년도 청소년용 설문지 신규문항

번호	내용	출처	
문16	희망 교육수준 - 원하는 학력 수준	원래 문항에서 대학원 추가	
문16-1	희망 교육수준 - 대학교 이상 원하는 학력 수준	연구진 작성. 어머니 설문의 내용	
문16-2	희망 교육수준 - 대학원 이상 원하는 학력 수준	연구진 작성. 어머니 설문의 내용	

번호	내용	출처	
문17	학생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연구진 작성	
문19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연구진 작성	
문53	진로장벽인식	이은설(2005),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에서 요인별로 3개 문항씩 선정	
문54	부모 진로관련 행동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2013)	

(2) 보호자(어머니)용 설문지

어머니용 설문문항 및 구성내용은 <표 III-5>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용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로 표시하였다.

표 III-5 어머니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영 역		내용	해당문항	비고 (역문항)
배경변인	공통	· 모국어, 한국 거주기간	1번, 2번	
	개인배경	·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46번	
		· 배우자와 자녀관계	48번	
		· 초혼여부	47번	
		· 한국어 사용(한국어 수준)	3번	
개인 및 환경 특성	어머니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20번	20-(3),(5),(8),(9) 번
		· 전반적 건강	22번	
		· 심리적 · 신체적 건강	23번	
		· 일상생활 스트레스	21번	
		· 문화적응스트레스	37번	
		· 한국 내 문화적응 상태	24번~32번	
		· 개인주의 · 집단주의 가치	39번	
		· 문화적응 유형	38번	
	가족특성	· 월 평균 소득수준	49번	
		· 주요 소득원	49-1번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	49-2번	

영 역		내용	해당문항	비고 (역문항)
	학교교육 관련특성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4번~ 4-2번	
		·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5번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6번	
		·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7번	
		· 자녀의 장래 직업의 종류에 대한 기대	8번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9번	
		·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나 생각	10번	
		·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11번	
		· 자녀의 진로지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내용	17번	
	학교관련 특성	· 자녀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12번	
		·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13번, 13-1번	
		·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장소 선호도	14번	
		· 학교에서의 대우	15번	
		·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18번, 18-1번	
	방과후교육 관련 특성	· 방과후교육 경험, 교육비, 경험한 이유 · 경험하지 않은 이유	44번~ 44-2번, 45번	
		· 방과후 교육의 부담 정도	44-3번	
	양육관련 특성	·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33번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34번	
		· 자녀가 배우기 바라는 언어	35번, 36번	
		· 부모효능감	19번	19-(8)번
		· 자녀지도의 어려움	16번	
다문화적 특성	다문화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경험,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내용, 지원에 대한 태도, 지원의 적정성, 특별지원의 필요성, 특별지원 방식	40번 ~43번	

※ 문항에 대한 출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Ⅱ (양계민 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4, p.59)」를 참조하기 바람.

어머니용 설문지 역시 전반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어머니의 설문 내용 중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문화적으로 예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반면, 자녀의 진로계획 및 진로지원 활동을 비롯한 진로 지원방식과 관련된 문항들은 새롭게 추가하여 2016년도 연구 주제에 맞춰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자녀의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부모의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용 설문지에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문문항과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6 2016년도 외국인 어머니용 설문문항 변경사항※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표지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에서 기입합니다.	표지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80-570-3580 (수신자부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에서 기입합니다.	문의사항 안내처 추가	변경
문3/ 문3-1	한국어 공부 장소(기관)	-	-		삭제
문9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 종류 문9. 귀하는 자녀가 나중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기 원하십니까?	문8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 종류 문8. 귀하는 자녀가 나중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워딩을 보다 자연스럽게 수정	변경
-	-	문9	자녀가 나중에 갖기를 원하는 직업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 응답 문항 추가(주관식 응답)	신규
-	-	문10	자녀 진로관련 행동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추가	신규
문13	자녀의 무료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문13.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한국어나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문14	자녀의 무료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문13.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 했을 때, 한국어나 워딩은 부적절하므로 삭제	변경
-	-	문17	자녀의 진로 지도 관련 도움이 필요한 내용	자녀의 진로 지도 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 추가	신규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35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느낌1(28개 항목)	문38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느낌1(12개 항목)	응답자의 응답 부담,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 항목 축소	변경
문36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느낌2(32개 항목)	문39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느낌1(12개 항목)		변경
문 37-2	동일한 지원 중복 여부	–	–		삭제
문 37-3 /문 37-4	중복 지원된 내용 및 중복 참여한 내용	–	–		삭제
문46	자녀들의 아버지 동일 여부	–	–		삭제
문F	학생이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 문F. 귀하의 자녀(설문에 응답하는 자녀)가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중/주말)_____시부터 _____시까지	문F	문F. 설문조사를 위해 귀하의 자녀(설문에 응답하는 자녀)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중/주말)_____시부터 _____시까지	자료 활용성을 감안하여 질문 워딩 및 응답 방식 수정 (응답 방식은 문A, 문C와 통일)	변경
–	–	문G	모바일 메신저 ID	연락 두절 시 보조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ID 수집 문항 추가	신규

※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문항 배열상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변경내용은 외국인 어머니용 설문문항의 내용과 동일함.

표 Ⅲ-7 2016년도 어머니용 설문지 신규문항

번호	내용	출처	
문9	자녀가 나중에 갖기를 원하는 직업	연구진 작성	
문10	자녀의 진로 관련 행동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2013)	
문17	자녀의 진로 지도 관련 도움이 필요한 내용	연구진 작성	

(3) 교사용 설문지

2016년 교사 설문은 다문화청소년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교사용 설문지는 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지원에 대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었다. 이 외에도 설문문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 수정 및 편집 양식을 소폭 수정하였다. 교사용 설문문항 및 구성내용은 다음 <표 III-8>에 제시되어 있다. 2016년도 구체적인 교사용 설문지 수정내용은 <표 III-9>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Ⅲ-8 교사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영 역	내용	해당문항
배경변인	· 성별	1번
	· 생년	2번
	· 교직경력	3번
	· 현재 다문화담당 교사 담당여부	7번
	· 현재 다문화가족 학생을 맡고 있는지 여부	4번, 4-1번
	· 과거 다문화담당교사 여부 및 학생 수	5번, 5-1번
학교정책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 수	6번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유무 및 종류	10번, 10-1번
	· 재직 중인 학교가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14번
	·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 개발 및 발달을 위한 사업 인지여부 및 효과성	9번
학교환경	· 재직 학교의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수용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부 및 효과성	15번, 15-1번
	· 다문화가정 출신이 아닌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능력	16번
	· 재직학교의 다문화가족 학부모 모임 정도	17번
	· 재직학교의 다문화가족 학부모와 자녀상담 여부	18번
교사특성	· 다문화관련 교사 직무연수 경험 및 도움정도	23번 ~ 23-2번
	· 다문화교육관련 연수의 필요성	24번, 25번
	·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 시 평소 생각	26번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평소 생각	27번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인식도, 지원별 필요성 순위, 진행에 있어서 장애요소)	8번, 12번, 13번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내용의 효과성에 대한 지각	11번
	·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의 필요성(*)	19번
	·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의 방식	19-1번
	· 진로지원에 대한 다문화와 다문화가 아닌 학생 간의 차이에 대한 생각	20번
	· 국가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방식	21번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운영 기관	22번

※ 문항에 대한 출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Ⅲ(양계민 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p.66)」를 참조하기 바람.

표 Ⅲ-9 2016년도 교사용 설문문항 변경사항※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표지	■응답자 성명/연령	표지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령 문항 삭제 – 문2에서 출생연도를 질문함	변경
표지	■다문화 시범사업 운영 현황 (2012~2015)	표지	■다문화 시범사업 운영 현황(2016)	2016년 기준 하나만 응답하도록 수정	변경
문5	다문화담당 교사 경력	–	–		삭제
–	–	문5/ 문5-1	과거 다문화가정 학생 담임교사 경험 여부 및 학생 수	과거에도 다문화가정 학생 담임을 맡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 추가	신규
문6	다문화가정 ·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인지 정도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이다 4. 어느정도 알고 있다 5. 잘 알고 있다	문8	다문화가정 ·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인지 정도 1. 전혀 알지 못한다 2. 알지 못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알고 있는 편이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	척도 수정 ▸ 보다 적절한 워딩으로 수정 (등간격 고려)	변경
–	–	문9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 개발 및 발달을 위한 사업 인지여부 및 효과성		신규
문7/ 문7-1	재직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효과성(12항목)	문10/ 문10-1	재직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12항목)	효과성을 묻는 문항을 분리함 ▸ 재직 학교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효과성을 묻는 것으로 수정함	변경
–	–	문11	다문화가정 · 학생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11항목)		변경
문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장애요인 문9. 다문화가정 학생을	문1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장애요인 ▸ 질문 워딩 수정 문13. 다문화가정 학생을	질문 워딩 수정 ▸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프로그램에	변경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기 항목 추가 8.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움	대해 묻도록 수정 보기 항목 추가 ▸ 예상되는 어려운 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문10	재직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여부	문14	재직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여부 ▸ 설명문 추가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단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학교차원에서 다문화학생 지원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체적인 계획 수립 에 대한 설명문 추가	변경
문11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타부서 및 교사 간 협조 정도	–	–		삭제
문12/ 문12-1	최근 1년간 전체학생 대상 다문화수용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부 및 원활 정도 *문12-1 보기 1.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문15/ 문15-1	최근 1년간 전체학생 대상 다문화수용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부 및 효과성 *문15-1 보기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2. 효과적이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효과적인 편이다 5. 매우 효과적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정도 ’ ▸ 효과성 으로 보기 항목 변경	변경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5.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13	비(非)다문화가정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능력정도	문16	다문화가정 출신이 아닌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의 능력 ▸ 보기 항목 삭제 및 추가 기존 7. 한국 문화의 이해능력 신규 7. 진로탐색 및 준비도	보기 항목 변경	변경
문14	다문화가정 학생 경제수준	–	–		삭제
–	–	문19-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특별지원 방식		신규
–	–	문2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별도 구성 필요 여부		신규
–	–	문22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		신규
–	–	문23-2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의 다문화학생 이해 도움정도		신규
문22	평소 이주민 관련 생각 및 행동	–	–		삭제
–	–	문26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 시 평소 생각		신규
–	–	문27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평소 생각		신규

2016년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진로교육 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다문화 정책 사업 인지 여부와 효과성, 진로지원에 대한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과의 차이, 국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식과 같은 내용들이 2016년도 조사에 추가되었다.

표 Ⅲ-10 2016년도 교사용 설문지 신규문항

번호	내용	출처
문22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	연구진 작성
문23-2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의 다문화학생 이해 도움정도	연구진 작성
문26	교사 다문화효능감	최충옥, 모경환(2007)
문27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교사태도	조영달, 박윤경, 이정우, 이경수 (2007)

(4)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

다문화 종단조사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중단률은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급학교로 진학 할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실태를 파악하고 학업 중단 예측 요인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 패널조사부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업중단 설문내용은 일반 다문화청소년용 설문지와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교 관련 설문 문항은 제외하였다. 아래 <표 III-11>은 학업중단 청소년용 설문지에만 포함된 고유 설문 내용과 출처를 정리하였다.

표 Ⅲ-11 학업중단청소년용 설문지에만 해당되는 문항

변인	출처
학업중단 시점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유	금명자 외(2004), 남미애(2006), 윤철경 외(2013), 윤여각 외(2002), 최영애(2005)
학업중단 당시의 계획	최영애(2005)
학업중단 시 부모 태도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시 담임교사 태도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시 상담경험	윤철경 외(2013)
학교 및 학교생활: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습부적응(수 업참여)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위험 요인	이자영 외 (2010)

변인	출처
학업중단 이후 경험	윤철경 외(2013), 남미애(2006), 윤여각 외(2002), 최영애(2005)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및 취업 실태(주당, 일일 업무 시간)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시 가장 어려운 점	남미애(2006)
학업중단 이후 겪는 어려움	최영애(2005), 오현애(2002)
중단 이후 성인 멘토(만난 어른 유무, 만난 시설)	윤철경 외(2013)
진로 의논상대	최영애(2005)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 받고 싶은 상대	최영애(2005)
향후 진로 계획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및 서비스	최영애(2005), 오현애(2002)

※ 출처 : 양계민 외(2014). 재인용.

(4)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부모 설문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부모 설문문항 역시 일반 학부모 청소년 설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부모 설문지에서도 학교교육 및 학교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구체적인 항목은 '자녀의 학교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 '자녀의 학교문제는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자녀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와 관련된 문항들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부모용 설문 내용과 관련 출처는 <표 Ⅲ-1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Ⅲ-12 학업중단청소년의 어머니용 설문지에만 해당되는 내용

변인	출처
자녀 학업 중단 이유	금명자 외(2004), 남미애(2006), 윤철경 외(2013), 윤여각 외(2002), 최영애(2005)
자녀 학업중단 시 도움	홍봉선 · 남미애(1988)
자녀 학업중단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	홍봉선 · 남미애(1988)
중퇴이후 자녀문제에 대한 노력유형	홍봉선 · 남미애(1988)
향후 진로계획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및 서비스	최영애(2005), 오현애(2002)

※ 출처 : 양계민 외(2014). 재인용.

4. 조사방법

2016년도 패널조사는 조사지원팀의 전문 조사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사 설문의 경우 조사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진행은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CAPI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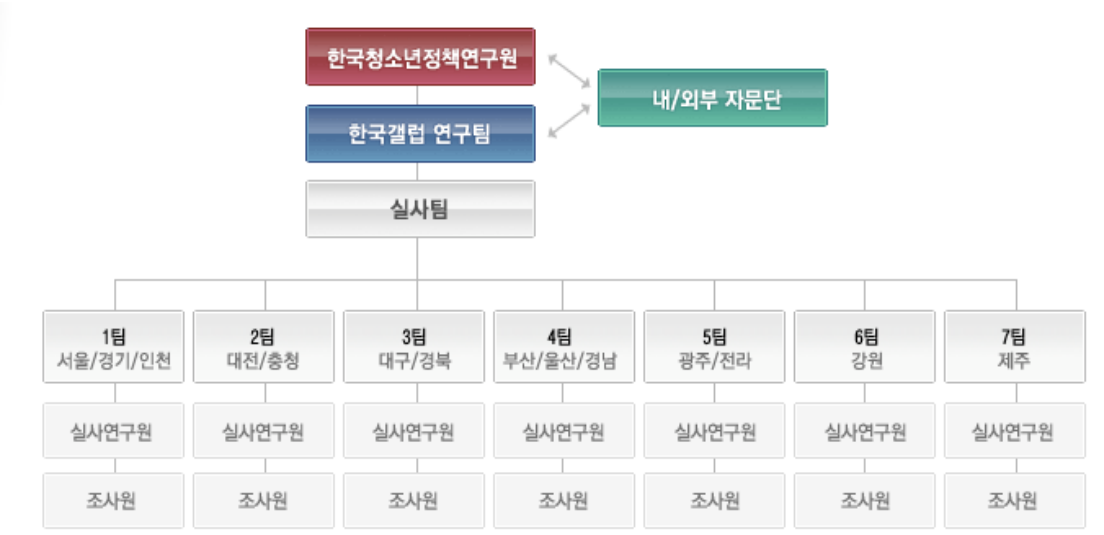
5. 패널관리

1) 패널관리 개요

패널조사가 진행될수록 표본의 이탈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패널 관리가 요구된다. 실제로 매년 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응답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사와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표본 이탈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조사인 만큼 이들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패널 관리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표본 이탈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패널관리 계획과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2) 패널관리 체계

패널관리 업무는 전담 연구팀과 실사팀을 구성하여 운영 하였다. 패널 관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전담 조사원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조사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조사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Ⅲ-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관리 체계 (양계민 외, 2014; p.81)

3) 패널 관리 사항

(1) 패널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

① 기본 실사 원칙 준수

다문화청소년 패널은 면대면 실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조사원들에게 조사 시 실사조사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실사에 참여하기 전 모든 조사원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원칙들을 강조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패널관리 필요성 인식, 신뢰감 부여, 올바른 태도 및 기초 소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교육 참석과 조사 지침서 숙지를 통해 조사/패널관리의 필요성 확보와 함께 패널에게 신뢰감 부여
- 패널 가구의 비밀·정보 누설 금지
- 패널과 면담 시 정중한 태도 유지, 불필요한 언쟁 금지
- 강력 응답 거부자의 경우에는 실사팀 및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진행
- 단정한 복장과 조사원증 소지
- 응답자와의 방문 일시 및 시간 약속은 반드시 준수

② 조사원 운용

본 연구는 효율적인 패널관리를 위해 연구 초기부터 조사에 참여해 온 전문 조사원들이 매년 동일한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동일한 조사원과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원과의 긴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패널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응답자들의 이탈율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담당 조사원이 변경된 사례는 극히 (3명 이하) 일부이지만 조사원의 교체가 불가피 했던 경우 담당 조사원이 패널 가구에 충분한 양해를 구한 후 신규 조사원을 배정하였다. 신규 조사원은 가구별 특이 사항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조사원 재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패널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담당 가구 수를 적절하게 배정하고 있다. 담당 가구 수 조절을 통해 조사원 개인의 업무량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효과적인 조사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조사원이 평상시에도 패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6년도 기준 조사원 1인당 평균 담당 가구 수는 아래 <표 Ⅲ-13>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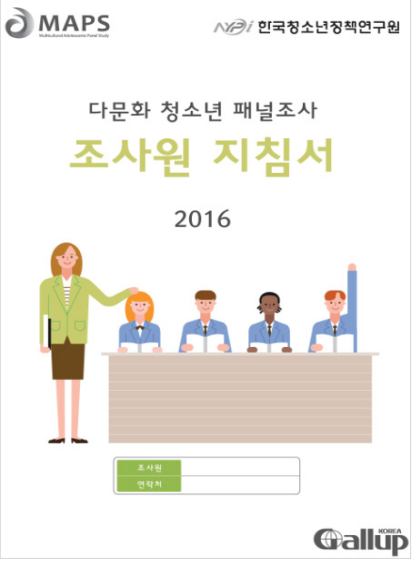
표 Ⅲ-13 조사원 1인당 평균 담당 가구 수

실사지점	가구수	조사원 수	조사원 1인당 평균 담당가구 수
서울지점(서울/경기/인천)	482	16	30.1
부산지점(부산/울산/경남)	177	13	13.6
대구지점(대구/경북)	125	12	10.4
광주지점(광주/전북/전남)	270	13	20.8
대전지점(대전/충북/충남)	177	9	19.7
강원지점(강원)	81	6	13.5
제주지점(제주)	10	2	5.0
합계	1,322	71	18.6

③ 조사원 집체 교육

본 조사는 실사에 앞서 매년 조사원 대상 교육을 집체 진행하고 있다. 올 해도 조사원 교육을 통해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전년 대비 수정된 설문 문항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의 태도와 예절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패널과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조사원들의 패널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원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조사원 지침서에는 패널 관리 방법, 설문지 작성 및 유의사항,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조사준비물, 노트북 및 CAPI 사용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조사원들의 조사진행 과정을 표준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사원 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CAPI 이용 방법, 패널관리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어려웠던 점을 파악하여 동일한 문제 재발 시 대처 방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016년 조사원 교육은 총 7개의 시·도에서 총 71명이 참가하였으며 각 교육은 약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장소	교육 일시	참여자 수	장소
서울	5월 9일(월) 오전 10시	16명	한국갤럽 본사
광주	5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13명	광주 지사
대구	5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12명	대구 지사
부산	5월 11일(수) 오후 15시 30분	13명	부산 지사
대전	5월 12일(목) 오후 13시	9명	대전 지사
강원	5월 13일(금) 오후 14시 30분	6명	강원 리서치
제주	5월 16일(월) 오후 13시 30분	2명	제주 실사

【그림 Ⅲ-3】조사원 지침서 및 교육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조사에 대한 기본 이해	**조사대상자 및 다문화에 대한 기본이해**	**응답 충실성 향상 교육**
▸ 조사의 취지 및 목적 ▸ 조사기간, 조사주기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전 차수 조사 결과 및 주요 이슈	▸ 조사 대상의 정의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 조사 준비물 ▸ 조사원의 기본 자세 ▸ 현장조사 요령 ▸ 패널관리 방안

4단계	5단계	6단계
응답 정확성 향상 교육	**CAPI 이용법**	**전 차수 조사에서 오류 등에 대한 집중 교육 및 토론**
▸ 조사 보조자료 활용 방안 ▸ 조사표 항목에 대한 설명 ▸ 응답값 현장 에디팅 시 유의사항 ▸ 응답 후 보고방법	▸ CAPI 응답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실습	▸ 지난 조사에서 발견된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집중 교육 실시 ▸ 질의 응답을 통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전체 공유 및 일관된 기준 마련

【그림 Ⅲ-4】 조사원 교육 내용

④ 홈페이지 운영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종단 패널 조사를 위한 홈페이지(http://maps.gallup.c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에 대한 홍보는 물론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개요, 연구진 소개, 조사 주관 기관, 실사 기관, 조사결과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과 개선점을 응답자가 직접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홈페이지에 마련하여 응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Ⅲ-5】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⑤ 수신자 부담 전화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패널 가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 (080-570-3580)를 운영하였다. 패널 가구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또 패널가구가 직접 자신의 이사나 연락처 변경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활로를 통한 패널가구와의 의사소통은 패널 가구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차기 조사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⑥ 가구 및 가구원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패널 관리를 위하여 1차 년도 패널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다문화가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특이사항과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실사에 앞서 인포시트를 통해 해당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가구정보

가구 번호	0001	실사 지정	서울	담당 조사원	김현식	조사원 ID	G0001	참여/탈락	참여
주소구분	구 / 신	신주소							
우편번호	426-150	주소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주소2	656-2번지 102호		
주소변경 사유	이사 / 주소 정정 / 기타 (적을것:)								
전화번호	031 419 6252	가구원 수	5	2014년 월 평균 소득 수준	350 만원	2014년 주요 소득원	남편	2014년 가정 형편	보통이다
어머니 성명	진수완 나파본	한국/외국	외국	설문지 언어	태국어	조사대상 자녀 성명	김민아	학생 성별	여성
조사대상 학생수	1명	가구 특이사항							
면접원 조사대상	대상	면접원 조사대상 여부사유							
탈락사유									

2. 조사대상 자녀 학교 정보(초등학교)

학교 코드	411921229	학교명	매화초등학교	학교 주소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08번지

3. 조사대상 자녀 학교 정보(중학교)

진학 상태	중학교 재학 / 중학교 휴학 / 중학교 중퇴 / 진학 안 함 / 해외 학교 진학 / 탈락이라 모름					
학교 코드	311300014	중학교명	상록중학교	중학교 주소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1122번지 초기화

4. 가구정보 변경사유

변경사유	

5. 가구원 기본 정보

가구원 성명	동거여부	응답자와의 관계	응답자와의 관계(기타)	조사 대상 여부	출신 국가(자녀는 국적)
진수완 나파본	동거	나			태국

【그림 Ⅲ-6】 가구 및 가구원 정보 관리시스템 화면



MAPS(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담당 조사원 성명/ID	김현식 / G0001	탈락 여부	참여
기존 담당 조사원/ID		탈락 사유	

1.가구정보

가구번호		어머니 성명/ 학생 성명		한국/외국	외국
현재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기존주소				학교코드	411921229
학교명		우편번호 / 학교주소		기존 학교코드/학교명	

2.가구원 정보

일련번호	성명	어머니 와의 관계	동거 여부	조사 대상	출신 국가 (자녀는 국적)	성별	생년 월일 (+/-)	학력	혼인 상태	직업	연락처	가구원 구분	변동사항
1		본인	동거		태국	여성	1976,07,31 (+)	아프리카(나라별 다름) 졸업	결혼	아프리카(나라별 다름)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2		남편	동거		한국	남성	1965,03,07 (-)	고등학교 졸업		회사원(사무직 포함)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3		나의 자녀	동거	o	한국	여성	2001,02,06 (+)	초등학교 재학		초등학생재학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4		나의 자녀	동거		한국	남성	2006,07,15 (+)	만 5세(미취학아동) 졸업		미취학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5		시어머니	동거		한국	여성	1939,02,28 (+)	초등학교 졸업		무직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6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7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8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9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10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그림 Ⅲ-7】 가구 인포시트

⑦ 관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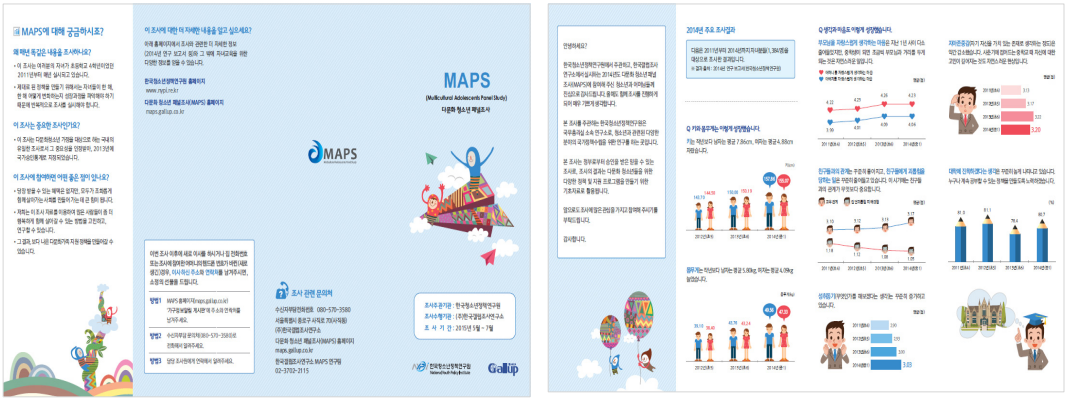
본 조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패널 가구의 변동 내역(소재지, 연락처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관리조사는 패널 가구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가구정보를 파악하여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패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가적인 전화 관리조사는 패널 이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구 및 가구 정보원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차년도 조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원에게 제공하게 된다.

⑧ 연하장 및 명절 선물 제공

관리조사에 참여한 가구 패널에게는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새해(명절) 인사를 담은 연하장과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연하장과 선물 제공은 전년도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새해 조사에도 조사 참여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다.

⑨ 리플렛 제작 및 배부

조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의 목적, 조사의 의의,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리플렛 제작과 배부는 조사 결과를 패널 가구와 공유함으로써 조사 참여에 대한 의의를 되새기는 동시에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리플렛 배부는 가구 정보 변경에 대한 자발적 보고 방법과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리플렛은 총 10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설문조사 과정에서 배포하고 있다.



【그림 Ⅲ-8】 리플릿

⑩ 답례품 제공

조사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2016년도부터 청소년들의 답례품 지급액(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을 두 배 인상하였다. 학부모들에게는 전 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트 상품권(2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⑪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패널 가구의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다양하게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가구원 중 연락이 가능한 추가 가구원의 연락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처럼 가구원과의 연락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연락 두절로 인한 패널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패널 가구에 따라 방문 조사가 용이한 스케줄 및 장소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조사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⑫ 이사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

이사 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우선 전화관리조사 과정에서 패널 가구의 이사

계획과 시기를 파악하고 있다. 이사 계획이 확인된 패널 가구의 경우 이사 시기에 맞춰 추가 전화 조사를 실시해 새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3차 년도 조사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사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는 이사 및 연락 두절로 인한 패널 이탈을 막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⑬ 가구 정보 변동 시 자발적인 통보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연락 두절 사유로 인한 패널 이탈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자신의 연락처 변경 및 가구 변동 사항을 자발적으로 알려주는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패널 가구는 가구 정보에 대한 변경 내용을 가구정보 알림게시판, 수신자 부담 문의처, 담당 조사원, 담당 SV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발적 통보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된 안내는 리플렛 및 조사원들이 직접 안내하고 있다.



【그림 Ⅲ-9】 가구정보 알림 게시판

⑭ 부모 핸드폰에 조사원 연락처 저장 및 연락 전 문자 메시지 발송

조사패널 가구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자 조사원은 전화관리 조사 전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국갤럽’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구 어머니 핸드폰 주소록에 ‘한국갤럽’ 번호 저장을 저장하도록 조사원들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경우 낯선 번호의 연락은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접촉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를 줄이고자 조사원들이 패널가구를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⑮ 이탈 의사를 밝힌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

패널조사의 이탈 의사를 밝힌 가구들에 대해 조사원은 다문화 종단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며 설득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이탈 요청을 요구하는 가구의 경우 연구원이 직접 해당 가구에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을 취해 협조를 재요청하기도 한다. 연락이 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1차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이탈’ 가구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 이탈 가구일지라도 차년도 조사에 재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원의 연락은 지속하여 재참여 의사를 밝힌 가구의 경우 차년도 패널조사에 다시 포함되기도 한다.

⑯ 조사원 동기 부여를 위한 선물 제공

패널 조사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매년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본 조사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조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회식 자리를 마련해 조사원들끼리의 정보와 조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⑰ 조사원 안전을 위한 조사 물품 보완

부모와 자녀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 평일 저녁 시간에 주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심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조사원이 안전하게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있다.

⑱ 조사원 모니터링 진행 및 결과 반영

매년 본 조사 이후 실시되는 전화관리 조사에서는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 모니터링은 해당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 친밀도, 개선의견을 함께 파악하여 패널 가구의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차 년도 조사원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사원들과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16년도의 경우 패널 가구의 조사원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4.73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향후 관리 방안

2017년도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함에 따라 실사 준비를 위한 사전 노력과 패널관리 조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패널조사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추가 패널관리조사 실시

2017년도 다문화 패널 조사 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패널관리조사를 추가적으로(약 2회 실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주소와 연락 변경 사항 확인 뿐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 시기(3월~4월)에 패널관리조사를 1회 추가 조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패널 관리 조사를 통해 진학 고등학교 정보 수집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거주지 변경 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조사 일정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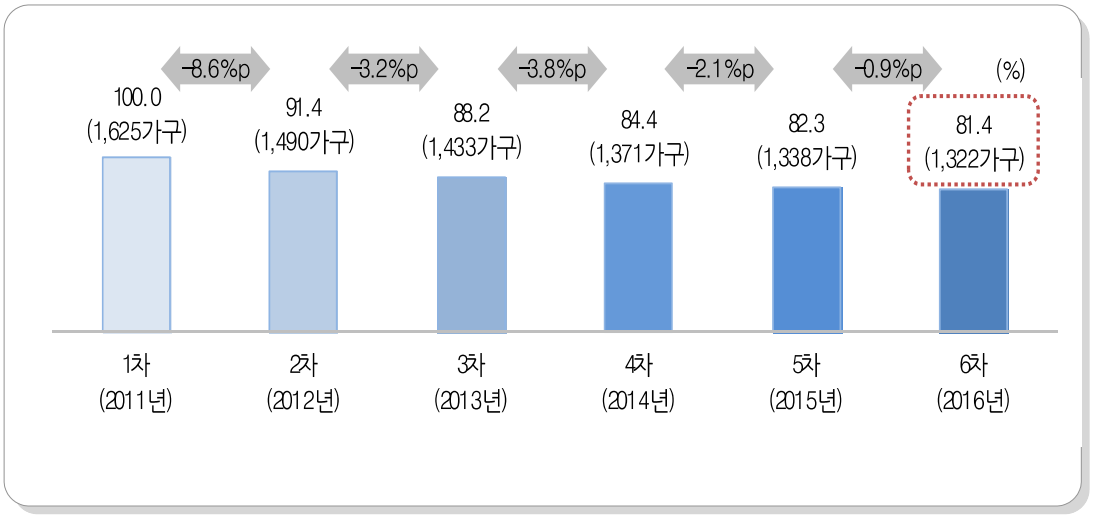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조사 관련 정보 및 일정 안내를 문자 메시지 또는 sns 메시지 발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머니들에게 안부 인사를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조사 착수 일정 관리

2017년도 조사에서는 패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탈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착수 일정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이후 청소년들의 거주지역 이동과 실사 스케줄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패널관리조사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일정 및 개인 스케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개인 일정이 중학교 시기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 발주 및 실사 시작 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실사 일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이탈 패널 분석

패널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 유지 현황 결과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 III-1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지 현황 결과를 보면 2016년 패널 이탈율은 0.9%로 총 1,322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지현황

(1)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

이탈패널 가구 비율 분석 결과 2016년도 기준 전체 패널 이탈율은 18.6%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탈율을 살펴보면 제주(7가구, 46.7%), 광주(16가구, 38.1%), 대전(8가구, 33.3%)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탈패널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6가구, 5.9%)과 전북(9가구, 8.3%)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유지율 (%)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179	42	13.9	23.5	76.5
부산	74	18	5.9	24.3	75.7
대구	42	12	4.0	28.6	71.4
인천	67	17	5.6	25.4	74.6
광주	42	16	5.3	38.1	61.9
대전	24	8	2.6	33.3	66.7
울산	31	6	2.0	19.4	80.6
경기	383	91	30.0	23.8	76.2
강원	90	9	3.0	10.0	90.0
충북	74	15	5.0	20.3	79.7
충남	117	12	4.0	10.3	89.7
전북	108	9	3.0	8.3	91.7
전남	160	16	5.3	10.0	90.0
경북	101	6	2.0	5.9	94.1
경남	118	19	6.3	16.1	83.9
제주	15	7	2.3	46.7	53.3
합계	1,625	303	100.0	18.6	81.4

주1) 구축 패널 가구수는 2011년 조사 기준이므로 2016년 조사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시/도 구분은 2011년 구축 시, 시/도 기준임

(2) 패널 이탈의 원인

2016년도 이탈 가구의 사유를 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이 26.1%로 가장 높았으며 '유학, 이민'(18.2%), '바쁨'(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의 이탈 원인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조사의 특성상 유학과 이민에 따른 패널 이탈 비중이 다른 패널

조사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이탈 패널 사유를 보면 이사추적 실패 가 46.9%로 가장 높았으며, 강력거절 (38.1%), 접촉불가 (12.3%)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 종단 조사에서 밝혀진 패널 이탈 원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Ⅲ-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이탈 사유

구분	이탈 가구수			가구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불능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79	26.1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55	18.2
불응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바쁨	21	6.9
			아빠가 반대함	15	5.0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	14	4.6
			귀찮고 싫음	6	2.0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함	6	2.0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1.0
			의무 아니면 하기 싫음	4	1.3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15	5.0
			도움 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7	2.3
			찾아오는 것 싫음	2	0.7
			다문화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2	0.7
			약속 피하여 방문·설득했으나 강력거절	2	0.7
			지난번에도 학교요청으로 겨우 했다고 함	1	0.3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음	2	0.7
			어머니가 거절하여 아버님께 협조 구했으나 바쁘고 집안 사정 있다며 거절	1	0.3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4	1.3
			강력 거절	10	3.3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개인사정으로 거절	11	3.6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8	2.6
			남편 사망 후 거절	3	1.0
			학생이 하기 싫어함	18	5.9
			학생이 친엄마에게 감(친엄마 조사거절)	1	0.3
			어머니 가출 후 타가구원 거절	6	2.0
			아이들이 시설에 가 있음	2	0.7
			가족 간병으로 바쁨	1	0.3
			학생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체육부, 기숙사, 시설 등)	2	0.7
기타	기타	기타	기타(학생 사망, 친엄마가 한국사람으로, 다시 합가하여 탈락시킴)	2	0.7
–	–	–	–	303	100

(3) 이탈 가구 특성 분석

① 어머니 출신 국가별 이탈율

이탈 가구의 특성을 어머니 출신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 (42.9%), 러시아 (41.2%), 한국(41.2%) 순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경우 표본 가구 수가 많지 않아 적은 이탈 가구 수에 비해 이탈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출신 국가별 이탈율을 보면 중국-조선족(25.7%)과 일본(23.1%) 어머니들의 이탈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6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68	28	9.2	41.2
중국(한족, 기타민족)	125	33	10.9	26.4
중국(조선족)	318	78	25.7	24.5
베트남	42	8	2.6	19.0
필리핀	400	57	18.8	14.3
일본	525	70	23.1	13.3
대만	7	2	0.7	28.6
몽골	8	3	1.0	37.5
태국	56	5	1.7	8.9
캄보디아	3	1	0.3	33.3
우즈베키스탄	12	2	0.7	16.7
러시아	17	7	2.3	41.2
인도네시아	9	2	0.7	22.2
카자흐스탄	7	3	1.0	42.9
말레이시아	2	–	–	–
키르키스스탄	4	–	–	–
기타	22	4	1.3	18.2
합계	1,625	303	100.0	18.6

표 Ⅲ-17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이탈)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44	4	17.4	9.1
중국(한족, 기타민족)	95	3	13.0	3.2
중국(조선족)	243	4	17.4	1.6
베트남	34	–	–	–
필리핀	343	3	13.0	0.9
일본	456	2	8.7	0.4
대만	5	–	–	–
몽골	6	1	4.3	16.7
태국	52	1	4.3	1.9
캄보디아	3	1	4.3	33.3
우즈베키스탄	9	–	–	–
러시아	12	2	8.7	16.7
인도네시아	7	–	–	–
카자흐스탄	4	–	–	–
말레이시아	2	–	–	–
키르키스스탄	3	–	–	–
기타	20	2	8.7	10.0
합계	1,338	23	100.0	1.7

② 월 평균 가구소득별 이탈율

가구의 월 평균 소득 분위별 이탈율을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이탈 가구 비율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이탈율 역시 30%를 보여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소득 집단의 이탈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8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65	21	6.9	32.3
100-200만원 미만	405	79	26.1	19.5
200-300만원 미만	515	94	31.0	18.3
300-400만원 미만	403	63	20.8	15.6
400-500만원 미만	125	18	5.9	14.4
500만 원 이상	90	27	8.9	30.0
모름/무응답	22	1	0.3	4.5
합계	1,625	303	100.0	18.6

주) 2016년 응답 기준임. 단, 2016년 탈락 가구는 2015년 응답 기준, 2015년 탈락 가구는 2014년 응답 기준, 2014년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 2013년 탈락 가구는 2012년 응답 기준, 2012년 탈락 가구는 2011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함

표 Ⅲ-19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 이탈)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46	2	8.7	4.3
100-200만원 미만	327	3	13.0	0.9
200-300만원 미만	429	10	43.5	2.3
300-400만원 미만	343	3	13.0	0.9
400-500만원 미만	109	3	13.0	2.8
500만 원 이상	63	1	4.3	1.6
모름/무응답	21	1	4.3	4.8
합계	1,338	23	100.0	1.7

주) 2016년 응답 기준임. 단, 탈락 가구는 2015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함

③ 가정 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이탈율

2016년도 기준 가정 형편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패널 이탈율을 보면 아주 잘산다 라고 응답한 5 가구 중 2가구가 이탈하여 패널 이탈율이 40%로 나타났다. <표 Ⅲ-20>에

제시된 바와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가구 588 가구 중 15가구(2.6%)가 이탈하여 가장 높은 이탈율을 보였다.

표 Ⅲ-20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본인 지각 가정형편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208	40	13.2	19.2
어려운 편이다	610	92	30.4	15.1
보통이다	730	152	50.2	20.8
잘사는 편이다	54	17	5.6	31.5
아주 잘 산다	5	2	0.7	40.0
모름/무응답	18	–	–	–
합계	1,625	303	100.0	18.6

주) 2016년 응답 기준임. 단, 2016년 탈락 가구는 2015년 응답 기준, 2015년 탈락 가구는 2014년 응답 기준, 2014년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 2013년 탈락 가구는 2012년 응답 기준, 2012년 탈락 가구는 2011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함

표 Ⅲ-21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 이탈)

본인 지각 가정형편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지각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170	3	13.0	1.8
어려운 편이다	522	4	17.4	0.8
보통이다	588	15	65.2	2.6
잘사는 편이다	38	1	4.3	2.6
아주 잘 산다	3	–	–	–
모름/무응답	17	–	–	–
합계	1,338	23	100.0	1.7

주) 2016년 응답 기준임, 단, 탈락 가구는 2015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로 인함.

④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이탈율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패널 이탈율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직업이 없는 가구(135가구, 23.2%)가 그렇지 않은 가구(16.1%)에 비해 이탈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

당해 신규 이탈 비율 역시 어머니 직업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2 어머니 직업 여부 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어머니 직업 여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별 가구수 대비
있다	1,043	168	55.4	16.1
없다	582	135	44.6	23.2
합계	1,625	303	100.0	18.6

주) 2016년 응답 기준임. 단, 2016년 탈락 가구는 2015년 응답 기준, 2015년 탈락 가구는 2014년 응답 기준, 2014년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 2013년 탈락 가구는 2012년 응답 기준, 2012년 탈락 가구는 2011년 응답 기준임

표 Ⅲ-23 어머니 직업 여부 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 이탈)

어머니 직업 여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별 가구수 대비
있다	883	14	60.9	1.6
없다	455	9	39.1	2.0
합계	1,338	23	100.0	1.7

주) 2016년 응답 기준임. 단, 탈락 가구는 2015년 응답 기준임

⑤ 어머니 학력별

어머니 학력 수준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석사과정 이상일수록 패널 이탈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석사과정인 19가구 중 9가구(47.4%)가 이탈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박사과정인 가구 역시 총 6가구 중 2가구(33.3%)가 패널에서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4 어머니 학력 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어머니 학력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 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9	5	1.7	17.2
중학교	132	28	9.2	21.2
고등학교	698	135	44.6	19.3
대학교(4년제 미만)	457	68	22.4	14.9
대학교(4년제 이상)	283	56	18.5	19.8
대학원 석사과정	19	9	3.0	47.4
대학원 박사과정	6	2	0.7	33.3
합계	1,625	303	100.0	18.6

주) 2016년 응답 기준임. 단, 2016년 탈락 가구는 2015년 응답 기준, 2015년 탈락 가구는 2014년 응답 기준, 2014년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 2013년 탈락 가구는 2012년 응답 기준, 2012년 탈락 가구는 2011년 응답 기준임

표 Ⅲ-25 어머니 학력 별 패널 이탈 현황(2016년 당해 신규 이탈)

어머니 학력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 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5	1	4.3	4.0
중학교	106	2	8.7	1.9
고등학교	571	12	52.2	2.1
대학교(4년제 미만)	392	4	17.4	1.0
대학교(4년제 이상)	229	3	13.0	1.3
대학원 석사과정	11	1	4.3	9.1
대학원 박사과정	3	–	–	–
합계	1,338	23	100.0	1.7

주) 2016년 응답 기준임, 단, 탈락 가구는 2015년 응답 기준임

⑥ 조사원별 이탈 가구 분포

조사원에 따른 패널 이탈율이 차이를 보이는지 보여주는 결과가 <표 III-2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별 조사원에 따른 패널 이탈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6 조사원 이탈 현황

실사지점	조사원 id	누적 가구수			당해연도 가구수			유지율(%)	
		담당	유지	이탈	담당	유지	이탈	누적	당해연도
서울	G0001	51	36	15	37	36	1	70.6	97.3
서울	G0003	30	22	8	22	22	–	73.3	100.0
서울	G0006	32	28	4	27	27	–	87.5	100.0
서울	G0007	36	31	5	31	31	–	86.1	100.0
서울	G0008	46	39	7	39	39	–	84.8	100.0
서울	G0010	21	15	6	15	15	–	71.4	100.0
서울	G0011	12	7	5	7	7	–	58.3	100.0
서울	G0012	60	52	8	52	52	–	86.7	100.0
서울	G0013	28	24	4	24	24	–	85.7	100.0
서울	G0014	8	6	2	7	6	1	75.0	85.7
서울	G0015	74	56	18	56	56	–	75.7	100.0
서울	G0016	29	15	14	16	15	1	51.7	93.8
서울	G0019	76	62	14	62	61	1	81.6	98.4
서울	G0020	26	19	7	19	19	–	73.1	100.0
서울	G0021	36	16	20	16	14	2	44.4	87.5
서울	G0023	65	54	11	55	54	1	83.1	98.2
부산	G0026	9	4	5	4	4	–	44.4	100.0
부산	G0027	16	14	2	15	14	1	87.5	93.3
부산	G0029	26	23	3	23	23	–	88.5	100.0
부산	G0033	17	14	3	14	14	–	82.4	100.0
부산	G0035	17	16	1	16	16	–	94.1	100.0
부산	G0036	19	16	3	17	16	1	84.2	94.1
부산	G0037	39	31	8	33	31	2	79.5	93.9
부산	G0040	15	14	1	14	14	–	93.3	100.0
부산	G0041	12	4	8	5	3	2	33.3	60.0
부산	G0044	5	5	–	5	5	–	100.0	100.0
부산	G0045	9	9	–	9	9	–	100.0	100.0
부산	G0046	17	12	5	12	12	–	70.6	100.0
대구	G0049	24	21	3	21	21	–	87.5	100.0
대구	G0050	15	10	5	10	10	–	66.7	100.0
대구	G0051	6	4	2	5	4	1	66.7	80.0
대구	G0052	9	6	3	6	6	–	66.7	100.0
대구	G0053	20	20	–	19	19	–	100.0	100.0
대구	G0054	7	7	–	7	7	–	100.0	100.0
대구	G0055	7	4	3	4	4	–	57.1	100.0

실사지점	조사원 id	누적 가구수			당해연도 가구수			유지율(%)	
		담당	유지	이탈	담당	유지	이탈	누적	당해연도
대구	G0058	6	5	1	6	5	1	83.3	83.3
대구	G0059	6	6	–	6	6	–	100.0	100.0
대구	G0060	10	10	–	10	10	–	100.0	100.0
대구	G0061	22	20	2	20	20	–	90.9	100.0
광주	G0062	35	32	3	33	32	1	91.4	97.0
광주	G0063	26	16	10	16	16	–	61.5	100.0
광주	G0064	17	16	1	16	16	–	94.1	100.0
광주	G0065	15	11	4	11	11	–	73.3	100.0
광주	G0067	32	25	7	26	25	1	78.1	96.2
광주	G0069	26	21	5	21	21	–	80.8	100.0
광주	G0070	23	17	6	19	17	2	73.9	89.5
광주	G0071	32	31	1	31	31	–	96.9	100.0
광주	G0072	20	19	1	20	19	1	95.0	95.0
광주	G0074	20	19	1	19	19	–	95.0	100.0
광주	G0075	23	22	1	22	22	–	95.7	100.0
광주	G0076	24	22	2	22	22	–	91.7	100.0
대전	G0077	22	15	7	15	15	–	68.2	100.0
대전	G0078	27	27	–	27	27	–	100.0	100.0
대전	G0080	21	18	3	19	18	1	85.7	94.7
대전	G0081	18	17	1	17	17	–	94.4	100.0
대전	G0082	24	23	1	23	23	–	95.8	100.0
대전	G0083	28	21	7	21	21	–	75.0	100.0
대전	G0084	26	18	8	18	18	–	69.2	100.0
대전	G0085	23	15	8	15	15	–	65.2	100.0
강원	G0086	21	19	2	20	19	1	90.5	95.0
강원	G0087	7	6	1	6	6	–	85.7	100.0
강원	G0088	8	8	–	8	8	–	100.0	100.0
강원	G0089	22	21	1	21	21	–	95.5	100.0
강원	G0090	22	20	2	20	20	–	90.9	100.0
강원	G0091	11	7	4	6	6	–	63.6	100.0
제주	G0094	14	8	6	8	8	–	57.1	100.0
광주	G0095	19	19	–	19	19	–	100.0	100.0
부산	G0097	18	15	3	15	15	–	83.3	100.0
대구	G0098	12	12	–	12	12	–	100.0	100.0
대전	G0102	23	23	–	23	23	–	100.0	100.0
제주	G0103	3	2	1	3	2	1	66.7	66.7
전체	–	1,625	1,322	303	1,338	1,315	23	81.4	98.3

주1) 조사원별 당해연도 담당 가구수는 2015년에 조사에 참여한 가구 기준임
주2) 조사원별 당해연도 유지 가구수는 2015년과 2016년 조사 모두에 참여한 가구 기준임(2016년 재참여 7가구 제외)
주3) 조사원별 당해연도 이탈 가구수는 2016년 신규 탈락 기준임

5) 표본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본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패널 이탈 (이탈=1, 유지=0) 여부이며, 패널 유지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은 다문화 가구의 거주 지역, 월 평균 소득 수준, 주관적 가정 형편, 외국인 부모 출신 국가, 어머니 연령과 혼인상태를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활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아래 <표 III-27>과 <표 III-28>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27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용된 종속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형태	라벨	기존		recode	
				값	내용	값	내용
종속변수	y	nominal	조사 참여 여부	1	유지	0	참여
				2	탈락	1	미참여

표 Ⅲ-28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이용된 종속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 형태	라벨	기존		recode	
				값	내용	값	내용
독립변수	q29	scale	월 평균 가구소득		open	1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	
					200-300만원 미만	3	
					300-400만원 미만	4	
					400-500만원 미만	5	
					500만 원 이상	6	
	q29_2	nominal	주관적 가정 형편	1	아주 어렵다	1	어렵다
				2	어려운 편이다	1	어렵다
				3	보통이다	2	보통이다
				4	잘 사는 편이다	3	잘 산다
				5	아주 잘 산다	3	잘 산다
	sido	nominal	거주 시/도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구분	변수명	변수 형태	라벨	기존		recode	
				값	내용	값	내용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age	scale	어머니 연령		open	1	39세 이하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q25	nominal	혼인상태	1	결혼	1	결혼/동거
				2	이혼	2	이혼/별거/사별
				3	별거	2	이혼/별거/사별
				4	사별	2	이혼/별거/사별
				5	동거	1	결혼/동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가구 소득, 주관적 가정 형편, 거주 시/도, 어머니 출신 국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패널 이탈 확률은 0.8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정 형편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패널 이탈 확률은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이 패널 이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충남(0.4배), 전북(0.4배), 전남(0.5배), 경북(0.3배) 지역의 패널 이탈 확률이 서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의 경우 서울보다 이탈 가능성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차이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따른 패널 이탈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일본, 중국(한족, 조선족),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에 비해 패널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패널 이탈에 영향을 주는 특성

Parameter	β	S.E,	Wald Chai -Square	자유도	유의확률	Standardized β	Exp(B)
q29	-0.2584	0.0701	13.5945	1	0.0002	-0.1699	0.772
q29_2	0.5661	0.1396	16.4529	1	<.0001	0.1775	1.761
sido 2 vs 1	0.0962	0.3432	0.0786	1	0.7793	0.0108	1.101
sido 3 vs 1	0.4638	0.3991	1.3506	1	0.2452	0.0406	1.59
sido 4 vs 1	0.1577	0.3412	0.2137	1	0.6439	0.018	1.171
sido 5 vs 1	1.0271	0.3754	7.4869	1	0.0062	0.0909	2.793
sido 6 vs 1	0.731	0.495	2.181	1	0.1397	0.0466	2.077
sido 7 vs 1	-0.1195	0.5038	0.0562	1	0.8125	-0.00901	0.887
sido 8 vs 1	0.1582	0.2231	0.5028	1	0.4783	0.0369	1.171
sido 9 vs 1	-0.7303	0.3887	3.5304	1	0.0603	-0.0926	0.482
sido 10 vs 1	0.1105	0.3517	0.0987	1	0.7534	0.0127	1.117
sido 11 vs 1	-0.7814	0.3618	4.6646	1	0.0308	-0.111	0.458
sido 12 vs 1	-0.8792	0.4009	4.8095	1	0.0283	-0.1203	0.415
sido 13 vs 1	-0.6866	0.3291	4.3525	1	0.037	-0.1134	0.503
sido 14 vs 1	-1.1725	0.4384	7.1534	1	0.0075	-0.1568	0.31
sido 15 vs 1	-0.2445	0.3173	0.5939	1	0.4409	-0.035	0.783
sido 16 vs 1	1.038	0.5547	3.5024	1	0.0613	0.0582	2.824
x1 2 vs 1	-0.6777	0.3344	4.1067	1	0.0427	-0.0996	0.508
x1 3 vs 1	-0.658	0.2915	5.0957	1	0.024	-0.144	0.518
x1 4 vs 1	-0.8903	0.4863	3.3514	1	0.0671	-0.0779	0.411
x1 5 vs 1	-1.3752	0.3038	20.4853	1	<.0001	-0.3267	0.253
x1 6 vs 1	-1.3905	0.29	22.9949	1	<.0001	-0.3586	0.249
x1 7 vs 1	-1.7923	0.5437	10.8666	1	0.001	-0.1803	0.167
x1 8 vs 1	-0.8191	0.3565	5.2796	1	0.0216	-0.1039	0.441

제 Ⅳ 장

6년간 종단 변화 추이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
2. 다문화청소년의 6년간 발달변화 추이 비교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의 변화 추이
4. 요약 및 소결

제 Ⅳ 장
6년간 종단 변화 추이[6)]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분석 결과 패널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비교적 균등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남성 비율은 약 49%였으며 여성은 5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 조사대상 청소년의 수 (단위: 명)

성별 \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	805	742	707	676	661	655
여	830	760	738	708	688	677
합계	1,635	1,502	1,445	1,384	1,349	1,332

※ 이 표는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로, 쌍둥이가 있는 가구가 포함되어 패널 유지율 설명에서 제시한 가구기준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음.

2)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2011-2016)

2016년 기준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21.8%), 전남(11%), 서울(10.5%)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단 분석 결과 패널 조사에 참여하고

6) 4장은 윤민종이 집필함.

있는 조사 대상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 이탈 비율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초기 표본 설계가 6년차 조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Ⅳ-2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빈도(%)

지역 \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	182(11.1)	157(10.5)	150(10.4)	146(10.5)	143(10.6)	140(10.5)
부산	74(4.5)	67(4.5)	60(4.2)	58(4.2)	55(4.1)	53(4.0)
대구	42(2.6)	37(2.5)	34(2.4)	31(2.2)	30(2.2)	30(2.3)
인천	68(4.2)	64(4.3)	63(4.4)	61(4.4)	57(4.2)	57(4.3)
광주	42(2.6)	35(2.3)	30(2.1)	29(2.1)	28(2.1)	26(2.0)
대전	25(1.5)	20(1.3)	18(1.2)	16(1.2)	16(1.2)	15(1.1)
울산	31(1.9)	30(2.0)	30(2.1)	27(2.0)	27(2.0)	25(1.9)
경기	384(23.5)	347(23.1)	330(22.8)	304(22.0)	291(21.6)	290(21.8)
강원	90(5.5)	85(5.7)	83(5.7)	81(5.9)	81(6.0)	81(6.1)
충북	75(4.6)	65(4.3)	61(4.2)	60(4.3)	60(4.4)	60(4.5)
충남	117(7.2)	109(7.3)	107(7.4)	104(7.5)	103(7.6)	104(7.8)
전북	108(6.6)	102(6.8)	100(6.9)	100(7.2)	99(7.3)	99(7.4)
전남	160(9.8)	153(10.2)	153(10.6)	151(10.9)	150(11.1)	146(11.0)
경북	102(6.2)	102(6.8)	101(7.0)	97(7.0)	97(7.3)	96(7.2)
경남	120(7.3)	116(7.7)	113(7.8)	107(7.7)	101(7.5)	100(7.5)
제주	15(.9)	13(.9)	12(.8)	12(.9)	11(.8)	10(.8)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4(100)	1,349(100)	1,332(100)

3) 조사 대상자의 어머니 출신국별 분포(2011-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출신국을 살펴본 결과 일본(34.3%), 필리핀(25.9%), 중국-조선족(18.3%), 중국(6.9%)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출신 국가 비율은 1차 년도 조사부터 6차 년도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출신 국가에 따른 패널 이탈이 무작위(random)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Ⅳ-3 어머니의 출신국 분포 빈도(%)

년도 / 출신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69(4.2)	57(3.8)	54(3.7)	51(3.7)	46(3.4)	42(3.2)
중국(한족, 기타민족)	126(7.7)	111(7.4)	102(7.1)	95(6.9)	95(7.0)	92(6.9)
중국(조선족)	322(19.7)	287(19.1)	276(19.1)	260(18.8)	247(18.3)	244(18.3)
베트남	42(2.6)	36(2.4)	37(2.6)	34(2.5)	34(2.5)	34(2.6)
필리핀	401(24.5)	377(25.1)	359(24.8)	347(25.1)	345(25.6)	345(25.9)
일본	528(32.3)	502(33.4)	488(33.8)	471(34.0)	459(34.0)	457(34.3)
대만	7(.4)	7(.5)	6(.4)	5(.4)	5(.4)	5(.4)
몽골	8(.5)	5(.3)	6(.4)	6(.4)	6(.4)	5(.4)
태국	56(3.4)	54(3.6)	53(3.7)	53(3.8)	52(3.9)	51(3.8)
캄보디아	3(.2)	3(.2)	3(.2)	3(.2)	3(.2)	2(.2)
우즈베키스탄	12(.7)	10(.7)	10(.7)	10(.7)	9(.7)	10(.8)
러시아	17(1.0)	13(.9)	13(.9)	12(.9)	12(.9)	10(.8)
인도네시아	9(.6)	8(.5)	7(.5)	7(.5)	7(.5)	7(.5)
카자흐스탄	7(.4)	5(.3)	4(.3)	4(.3)	4(.3)	4(.3)
말레이시아	2(.1)	2(.1)	2(.1)	2(.1)	2(.1)	2(.2)
키르키스스탄	4(.2)	4(.3)	4(.3)	4(.3)	3(.2)	4(.3)
기타	22(1.3)	21(1.4)	21(1.5)	20(1.4)	20(1.5)	18(1.4)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4(100)	1,349(100)	1,332(100)

4) 조사대상자 아버지 출신국 분포 (2011–2016)

2016년 기준 다문화 패널 조사 아버지의 출신국은 한국(96.5%)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출신 국가 중에서는 일본(1.7%)이 높지만 절대적인 조사 대상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아래 표에 의하면 아버지 출신 국가 비율 역시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며 아버지 출신 국가에 따른 패널 이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4 아버지의 출신국 분포 빈도(%)

년도 / 출신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1,476(95.4)	1,366(95.9)	1,322(96.0)	1,267(96.0)	1241(96.4)	1227(96.5)
중국(한족, 기타민족)	5(.3)	3(.2)	3(.2)	3(.2)	3(.2)	2(.2)
중국(조선족)	1(.1)	1(.1)	1(.1)	1(.1)	1(.1)	1(.1)
베트남	2(.1)	2(.1)	2(.1)	2(.2)	2(.2)	2(.1)
필리핀	4(.3)	5(.4)	5(.4)	5(.4)	5(.4)	5(.4)
일본	22(1.4)	18(1.3)	18(1.3)	17(1.3)	17(1.3)	17(1.3)
대만	6(.4)	4(.3)	3(.2)	3(.2)	3(.2)	3(.2)
태국	–	–	–	1(.1)	1(.1)	1(.1)
방글라데시	1(.1)	1(.1)	1(.1)	1(.1)	1(.1)	1(.1)
파키스탄	7(.5)	7(.5)	6(.4)	5(.4)	5(.4)	5(.4)
우즈베키스탄	1(.1)	–	–	–	–	–
캐나다	3(.2)	2(.1)	2(.1)	1(.1)	–	–
인도	3(.2)	2(.1)	2(.1)	2(.2)	1(.1)	1(.1)
인도네시아	1(.1)	1(.1)	1(.1)	1(.1)	1(.1)	1(.1)
기타	15(1.0)	12(.8)	11(.8)	11(.8)	7(.5)	6(.5)
합계	1,547(100)	1,424(100)	1,377(100)	1,320(100)	1,288(100)	1,272(100)

※ 2011년도 기준 아버지가 비동거인 경우 정보가 없었고, 2012년도 부터는 탈락한 가구의 아버지의 수가 제외됨.

2. 다문화청소년의 6년간 발달변화 추이 비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 절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6년도 다문화종단 조사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지난 6년 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은 이들 청소년들의 향후 고교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는 <표 Ⅳ-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가정 요인,

2)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3)심리·사회적 적응, 4)정체성 요인, 5)신체발달 및 건강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년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해 F검증과 사후분석을 실시해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표 Ⅳ-5 다문화가정 청소년 6년간 변화추이 비교 영역(2011년~2016년)

대영역	소영역	비교변인
1) 가정요인	(1) 사회경제적 배경	① 부모 결혼 상태 변화 ②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화
	(2) 가족관계	①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② 부모 양육태도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1) 학교생활	①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②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③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④ 학교성적수준 ⑤ 성적에 대한 만족도 ⑥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2) 성취 및 포부	① 성취동기 ② 학업적 포부
3) 심리 · 사회 적응	(1) 심리적응	① 자아존중감 ② 삶의 만족도 ③ 신체만족도 ⑤ 우울 ⑥ 사회적 위축
	(2) 사회적지지	① 가족의 지지 ② 교사의 지지 ③ 친구의 지지 ④ 친한 친구의 수 ⑤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⑥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4) 정체성요인	(1) 민족정체성	①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② 한국인정체성
	(2) 다문화정체성	① 다문화수용성 ② 이중문화수용태도 ③ 문화적응스트레스
5)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1) 신체발달	① 키 ② 몸무게
	(2) 건강에 대한 인식	①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014년도 패널조사 분석 틀에서 활용한 표를 이용함.
출처: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Ⅱ:총괄보고서」

1) 가정요인

(1) 가정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크게 부모 결혼 상태 변화와 월 평균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부모 결혼 상태

부모의 결혼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혼인 가구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이혼 가구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결혼 가정 수가 1,188(91.3%) 가구로 나타나 2011년 대비 약 3.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 가정의 경우 지난 6년 간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6년 조사 결과 총 48(3.7) 가구가 이혼 가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거와 사별한 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별한 가구의 경우 2011년 32가구(2.0%)에서 2016년 44가구(3.4)로 약 30%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6 부모 결혼상태의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결혼	1,542(94.9)	1,399(94.3)	1,333(93.5)	1,288(93.1)	1,219(91.7)	1188(91.3)
이혼	33(2.0)	36(2.4)	36(2.5)	39(2.8)	43(3.2)	48(3.7)
별거	15(.9)	14(.9)	17(1.2)	15(.9)	20(1.5)	17(1.3)
사별	32(2.0)	32(2.0)	35(2.5)	38(2.7)	43(3.2)	44(3.4)
동거	3(.2)	3(.2)	4(.3)	4(.2)	4(.3)	4(.3)
합계	1,625(100)	1,484(100)	1,425(100)	1,384(100)	1,329(100)	1,301(100)

** 이 표는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로, 쌍둥이가 있는 가구가 포함되어 패널 유지율 설명에서 제시한 가구기준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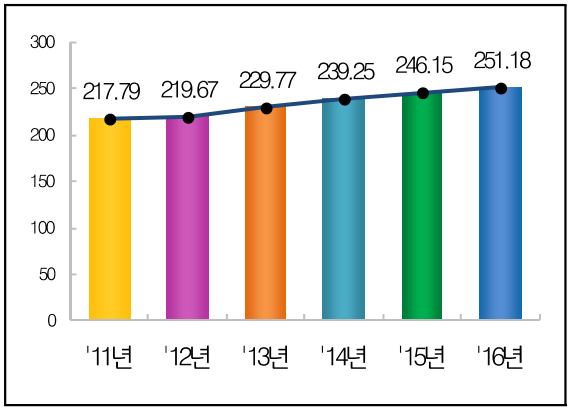
② 월 평균 소득 수준

다문화 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들 가정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251만원으로 나타나 2011년에 비해 약 34만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연간 소득으로 확산했을 때 지난 6년 사이 다문화가정의 연간 소득은 약 400만 원 가량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후 검증 결과 다문화가정의 소득 증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7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화추이 단위 : 만원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17.79(119.99)$_a$	19.99***
2012	219.67(106.78)$_b$	
2013	229.77(110.21)$_c$	
2014	239.25(120.07)$_d$	
2015	246.15(130.11)$_e$	
2016	251.18(114.57)$_f$	

***p <.001, Bonferroni: a, b, c < e, f. a, b < d



(2) 가족 관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정도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지난 6년 간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 분석하였다.

①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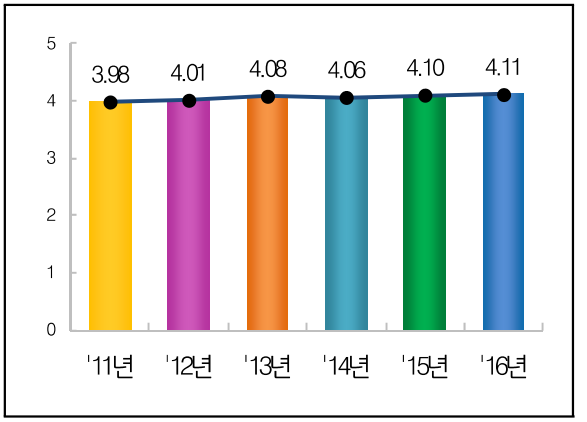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2013~2014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조사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수준은 2011년도에 비해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98(.92)$_a$	4.97***
2012	4.01(.92)$_b$	
2013	4.08(.90)$_c$	
2014	4.06(.90)$_d$	
2015	4.10(.88)$_e$	
2016	4.11(.88)$_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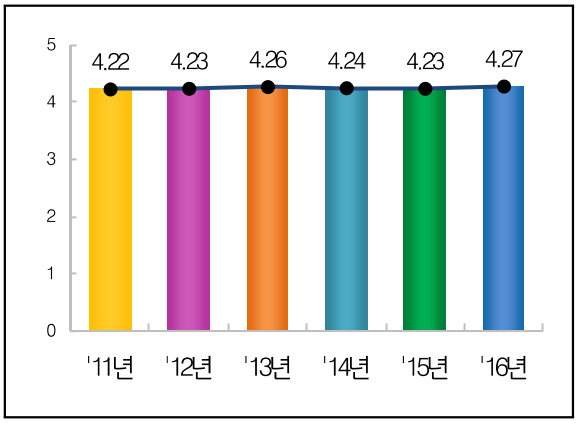
***p <.001, Bonferroni: a<f



아버지에 대한 인식 정도와 달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2011년 이후 소폭의 변화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아버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9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4.22(.79)	.46
2012	4.23(.78)	
2013	4.26(.79)	
2014	4.24(.79)	
2015	4.23(.78)	
2016	4.2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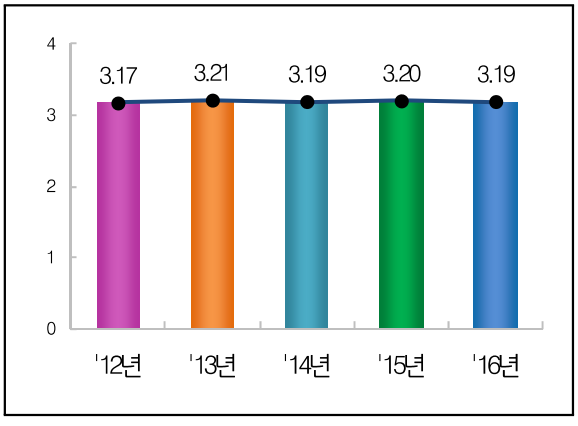


② 부모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크게 '감독'과 '방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 중 감독은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인식 정도(4점 만점)를 측정한 것이다. 부모 양육 태도 중 감독 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의 생활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후 검증 분석결과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들의 학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부모양육태도의 변화추이: 감독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3.17(.53)	1.40
2013	3.21(.54)	
2014	3.19(.54)	
2015	3.20(.50)	
2016	3.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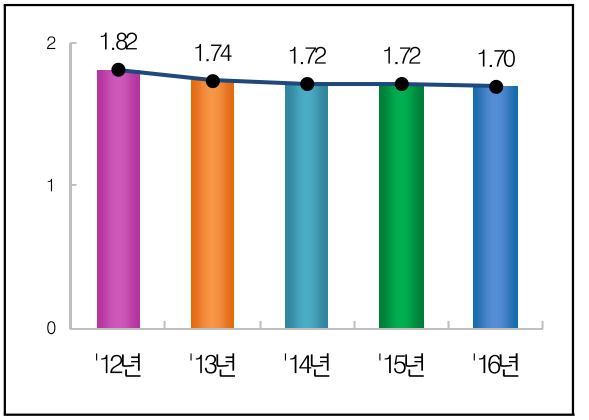


부모의 양육 태도 중 '방임'유형은 자녀가 부모를 필요할 때 옆에 없고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정도와 관심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변화 추이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 중 방임 수준은 매년 꾸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부모양육태도의 변화추이: 방임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1.82(.67)$_a$	
2013	1.74(.62)$_b$	
2014	1.72(.59)$_c$	8.19***
2015	1.72(.58)$_d$	
2016	1.70(.55)$_e$	

***p <.001, Bonferroni: b, c, d, e.< a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1) 학교생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들의 1)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2)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3)학교생활 적응 정도(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4)학교성적 수준, 5)성적에 대한 만족도, 6)집단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에 대해 별 어려움이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기간 중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중학교 진학 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76.3%로 나타나 2014년 대비 약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공부를 못한다고 놀림을 받는 청소년 비율 역시 중학교 진학 시점인 2014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외모를 가지고 놀리거나, 친구들이 나를 흉보거나,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2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중복응답) 변화추이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별 어려움이 없다	1,323 (70.7)	1,309 (79.8)	1,301 (83.8)	1,282 (87.9)	1,270 (77.4)	1,252 (76.3)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66 (3.5)	61 (3.7)	42 (2.7)	32 (2.2)	25 (1.5)	29 (1.8)
친구들이 나를 흉보는 것	68 (3.6)	44 (2.7)	38(2.4)	18 (1.2)	16 (1.0)	11 (0.7)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72 (3.8)	51 (3.1)	36(2.3)	15 (1.0)	8 (.5)	7 (0.5)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56 (3.0)	35 (2.1)	29 (1.9)	24 (1.6)	15 (.9)	13 (0.8)
공부를 못한다고 놀리는 것	59 (3.2)	39 (2.4)	29 (1.9)	19 (1.3)	23 (1.4)	27 (1.6)
친구들이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	78 (4.2)	40 (2.4)	27 (1.7)	17 (1.2)	15 (.9)	10 (0.6)
친구들이 나를 때리는 것	69 (3.7)	19 (1.2)	10 (.6)	10 (.7)	5 (.3)	6 (0.4)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놀리는 것	25 (1.3)	12 (.7)	9 (.6)	2 (.1)	4 (.2)	3 (0.2)
친한 친구가 없는 것	34 (1.8)	15 (.9)	22 (1.4)	17 (1.2)	14 (.9)	16 (1.0)
기타	22 (1.2)	15 (.9)	9 (.6)	23 (1.6)	19 (1.2)	17 (1.1)
합계	1,872 (100)	1,640 (100)	1,552 (100)	1,459 (100)	1,414 (100)	1,391 (100)

② 학교 공부에서 어려운 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기간 중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중학교 이행 시점인 2014년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교 고학년으로 진학 할수록 이 비율은 다시 증가하여 2016년 조사 결과 학교 공부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청소년들이 중학교를 입학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3%로 나타난 반면 2016년도 조사에서는 약 2배 이상 높은 5.1%의 청소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몽부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율 역시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3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도 조사에서 '몽부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율은 3.8%로 나타나 2013년도 대비 약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학교 공부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 변화추이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별 어려움이 없다	1,103 (67.5)	1,121 (74.6)	1,138 (78.8)	935 (67.6)	936 (69.4)	943 (70.8)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125 (7.6)	109 (7.3)	105 (7.3)	77 (5.6)	78 (5.8)	78 (5.9)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102 (6.2)	62 (4.1)	74 (5.1)	64 (4.6)	53 (3.9)	41 (3.1)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154 (9.4)	97 (6.5)	54 (3.7)	47 (3.4)	52 (3.9)	57 (4.3)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	94 (5.7)	50 (3.3)	33 (2.3)	82 (5.9)	83 (6.2)	68 (5.1)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47 (2.9)	48 (3.2)	32 (2.2)	58 (4.2)	48 (3.6)	50 (3.8)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	–	–	97 (7.0)	82 (6.1)	72 (5.4)
기타	10 (.6)	15 (1.0)	9 (.6)	23 (1.7)	17 (1.3)	23 (1.7)
합계	1,635 (100)	1,502 (100)	1,445 (100)	1,383 (100)	1,349 (100)	1,332 (100)

③ 학교생활 적응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청소년들의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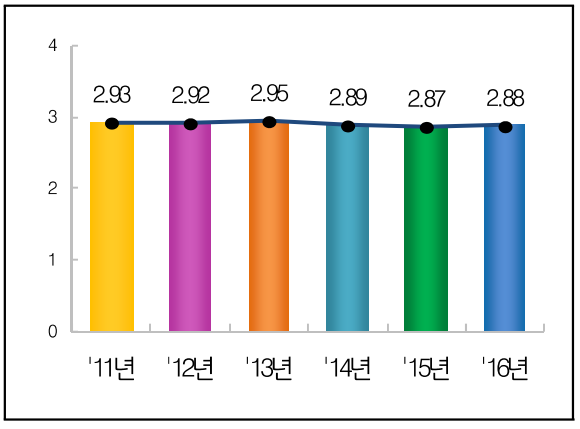
③-1.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학습활동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은 중학교 진학 시점인 2014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은 초등학교 재학 기간(2011~2014년)에 비해 중학교 진학 (2014~2016년) 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4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학습활동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93(.50)$_a$	6.53***
2012	2.92(.49)$_b$	
2013	2.95(.50)$_c$	
2014	2.89(.53)$_d$	
2015	2.87(.53)$_e$	
2016	2.88(.51)$_f$	

***p <.001, Bonferroni: d<c, e<a, b, c, 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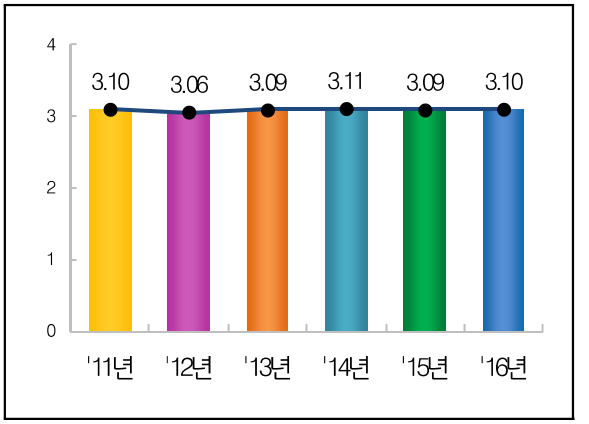


③-2. 학교생활 적응: 교사관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교사와의 관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교사와의 관계(4점 기준)는 지난 6년 간 평균 3.06~3.1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사후 검증 결과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교사관계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10(.61)	1.54
2012	3.06(.61)	
2013	3.09(.60)	
2014	3.11(.57)	
2015	3.09(.56)	
2016	3.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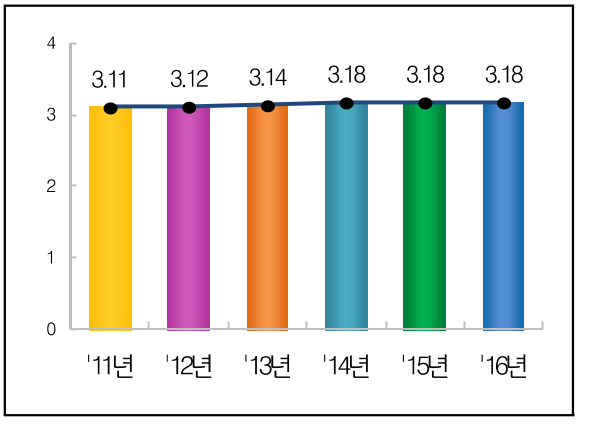
③-3.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우관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진학 이후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교우관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교우관계는 초등학교 시절보다 중학교 시절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6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교우관계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11(.48)_a$	8.79***
2012	$3.12(.45)_b$	
2013	$3.14(.43)_c$	
2014	$3.18(.41)_d$	
2015	$3.18(.40)_e$	
2016	$3.18(.38)_f$	

***p <.001, Bonferroni: a, b < d, 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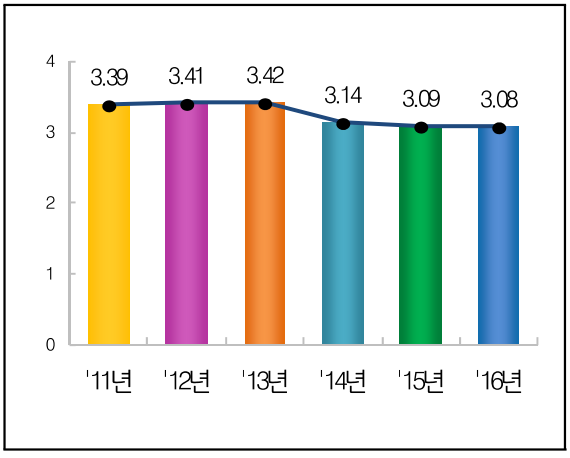
④ 학교성적 수준

학교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은 5개 과목들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아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학 이후 자신들의 학교성적 수준이 낮다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학습활동 감소와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Ⅳ-17 학교성적수준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39(.68)$_a$	78.26***
2012	3.41(.69)$_b$	
2013	3.42(.72)$_c$	
2014	3.14(.73)$_d$	
2015	3.09(.75)$_e$	
2016	3.08(.75)$_f$	

***p <.001, Bonferroni: d, e, f <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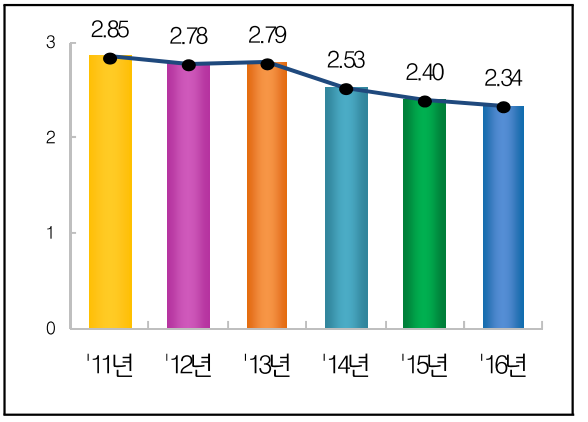
⑤ 성적에 대한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초등학교 재학 시기에 비해 중학교 진학 후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적만족도는 중학교 이행 시점인 2014년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감소 추이는 매년 지속되어, 2016년 조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후 검증 분석 결과 중학교 진학 이후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교 재학 시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85(.71)$_a$	120.04***
2012	2.78(.77)$_b$	
2013	2.79(.77)$_c$	
2014	2.53(.77)$_d$	
2015	2.40(.77)$_e$	
2016	2.34(.73)$_f$	

***p <.001, Bonferroni: e, f < d <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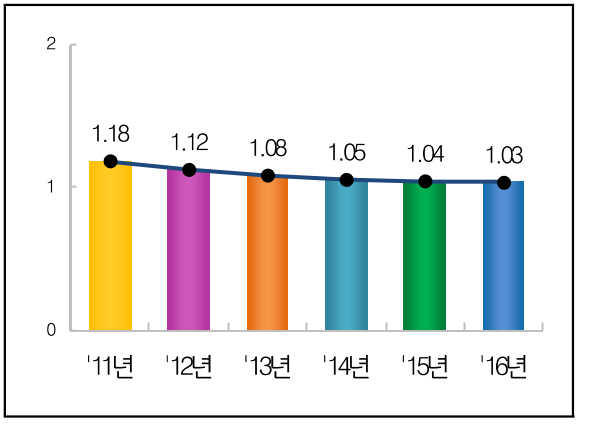
⑥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감소 추이는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우관계가 개선된다는 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Ⅳ-19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1.18(.41)$_a$	56.61***
2012	1.12(.36)$_b$	
2013	1.08(.29)$_c$	
2014	1.05(.24)$_d$	
2015	1.04(.22)$_e$	
2016	1.03(.19)$_f$	

***p <.001, Bonferroni: e, f < c < b < a, d < a, b



(2) 성취 및 학업성적 포부

성취동기와 교육기대 수준은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성취동기 수준과 미래 교육기대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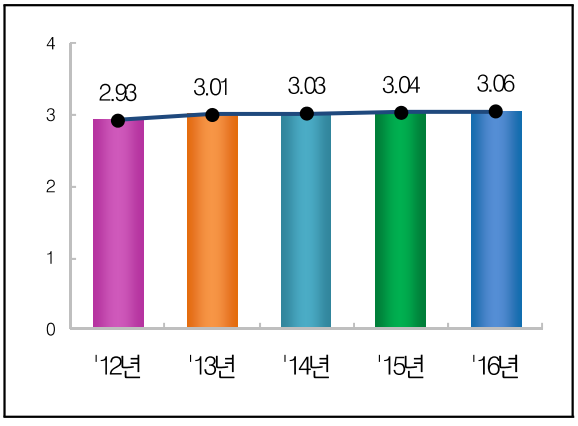
① 성취동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취동기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취동기는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높아졌으며, 사후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0 성취동기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2.93(.49)$_b$	
2013	3.01(.49)$_c$	
2014	3.03(.48)$_d$	16.15***
2015	3.04(.45)$_e$	
2016	3.06(.47)$_f$	

***p <.001, Bonferroni: b < e, b < c, d



② 학업적 포부 수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육 기대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비율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보였지만,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016년 조사에서는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비율이 78.1%를 보이며 전년도에 비해 약 2.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을 염두해 두고 있는 청소년 비율 역시 2013년도에 비해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교육기대수준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육 기대 수준이 고등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도 약 10%로 나타난 반면 고교 진학을 앞둔 2016년도 조사에서는 약 7.2% 증가한 17.6%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 포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비교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중학교 3학년에 이르러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21 학업적 포부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16(1.0)	10(.7)	6(.4)	1(.1)	1(.1)	–
중학교	32(2.0)	22(1.5)	16(1.1)	27(2.0)	24(1.8)	19(1.4)
고등학교	262(16.0)	252(16.8)	145(10.0)	144(10.4)	170(12.6)	234(17.6)
대학교	1,325(81.0)	1,218(81.1)	1,134(78.4)	1,117(80.7)	1090(80.8)	1040(78.1)
대학원	–	–	145(10.0)	95(6.9)	64(4.7)	39(2.9)
합계	1,635(100)	1,502(100)	1,446(100)	1,384(100)	1,349(100)	1,332(100)

3) 심리 · 사회적응 및 가치 요인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 및 사회적응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사회적지지 및 네트워크가 지난 6년간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심리적 적응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우울 및 사회적 위축 등의 변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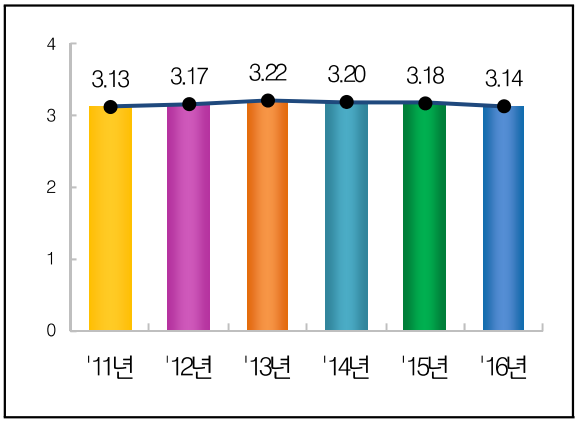
①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학교 진학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6학년 조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2 자아존중감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13(.55)$_a$	5.83***
2012	3.17(.55)$_b$	
2013	3.22(.53)$_c$	
2014	3.20(.54)$_d$	
2015	3.18(.53)$_e$	
2016	3.14(.55)$_f$	

***p <.001, Bonferroni: a, f <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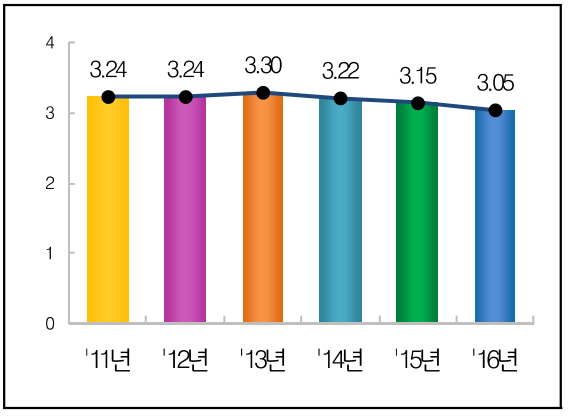
② 삶의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 중학교 진학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학년 시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3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24(.59)$_a$	31.10***
2012	3.24(.61)$_b$	
2013	3.30(.58)$_c$	
2014	3.22(.59)$_d$	
2015	3.15(.61)$_e$	
2016	3.05(.59)$_f$	

***p <.001, Bonferroni: e, f < a, b, c, d. a, d < c. f <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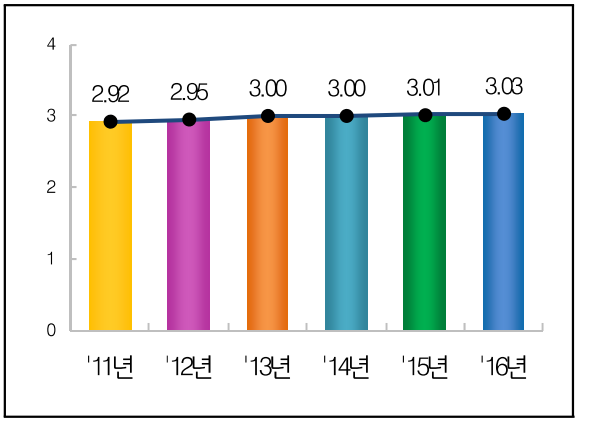
③ 신체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신체 만족도는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 추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가 패널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것을 올해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4 신체만족도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92(.50)$_a$	9.24***
2012	2.95(.50)$_b$	
2013	3.00(.49)$_c$	
2014	3.00(.50)$_d$	
2015	3.01(.50)$_e$	
2016	3.03(.50)$_f$	

***p <.001, Bonferroni: a < c, d, e, f, b < 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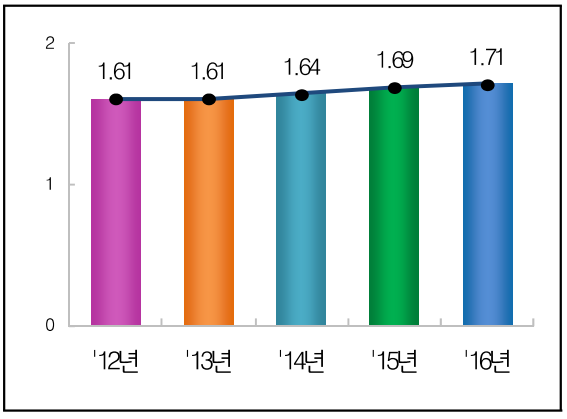
④ 우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은 2012년부터 패널 조사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진학 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5 우울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1.61(.53)$_a$	11.93**
2013	1.61(.53)$_b$	
2014	1.64(.53)$_c$	
2015	1.69(.54)$_d$	
2016	1.71(.54)e	

**p <.01, Bonferroni: a, b < d, e, c <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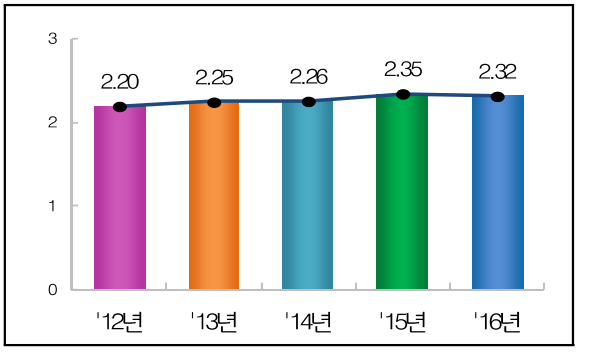
⑤ 사회적 위축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느끼는 위축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사회적 위축 변화 추이를 측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 정도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 추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6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사회적 위축 정도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학 이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정도, 사회적 위축 정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 시절에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 추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Ⅳ-26 사회적 위축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2.20(.73)$_a$	9.16**
2013	2.25(.72)$_b$	
2014	2.26(.74)$_c$	
2015	2.35(.74)$_d$	
2016	2.32(.73)$_e$	

**p <.01, Bonferroni: a, b, c < d, a < e



(2) 사회적지지 및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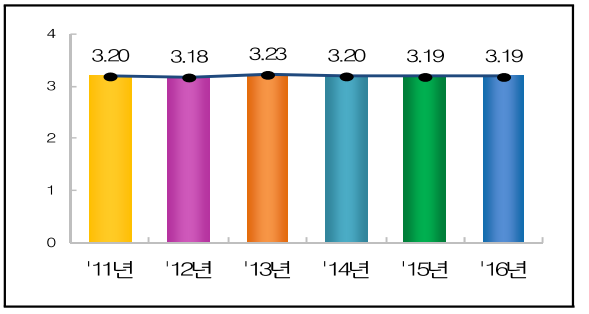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지지 및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교사, 친구의 지지를 파악하고 친한 친구의 수와 학교 안팎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타자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였다.

① 가족의 지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족지지는 2011년 조사 이후 2016년까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족지지는 초등학교 기간에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7 가족지지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20(.57)	1.63
2012	3.18(.60)	
2013	3.23(.56)	
2014	3.20(.56)	
2015	3.19(.55)	
2016	3.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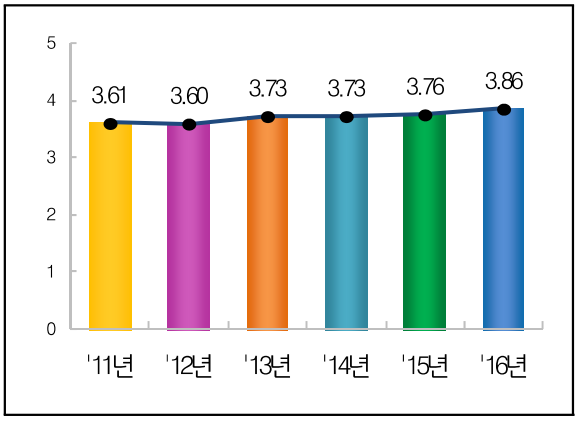
② 교사의지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지지는 2011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후검증 결과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지지는 2016년도에 가장 높았으며 학년별 교사의지지 변화 추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8 교사지지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61(.94)$_a$	17.36***
2012	3.60(.92)$_b$	
2013	3.73(.92)$_c$	
2014	3.73(.88)$_d$	
2015	3.76(.86)$_e$	
2016	3.86(.81)$_f$	

***p <.001, Bonferroni: a, b < c, d, e, f. c, d <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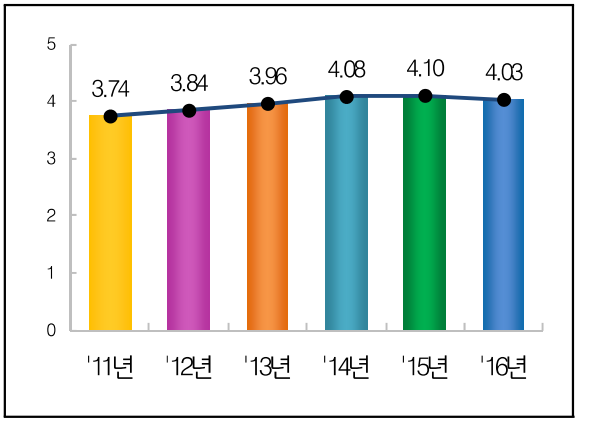
③ 친구의 지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친구의 지지 역시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조사에서 친구의 지지는 전 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학교 진학 이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친구 지지는 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사후 검증 결과 학년별 친구지지의 변화 추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9 친구지지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74(.94)$_a$	39.80***
2012	3.84(.89)$_b$	
2013	3.96(.87)$_c$	
2014	4.08(.83)$_d$	
2015	4.10(.79)$_e$	
2016	4.03(.79)$_f$	

***p <.001, Bonferroni: a<b<c<d, e, a, b<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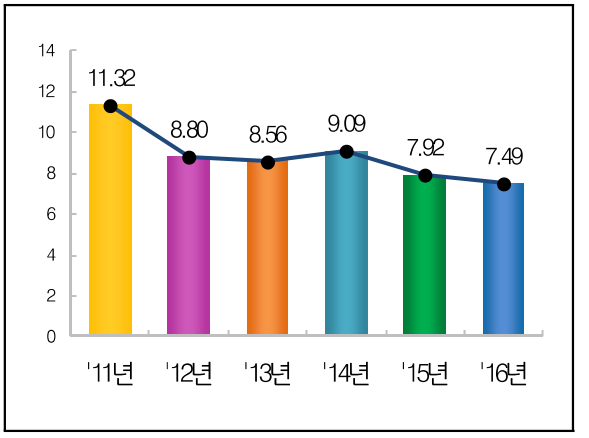
④ 친한 친구의 수 변화 추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친한 친구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중학교 입학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친한 친구의 수는 소폭 증가하지만,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 수는 7.49명으로, 2011년 조사에 비해 약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30 친한 친구의 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11.32(17.65)$_a$	29.77***
2012	8.80(6.85)$_b$	
2013	8.56(7.05)$_c$	
2014	9.09(7.16)$_d$	
2015	7.92(5.04)$_e$	
2016	7.49(5.63)$_f$	

***p <.001, Bonferroni: f<b, c, d<a, e<d<a



⑤ 학교 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학교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학교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 라고 응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율은 2011년 기준 80.6%에서 2016년 4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317(19.4)	547(36.4)	623(43.1)	680(49.2)	706(52.3)	752(56.5)
아니오	1,318(80.6)	955(63.6)	822(56.9)	703(50.8)	643(47.7)	580(43.5)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3(100)	1,349(100)	1,332(100)

⑥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2016년 조사에서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61%에 달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없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2011년도 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327(20.0)	594(39.5)	583(40.3)	534(38.6)	475(35.2)	520(39.0)
아니오	1,308(80.0)	908(60.5)	862(59.7)	849(61.4)	874(64.8)	812(61.0)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3(100)	1,349(100)	1,332(100)

(3)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한국인과 동일시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①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2016년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 74%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한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25%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한국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난 6년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33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사람	1,194(73.0)	1,107(73.7)	1,084(75.0)	1,024(74.0)	994(73.7)	982(73.9)
한국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	355(21.7)	343(22.8)	344(23.8)	342(24.7)	331(24.5)	325(24.5)
외국인 부모 나라 사람	54(3.3)	24(1.6)	10(.7)	8(.6)	12(.9)	13(1.0)
잘 모르겠다	31(1.9)	28(1.9)	7(.5)	10(.7)	12(.9)	8(0.6)
기타	1(.1)	–	–	–	–	1(0.1)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4(100)	1,349(100)	1,329(100)

② 한국인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는지 조사 하였다.[7]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을 한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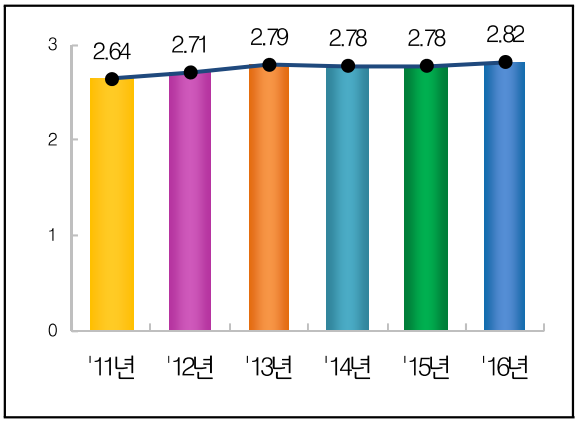
7)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항목의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을 받는 같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학교 진학 이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초등학교 시절보다 강화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한국인 정체성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64(.66)$_a$	15.01***
2012	2.71(.65)$_b$	
2013	2.79(.64)$_c$	
2014	2.78(.66)$_d$	
2015	2.78(.65)$_e$	
2016	2.82(.64)$_f$	

***p <.001, Bonferroni: a, b < c, d, f, a < e



(4) 문화적응 및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및 다문화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다.

① 다문화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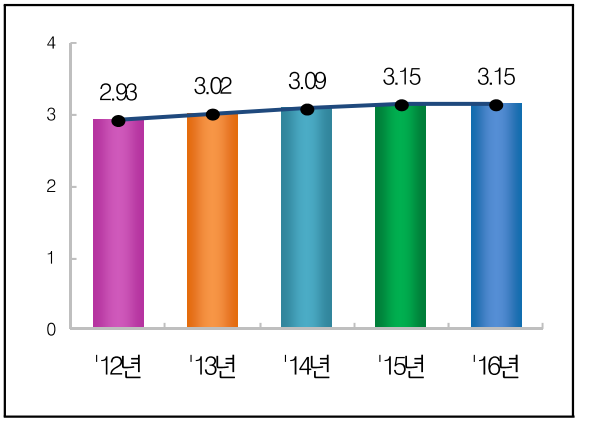
2012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속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5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2.93(.57)$_a$	39.14***
2013	3.02(.54)$_b$	
2014	3.09(.55)$_c$	
2015	3.15(.56)$_d$	
2016	3.15(.55)$_e$	

***p <.001, Bonferroni: a < b < c < d, e



② 이중문화 수용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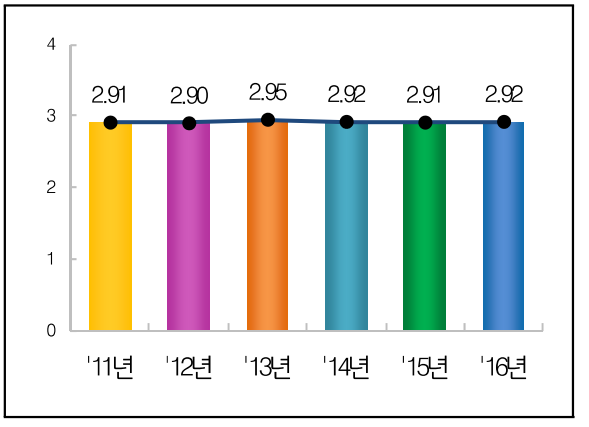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학교 진학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검증 결과 다문화 수용태도의 학년별 차이는 미비한 수준이며, 2012년도와 2013년을 제외한 조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91(.46)$_a$	2.66*
2012	2.90(.40)$_b$	
2013	2.95(.39)$_c$	
2014	2.92(.39)$_d$	
2015	2.91(.39)$_e$	
2016	2.92(.39)$_f$	

*p <.05, Bonferroni: b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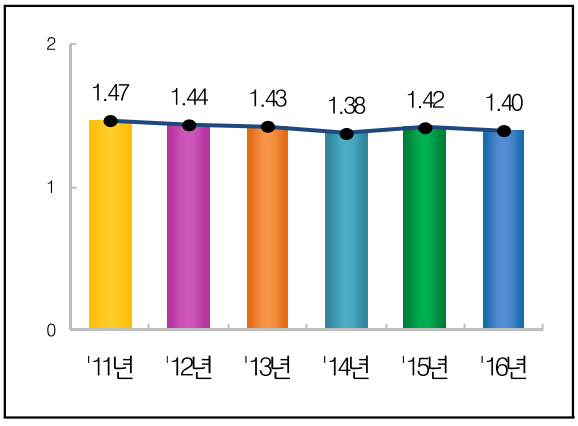
③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011년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후검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7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1.47(.45)$_a$	10.64***
2012	1.44(.37)$_b$	
2013	1.43(.37)$_c$	
2014	1.38(.32)$_d$	
2015	1.42(.34)$_e$	
2016	1.40(.32)$_f$	

***p <.001, Bonferroni: c, d, e, f < a, d, f < b, d < c



4)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1) 신체발달

① 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남성 평균 신장은 168.43cm이며, 여성 평균 신장은 159.40cm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은 우리나라 청소년 만 15세 6개월 표준 지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8 키 차이(연도별) (단위: cm)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144.09(7.24)$_a$	1671.25***
2013	150.11(7.34)$_b$	
2014	156.41(7.29)$_c$	
2015	160.88(7.41)$_d$	
2016	163.83(7.62)$_e$	

***p <.001, Bonferroni: a<b<c<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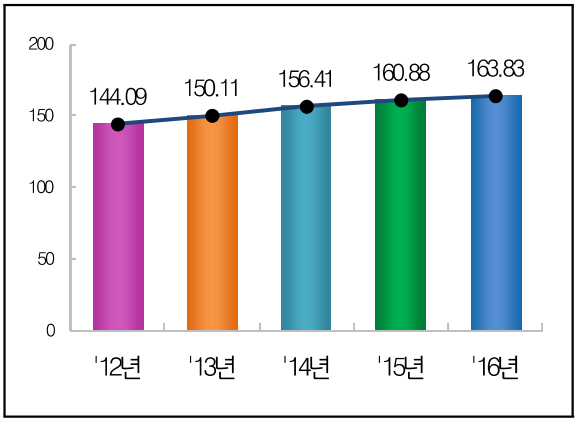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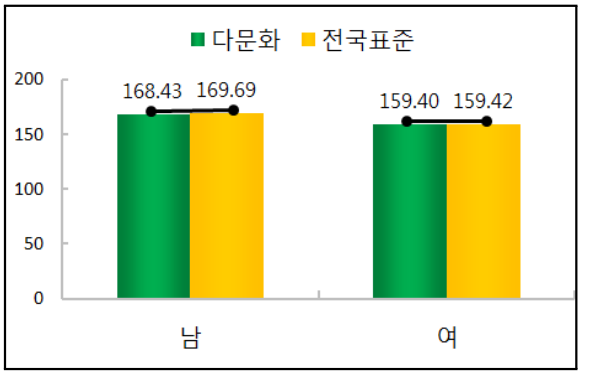


표 Ⅳ-39 키 차이(성별) (단위: cm)

집단	다문화	전국표준
남	168.43	169.69
여	159.40	159.42

※다문화청소년의 키는 2016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 청소년의 키는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서 편찬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의 만 15세 6개월 신장을 기준으로 함.



② 몸무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몸무게 역시 매년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중 남성 평균 몸무게는 59.33kg이며, 여성 평균 몸무게는 52.82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 15세 6개월 평균 몸무게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뚜렷한 신체발달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 Ⅳ-40 몸무게 차이(연도별) (단위: kg)

집단	평균(표준편차)	*F*
2012	38.76(9.21)$_a$	630.39***
2013	43.49(9.70)$_b$	
2014	48.41(10.36)$_c$	
2015	52.54(10.60)$_d$	
2016	55.74(11.31)$_e$	

***p <.001, Bonferroni: a<b<c<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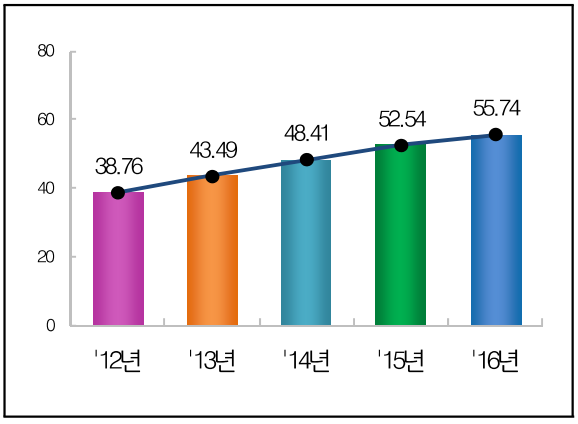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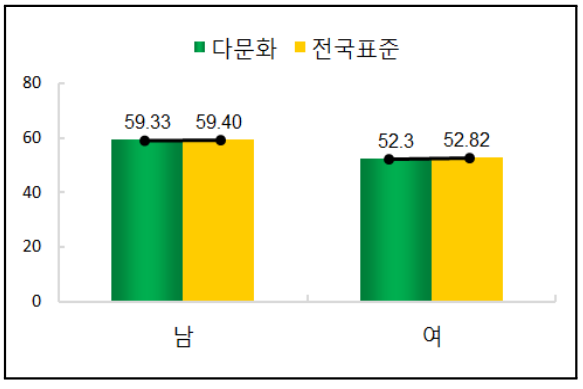


표 Ⅳ-41 몸무게 차이(성별) (단위: kg)

집단	다문화	전국표준
남	59.33	59.40
여	52.30	52.82

※ 다문화청소년의 몸무게는 2016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 청소년의 몸무게는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서 편찬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의 만 15세 6개월 체중을 기준으로 함.



(2) 건강에 대한 인식

①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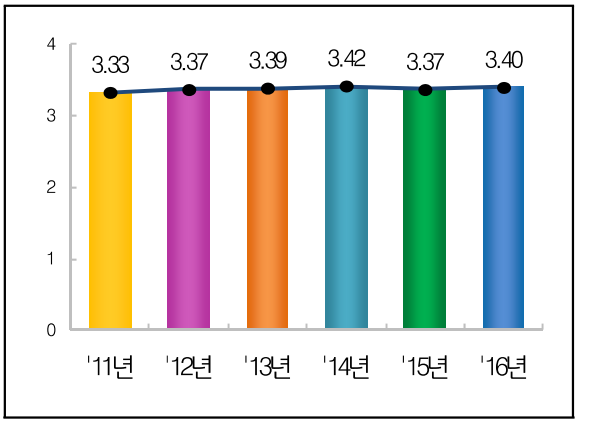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건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도는 매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변화 추이는 매우 미비 할 뿐 아니라

2011년도와 2014년도를 제외한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Ⅳ-42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33(.64)$_a$	3.69**
2012	3.37(.63)$_b$	
2013	3.39(.62)$_c$	
2014	3.42(.61)$_d$	
2015	3.37(.66)$_e$	
2016	3.40(.60)$_f$	

**p <.01, Bonferroni: a < d



5) 6년간 변화 추이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소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청소년들의 가정요인,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요인,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들의 지난 6년 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 2016년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성별, 부모님 출신 국가별 분포를 파악하여 초기 표본 설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높아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혼 가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중학교 진학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청소년 비율이 늘고 있으며, 학습활동을 비롯한 학교 성적 및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교 진학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포부 수준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점차 낮아져 2016년도 조사 결과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청소년 비율은 2011년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수준, 사회적 위축 정도 역시 중학교 진학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돼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성취동기,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교우와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한편 집단 괴롭힘 피해는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다문화수용성은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43 6년간 변화추이 비교 영역(2011년~2016년)

구분	영역	변인
증가 추세	가정 요인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화 이혼/사별 가구
	가족관계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교우관계
	성취 및 포부	성취동기
	심리 ·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사회적 위축(※), 우울 (※)
	사회적지지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정체성	한국인정체성
	다문화정체성	다문화수용성
	신체발달	키 몸무게
	건강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구분	영역	변인
감소 추세	가족관계	부모 양육태도 (방임)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학습활동(※) 학교성적 수준 (※) 성적에 대한 만족도 (※)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성취 및 포부	학업적 포부 수준-대학 진학(※)
	심리 ·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
	사회적지지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친한 친구의 수 변화 추이 (※)
	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없음	가족 관계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부모양육태도(감독)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교사관계
	사회적지지	가족의 지지
	정체성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이중문화 수용태도

※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 이후 변화 추이

출처: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Ⅱ:총괄보고서」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의 변화 추이

(1)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2016년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았는지 에 대한 조사에서 약 24.5%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비율로서 2016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 입학 시점인 2014년도 다문화 가족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7%를 보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3% 가량 감소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Ⅳ-44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청소년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1,034(68.8)	794(54.9)	439(31.7)	418(31.0)	327(24.5)
아니오	468(31.2)	651(45.1)	945(68.3)	931(69.0)	1,005(75.5)
전체	1,502(100)	1,445(100)	1,384(100)	1,349(100)	1,332(100)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2012년과 2014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문화체험, 방과후 수업료지원, 문화공연 관람, 놀이공원 등과 관련된 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중학생이 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원 받은 내용을 보면 방과후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학업 관련 지원이 증가하는 한편 문화체험을 비롯한 공연관람, 놀이공원 등과 관련된 지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다문화청소년들이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급식비 지원과 진로지원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45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 (중복응답)

내용	2012	2013	2014	2015	2016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441(18.3)	260(16.0)	105(11.9)	84(11.2)	63(1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396(16.4)	287(17.7)	152(17.3)	143(19.0)	106(19.2)
대학생 멘토링	318(13.2)	226(13.9)	144(16.4)	133(17.7)	81(14.7)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99(12.4)	175(10.8)	84(9.6)	72(9.6)	54(9.8)
놀이공원 방문	238(9.9)	131(8.1)	43(4.9)	23(3.1)	25(4.5)
급식비 지원	160(6.6)	141(8.7)	112(12.7)	105(13.9)	83(15.1)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129(5.4)	77(4.7)	38(4.3)	36(4.8)	29(5.3)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23(5.1)	102(6.3)	47(5.3)	34(4.5)	17(3.1)
학습지 지원	104(4.3)	58(3.6)	27(3.1)	20(2.7)	17(3.1)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52(2.2)	50(3.1)	31(3.5)	20(2.7)	12(2.2)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52(2.2)	26(1.6)	11(1.3)	10(1.3)	5(.9)
이중언어교실	34(1.4)	36(2.2)	21(2.4)	13(1.7)	5(.9)
한국어 교육 지원	23(1.0)	13(0.8)	5(.6)	3(.4)	2(.4)
진로지원 프로그램	–	–	22(2.5)	22(2.9)	22(4.0)
기타	41(1.7)	41(2.5)	37(4.2)	35(4.6)	30(5.4)
합계	2,410(100)	1,623(100)	842(100)	753(100)	551(100)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지원 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약 87%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받은 지원 받은 프로그램이 (매우)필요한 지원 이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진학 이후 자신이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지원 받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46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22(2.1)	14(1.7)	6(1.4)	11(2.6)	13(4.0)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81(7.9)	70(8.6)	61(13.9)	55(13.2)	29(8.9)
나에게 필요한 편이다	658(63.8)	547(67.2)	263(59.9)	242(57.9)	199(60.9)
나에게 매우 필요했다	270(26.2)	183(22.5)	109(24.8)	110(26.3)	86(26.3)
전체	1,031(100)	814(100)	439(100)	418(100)	327(100)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대한 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문화청소년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2012년 조사에서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약 77%였던 반면 2016년도 조사에서는 약 53.8%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7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청소년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1,146(76.6)	1,054(72.9)	887(64.1)	786(58.3)	716(53.8)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339(22.6)	374(25.9)	478(34.5)	543(40.3)	596(44.7)
기타	12(0.8)	17(1.2)	19(1.2)	20(1.5)	20(1.5)
전체	1,497(100)	1 445(100)	1,384(100)	1,349(100)	1,332(100)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놀이공원 방문, 문화공연 관람, 문화체험 활동, 특기적성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점차 감소하는 한편, 학원비 지원, 급식비 지원,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응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도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48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청소년 (중복응답)

내용	2012	2013	2014	2015	2016
놀이공원 방문	903(16.2)	775(15.7)	545(11.8)	409(9.5)	321(7.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5(12.3)	576(11.7)	478(10.3)	438(10.2)	416(9.3)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664(11.9)	490(9.9)	372(8.0)	316(7.3)	280(6.3)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45(11.5)	554(11.2)	393(8.5)	352(8.2)	392(8.8)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91(8.8)	420(8.5)	349(7.5)	320(7.4)	338(7.6)
학원비 지원	468(8.4)	434(8.8)	458(9.9)	475(11.0)	540(12.1)
대학생 멘토링	349(6.2)	314(6.4)	270(5.8)	230(5.3)	256(5.7)
급식비 지원	307(5.5)	282(5.7)	329(7.1)	322(7.5)	354(7.9)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04(5.4)	269(5.5)	242(5.2)	229(5.3)	270(6.0)
학습지 지원	269(4.8)	237(4.8)	208(4.5)	217(5.0)	216(4.8)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39(2.5)	139(2.8)	182(3.9)	161(3.7)	169(3.8)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38(2.5)	99(2.0)	109(2.4)	122(2.8)	111(2.5)
이중언어교실	120(2.1)	128(2.6)	148(3.2)	143(3.3)	184(4.1)
한국어 교육 지원	68(1.2)	53(1.1)	41(.9)	39(.9)	52(1.2)
진로지원 프로그램	–	–	298(6.4)	285(6.6)	391(8.8)
기타	38(.7)	20(0.4)	14(.3)	14(.3)	12(.3)
없음	–	137(2.8)	197(4.3)	232(5.4)	161(3.6)
합계	5,588(100)	4,927(100)	4,633(100)	4,304(100)	4,463(100)

(2)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다문화 가족으로서 학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지원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아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초등학교 6학년)도에 다문화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어머니 비율은

약 51%를 보였지만, 자녀가 중학교를 진학 한 2014년도의 경우 그 비율이 25.3%를 보이며 약 2배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도에 이르러서는 자녀의 지원 경험 여부는 22.4%를 보이며 2012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9 자녀의 지원 경험 여부: 어머니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988(66.6)	731(51.3)	344(25.3)	340(25.6)	291(22.4)
아니오	496(33.4)	695(48.7)	1,017(74.7)	989(74.4)	1,010(77.6)
전체	1,484(100)	1,426(100)	1,361(100)	1,329(100)	1,301(100)

2016년 다문화 가족으로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방과 후 수업료 지원, 급식비 지원, 문화체험과 공연 관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응답과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결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녀의 중학교 진학 이후 급식비 지원은 약 2배 증가한 반면 문화체험 활동, 놀이공원 방문 및 학습지 지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0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 어머니 (중복응답)

내용	2012	2013	2014	2015	2016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75(18.4)	302(19.6)	115(17.9)	98(16.6)	99(18.7)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440(17.1)	217(14.1)	68(10.6)	67(11.4)	59(11.1)
대학생 멘토링	265(10.3)	180(11.7)	67(10.5)	77(13.1)	52(9.8)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60(10.1)	140(9.1)	60(9.4)	55(9.3)	54(10.2)
놀이공원 방문	249(9.7)	105(6.8)	24(3.7)	21(3.6)	24(4.5)
급식비 지원	186(7.2)	152(9.9)	114(17.8)	83(14.1)	84(15.8)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45(5.6)	80(5.2)	28(4.4)	24(4.1)	22(4.2)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144(5.6)	85(5.5)	45(7.0)	30(5.1)	32(6.0)
학습지 지원	130(5.0)	81(5.2)	18(2.8)	20(3.4)	14(2.6)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86(3.3)	52(3.4)	15(2.3)	16(2.7)	12(2.3)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2(2.8)	42(2.7)	15(2.3)	15(2.5)	18(3.4)
이중언어교실	48(1.9)	28(1.8)	14(2.2)	10(1.7)	8(1.5)
한국어 교육 지원	28(1.1)	16(1.0)	11(1.7)	8(1.4)	10(1.9)
진로지원 프로그램	–	–	15(2.3)	18(3.1)	19(3.6)
기타	50(1.9)	63(4.1)	32(5.0)	47(8.0)	23(4.3)
전체	2,578(100)	1,543(100)	641(100)	589(100)	530(100)

어머니들에게 지원 받은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약 94% 이상의 어머니들은 지원 내용이 (매우)필요했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2012년 조사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51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 정도: 어머니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녀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8(.8)	4(.5)	3(.9)	2(.6)	1(.3)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23(2.3)	24(3.3)	6(1.7)	10(2.9)	15(5.2)
자녀에게 필요한 편이다	537(54.4)	453(61.4)	170(49.4)	176(51.8)	137(47.1)
자녀에게 매우 필요했다	420(42.5)	257(34.8)	165(48.0)	152(44.7)	138(47.4)
전체	988(100)	738(100)	344(100)	340(100)	291(100)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조사 결과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 비율은 약 62%였지만, 이 수치는 매년 감소하여 2016년도 49%를 보였다. 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35.9%에서 2016년 50.1%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52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어머니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932(62.7)	843(59.1)	678(49.8)	677(50.9)	628(49.0)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533(35.9)	570(40.0)	675(49.6)	632(47.6)	652(50.1)
기타	21(1.4)	13(.9)	8(.6)	20(1.5)	11(.8)
전체	1,486(100)	1,426(100)	1,361(100)	1,329(100)	1,301(100)

2016년도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위한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어머니들은 학원비 지원(12.9%), 방과 후 수업료 지원(10.7%), 문화체험(8.1%), 특기적성

(8.0%) 및 문화공연 관람(7.7%)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방과후 수업료 지원과 학습지 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학원비 지원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어머니들은 놀이공원 방문, 문화체험 및 문화공연을 위한 지원 요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3 희망하는 자녀 지원: 어머니 (중복응답)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890(12.2)	730(11.8)	682(11.4)	606(11.5)	557(10.7)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819(11.3)	641(10.3)	508(8.5)	434(8.3)	421(8.1)
학원비 지원	764(10.5)	756(12.2)	775(13.0)	669(12.7)	673(12.9)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6(9.4)	568(9.1)	479(8.0)	443(8.4)	404(7.7)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00(8.2)	497(8.0)	447(7.5)	403(7.7)	417(8.0)
대학생 멘토링	523(7.2)	451(7.3)	480(8.0)	379(7.2)	367(7.0)
놀이공원 방문	493(6.8)	356(5.7)	236(4.0)	169(3.2)	160(3.1)
학습지 지원	485(6.7)	401(6.5)	320(5.4)	260(4.9)	214(4.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440(6.0)	373(6.0)	328(5.5)	285(5.4)	338(6.5)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407(5.6)	333(5.4)	312(5.2)	300(5.7)	259(5.0)
급식비 지원	357(4.9)	370(6.0)	389(6.5)	315(6.0)	316(6.1)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52(4.8)	313(5.0)	233(3.9)	224(4.3)	207(4.0)
이중언어교실	278(3.8)	253(4.1)	229(3.8)	204(3.9)	219(4.2)
한국어 교육 지원	159(2.2)	135(2.2)	106(1.8)	86(1.6)	92(1.8)
진로지원 프로그램	–	–	420(7.0)	415(7.9)	515(9.9)
없음	–	18(.3)	21(.4)	48(.9)	45(.9)
기타	20(.3)	14(.2)	9(.2)	15(.3)	9(.2)
전체	7,273(100)	6,209(100)	5,974(100)	5,255(100)	5,213(100)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18%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81%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잘 모르거나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54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어머니(2016) 빈도(%)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전체
빈도(%)	238(18.3)	677(52.0)	386(29.7)	1,301(100)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 중 약 85%(202명)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7%(183명)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에서 실시한 학부모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약 12%의 어머니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약 11%로 나타났다.

표 Ⅳ-55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의 도움 여부: 어머니(2016) 빈도(%)

구 분	예	아니오	참여 안함	전체
빈도(%)	183(76.9)	29(12.2)	26(10.9)	238(100)

(3)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교사의 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6년도 조사 결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는 학습지원(17.1%), 방과 후 수업료 지원(15.1%), 문화체험(14.9%), 문화공연 관람(11.3%), 심리적응 프로그램(9.6)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56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중복응답): 교사 빈도(%)

내용	2012	2013	2014	2015	2016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6(15.1)	139(14.8)	112(17.4)	101(10.5)	71(15.1)
학습지원(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대학생 멘토링, 학습지 지원 등)	178(21.4)	211(22.4)	124(19.3)	108(11.2)	80(17.1)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놀이공원방문 등)	138(16.5)	138(14.6)	93(14.5)	114(11.8)	70(14.9)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8.2)	84(8.9)	57(8.9)	90(9.3)	53(11.3)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53(6.4)	77(8.2)	67(10.4)	107(11.1)	45(9.6)
한국어 교육 지원	47(5.6)	62(6.6)	13(2.0)	55(5.7)	15(3.2)
이중언어교실	39(4.7)	56(5.9)	4(.6)	44(4.6)	8(1.7)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4(6.5)	52(5.5)	49(7.6)	85(8.8)	31(6.6)
급식비 지원	50(6.0)	48(5.1)	47(7.3)	75(7.8)	26(5.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45(5.4)	42(4.5)	24(3.7)	69(7.2)	23(4.9)
진로지원	–	–	35(5.4)	89(9.2)	33(7.0)
기타	35(4.2)	33(3.5)	19(3.0)	27(2.8)	14(3.0)
합계	833(100)	942(100)	644(100)	964(100)	469(100)

교사들에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약 70% 이상의 교사들은 심리적응프로그램, 진로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매우)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방과 후 수업료 지원, 한국어 교육지원, 이중언어 교실 역시 교사들에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7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교사 빈도(%)

구 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2(.6)	13(4.2)	88(28.4)	139(44.8)	68(21.9)
학습지원(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대학생 멘토링, 학습지 지원 등)	2(.6)	8(2.6)	72(23.2)	148(47.7)	80(25.8)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놀이공원방문 등)	3(1.0)	9(2.9)	74(23.9)	155(50.0)	69(22.3)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4(1.3)	12(3.9)	100(32.3)	147(47.4)	47(15.2)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3(1.0)	4(1.3)	56(18.1)	160(51.6)	87(28.1)
한국어 교육 지원	6(1.9)	14(4.5)	86(27.7)	136(43.9)	68(21.9)
이중언어교실	5(1.6)	9(2.9)	99(31.9)	134(43.2)	63(20.3)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1.6)	10(3.2)	117(37.7)	133(42.9)	45(14.5)
급식비 지원	10(3.2)	14(4.5)	112(36.1)	115(37.1)	59(19.0)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4(1.3)	18(5.8)	112(36.1)	125(40.3)	51(16.5)
진로지원	3(1.0)	4(1.3)	66(21.3)	161(51.9)	76(24.5)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직 교사들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학교)교사 비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한 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2014년 22%에서 2016년 2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8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방향: 교사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26(73.9)	218(70.6)	230(76.4)	224(73.4)	223(71.9)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3(17.3)	64(20.7)	67(22.3)	65(21.3)	80(25.8)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15(4.9)	18(5.8)	–	–	–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2(.7)	1(0.3)	–	–	–
기타	10(3.3)	8(2.6)	4(1.3)	16(5.2)	7(2.3)
전체	306(100)	309(100)	301(100)	305(100)	310(100)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요구되는지 교사들에게 조사한 결과 심리적응 프로그램, 문화 체험, 학습지원, 공연 관람,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도 심리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13.9%를 보였으나 2016년도 조사에서는 25.2%를 보이며 약 2배 가까이 상승한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 역시 2012년 7.9%에서 2016년 11.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과 수업료 지원, 문화체험, 한국어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 후 수업료 지원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2014년 10.1%에서 2016년 4.7%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비 지원 및 방과 후 수업료 지원에 대한 부모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Ⅳ-59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교사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180(17.5)	190(16.6)	199(13.9)	131(21.7)	150(25.2)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18(11.4)	134(11.7)	145(10.1)	37(6.1)	28(4.7)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놀이공원 방문 등)	141(13.6)	146(12.7)	166(11.6)	75(12.4)	59(9.9)
한국어 교육 지원	104(10.1)	106(9.3)	110(7.7)	29(4.8)	21(3.5)
학습지원(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대학생 멘토링, 학습지 지원 등)	195(18.9)	175(15.3)	239(16.7)	115(19.0)	109(18.3)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91(8.8)	100(8.7)	104(7.2)	40(6.6)	59(9.9)
이중언어교실	74(7.2)	83(7.3)	119(8.3)	24(4.0)	37(6.2)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7(5.5)	70(6.1)	93(6.5)	25(4.1)	24(4.0)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6(2.5)	42(3.7)	47(3.3)	26(4.3)	22(3.7)
학습비 지원	–	35(3.1)	–	–	–
급식비 지원	18(1.7)	31(2.7)	60(4.2)	20(3.3)	5(.8)
학원비 지원	15(1.5)	23(2.0)	34(2.4)	–	–
진로지원 프로그램	–	–	113(7.9)	65(10.7)	69(11.6)
기타	12(1.3)	8(0.7)	3(.2)	4(.7)	6(.1)
없음	–	1(0.1)	3(.2)	14(2.3)	6(.1)
합계	1,031(100)	1,144(100)	1,435(100)	605(100)	595(100)

(4)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 추이 분석 요약

이 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내용과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 실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성, 정책 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점부터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학부모 조사로부터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나 다른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 내용으로는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대학생 멘토링, 급식비 지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지원에 대해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들은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문화체험 및 공연 관람에 대한 요구는 줄어드는 반면 학습 지원 및 진로지원에 대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 지도 시 학습관련 부분과 진로 관련 부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및 학원비 지원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중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학습지원 및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지원 실태, 필요성, 지원 방향에 대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어머니들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다수의 교사들은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향에 대해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지원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적응 프로그램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방과 후 수업료 지원과 학원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부모와 청소년들의 요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중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2016년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사 대상 모두 (교사, 어머니, 청소년 포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청소년들이 중학교를 진학한 2014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는 오늘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열악한 진로지원 실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했으며, 현재 학교에서 진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 역시 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요약 및 소결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 그리고 교사 모두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과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포부 수준은 중학교 진학 이후 점차 낮아져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청소년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습지원과 미래 진로 준비를 위한 진로지원에 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지원 및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와 함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의 진로지도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로지원 확대 필요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학교 내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으며, 진로교육 혜택을 경험한 청소년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 모두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기획하는 데 필요한 학습지원과 진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미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지원이 열악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지원과 진로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V 장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1.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의 현황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요구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 V 장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8)]

1.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의 현황

본 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장에서 다룰 분석의 주요 영역과 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배경요인으로는 거주지 규모,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 등 총 네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둘째로 진로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진로계획과 진로관련 인식,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진로계획은 장래에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니고 싶은지 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총 5가지 중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한 문항과,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은 '전문대로 충분하다,'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명문대를 가야 한다,' '기타 등 5개 항목이었는데, '기타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유학 가기를 원한다 는 응답까지를 분석에 포함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두 번째로 졸업 후 계획은 '중학교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한 질문으로,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장래 희망 직업이 무엇인지 자유응답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진로관련 인식은 성취동기와 진로의식, 그리고 진로를 계획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인식인 진로장벽인식 등 총 세 가지를 포함하였다.

세 번째로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부모 스스로 지각하는 인식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였다. 부모의 진로관련

8) 5장은 양계민이 집필함. 단, p. 208-224의 청소년 면담결과분석 부분은 윤민종이 집필함.

태도와 행동에 대한 자녀의 인식으로는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하였고, 부모 스스로 지각하는 인식으로는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교육수준과 대학수준, 졸업 후 계획에 대한 부모의 기대, 부모의 학업성취 지원행동, 부모의 자녀학교에 대한 참여, 부모의 진로지원행동, 부모효능감 및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장래 희망직업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및 사회적 관계로 학교적응(학습, 교사, 친구)과 학업성적, 그리고 진로를 의논하는 상대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Ⅴ-1 진로관련 변인의 주요 영역과 변인

영역	변인	
1. 배경요인	거주지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성별 부모 교육수준 월 평균 소득수준	
2. 진로 인식요인	1) 진로계획	학업적 포부수준(학력 및 대학수준) 졸업 후 계획 장래 희망직업
	2) 진로관련 인식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
3. 진로영향요인	3)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방임)
	4) 부모의 태도 및 행동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적 포부수준 자녀의 졸업 후 계획에 대한 부모의 기대 부모의 학업성취 지원행동 부모의 자녀 학교 참여행동 부모의 진로지원행동 부모효능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장래 희망직업
	5) 학교생활 및 사회적 관계	학교적응: 학습, 교사, 친구 학업성적 진로의논상대

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 현황

(1) 다문화청소년의 학업포부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 포부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기 원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78.1%는 대학교까지 다니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2.9%는 대학원까지 다니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여 대다수는 대학교 수준 이상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 20%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의 6.3%만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를 보여서 자녀와 학부모간에 진로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Ⅴ-2 다문화청소년의 학업포부 수준 빈도(%)

범주	다문화집단	
	청소년	학부모
고등학교 이하	253(19.0)	82(6.3)
대학교	1,040(78.1)	1,146(88.1)
대학원	39(2.9)	73(5.6)
합계	1,332(100)	1,301(100)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학교의 수준에 더하여 원하는 대학교의 수준을 질문하였다. 즉, 전문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4년제 대학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명문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이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3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었으며(20.8%),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학부모의 경우도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이면 된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았는데, 이 비율이 청소년의 비율(39.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희망수준이 4년제 대학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Ⅴ-3 다문화청소년의 희망 대학 수준 빈도(%)

범주	청소년	학부모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276(20.8)	245(18.8)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522(39.2)	739(56.8)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167(12.5)	160(12.3)
명문대를 가야 한다	79(5.9)	45(3.5)
기타	335(2.6)	30(2.3)
무응답	253(19.0)	82(6.3)
합계	1,332(100)	1,301(100)

(2) 다문화청소년의 장래 희망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원하는 직업을 특정한 직업이 아닌 직업의 특성에 따라 질문한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는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으나, 학부모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43.7%로 가장 높아서, 학부모들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자녀의 진로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또 한 가지 차이는 자녀들의 경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21.4%였던 것에 비해 학부모의 경우는 8.8%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어린 청소년기들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돈을 많이 벌기 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가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표 Ⅴ-4 장래희망 직업의 특성별 빈도 빈도(%)

범주	청소년	학부모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	555(41.7)	389(29.9)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직업	291(21.8)	568(43.7)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285(21.4)	114(8.8)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업	83(6.2)	88(6.8)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	72(5.4)	117(9.0)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	37(2.8)	11(.8)
기타	9(.7)	9(.7)
합계	1,332(100)	1,301(100)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직업군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직업은 교사 또는 강사였다. 그 다음이 연예인, 공무원, 각종 기술자, 요식업 관련업 등이었는데, 요식업 관련업에는 요리사, 제빵사, 바리스타 등이 포함되었고, 그 중 현재 다문화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중 많은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바리스타를 희망직업으로 제시한 청소년은 전체 중 7명으로 비율로 보면 전체의 0.6%였다. 그 외, 경찰, 각종 디자이너, 학자, 동물사육사, 동물조련사, 심리학자, 통번역사, 국회의원, 대통령, 최고경영자, 국제기구직원, 호텔리어, 방송PD, 기자, 작가 등 매우 다양한 직업군이 제시되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이 특정한 단순자격증 등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수준의 진로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Ⅴ-5 다문화청소년의 원하는 직업순위(N=1,332) 빈도(%)

순위	직업	빈도(%)	순위	직업	빈도(%)
1	교·강사	153(11.5)	21	심리상담 및 치료	20(1.5)
2	연예인	99(7.4)	22	통번역	19(1.4)
3	공무원	73(5.5)	23	예술가	14(1.1)
4	각종 기술자	70(5.3)	24	비행기조종사	12(.9)
5	요식업 관련	61(4.6)	25	작가	12(.9)
6	운동선수, 운동관련업	58(4.4)	26	사업가	11(.8)
7	경찰	54(4.1)	27	국제기구	10(.8)
8	디자이너	51(3.8)	28	음악가	10(.8)
9	회사원	48(3.6)	29	소방관	8(.6)
10	의료인	44(3.3)	30	법조인	8(.6)
11	미용관련	44(3.3)	31	최고경영자	6(.5)
12	건축가	39(2.9)	32	정치가	6(.5)
13	컴퓨터프로그램관련	38(2.9)	33	호텔리어	5(.4)
14	각종 학자	35(2.6)	34	광고기획	4(.3)
15	사회복지사	31(2.3)	35	농축산업	3(.2)
16	동물관련	28(2.1)	36	여행관련	3(.2)
17	만화관련	26(2.0)	37	도서관사서	3(.2)
18	군인	22(1.7)	38	보안, 경호	3(.2)
19	방송관련	23(1.7)		기타	13(1.0)
20	스튜어디스	23(1.7)		무응답	142(10.7)

다문화청소년에 이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직업명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 학부모 역시 교·강사에 대한 선호가 1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무원(18.0%)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어 안정적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를 강하게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의료인, 각종 기술자, 요식업, 경찰, 디자이너, 각종 학자 등 청소년의 응답과 유사하게 다양한 직종들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들을 다루어줄 수 있도록 진로탐색의 범위를 훨씬 더 다양하게 넓혀주는 작업들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표 Ⅴ-6 다문화청소년 학부모의 원하는 직업순위(N=1,301) 빈도(%)

순위	직업	빈도(%)
1	교·강사	241(18.5)
2	공무원	234(18.0)
3	의료인	126(9.7)
4	각종 기술자	81(6.2)
5	회사원	71(5.5)
6	요식관련	52(4.0)
7	경찰	38(2.9)
8	디자이너	37(2.8)
9	미용관련	35(2.7)
10	각종 학자	34(2.6)
11	운동선수 등 운동관련	27(2.1)
12	사회복지사	24(1.8)
13	사업가	22(1.7)
14	통번역	16(1.2)
15	스튜어디스	16(1.2)
16	건축가	14(1.1)
17	컴퓨터프로그램관련	14(1.1)
18	군인	14(1.1)
19	법조인	12(.9)
20	연예인	10(.8)
21	심리상담 및 치료	9(.7)
22	동물관련	8(.6)
23	예술가	8(.6)
24	비행기조종사	7(.5)
25	국제기구	6(.5)
26	음악가	5(.4)
27	작가	5(.4)
28	방송관련	3(.2)
29	최고경영자	2(.2)
30	소방관	2(.2)
31	여행관련	2(.2)
32	만화관련	2(.2)
33	호텔리어	1(.1)
34	도서관사서	1(.1)
35	정치가	1(.1)
	기타	10(.8)
	무응답	111(8.5)

(3)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의 변화

진로의식의 경우 2014년부터 3년간 조사된 내용으로 3년간의 변화를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2014년 1학년 시기에 비해 2015년과 2016년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나 다문화청소년들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이 더욱 고정화되고, 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중산층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선택의 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Ⅴ-7 진로의식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2014	2015	2016	*F*
평균(표준편차)	2.62(.55)$_a$	2.56(.56)$_b$	2.59(.57)$_b$	1316.00**

**p <.01, Bonferroni: a)b

(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의논상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로 의논하는 상대를 고르라고 한 문항에서 3년 연속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대상은 가족이나 친지로 나타났고, 다음이 친구나 선배, 학교 선생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의논하는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 그러나 연도별 변화의 양상을 보면, 가족이나 친지가 진로의논상대라는 응답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비해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약간 감소한 경향이 있었고, 이에 비해 친구나 선배 등 또래집단과 의논한다는 응답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교 선생님과 의논한다는 응답 역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나 선배에 비해 그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학교진로교육 및 진로상담교사의 보급 등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비교적 전문적인 진로상담 및 의논은 아직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에서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진로를 의논하는 상대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로,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있으나 2014년과 2015년 응답비율로 보면 학교선생님과 의논한다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진로에 대해 논의할 수 없고, 학교 교사와도 상담이 안 되며, 아무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지지층이 약함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그 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표 V-8 진로를 의논하는 상대 빈도(%)

대상	2014	2015	2016
가족이나 친지	687(51.6)	634(47.6)	627(47.1)
친구나 선배	243(18.2)	295(22.1)	354(26.6)
학교 선생님	141(10.6)	149(11.2)	172(12.9)
지역사회 기관(청소년관련 센터)의 선생님	7(.5)	16(1.2)	9(.7)
기타	16(1.2)	14(1.1)	23(1.7)
없음	230(17.3)	215(16.1)	147(11.0)
무응답	8(.6)	9(.7)	-
합계	1,332(100)		

요약

○ 다문화청소년의 학업포부수준은 학부모에 비해 더 낮음. 대학까지 가겠다는 비율이 학부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 역시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을 가면 된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으나, 학부모의 경우는 56.8%가 그렇게 응답을 하여 차이를 보여주었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청소년이 학부모보다 더 높았음.

○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학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다문화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으로 안정적인 직업인 교강사나 공무원 등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긴 했지만, 원하는 직업군은 매우 다양하였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전문직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음.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단순 저숙련 직종에 국한된 체험제공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진로를 의논하는 상대는 가족이나 친지가 가장 많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나 친지와 의논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친구나 선배와 의논한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함.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가족 내 사회적 지지층이 약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가족이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음.

2)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인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인식을

제시하는 것 보다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비교를 위한 별도의 연구는 어렵고, 대안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과제인 『청소년활동참여실태조사』의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9].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한 변인으로는 크게 중학교 졸업 후의 계획, 진로장벽인식,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행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였다[10].

(1)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의 차이

우선 첫째로 중학교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다문화청소년 집단과 비(非)다문화청소년 집단 모두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교, 자율고, 예술고, 체육고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다문화청소년 집단과 비(非)다문화청소년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는 일반고, 특성화고 그리고 미결정이라는 응답에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낮았고, 대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자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로 미결정성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조금 더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진로를 고민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일반청소년들의 경우 특별한 고민 없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 대학에 가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금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대안을 고민하기 때문에 미결정이라는 응답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둘 중 어떤 상황인지 이 분석결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요구분석 부분에서 추가로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9) 청소년활동참여실태조사는 2016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단위로 조사한 연구로, 그 중 본 연구와 비교가능한 중 3학생 945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남자가 51.3%, 여자가 48.7%로 반반이었다.

10) 위 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세 가지 요인, 즉, 졸업 후의 계획, 진로장벽인식,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행동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수준 등과 같은 배경변인이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단순히 전체 집단간 비교만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표 V-9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비교 빈도(%)

범주	다문화청소년	일반청소년
일반고 진학	729(54.7)	584(62.1)
특성화고 진학	217(16.3)	100(10.6)
마이스터고 진학	46(3.5)	12(1.3)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진학	21(1.6)	62(6.6)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진학	17(1.3)	45(4.8)
예술고, 체육고 진학	48(3.6)	39(4.1)
해외 유학 또는 이주	8(.6)	5(.5)
더 이상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3(.2)	2(.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38(17.9)	91(9.7)
기타	5(.4)	–
합계	1,332(100)	94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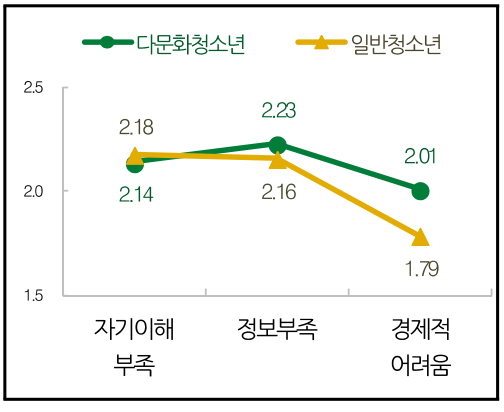
(2) 진로장벽인식의 차이

진로장벽인식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이해부족 요인은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 10 진로장벽인식의 집단 간 차이 평균(표준편차)

하위요인	다문화 청소년 (N=1,332)	일반청소년 (N=945)	*t*
자기이해 부족	2.14(.72)	2.18(.77)	−1.28
정보부족	2.23(.72)	2.16(.75)	2.50*
경제적 어려움	2.01(.62)	1.79(.68)	8.01***

* $p<.05$, *** $p<.001$



(3) 부모 진로지원행동에 인식의 차이

다음으로 어머니의 진로지원 행동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한 어머니의 지지행동에 대한 지각은 유의미하게 낮았고, 관여부족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어머니의 진로지원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청소년들이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아버지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고, 관여 부족은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표 V-11 어머니 진로지원의 집단 간 차이 평균(표준편차)

하위 요인	다문화 청소년 (N=1,332)	일반청소년 (N=945)	*t*
지지	2.88(.64)	3.15(.71)	−9.24***
간섭	2.02(.63)	1.99(.78)	.98
관여부족	2.59(1.24)	1.73(.75)	20.36***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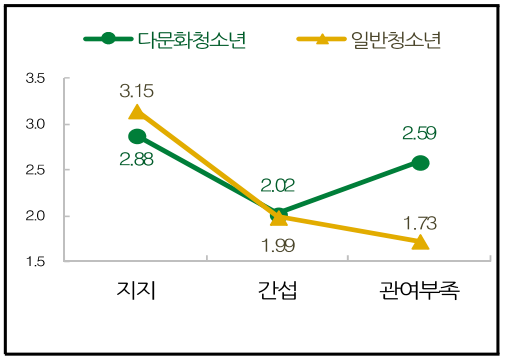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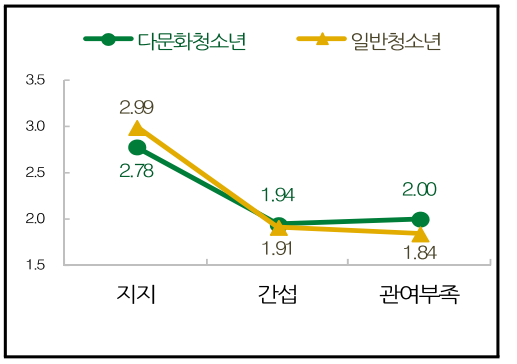


표 V-12 아버지 진로지원의 집단 간 차이 평균(표준편차)

하위요인	다문화 청소년 (N=1,332)	일반청소년 (N=945)	*t*
지지	2.78(.69)	2.99(.79)	−6.63***
간섭	1.94(.67)	1.91(.81)	.98
관여부족	2.00(.90)	1.84(.79)	4.21***

*** $p<.001$



이러한 결과는 물론 개인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지지를 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진로발달에 있어 일반청소년집단과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고,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요약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후의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음.
○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낮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장벽 인식 중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
○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 모두로부터 받는 진로관련 지지의 인식수준은 낮고, 관여부족에 대한 인식은 높음.

3) 진로발달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라 진로관련 변인들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배경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경특성 중 거주지, 성별, 부모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 등 총 네 가지 영역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청소년들의 배경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2016년 응답자 기준 전체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346명으로 전체의 26%였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601명(45.1%),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은 385명(28.9%)이었다[11].

11) 본 연구에서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분석을 하는 이유는 2016년 8월 4일 김현권, 남인순 국회의원실 주최, 한국농어민신문주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국회에서 개최되었던 국회정책토론회('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표 Ⅴ-13 청소년의 거주지 규모별 빈도(%) 빈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합계
빈도(%)	346(26.0)	601(45.1)	385(28.9)	1,332(100)

성별 분포는 아래와 같이 남자가 49.2%, 여자가 50.8%로 거의 반반이었다.

표 Ⅴ-14 청소년의 성별 빈도(%) 빈도(%)

	남자	여자	합계
빈도(%)	655(49.2)	677(50.8)	1,332(100)

부모의 학력수준은 원래 조사 시 아래와 같이 8개 범주로 구체화하여 질문하였으나 범주별 사례 수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분석이 의미 없는 관계로 크게 5개의 범주로 재구조화 하였다.

표 Ⅴ-15 부모 학력수준 빈도(%)

	어머니	아버지
초등학교 졸업 미만	1(.1)	12(.9)
초등학교 졸업	32(2.4)	132(9.9)
중학교 졸업	116(8.7)	244(18.3)
고등학교 졸업	626(47.0)	661(49.6)
전문대학 졸업	338(25.4)	86(6.5)
4년제 대학 졸업	211(15.8)	126(9.5)
석사	6(.5)	9(.7)
박사	2(.2)	2(.2)
무응답	–	60(4.5)
합계	1,332(100)	

에서 농어촌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고, 진로와 같이 청소년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의 경우 거주지 여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5개 범주로 묶어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4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문대학 졸업이 25.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16.4%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49.6%), 중학교 졸업자가 18.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다음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10.8%)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비율(10.3%)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Ⅴ-16 부모 학력수준: 5범주 빈도(%)

	어머니	아버지
초등학교 졸업 이하	33(2.5)	144(10.8)
중학교 졸업	116(8.7)	244(18.3)
고등학교 졸업	626(47.0)	661(49.6)
전문대학 졸업	338(25.4)	86(6.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19(16.4)	137(10.3)
무응답	-	60(4.5)
합계	1,332(100)	

월 평균 소득수준은 평균 224만원 수준이었고 표준편차는 약 100만 원 수준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은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전체 중 세 명이 있었다. 그 분포를 아래와 같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6%,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5%였고,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8%로 가장 낮았다.

표 Ⅴ-17 가정 월 평균 소득수준의 범주별 빈도 빈도(%)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368(27.6)	419(31.5)	339(25.5)	170(12.8)	36(2.7)	1,332(100)

이에 비해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지각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아주 잘 산다'거나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2.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약 50% 정도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8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빈도 빈도(%)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아주 잘산다	무응답	합계
빈도(%)	167(12.5)	517(38.8)	577(43.3)	37(2.8)	3(.2)	31(2.3)	1,332(100)

(가)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

① 진로계획

다음으로 거주지 규모에 따라 학업포부수준이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부의 수준은 단순히 포부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향후 지역 간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되었다.

표 Ⅴ-19 거주지 규모에 따른 학업적 포부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학업포부 수준	3.79(.48)	3.83(.48)	3.85(.50)	1.09
희망대학 수준	2.22(.89)$_a$	2.08(.93)$_b$	1.96(.85)$_b$	6.00**

** $p<.01$, Duncan: a>b

다음으로 거주지 규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이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이상이 일반고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일반고에 진학하겠다는 의견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화고는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청소년들보다 진학의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 등 우수한 성적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의 경우는 대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계획 비율이 낮았으나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가 낮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아서 이를 일반고 진학의지와 함께 놓고 본다면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진로에 대해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보기 보다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향을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교차분석 결과 카이자승값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경향성만을 추론할 뿐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표 V-20 거주지 규모에 따른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의 차이 빈도(%)

범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일반고 진학	185(53.5)	319(53.1)	225(58.4)	729(54.7)
특성화고 진학	64(18.5)	96(16.0)	57(14.8)	217(16.3)
마이스터고 진학	10(2.9)	17(2.8)	19(4.9)	46(3.5)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진학	8(2.3)	9(1.5)	4(1.0)	21(1.6)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진학	7(2.0)	7(1.2)	3(.8)	17(1.3)
예술고, 체육고 진학	10(2.9)	21(3.5)	17(4.4)	48(3.6)
해외 유학 또는 이주	2(.6)	3(.5)	3(.8)	8(.6)
더 이상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1(.3)	2(.3)	–	3(.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58(16.8)	124(20.6)	56(14.5)	238(17.9)
기타	1(.3)	3(.5)	1(.3)	5(.4)
합계	346(100)	601(100)	385(100)	1.332(100)

② 진로관련 인식

다음으로 진로관련인식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 중 자기이해부족,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영역 모두에서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21 거주지 규모에 따른 진로관련 인식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성취동기		3.07(.46)	3.07(.45)	3.03(.50)	.80
진로의식		2.59(.59)	2.58(.57)	2.60(.55)	.15
진로장벽인식	자기이해부족	2.08(.70)	2.18(.73)	2.14(.73)	2.43
	정보부족	2.21(.71)	2.26(.72)	2.23(.71)	.57
	경제적어려움	2.01(.61)	2.02(.63)	2.00(.61)	.18

③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

지역별로 부모의 교육 및 진로에 대한 지원 및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높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의 경우 지지와 간섭은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관여부족에 대한 인식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진로지원 행동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읍면지역의 청소년들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여부족에 대한 인식은 중소도시의 청소년들과 읍면지역의 청소년들보다 대도시 청소년들의 평균값이 낮아서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진로지원행동에 대해서는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높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부모의 교육지원 인식		3.24(.49)$_a$	3.17(.49)$_b$	3.19(.48)$_{ab}$	2.70
어머니 진로지원행동	지지	2.94(.65)	2.86(.64)	2.85(.63)	2.09
	간섭	1.99(.63)	2.04(.64)	2.02(.60)	.68
	관여부족	2.68(1.27)$_a$	2.70(1.25)$_a$	2.34(1.15)$_b$	11.25***
아버지 진로지원행동	지지	2.83(.72)$_a$	2.80(.66)$_a$	2.70(.69)$_b$	3.45*
	간섭	1.88(.65)$_b$	2.00(.69)$_a$	1.92(.67)$_{ab}$	3.15*
	관여부족	1.90(.88)$_b$	2.07(.90)$_a$	1.98(.90)$_{ab}$	4.03*
부모양육태도	감독	3.22(.47)	3.17(.47)	3.20(.50)	1.56
	방임	1.62(.55)$_b$	1.71(.55)$_a$	1.75(.56)$_a$	5.25**

* $p<.05$, ** $p<.01$, *** $p<.001$, Duncan: a>b

④ 부모의 태도 및 행동

다음으로는 부모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이 지역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응답자는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들로 어머니들의 태도라고 보면 되는데,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가 대학을 어디까지 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있어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의 희망대학 수준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학부모가 읍면지역 학부모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교 참여 행동의 경우 거주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에서는 영역 간 양상이 조금 달랐다.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는 진로관련 지지의 수준은 대도시의 평균값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여부족에 대한 인식은 대도시의 평균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학부모들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부모에 비해 진로와 관련된 지지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관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그것보다 조금 낮고, 읍면지역의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여를 가장 덜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부모로써의 효능감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3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진로관련 태도 및 행동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4.00(.36)	4.00(.36)	3.96(.35)	1.52
자녀 희망대학 수준		2.07(.85)$_a$	2.08(.85)$_a$	1.91(.78)$_b$	6.18**
부모 학업성취지원 행동		2.34(.51)$_a$	2.33(.63)$_a$	2.16(.58)$_b$	11.56***
부모 학교 참여		1.28(.36)	1.31(.38)	1.32(.42)	.12
부모 진로지원행동	지지	2.93(.43)$_a$	2.81(.59)$_b$	2.77(.57)$_b$	8.65***
	간섭	2.19(.62)	2.18(.62)	2.18(.57)	.06
	관여부족	2.78(1.27)$_a$	2.75(1.26)$_a$	2.51(1.12)$_b$	5.58**
부모 효능감		3.27(.45)	3.26(.50)	3.33(.50)	1.98

** p<.01, *** p<.001, Duncan: a>b

⑤ 학교생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교적응과 성적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적응 중 학습과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이었다. 따라서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교사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적수준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4 거주지 규모에 따른 학교생활요인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학교 적응	학습	2.91(.52)	2.86(.50)	2.88(.52)	1.14
	교우	3.19(.38)	3.16(.37)	3.19(.39)	1.18
	교사	3.11(.55)$_{ab}$	3.07(.55)$_b$	3.16(.57)$_a$	3.51*
성적수준		3.10(.73)	3.04(.76)	3.13(.76)	1.92

* p<.05, Duncan: a>b

요약

○ 희망하는 교육수준에서는 거주지 규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희망하는 대학수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 수준으로 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로의식과 진로장벽 인식,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인식의 수준에서는 거주지 규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진로지원 행동 중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인식에서는 관여부족에서만 차이가 나타나고 지지와 간섭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지지, 간섭, 관여부족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남. 즉, 대도시 지역의 경우 지지가 높고, 간섭과 관여부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지원행동을 가장 높게 인식함.
○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도 감독요인에서는 거주지 규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방임요인에서는 역시 대도시의 방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에서는 거주지 규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희망하는 대학수준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의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자녀 학업성취를 위한 지원행동의 경우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은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부모가 스스로 지각한 자녀의 진로지원 행동에서는 지지와 관여부족에서 모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간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나) 성별에 따른 차이

① 진로계획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성별에 따라 학업포부수준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포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표 Ⅴ-25 성별에 따른 학업적 포부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t*
학업포부 수준	3.77(.53)	3.87(.42)	−3.81***
희망대학 수준	2.09(.93)	2.08(.87)	−.14

*** $p<.001$

성별에 따라 중학교 졸업 후의 계획을 비교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여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남학생들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위의 학업포부 수준과 함께 생각해보면, 여학생들의 경우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학생들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보다 현실적인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26 성별에 따른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의 차이 빈도(%)

범주	남자	여자	전체
일반고 진학	327(49.9)	402(59.4)	729(54.7)
특성화고 진학	122(18.6)	95(14.0)	217(16.3)
마이스터고 진학	35(5.3)	11(1.6)	46(3.5)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진학	12(1.8)	9(1.3)	21(1.6)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진학	15(2.3)	2(.3)	17(1.3)
예술고, 체육고 진학	24(3.7)	24(3.5)	48(3.6)
해외 유학 또는 이주	6(.9)	2(.3)	8(.6)
더 이상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1(.2)	2(.3)	3(.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11(16.9)	127(18.8)	238(17.9)
기타	2(.3)	3(.4)	5(.4)
합계	655(100)	677(100)	1,332(100)

② 진로관련 인식

그러나 진로와 관련된 인식인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 모든 변인에서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27 진로관련 인식의 성별 차이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t*
성취동기		3.07(.46)	3.05(.48)	.45
진로의식		2.60(.55)	2.58(.60)	.82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2.13(.73)	2.16(.72)	−.83
	정보부족	2.21(.71)	2.26(.72)	−1.30
	경제적 어려움	1.98(.61)	2.03(.63)	−1.55

③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선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 중 지지와 간섭 모두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였고, 관여부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진로지원행동 중 지지와 간섭 모두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역시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을 어느 정도 공유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진로지원의 수준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의 경우는 감독과 방임 모두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28 부모의 지원에 대한 청소년 인식의 성별 차이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t*
부모의 교육지원 인식		3.21(.47)	3.18(.50)	1.46
어머니 진로지원행동	지지	2.92(.63)	2.83(.65)	2.40*
	간섭	2.07(.64)	1.96(.61)	3.18**
	관여부족	2.58(1.25)	2.60(1.23)	−.35
아버지 진로지원행동	지지	2.87(.66)	2.68(.71)	4.91***
	간섭	2.01(.70)	1.89(.65)	3.30***
	관여부족	2.00(.89)	2.00(.90)	.08
부모양육태도	감독	3.19(.47)	3.19(.49)	.13
	방임	1.70(.56)	1.70(.55)	.36

* $p<.05$, ** $p<.01$ *** $p<.001$

④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진로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부모 본인이 지각하는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으로 자녀의 학업에 대한 포부수준과 희망대학수준, 학업성취 지원행동, 학교참여, 부모의 진로지원행동 및 부모효능감 모든 변인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진로지원 관련 행동에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V-29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진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성별 차이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t*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4.00(.36)	3.98(.36)	.54
자녀 희망대학 수준		2.03(.78)	2. 02(.71)	.21
부모 학업성취지원 행동		2.30(.60)	2.26(.58)	1.31
부모 학교 참여		1.30(.38)	1.30(.39)	−.13
부모 진로지원행동	지지	2.84(.55)	2.82(.55)	.44
	간섭	2.19(.61)	2.18(.60)	.19
	관여부족	2.65(1.21)	2.72(1.24)	−1.04
부모 효능감		3.30(.49)	3.27(.48)	.79

⑤ 학교생활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에서도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0 학교생활요인의 성별 차이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t*
학교 적응	학습	2.86(.51)	2.89(.51)	−1.22
	교우	3.18(.39)	3.18(.37)	−.28
	교사	3.11(.54)	3.10(.57)	.51
성적수준		3.11(.78)	3.05(.73)	1.56

요약

○ 학업포부수준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음.
○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지각하였으나 부모 스스로 지각하는 수준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그 외 모든 기타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다) 부모교육수준의 차이

① 진로계획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태도 및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업포부수준과 희망대학수준을 비교한 결과 희망대학의 수준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업포부수준, 즉, 희망하는 최종 교육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 차이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상인 집단과 이하의 차이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그 외 중졸이상 집단에 비해 학업적 포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진로계획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학업포부 수준	3.61(.66)$_b$	3.78(.52)$_a$	3.82(.48)$_a$	3.82(.46)$_a$	3.89(.46)$_a$	2.81*
희망대학 수준	1.91(1.90)	2.02(.83)	2.05(.88)	2.07(.92)	2.23(.96)	1.66

* p<.05, Duncan: a>b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학업포부수준과 희망대학수준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학업포부수준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고, 고졸, 전문대졸, 초졸 이하, 중졸의 순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이고 고졸과 전문대졸, 초졸 이하와 중졸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은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희망대학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진로계획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학업포부 수준	3.78(.55)$_{bc}$	3.72(.54)$_{c}$	3.86(.44)$_{ab}$	3.80(.51)$_{bc}$	3.93(.44)$_{a}$	6.02***
희망대학 수준	1.79(.69)$_{c}$	1.97(.85)$_{bc}$	2.11(.90)$_{b}$	2.17(.91)$_{b}$	2.39(1.01)$_{a}$	7.67***

*** p<.001, Duncan: a>b>c

다음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졸업 후 계획이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과 고졸인 집단의 경우 일반고에 진학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문대 졸업한 집단, 중졸, 초졸 이하 등의 순으로 일반고 진학의 의지를 보였다. 특성화고의 경우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중졸, 전문대졸, 고졸의 순이었으며, 어머니가 4년제 대학을 나온 경우 가장 낮았다. 그 외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과 전문대 졸업인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인 집단과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이 낮은 편이었다.

표 V-33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차이 빈도(%)

범주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전체
일반고 진학	15(45.5)	54(46.6)	367(58.6)	164(48.5)	129(58.9)	729(54.7)
특성화고 진학	8(24.2)	22(19.0)	100(16.0)	64(18.9)	23(10.5)	217(16.3)
마이스터고 진학	1(3.0)	5(4.3)	18(2.9)	11(3.3)	11(5.0)	46(3.5)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진학	–	3(2.6)	11(1.8)	4(1.2)	3(1.4)	21(1.6)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진학	–	1(.9)	6(1.0)	5(1.5)	5(2.3)	17(1.3)
예술고, 체육고 진학	1(3.0)	6(5.2)	17(2.7)	14(4.1)	10(4.6)	48(3.6)
해외 유학 또는 이주	–	1(.9)	4(.6)	2(.6)	1(.5)	8(.6)
더 이상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1(3.0)	1(.9)	1(.2)	–	–	3(.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7(21.2)	23(19.8)	98(15.7)	74(21.9)	36(16.4)	238(17.9)
기타	–	–	4(.6)	–	1(.5)	5(.4)
합계	33(100)	116(100)	626(100)	338(100)	219(100)	1,332(100)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고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을 비교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집단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졸이었으며 세 번째가 4년제 대학 이상, 종졸, 초졸 이하의 순이었다. 특성화고 진학의 경우도 어머니의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의 선택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는 중졸인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이상이 집단의 반응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어머니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와 동일한 양상이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의 경우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순으로 아버지가 전문대를 졸업한 집단의 경우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높았다.

표 V-34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차이 빈도(%)

범주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전체
일반고 진학	75(52.1)	117(48.0)	384(58.1)	51(59.3)	73(53.3)	700(55.0)
특성화고 진학	27(18.8)	58(23.8)	93(14.1)	15(17.4)	17(12.4)	210(16.5)
마이스터고 진학	2(1.4)	9(3.7)	26(3.9)	4(4.7)	3(2.2)	44(3.5)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진학	3(2.1)	3(1.2)	9(1.4)	2(2.3)	3(2.2)	20(1.6)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진학	-	2(.8)	10(1.5)	2(2.3)	3(2.2)	17(1.3)
예술고, 체육고 진학	6(4.2)	6(2.6)	27(4.1)	3(3.5)	2(1.5)	44(3.5)
해외 유학 또는 이주	-	1(.4)	2(.3)	1(1.2)	2(1.5)	6(.5)
더 이상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1(.7)	-	1(.2)	1(1.2)	-	3(.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9(20.1)	48(19.7)	107(16.2)	6(7.0)	33(24.1)	223(17.5)
기타	1(.7)	-	2(.3)	1(1.2)	1(.7)	5(.4)
합계	144(100)	244(100)	661(100)	86(100)	137(100)	1,272(100)

② 진로관련 인식

진로관련 인식의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각각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취동기, 진로의식, 그리고 진로장벽인식의 하위요인 중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진로장벽인식의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부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취동기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 청소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문대졸, 그리고 초졸 이하와 고졸, 중졸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 이상의 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진로의식의 경우 역시 4년제 대학인 집단이 가장 높고 나머지 집단이 그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어머니가 중졸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진로장벽인식 중 정보부족을 느끼는 집단은 어머니학력이 중졸인 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졸, 전문대졸, 초졸 이하였으며,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에서 정보부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정도는 초졸 이하가 가장 낮았고 고졸, 전문대졸, 중졸의 순이었고 역시 4년제 대학 이상의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5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인식 요인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성취동기		3.05(.55)$_{b}$	2.96(.51)$_{b}$	3.03(.46)$_{b}$	3.07(.47)$_{ab}$	3.18(.45)$_{a}$	5.52***
진로의식		2.61(.44)	2.54(.57)	2.56(.55)	2.59(.58)	2.71(.62)	3.16*
진로장벽인식	자기이해부족	2.12(.77)	2.18(.74)	2.17(.70)	2.17(.73)	2.01(.74)	2.16
	정보부족	2.21(.74)$_{ab}$	2.31(.75)$_{a}$	2.28(.70)$_{a}$	2.25(.72)$_{ab}$	2.06(.73)$_{b}$	4.24**
	경제적 어려움	2.20(.85)$_{a}$	1.98(.59)$_{b}$	2.04(.60)$_{ab}$	1.99(.62)$_{b}$	1.94(.63)$_{b}$	2.11*

* p<.05, ** p<.01, *** p<.001, Duncan: a>b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인식 양상과는 달리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성취동기를 제외하고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성취동기의 경우는 아버지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다른 변인은 집단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 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Ⅴ-36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인식 요인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성취동기		3.00(.53)$_b$	3.08(.47)$_{ab}$	3.05(.46)$_{ab}$	3.03(.47)$_b$	3.15(.43)$_a$	2.49*
진로의식		2.58(.57)	2.64(.56)	2.57(.57)	2.57(.60)	2.60(.61)	.54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2.10(.76)	2.11(.70)	2.18(.73)	2.12(.71)	2.08(.72)	.96
	정보부족	2.21(.77)	2.25(.73)	2.27(.71)	2.21(.67)	2.07(.66)	2.32
	경제적 어려움	2.04(.62)	2.02(.63)	2.03(.61)	1.95(.65)	1.89(.62)	1.85

* p<.05, Duncan: a>b

③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지원행동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교육지원행동에서 평균만 볼 때는 어머니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 중 지지와 간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졸과 전문대졸, 다음이 초졸 이하와 중졸의 순이었다. 관여부족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볼 때 초졸 이하인 경우 가장 높고,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진로지원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비교해 본 결과 지지와 간섭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여부족의 경우는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관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초졸 이하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인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인식수준이 다른지 비교한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7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자녀인식 차이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부모의 교육지원 인식		3.03(.58)	3.17(.49)	3.19(.50)	3.19(.47)	3.24(.46)	1.64
어머니 진로지원 행동	지지	2.76(.71)$_b$	2.70(.76)$_b$	2.88(.61)$_{ab}$	2.88(.63)$_{ab}$	2.99(.66)$_a$	4.39**
	간섭	2.28(.71)$_a$	1.97(.62)$_b$	2.04(.60)$_b$	1.96(.62)$_b$	2.05(.69)$_b$	2.65*
	관여부족	2.92(1.38)	2.71(1.26)	2.63(1.23)	2.54(1.20)	2.46(1.26)	1.82
아버지 진로지원 행동	지지	2.61(.79)	2.74(.79)	2.78(.68)	2.74(.67)	2.88(.68)	1.99
	간섭	2.25(.71)	1.97(.65)	1.95(.66)	1.89(.69)	1.96(.70)	2.23
	관여부족	2.48(1.28)$_a$	2.02(.86)$_b$	1.99(.84)$_b$	1.99(.95)$_b$	1.95(.92)$_b$	2.44*
부모양육 태도	감독	3.09(.60)	3.16(.54)	3.18(.47)	3.19(.48)	3.23(.45)	.96
	방임	1.93(.79)	1.74(.53)	1.68(.52)	1.71(.57)	1.69(.59)	1.93

* $p<.05$, ** $p<.01$, Duncan: a>b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진로지원 행동에 대한 자녀의 인식을 비교하였는데,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교육지원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보다 교육지원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의 경우는 지지와 관여부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간섭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지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여부족의 경우는 초졸 이하가 가장 낮고 중졸,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 및 4년제 대학 이상의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지각 역시 지지와 관여부족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지의 경우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는 진로지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았고,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지지에 대한 인식의 수준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 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관여에 대한 부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 수준에 명확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감독과 방임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 교육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표 V-38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자녀인식 차이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부모의 교육지원		3.12(.49)$_b$	3.20(.47)$_{ab}$	3.19(.50)$_{ab}$	3.21(.40)$_{ab}$	3.30(.51)$_a$	2.52*
어머니 진로지원 행동	지지	2.73(.64)$_c$	2.92(.67)$_{ab}$	2.86(.62)$_{bc}$	2.87(.66)$_{bc}$	3.02(.68)$_a$	3.87**
	간섭	2.06(.64)	2.04(.63)	2.00(.62)	2.10(.71)	1.93(.63)	1.29
	관여부족	2.36(1.10)$_b$	2.50(1.20)$_{ab}$	2.67(1.26)$_a$	2.76(1.30)$_a$	2.67(1.35)$_a$	2.70*
아버지 진로지원 행동	지지	2.61(.70)$_c$	2.74(.71)$_{bc}$	2.78(.67)$_b$	2.88(.77)$_{ab}$	2.98(.64)$_a$	5.54***
	간섭	2.02(.69)	1.96(.67)	1.93(.67)	2.00(.69)	1.91(.71)	.76
	관여부족	2.16(.98)$_a$	2.13(.97)$_{ab}$	1.97(.86)$_{ab}$	1.84(.83)$_b$	1.82(.78)$_b$	4.68*
부모양육 태도	감독	3.16(.51)	3.20(.49)	3.18(.48)	3.21(.46)	3.26(.46)	1.03
	방임	1.69(.54)	1.72(.56)	1.70(.56)	1.75(.56)	1.61(.53)	1.24

* p<.05, ** p<.01 *** p<.001, Duncan: a>b>c

④ 부모의 태도 및 행동

다음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가 스스로 느끼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에 대한 포부수준이 달라지는지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 역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의 희망대학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학업지원행동의 경우도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지원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가 자녀의 학교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향성 역시 어머니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스스로 응답한 지원행동의 경우 역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는 높고, 관여부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써의 효능감 역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자녀진로관련 태도 및 인식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3.84(.52)$_b$	3.98(.33)$_a$	3.97(.38)$_a$	4.00(.29)$_a$	4.07(.39)$_a$	4.38**
자녀 희망대학 수준		1.96(.68)	2.00(.70)	1.98(.73)	2.00(.73)	2.20(.80)	3.50**
부모 학업지원 행동		1.91(.51)$_c$	2.17(.59)$_b$	2.25(.57)$_a$	2.34(.60)$_a$	2.40(.58)$_a$	8.04***
부모 학교 참여		1.06(.16)$_c$	1.16(.28)$_c$	1.27(.36)$_b$	1.36(.39)$_a$	1.41(.48)$_a$	13.84***
부모 진로지원행동	지지	2.46(.68)$_d$	2.70(.61)$_c$	2.80(.54)$_b$	2.86(.53)$_b$	3.01(.50)$_a$	11.86***
	간섭	2.13(.62)	2.24(.57)	2.17(.60)	2.20(.63)	2.17(.61)	.38
	관여부족	2.81(1.14)$_{ab}$	2.95(1.12)$_a$	2.72(1.21)$_{ab}$	2.66(1.26)$_a$	2.47(1.24)$_b$	3.26*
부모 효능감		3.14(.51)$_b$	3.16(.47)$_b$	3.26(.48)$_b$	3.29(.49)$_b$	3.44(.47)$_a$	8.26***

* p<.05, ** p<.01, *** p<.001, Duncan: a>b>c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가 지닌 자녀의 진로관련 태도 및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실상 부모의 태도는 대부분 어머니의 응답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태도와 관련성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의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태도 및 인식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제시하였다.

우선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원하는 자녀교육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입학하기를 원하는 대학의 수준 역시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고, 전문대졸과 고졸, 중졸, 초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학업지원행동 역시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았고, 고졸인 집단, 전문대졸 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중졸, 초졸 이하의 순으로 아버지가 초졸 이하인 경우 학업지원행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교 참여 역시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고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의 경우는 하위요인 중 지지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이 고졸, 중졸과 전문대졸, 초졸의

순으로 결국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이고, 나머지 집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효능감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이상인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0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자녀진로관련 태도 및 인식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3.95(.43)$_{b}$	3.96(.34)$_{b}$	3.98(.35)$_{b}$	4.00(.35)$_{b}$	4.11(.34)$_{a}$	4.79***
자녀 희망대학 수준		1.88(.67)$_{c}$	1.94(.73)$_{bc}$	2.04(.72)$_{abc}$	2.08(.87)$_{ab}$	2.20(.77)$_{a}$	4.02**
부모 학업지원 행동		2.09(.61)$_{d}$	2.17(.59)$_{cd}$	2.33(.58)$_{a}$	2.24(.54)$_{ab}$	2.47(.54)$_{a}$	10.67***
부모 학교 참여		1.23(.39)$_{c}$	1.26(.39)$_{bc}$	1.31(.38)$_{bc}$	1.34(.38)$_{ab}$	1.41(.40)$_{a}$	4.98***
부모 진로지원행동	지지	2.72(.67)$_{c}$	2.76(.58)$_{bc}$	2.86(.52)$_{ab}$	2.73(.49)$_{c}$	2.97(.52)$_{a}$	5.63***
	간섭	2.25(.62)	2.16(.58)	2.18(.61)	2.05(.56)	2.17(.60)	1.51
	관여부족	2.56(1.06)	2.61(1.19)	2.74(1.25)	2.85(1.28)	2.79(1.32)	1.47
부모 효능감		3.27(.50)$_{a}$	3.29(.49)$_{a}$	3.30(.50)$_{a}$	3.06(.45)$_{b}$	3.31(.43)$_{a}$	5.14***

** p<.01 *** p<.001, Duncan: a>b>c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녀의 학업성취나 진로와 관련한 지원이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집단과 그 이하인 집단이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지속적인 지원 결핍이 진로 격차로 이어져 향후 사회적 계층의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

⑤ 학교생활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요인이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학교적응 중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적응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다. 어머니 학력이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고, 전문대졸, 초졸 이하와 고졸, 중졸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수준에서 높고, 중졸집단이 다른 집단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의 수준역시 어머니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경우 가장 높고, 고졸과 전문대졸이 다음으로 높은 집단이며 초졸과

중졸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Ⅴ-41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요인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학교적응	학습	2.86(.61)$_{ab}$	2.80(.54)$_{b}$	2.85(.50)$_{ab}$	2.90(.50)$_{ab}$	2.98(.53)$_{a}$	3.72**
	교우	3.18(.40)	3.16(.39)	3.16(.37)	3.17(.38)	3.24(.38)	1.55
	교사	3.08(.55)	3.13(.52)	3.09(.56)	3.10(.56)	3.15(.58)	.67
성적수준		2.99(.74)$_{b}$	2.94(.76)$_{b}$	3.05(.74)$_{ab}$	3.09(.73)$_{ab}$	3.25(.81)$_{a}$	4.13**

** p<.01, Duncan: a>b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요인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와 동일한 양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습관련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우관계나 교사관계는 차이가 없었으며, 성적수준 역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2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요인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 이상	*F*
학교적응	학습	2.84(.50)$_{b}$	2.86(.51)$_{b}$	2.85(.52)$_{b}$	2.95(.45)$_{ab}$	3.04(.55)$_{a}$	4.54***
	교우	3.17(.38)	3.20(.37)	3.17(.38)	3.14(.37)	3.22(.43)	1.10
	교사	3.13(.57)	3.08(.53)	3.10(.57)	3.13(.52)	3.14(.60)	.45
성적수준		2.96(.70)$_{b}$	3.00(.76)$_{b}$	3.08(.75)$_{b}$	3.07(.66)$_{b}$	3.41(.81)$_{a}$	8.34***

*** p<.001, Duncan: a>b

지금까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과 부모 자신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학교적응 등 진로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을 비교해보았는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인식과 진로장벽, 장래 희망하는 교육의 수준과 학교생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해 가능한 결과로 일반 청소년들 및 가정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계층은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정책은 학부모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요약

○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자녀에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달라졌지만, 대학의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대학의 수준은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모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동기와 진로의식이 높고,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수준이 높음.
○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나 진로의식과 진로장벽인식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음.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 중 지지의 수준이 높고, 간섭수준은 낮으며, 아버지의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관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에 대한 학업적 포부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수준이 높음.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지원행동이 높아지고, 부모의 학교참여 정도도 증가하며, 진로와 관련된 지지의 수준이 높고, 관여부족의 수준은 낮아졌으며, 부모효능감이 증가함.
○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적 포부수준이 증가하고,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도 높아지며 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한 행동도 증가하고 학교참여도가 증가하며 진로지원과 관련된 지지가 증가하고, 부모효능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자녀의 진로관련 인식과 부모의 지원행동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네 번째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가정의 경제수준을 크게 200만 원 미만, 200만 원~300만 원, 300만 원~400만 원, 400만 원 이상 등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① 진로계획

첫째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학업포부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적 포부수준의 차이는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그 외 집단의 차이로 나타났다. 즉,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200만 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학업적 포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포부수준과는 달리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즉, 월 평균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 학업적 포부수준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F*
학업포부 수준	3.76(.53)$_b$	3.84(.47)$_a$	3.86(.43)$_a$	3.88(.46)$_a$	4.21**
희망대학 수준	1.95(.84)$_b$	2.02(.92)$_b$	2.18(.89)$_a$	2.31(.91)$_a$	7.68***

** $p<.01$ *** $p<.001$, Duncan: a>b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을 비교한 결과 월 평균 수입이 증가할수록 일반고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은 감소하였다. 또한,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자율고, 예술고 또는 체육고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고, 해외 유학을 가겠다는 응답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4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중학교 졸업 후 계획 차이 빈도(%)

범주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전체
일반고 진학	182(49.5)	229(54.7)	201(59.3)	101(59.4)	713(55.0)
특성화고 진학	73(19.8)	69(16.5)	45(13.3)	21(12.4)	208(16.0)
마이스터고 진학	19(5.2)	12(2.9)	10(2.9)	5(2.9)	46(3.5)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진학	3(.8)	6(1.4)	6(1.8)	6(3.5)	21(1.6)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진학	2(.5)	4(1.0)	5(1.5)	6(3.5)	17(1.3)
예술고, 체육고 진학	13(3.5)	15(3.6)	11(3.2)	8(4.7)	47(3.6)
해외 유학 또는 이주	2(.5)	2(.5)	–	4(2.4)	8(.6)
더 이상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1(.3)	1(.2)	1(.3)	–	3(.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71(19.3)	80(19.1)	58(17.1)	19(11.2)	228(17.6)
기타	2(.5)	1(.2)	2(.6)	–	5(.4)
합계	368(100)	419(100)	339(100)	170(100)	1,296(100)

② 진로관련 인식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성취동기와 진로장벽인식 중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취동기의 경우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장벽인식 중 정보부족은 400만원 미만인 집단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5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관련 인식 차이 평균(표준편차)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F*
성취동기		3.02(.50)$_b$	3.05(.47)$_b$	3.08(.45)$_a$	3.14(.45)$_a$	3.20*
진로의식		2.56(.57)	2.58(.55)	2.62(.57)	2.61(.62)	.91
진로 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2.14(.72)	2.17(.72)	2.16(.72)	2.06(.73)	.93
	정보부족	2.28(.72)$_a$	2.26(.70)$_a$	2.24(.73)$_a$	2.10(.73)$_b$	2.68*
	경제적 어려움	2.13(.65)$_a$	2.04(.63)$_{ab}$	1.94(.58)$_b$	1.82(.57)$_c$	11.81***

*p<.05, *** p<.001, Duncan: a>b>c

③ 부모의 진로지원 행동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행동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400만 원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차이로, 월 평균 소득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400만 원 이하인 집단보다 부모의 교육관련 지원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진로지원행동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가 높고, 관여부족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인식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아버지의 진로지원행동과 관련해서는 지지와 관여부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진로지원 중 지지의 경우는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200만 원~400만 원 미만, 그리고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관여부족의 경우 역시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장 높았고 200만 원~400만 원 미만 집단이 다음이었으며, 400만 원 이상인 집단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관여부족인식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관여가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방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감독에서만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는데, 역시 월 평균 수입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부모로부터 감독받고 있다는 지각을 나머지 집단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6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 평균(표준편차)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F*
부모교육지원에 대한 인식		3.14(.51)$_b$	3.20(.48)$_b$	3.20(.45)$_b$	3.32(.50)$_a$	5.35***
어머니 진로지원 행동	지지	2.81(.68)$_b$	2.91(.57)$_{ab}$	2.88(.67)$_{ab}$	2.94(.67)$_a$	2.18
	간섭	2.00(.62)	2.02(.64)	2.04(.62)	2.04(.66)	.25
	관여부족	2.59(1.22)$_{ab}$	2.62(1.27)$_a$	2.68(1.28)$_a$	2.40(1.13)$_b$	2.01
아버지 진로지원 행동	지지	2.67(.71)$_c$	2.79(.67)$_b$	2.78(.71)$_b$	2.94(.65)$_a$	6.06***
	간섭	1.92(.70)	1.94(.67)	1.98(.67)	1.96(.68)	.45
	관여부족	2.22(1.10)$_a$	1.97(.91)$_b$	1.94(.70)$_b$	1.77(.64)$_c$	11.70***
부모양육 태도	감독	3.13(.50)$_b$	3.21(.45)$_{ab}$	3.19(.49)$_b$	3.27(.47)$_a$	3.95**
	방임	1.73(.55)	1.67(.56)	1.72(.53)	1.67(.60)	1.14

** p<.01 *** p<.001, Duncan: a>b>c

④ 부모의 태도 및 행동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 스스로 지각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식수준이 다른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의 학업적 포부수준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학업적 포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대학에 대한 기대수준은 3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모의 학업성취를 위한 학업지원행동의 경우는 400만 원 인상인 집단이 가장 높고,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인 집단이 다음으로 높으며,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학교참여의 경우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결과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인식 역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지지 요인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를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이 200만 원~400만 원인 집단이었고,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었다. 간섭의 경우는 그 반대로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부모가 진로와 관련하여 간섭을 한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200만 원~400만 원 미만이었으며,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간섭에 대한 지각수준이 가장 낮았다. 관여 부족에 대한 지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산출되지 않았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400만원 이상인 집단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관여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 47 월 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진로관련 태도 및 행동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F*
자녀학업적 포부수준		3.94(.39)$_b$	4.00(.35)$_a$	3.99(.29)$_{ab}$	4.04(.38)$_a$	3.83**
자녀 희망대학 수준		1.95(.86)$_b$	1.96(.70)$_b$	2.10(.75)$_a$	2.19(.79)$_a$	5.98***
부모학업지원행동		2.16(.60)$_c$	2.24(.54)$_c$	2.36(.58)$_b$	2.51(.61)$_a$	17.66***
부모학교참여		1.30(.40)$_b$	1.28(.36)$_b$	1.28(.39)$_b$	1.40(.41)$_a$	4.40**
부모 진로지원 행동	지지	2.74(.61)$_c$	2.85(.49)$_b$	2.84(.53)$_b$	2.96(.55)$_a$	7.03***
	간섭	2.25(.62)$_a$	2.16(.64)$_{ab}$	2.18(.59)$_{ab}$	2.10(.61)$_b$	2.95*
	관여부족	2.73(1.20)	2.72(1.28)	2.72(1.18)	2.46(1.21)	2.28
부모효능감		3.26(.50)$_b$	3.27(.47)$_b$	3.27(.46)$_b$	3.39(.50)$_a$	3.20*

* $p<.05$, ** $p<.01$ *** $p<.001$, Duncan: a>b>

⑤ 학교생활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요인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중 학습관련 적응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적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적응

중 학습의 차이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그 이상인 집단의 차이로 볼 수 있고, 성적수준은 400만 원 이상인 집단과 그 이하인 집단의 차이로 요약될 수 있었다.

표 Ⅴ-48 월 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요인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F*
학교적응	학습	2.82(.53)$_{b}$	2.88(.49)$_{ab}$	2.90(.48)$_{ab}$	2.96(.57)$_{a}$	3.30*
	교우	3.16(.38)	3.16(.38)	3.20(.36)	3.20(.40)	.81
	교사	3.12(.55)$_{ab}$	3.07(.56)$_{b}$	3.09(.57)$_{b}$	3.19(.53)$_{a}$	2.19
성적수준		2.98(.75)$_{b}$	3.10(.70)$_{b}$	3.09(.73)$_{b}$	3.32(.86)$_{a}$	8.34***

* $p<.05$, *** $p<.001$, Duncan: a>b>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장래 학업적 포부, 진로인식, 진로장벽인식, 부모의 지원 및 부모의 기대, 학교생활 모두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결국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들의 진로격차를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향후 정책적 방안 모색 시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요약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학업지원, 학습적응 및 학교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대, 진로인식, 진로장벽인식 등에도 영향을 미침.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이 점차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기타 변인의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청소년의 진로 및 진로관련 요인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성별, 부모학력수준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기타 변인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배경변인과 진로관련 변인의 상관관계를 전체 집단에 대해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진로의식은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정적상관이 있을 뿐 다른 변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관련 인식 중 진로장벽인식은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주로 관련이 있었는데,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부족,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세 가지 요인 모두와 부적 상관이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인식의 수준은 낮았다. 그에 비해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진로장벽인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벽인식 한 가지에서만 부적으로 상관된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소득수준은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두 가지 요인과 부적으로 상관되었는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부적 상관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수준이 성취동기와 진로장벽인식의 주요 관련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아버지의 학력수준보다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어머니 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교육 및 진로관련 지원, 그리고 양육태도가 배경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진로지원 중 지지는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아버지의 학력수준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성별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남자가 1, 여자가 2로 코딩되었기 때문에 코딩 값이 높은 집단의 평균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남자 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에 비해 어머니의 진로와 관련된 지지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간섭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간섭을 덜 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월 평균소득수준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인식과 별개로 부모가 직접 느끼는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지원인식, 부모효능감 등이 배경변인에 따라 다른지 비교한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성별은 부모 스스로 지각하는 태도 및 인식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력수준, 아버지의 학력수준, 그리고 월 평균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적 포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고,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수준도 높았으며 자녀의 학습성취를 위한 지원 및 학교참여 행동도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진로지원 중 지지에 대한 인식 역시 부모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소득수준과 정적으로 상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섭의 경우는 월 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관여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낮아졌고,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오히려 관여부족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관여부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 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교우관계나 교사관계는 배경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적응과 학교 성적의 경우 부모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두 변인의 값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9 배경변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전체)

변인			자녀 성별	어머니 학력 수준	아버지 학력 수준	월 평균 소득 수준
진로관련 인식	성취동기		–	.12***	.06*	.08**
	진로의식		–	.08**	–	–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	–.05**	–	–
		정보부족	–	–.09**	–	–.07*
		경제적 어려움	–	–.06**	–.06*	–.16***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교육지원		–	.06**	.08**	.10***
	어머니 진로지원	지지	–.07*	.10***	.08**	–
		간섭	–.09**	–	–	–
		관여부족	–	–.07**	.08**	–
	아버지 진로지원	지지	–.14***	–	.13***	.11***
		간섭	–.09***	–	–	–
		관여부족	–	–	–.12***	–.16***
	양육태도	감독	–	–	–	.08**
		방임	–	–	–	–
부모의 태도 및 행동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	.10***	.11***	.08**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	.08**	.12***	.11***
	부모 학습 지원		–	.15***	.16***	.20***
	부모 학교 참여		–	.20***	.12***	.06*
	부모 진로지원	지지	–	.18***	.10***	.11***
		간섭	–	–	–	–.07**
		관여부족	–	–.09***	.06**	–
	부모 효능감		–	.15***	–	.07*
학교생활	학교 적응	학습	–	.10***	.10***	.09**
		교우관계	–	–	–	–
		교사관계	–	–	–	–
	성적수준		–	.10***	.14***	.12***

* $p<.05$, ** $p<.01$, *** $p<.001$

이러한 결과를 보면, 다문화청소년이 지닌 배경변인은 진로 관련 인식 및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되고,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되는데, 진로장벽인식의 경우는 특히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고, 이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으로부터 오는 가치와 자녀 교육 및 관심 등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정책적 지원의 초점에 어머니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이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경우 환경적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변인과 진로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가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다른지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의 경우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및 월 평균 소득수준은 성취동기나 진로의식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진로장벽인식과 상관이 높은 것은 월 평균 소득수준이었다. 부모의 교육지원에서 보면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교육적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졌고, 어머니의 진로지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 중 아버지의 지지는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수준, 아버지의 학력수준, 월 평균 소득수준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부모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진로지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관여부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 즉, 아버지가 관여를 많이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전체 집단의 양상과 동일한 양상이었다. 이에 비해 부모의 감독이나 방임과 같은 양육태도는 배경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녀의 학업적 포부수준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지원의 정도와 학교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교참여도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는 진로에 대한 지원 정도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대해서만 상관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스스로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간섭정도는 전체분석과 달리 자녀가 여학생일 때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부모효능감은 전체집단 분석의 양상과 동일하게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의 경우, 전체 집단의 양상과 달리 대도시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적응의 수준이 높아졌고, 월 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수준은 부모님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0 배경변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대도시)

			자녀 성별	어머니 학력 수준	아버지 학력 수준	월 평균 소득 수준
진로관련 인식	성취동기		–	–	–	–
	진로의식		–	–	–	–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	–	–	–.13*
		정보부족	–	–.15**	–.11*	–.17**
		경제적어려움	–	–	–	–.26***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교육지원		–	–	.15**	.11*
	어머니 진로지원	지지	–	.12*	–	–
		간섭	–.12**	–	–	–
		관여부족	–	–	–	–
	아버지 진로지원	지지	–.14**	.11*	.12*	.17**
		간섭	–.13*	–	–	–
		관여부족	–	–	–	–.18***
	양육태도	감독	–	–	–	–
		방임	–	–	–	–
부모의 태도 및 행동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	.19***	.16**	–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	–	–	–
	부모 학습 지원		–	.11*	–	.17**
	부모 학교 참여		–	.26***	.15**	–
	부모 진로지원	지지	–	.22***	–	–
		간섭	–.14**	–	–	–
		관여부족	–	–	–	–
	부모 효능감		–	.13**	–	.14*
학교생활	학교 적응	학습	–	–	.17**	–
		교우관계	–	–	–	.11*
		교사관계	–	–	–	.12*
	성적수준		–	.11**	.19***	.13*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중소도시의 배경변인과 진로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성취동기 및 진로의식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대도시와 마찬가지였으나 대도시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정보부족 변인과 관련된 것에 비해 중소도시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은 월 평균 소득수준과의 관계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이나 양육태도에 대해 느끼는 인식에서는 여학생일수록 간섭을 덜 인식한다는 점은 대도시와 유사한 양상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를 더 많이 인식한 대도시와는 달리 관여부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진로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도시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관여부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점도 대도시와 다른 점이었다.

이에 비해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는 자녀 진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보면, 자녀의 학업적 포부수준이 부모의 학력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던 대도시 집단에 비해 중소도시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교참여도가 증가하고 부모의 진로지원 중 지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효능감과 학습과 관련된 학교적응수준 및 성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자녀의 성적과 관련되고 아버지의 학력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대도시와 달리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고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이 정적으로 상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성취동기, 진로의식 및 학교적응 중 학습적응 등에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읍면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에서 읍면지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Ⅴ-51 배경변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중소도시)

			자녀 성별	어머니 학력 수준	아버지 학력 수준	월 평균 소득 수준
진로관련 인식	성취동기		–	.14***	–	–
	진로의식		–	.08*	–	–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	–	–	–
		정보부족	–	–	–	–
		경제적어려움	–	–	–.11*	–.14***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교육지원		–	–	–	.12**
	어머니 진로지원	지지	–	–	–	–
		간섭	–.09*	–	–	–
		관여부족	–	–.12**	–	–
	아버지 진로지원	지지	–.12**	–	.11**	–
		간섭	–.11**	–	–	–
		관여부족	–	–	–.15***	–.18***
	양육태도	감독	–	–	–	.09**
		방임	–	–	–	–
부모의 태도 및 행동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	–	–	–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	.12**	–	–
	부모 학습 지원		–	.16***	.16***	.18***
	부모 학교 참여		–	.23***	.14***	–
	부모 진로지원	지지	–	.19***	.12**	.12**
		간섭	–	–	–	–.13**
		관여부족	–	–.12**	–	–.11**
	부모 효능감		–	.17***	–	–
학교생활	학교 적응	학습	–	.11**	–	–
		교우관계	–	–	–	–
		교사관계	–	–	–	–
	성적수준		–	–	.13**	.11**

* $p<.05$, ** $p<.01$, *** $p<.001$

읍면지역의 경우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성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 아버지의 진로지원 중 지지와 부모의 학습지원이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진로지원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의 학습지원수준을 남학생보다 낮게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나타난 간섭과 달리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변인으로 생각되는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의지대로 하도록 자유를 준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나 진로 및 학습성취를 위한 지원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자녀의 진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읍면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향후 진로인식 및 개발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관련되는 변인이 성취동기, 진로지원 중 지지, 그리고 아버지의 진로지원 중 관여부족이었고, 부모의 학습지원과 학교참여 및 부모 스스로 인식하는 진로 지지인식, 부모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중 학습적응이었고 성적수준도 정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관련되는 변인으로는 아버지의 진로지원 중 지지, 자녀의 학업적 포부에 대한 기대수준,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 수준, 부모의 학습지원, 학교참여 등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부모의 진로지원 중 관여부족 및 성적수준도 나타났는데, 모두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다. 월 평균 소득수준의 경우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달리 성취동기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장벽 인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인식의 수준과 부적으로 상관되었다. 또한 월 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진로지원 중 관여부족의 수준이 낮아지고,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수준이 높아지고, 부모의 학습지원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스스로 인식하는 지지의 수준과 부모효능감이 증가하였고, 학교적응 중 학습관련 적응수준 및 성적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 상관관계 분석을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중요하다는 것과 월 평균소득수준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그리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 대한 진로지지 및 관여의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계층과 부모가 지닌 학력자본의 격차가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및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성이 집단적으로 지속·강화될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특정계층화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정책을 고려할 때 청소년 당사자의 역량에 직접적인 투자 및 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인, 특히 학부모의 학력자본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52 배경변인과 진로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읍면지역)

			자녀 성별	어머니 학력수준	아버지 학력수준	월 평균 소득 수준
진로관련 인식	성취동기		–	.16**	–	.16**
	진로의식		–	–	–	–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	–	–	–
		정보부족	–	–	–	–
		경제적어려움	–	–	–	–.14**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교육지원		–	–	–	–
	어머니 진로지원	지지	–	.14**	–	–
		간섭	–	–	–	–
		관여부족	–	–	.10*	–
	아버지 진로지원	지지	–.14**	–	.13*	–
		간섭	–	–	–	–
		관여부족	–	–.12*	–	–.11**
	양육태도	감독	–	–	–	–
		방임	–	–	–	–
부모의 태도 및 행동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	–	.12*	–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	–	.19***	.25***
	부모 학습 지원		–.11*	.15**	.16**	.19***
	부모 학교 참여		–	.12*	.12*	–
	부모 진로지원	지지	–	.14**	–	.13*
		간섭	–	–	–	–
		관여부족	–	–	.11*	–
	부모 효능감		–	.14**	–	.13*
학교생활	학교 적응	학습	–	.11*	–	.10*
		교우관계	–	–	–	–
		교사관계	–	–	–	–
	성적수준		–	.14**	.15**	.16**

* $p<.05$, ** $p<.01$, *** $p<.001$

지금까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인식과 관련된 여러 특성들이 그들이 지닌 배경변인이 따라 다른지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 즉,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 등이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자녀의 지각 및 부모의 지각), 학교생활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성취동기는 부모의 교육적 지원, 어머니의 진로지원, 아버지의 진로지원 중 지지와 관여부족과 관련 있었고, 부모의 감독과 방임, 자녀 학업적 포부수준,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수준, 부모의 학습지원, 부모학교참여도, 부모가 지각하는 지지의 수준 및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중 학습적응,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그리고 성적수준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취동기와 관련이 높은 변인은 부모의 교육적 지원과 학교생활이었다. 그에 비해 진로의식의 경우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적 포부수준 및 대학수준, 학습지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가 스스로 인식하는 진로지원 중 간섭과 관여부족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중 학교적응변인 모두와 성적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 인식도 학교생활요인의 모든 변인과 부적으로 상관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인식에는 학교적응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 역시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인식에 중요한 변인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지원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적 관계가 있을 뿐 진로의식이나 자기이해부족 및 정보부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스로 느끼는 지원의 정도보다는 자녀가 지각하는 지원의 정도가 자녀의 성취동기나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3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전체)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정보부족	경제적어려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교육지원		.45***	.16***	−.25***	−.23***	−.31***
	어머니 진로 지원	지지	.26***	.14***	−.15***	−.19***	−.16***
		간섭	−.07**	−.14***	.18***	.15***	.21***
		관여부족	−.09***	−.08**	.13***	.16***	.17***
	아버지 진로 지원	지지	.26***	.12**	−.15***	−.19***	−.19***
		간섭	−	−.12***	.17***	.12***	.16***
		관여부족	−.14***	−.06*	.17***	.19***	.26***
	양육 태도	감독	.37***	.18***	−.22***	−.21***	−.25***
		방임	−.17***	−.11***	.17***	.15***	.23***
부모의 태도 및 행동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08**	−	−	−	−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16***	−	−.07*	−.09**	−.10***
	부모 학습 지원		.10***	−	−	−	−.08**
	부모 학교 참여		.12***	.06*	−.10***	−.11***	−.11***
	부모 진로 지원	지지	.15***	.08**	−	−.11***	−.10***
		간섭	−	−	.08**	−	−
		관여부족	−	−	−	−	−
	부모 효능감		.21***	.06*	−.08**	−.12***	−.10***
학교 생활	학교 적응	학습	.57***	.23***	−.32***	−.37***	−.29***
		교우	.45***	.19***	−.31***	−.34***	−.31***
		교사	.41***	.18***	−.22***	−.25***	−.23***
	성적수준		.41***	.17***	−.22***	−.24***	−.18***

* $p<.05$, ** $p<.01$, *** $p<.001$

이러한 변인들 간의 차이에 대해 역시 지역별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집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대도시의 경우 전체 집단으로 한 것과 달리 어머니의 진로지원 중 간섭과 관여부족에서 전체 집단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지지에서는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 모든 변인과 정적, 또는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섭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간섭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성취동기, 진로인식과 진로장벽 인식 중 자기이해부족과 정보부족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관여부족 역시 성취동기와 진로의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진로지원은 진로의식과는 모두 상관이 없고, 성취동기와 진로장벽인식에서만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양육태도 중에서도 감독의 경우 다섯 가지 변인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방임의 경우는 성취동기와 부적상관을, 경제적 어려움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가 직접 지각하는 태도 및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적 포부수준을 높게 지닐수록,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 수준을 높게 지닐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학업적 포부수준이 높을수록 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지원이나 학교참여 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각하는 인식이 성취동기와 진로의식과 상관있었던 전체 집단의 결과와 달리 대도시의 경우는 부모의 진로지원인식과 성취동기 및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의 진로지원 중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효능감과 학교생활은 모든 진로관련 인식과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변인은 진로관련 인식과 정적 또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표 V-54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대도시)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정보부족	경제적어려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교육지원		.40***	.17**	−.27***	−.25***	−.32***
	어머니 진로 지원	지지	.20***	.16**	−.13*	−.12*	−.15**
		간섭	−	−	−	−	.19***
		관여부족	−	−	.12*	.14**	.11*
	아버지 진로 지원	지지	.17***	−	−.13*	−.14**	−.20***
		간섭	−.11*	−	.14*	.12*	.16**
		관여부족	−.13*	−	.17**	.18**	.24***
	양육 태도	감독	.34***	.19***	−.29***	−.26***	−.31***
		방임	−.14**	−	−	−	.15**
부모의 태도 및 행동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15**	−	−	−.12*	−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18**	−	−	−	−
	부모 학습 지원		−	−	−	−	−.14*
	부모 학교 참여		−	−	−.11**	−	−.17**
	부모 진로 지원	지지	−	−	−.12**	−.15**	−.15**
		간섭	−	−	−	−	−
		관여부족	−	−	−	−	−
	부모 효능감		.21***	.14**	−.15**	−.22***	−.18***
학교 생활	학교 적응	학습	.62***	.20***	−.33***	−.35***	−.29***
		교우	.37***	.15**	−.25***	−.32***	−.32***
		교사	.35***	.22***	−.25***	−.27***	−.27***
	성적수준		.40***	.14**	−.25***	−.28***	−.25***

* $p<.05$, ** $p<.01$, *** $p<.001$

대도시의 경우는 어머니의 진로지원 중 지지와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과 관련이 있었고, 간섭은 진로장벽인식 중 경제적 어려움과, 관여부족은 진로장벽인식의 세 가지 변인과 상관이 있었다. 이에 비해 성취동기나 진로의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중소도시의 경우 어머니의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은 진로의식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정적으로 또는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의 진로지원 중 지지는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

식의 세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간섭은 성취동기를 제외한 네 가지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관여부족은 성취동기와 진로장벽인식 중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진로의식과 자기이해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지 않았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부모감독은 모든 진로관련 인식변인과 상관이 있었고 방임은 성취동기와 경제적 어려움 두 가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양육 모두 진로관련 인식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감독의 태도가 높을수록 성취동기와 진로의식은 높아지고 진로장벽인식은 낮아졌으며, 방임은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어 방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와 진로의식이 낮아지고 진로장벽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는 태도 및 행동요인을 보면, 부모가 자녀의 학업적 포부수준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성취동기,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희망하는 대학수준은 성취동기와 정적으로, 진로장벽인식의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과는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습지원의 경우는 진로관련 변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학교참여수준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상관이, 진로장벽인식 중 자기이해부족 및 정보부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진로지원 중 지지요인이 성취동기와 정적으로, 진로장벽인식 중 정보부족과 부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벽인식과 부적상관을 보인 대도시의 양상과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 외 부모의 진로지원 중 간섭 및 관여부족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도시와 유사하였다. 또 하나 대도시와 다른 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부모효능감인데, 대도시의 경우 부모효능감은 모든 진로인식 관련 변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는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을, 진로장벽인식 중 정보부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외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변인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대도시와 동일하였다.

표 V-55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중소도시)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정보부족	경제적어려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교육지원		.46***	.14***	−.21***	−.19***	−.26***
	어머니 진로 지원	지지	.24***	−	−.09**	−.16***	−.13***
		간섭	−.09*	−.17***	.20***	.17***	.21***
		관여부족	−.11**	−.09*	.13**	.15***	.19***
	아버지 진로 지원	지지	.26***	.10*	−.10*	−.15***	−.18***
		간섭	−	−.14***	.15***	.11**	.13***
		관여부족	−.13**	−	−	.11**	.21***
	양육 태도	감독	.37***	.16***	−.16***	−.17***	−.22***
		방임	−.18***	−.09*	.15***	.11**	.20***
부모의 태도 및 행동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	−	−	−	−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15***	−	−	−.11**	−.12**
	부모 학습 지원		−	−	−	−	−
	부모 학교 참여		.14***	−	−.11**	−.11**	−
	부모 진로 지원	지지	.11**	−	−	−.10*	−
		간섭	−	−	−	−	−
		관여부족	−	−	−	−	−
	부모 효능감		.19***	−	−	−.11**	−
학교 생활	학교 적응	학습	.51***	.26***	−.29***	−.37***	−.27***
		교우	.45***	.20***	−.31***	−.33***	−.30***
		교사	.42***	.16***	−.19***	−.23***	−.19***
	성적수준		.37***	.16***	−.15***	−.18***	−.12**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읍면지역의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아버지의 진로지원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더 많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는 점, 그리고

부모의 학습지원이 성취동기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진로관련 지지가 자녀의 진로의식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 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소도시와 유사하였다.

표 V-56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읍면지역)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 인식		
					자기이해부족	정보부족	경제적어려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교육지원		.48***	.18***	−.30***	−.28***	−.38***
	어머니 진로 지원	지지	.35***	.22***	−.25***	−.32***	−.22***
		간섭	−	−.20***	.25***	.19***	.22***
		관여부족	−.12*	−	.15**	.20***	.18***
	아버지 진로 지원	지지	.33***	.19***	−.24***	−.28***	−.20***
		간섭	−	−.13**	.22***	.11**	.20***
		관여부족	−.17***	−.12*	.30***	.31***	.35***
	양육 태도	감독	.38***	.21***	−.25***	−.23***	−.24***
		방임	−.16***	−.19***	.27***	.23***	.36***
부모의 태도 및 행동	자녀 학업적 포부 수준		.17***	−	−	−	−
	희망하는 자녀 대학 수준		.16**	−	−	−	−
	부모 학습 지원		.16**	−	−	−	−.12*
	부모 학교 참여		.22***	.13*	−	−.13*	−.13**
	부모 진로 지원	지지	.24***	.11*	−	−.10*	−
		간섭	−	−	.12*	−	−
		관여부족	−	−	−	−	−
	부모 효능감		.25***	−	−	−	−
학교 생활	학교 적응	학습	.61***	.21***	−.36***	−.39***	−.31***
		교우	.50***	.21***	.35***	−.36***	−.33***
		교사	.44***	.18***	−.23***	−.27***	−.26***
	성적수준		.49***	.21***	−.28***	−.29***	−.21***

* $p<.05$, ** $p<.01$, *** $p<.0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부모 진로지원 행동이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 등과 더 많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보이며, 이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부모를 대신할만한 지원시스템이 덜 갖추어져 있고 청소년들이 진로체험 등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적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

○ 다문화청소년이 지닌 배경변인과 진로관련 인식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업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진로관련 인식요인인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이나 학교참여 등의 요인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등 관계적 측면의 학교적응은 부모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과 상관이 없었고, 학습활동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배경변인과 진로관련 변인의 상관관계를 지역으로 보았을 때, 대도시는 주로 진로장벽인식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월 평균소득수준과 부적으로 상관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진로장벽인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벽인식만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과 기타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취동기,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인식은 학교적응과 성적수준과 같은 학교생활요인과 전반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음.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적응, 특히 학습적응과 성적 등 학업성취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드러내는 결과이며,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진로 자체가 아니라 학습지원 등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부모의 교육적 지원, 부모의 진로지원에 대한 자녀의 인식 등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중요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역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에서 청소년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 특히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진로관련 인식, 즉,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위의 상관분석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여러 변인들이 서로 관련성이 높아서 각각의 변인들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유사한 요인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거나 없게 산출되어 해석상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하여 유사한 것 끼리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이 때 모든 변인을 요인분석에 포함하기 상관분석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관계성이 산출된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6개 요인이 산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주로 주변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나 지원으로 사회적 지원 또는 사회적 지지로 개념화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학교적응 중 학습적응과 성적수준으로 주로 학업적인 성취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로관련 지지요인이었고, 네 번째는 부모의 학습지원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부모효능감이었는데, 이는 자녀의 학습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동, 그리고 부모로써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유능하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두 개념은 서로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학생 부모 중에서 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모는 효능감도 높다는 특성이 있어서 이를 자녀학습관여 및 효능감으로 묶었다. 다섯 번째 요인이 부모의 학력과 월 평균 소득수준인 사회경제적 배경이었고, 마지막 변인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었다.

다음 단계로 각 변인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서 6개 요인으로 만들고 이 6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진로관련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종속변인에 대하여 학업성취요인과 사회적 지지요인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학업성취요인은 진로장벽인식 중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인식을 증진시키고 진로장벽인식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진로체험이나 진로인식만을 다루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청소년의 학교적응, 특히 그 중 학습적응이나 학업성적 등 학업성취가 매우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진로장벽인식 중 경제적 어려움과 직접적으로 상관되어 있었고, 그 외 다른 종속변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이나 부모가 청소년의 진로에 대하여 보내는 지지 강화 등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학업성취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표 Ⅴ-57 진로관련 요인의 요인분석

요인	변인	1	2	3	4	5	6
사회적 지원	부모교육지원	.75					
	부모감독	.67					
	학교적응: 교우	.60					
	부모방임	−.50					
	학교적응: 교사	.46					
학업성취	학교적응: 학습		.87				
	성적수준		.53				
진로에 대한 부모지원	어머니진로지원: 지지			.73			
	아버지진로지원: 지지			.69			
자녀학습관여 및 효능감	부모학습지원				.66		
	부모학교참여				.57		
	부모효능감				.33		
사회경제적 배경	아버지학력					.79	
	월 소득수준					.29	
	어머니학력					.26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희망하는 자녀 대학						.65
	희망하는 자녀 교육						.40

* $p<.05$, ** $p<.01$, *** $p<.001$

표 V-58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2	$R^2\Delta$
성취동기		학업성취	.36	13.44**	.276	–
		사회적 지원	.33	11.84***	.377	.101***
		부모진로지원: 지지	.06	2.16*	.379	.003*
		자녀학습관여 및 효능감	.05	2.07*	.382	.002*
진로의식		학업성취	.15	4.59***	.045	–
		사회적 지원	.10	2.81**	.057	.013***
		부모진로지원: 지지	.08	2.52*	.063	.005*
진로장벽인식	자기이해 부족	학업성취	−.21	−6.61***	.084	–
		사회적 지원	−.19	−6.19***	.114	.030***
	정보 부족	학업성취	−.24	−7.94***	.115	–
		사회적 지원	−.17	−5.11***	.147	.032***
		부모진로지원: 지지	−.09	−3.00**	.154	.007**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원	−.23	−7.39***	.091	–
		학업성취	−.13	−4.08***	.111	.020***
		사회경제적 배경	−.09	−2.91**	.121	.010***
		자녀학습관여 및 효능감	−.07	−2.38*	.125	.004*

* $p<.05$, ** $p<.01$, *** $p<.001$

요약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학업성취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고, 그 다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부모로부터 받는 진로에 대한 지지임.

○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높이고, 진로장벽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업성취와 사회적 지원,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원임.

(4) 요약 및 소결

이번 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발달은 진로의식,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진로와 관련성이 높은 성취동기를 함께 비교하였다. 가장 처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인식의 수준 그리고 부모님의 진로관련 행동을 비교해보았으며, 세 번째로, 다문화청소년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고, 네 번째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포부수준은 학부모들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학력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지 않은 길을 택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경쟁 속에서 오히려 사회를 너무 빨리 파악했을 가능성으로, 자신들의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학부모들은 청소년들보다 오히려 현실파악을 하지 못하여 막연하게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은 매우 다양하였다. 즉, 단순한 직종에 대한 요구도 많았으나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직종, 예술가, 방송인 등 아주 다양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어떤 진로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경우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 저숙련 직종의 체험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 진로에 접근하는 자세와 태도, 정보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중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미결정상태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은 낮으며, 특성화고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한 코스로 생각하여 별 생각 없이 일반고등학교에 가겠다는 응답을 한 것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어머니들의 가치가 한국과는 달라서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현실에 적합한 진로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고민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인식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의 수준은 낮고 관여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정보부족과 진로에 대한 지원 부족을 인식하고, 거기에 다문화청소년 스스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일찍이 포기하고 빨리 돈을 버는 직업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또는 고등교육이 필요한 직업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러한 소외가 지속되어 다문화청소년들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진로관련 인식 및 그와 관련된 변인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차이는 학업성취를 위한 지원행동, 또는 희망하는 대학수준 등에서 대도시의 평균이 높은 것, 방임의 수준도 대도시가 낮은 것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나타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 차이의 경우도 학업포부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에서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한 점을 제외하고는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의 진로관련 인식과 부모의 지원행동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지원, 학습적응 및 학교성적이 달라지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대, 진로인식, 진로장벽인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진로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다문화청소년이 지닌 배경변인과 진로관련 인식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과 월 평균소득수준이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진로관련 인식과 그 외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취동기,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인식은 학교적응과 성적수준과 같은 학교생활요인과 전반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진로 뿐 아니라 학습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성취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진로에

대한 지지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있어서 단순 진로의식이나 진로체험 뿐 아니라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요인은 보다 다양한 진로를 가능하게 해 주는,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요구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요구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진로관련 요구

설문조사는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016년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패널에 참가하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그 대상이었다. 교사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되는 경우 다문화담당교사가 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진로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을 비교하였고, 학부모의 경우는 역시 지금까지 지원받는 내용, 희망하는 지원 등을 물어보고, 자녀의 진로지도에서 어려운 점,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 자녀의 방과후 교육 현황과 부담을 느끼는 정도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교사를 대상으로는 현재 학교에서 지원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지원의 방향성 및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교사인식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Ⅴ-59 설문조사 요구분석의 대상 및 내용

대상	내용
■ 다문화청소년 1,332명 ■ 학부모 1,301명	진로프로그램의 수혜 여부 진로프로그램 지원 요구도 진로관련 정보 요구도 자녀지도의 어려움 자녀의 방과후 교육현황
■ 교사 310명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다문화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인식

(1) 청소년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르도록 한 결과를 패널에 포함된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 시기인 2014년부터 현재 중학교 3학년인 2016년까지 3년간을 비교해 본 결과,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빈도는 변함이 없이 동일하였고, 마지막 2016년은 동일한 빈도이나 전체 응답수가 적은 관계로 비율만 증가하였다. 아래의 지원 내용 중 3년간 연속하여 지원 비율이 높은 항목이 방과후 수업료 지원과 멘토링, 급식비 지원, 그리고 문화체험활동이었다. 이 중 대학생 멘토링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혜비율이 높아졌으나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아직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표 V-60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 (중복응답)

내용	2014	2015	2016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105(11.9)	84(11.2)	63(1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52(17.3)	143(19.0)	106(19.2)
대학생 멘토링	144(16.4)	133(17.7)	81(14.7)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84(9.6)	72(9.6)	54(9.8)
놀이공원 방문	43(4.9)	23(3.1)	25(4.5)
급식비 지원	112(12.7)	105(13.9)	83(15.1)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8(4.3)	36(4.8)	29(5.3)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47(5.3)	34(4.5)	17(3.1)
학습지 지원	27(3.1)	20(2.7)	17(3.1)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31(3.5)	20(2.7)	12(2.2)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1(1.3)	10(1.3)	5(.9)
이중언어교실	21(2.4)	13(1.7)	5(.9)
한국어 교육 지원	5(.6)	3(.4)	2(.4)
진로지원 프로그램	**22(2.5)**	**22(2.9)**	**22(4.0)**
기타	37(4.2)	35(4.6)	30(5.4)
합계	842(100)	753(100)	551(100)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한 지원으로 원하는 것을 역시 2014년부터 3년간 비교해 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2016년 진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5년과 2016년 모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항목은 학원비 지원이었고, 방과후 수업료 지원의 경우도 매년 6위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들이 학습과 진로에 대한 지원의 요구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일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 이중언어교실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Ⅴ-61 희망하는 지원 순위: 청소년 (중복응답)

2014	
지원내용	빈도(%)
놀이공원 방문	545(11.8)
문화공연관람	478(10.3)
학원비 지원	458(9.9)
특기적성 프로그램	393(8.5)
문화체험 활동	372(8.0)
방과 후 수업료 지원	349(7.5)
급식비 지원	329(7.1)
진로지원 프로그램	**298(6.4)**
대학생 멘토링	270(5.8)
물적지원	242(5.2)
학습지 지원	208(4.5)
심리적응 프로그램	182(3.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9(2.4)
이중언어교실	148(3.2)
한국어 교육 지원	41(.9)
기타	14(.3)
없음	197(4.3)
합계	4,633(100)

2015	
지원내용	빈도(%)
학원비 지원	475(11.0)
문화공연관람	438(10.2)
놀이공원 방문	409(9.5)
특기적성 프로그램	352(8.2)
급식비 지원	322(7.5)
방과 후 수업료 지원	320(7.4)
문화체험 활동	316(7.3)
진로지원 프로그램	**285(6.6)**
대학생 멘토링	230(5.3)
물적지원	229(5.3)
학습지 지원	217(5.0)
심리적응 프로그램	161(3.7)
이중언어교실	143(3.3)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22(2.8)
한국어 교육 지원	39(.9)
기타	14(.3)
없음	232(5.4)
합계	4,304(100)

2016	
지원내용	빈도(%)
학원비 지원	540(12.1)
문화공연관람	416(9.3)
특기적성 프로그램	392(8.8)
진로지원 프로그램	**391(8.8)**
급식비 지원	354(7.9)
방과 후 수업료 지원	338(7.6)
놀이공원 방문	321(7.2)
문화체험 활동	280(6.3)
물적지원	270(6.0)
대학생 멘토링	256(5.7)
학습지 지원	216(4.8)
이중언어교실	184(4.1)
심리적응 프로그램	169(3.8)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11(2.5)
한국어 교육 지원	52(1.2)
기타	12(.3)
없음	161(3.6)
합계	4,463(100)

이는 청소년들이 점차 고학년으로 성장하면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아질 뿐 아니라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진로프로그램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2) 학부모

학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3년간

비교한 결과 일관되게 높게 지각한 항목은 방과후 수업료지원과 급식비지원, 그리고 문화체험과 대학생 멘토링이었다.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 들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멘토링 사업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멘토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중단을 할 것인지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Ⅴ-62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 어머니 (중복응답)

내용	2014	2015	2016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15(17.9)	98(16.6)	99(18.7)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68(10.6)	67(11.4)	59(11.1)
대학생 멘토링	67(10.5)	77(13.1)	52(9.8)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0(9.4)	55(9.3)	54(10.2)
놀이공원 방문	24(3.7)	21(3.6)	24(4.5)
급식비 지원	114(17.8)	83(14.1)	84(15.8)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28(4.4)	24(4.1)	22(4.2)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45(7.0)	30(5.1)	32(6.0)
학습지 지원	18(2.8)	20(3.4)	14(2.6)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5(2.3)	16(2.7)	12(2.3)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5(2.3)	15(2.5)	18(3.4)
이중언어교실	14(2.2)	10(1.7)	8(1.5)
한국어 교육 지원	11(1.7)	8(1.4)	10(1.9)
진로지원 프로그램	**15(2.3)**	**18(3.1)**	**19(3.6)**
기타	32(5.0)	47(8.0)	23(4.3)
전체	641(100)	589(100)	530(100)

이와 더불어 자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역시 3년간 비교해 본 결과 자녀와 마찬가지로 학원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년 가장 높은 항목이었고, 두 번째가 방과후 수업료 지원이었으며, 진로지원프로그램의 경우 2014년에는 7위의 항목이었으나 2015년에 5위로, 2016년에는 3위로 올라가는 등 점차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V-63 연도별 희망 지원: 어머니 (중복응답)

2014	
지원내용	빈도(%)
학원비 지원	775(13.0)
방과 후 수업료 지원	682(11.4)
문화체험	508(8.5)
대학생 멘토링	480(8.0)
문화공연관람	479(8.0)
특기적성 프로그램	447(7.5)
진로지원 프로그램	**420(7.0)**
급식비 지원	389(6.5)
심리적응 프로그램	328(5.5)
학습지 지원	320(5.4)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312(5.2)
놀이공원 방문	236(4.0)
물적지원	233(3.9)
이중언어교실	229(3.8)
한국어 교육 지원	106(1.8)
없음	21(.4)
기타	9(.2)
전체	5,974(100)

2015	
지원내용	빈도(%)
학원비 지원	669(12.7)
방과 후 수업료 지원	606(11.5)
문화공연관람	443(8.4)
문화체험	434(8.3)
진로지원 프로그램	**415(7.9)**
특기적성 프로그램	403(7.7)
대학생 멘토링	379(7.2)
급식비 지원	315(6.0)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300(5.7)
심리적응 프로그램	285(5.4)
학습지 지원	260(4.9)
물적지원	224(4.3)
이중언어교실	204(3.9)
놀이공원 방문	169(3.2)
한국어 교육 지원	86(1.6)
없음	48(.9)
기타	15(.3)
전체	5,255(100)

2016	
지원내용	빈도(%)
학원비 지원	673(12.9)
방과 후 수업료 지원	557(10.7)
진로지원 프로그램	**515(9.9)**
문화체험	421(8.1)
특기적성 프로그램	417(8.0)
문화공연관람	404(7.7)
대학생 멘토링	367(7.0)
심리적응 프로그램	338(6.5)
급식비 지원	316(6.1)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259(5.0)
이중언어교실	219(4.2)
학습지 지원	214(4.1)
물적지원	207(4.0)
놀이공원 방문	160(3.1)
한국어 교육 지원	92(1.8)
없음	45(.9)
기타	9(.2)
전체	5,213(100)

다음으로 귀하가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3년간 비교한 결과 자녀의 숙제지도나 시험 준비 등 학습관련 부분이 어렵다는 응답이 1위였고, 2위가 진로관련 부분이었다. 특히 진로관련 부분의 어려움은 2014년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자녀가 고학년으로 성장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의 진로는 많은 부분 진학과 관련되고 결국 학습과도 관련되는 만큼 학습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과 관심은 시간이 가도 지속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V-64 자녀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어머니

순위	구 분	2014	2015	2016
1	학습 관련 부분(숙제, 시험 준비 등)	786(57.8)	699(52.6)	580(44.6)
2	진로 관련 부분(진로 선택 등)	333(24.5)	414(31.2)	498(38.3)
3	생활 관련 부분(예절 교육, 인성교육 등)	145(10.7)	114(8.6)	111(8.5)
4	성 관련 부분(2차 성장, 이성교제 등)	52(3.8)	54(4.1)	53(4.7)
5	가족 관련 부분(부모/형제/자매 관계 등)	23(1.7)	31(2.3)	37(2.8)
6	기타	22(1.6)	17(1.3)	22(1.4)
	전체	1,361(100)	1,329(100)	1,301(100)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의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자녀의 진학관련 정보와 직업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종류와 방법으로 나누어서 각각 평가하도록 한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학 및 진로에 관련된 내용 대부분에 대해 필요한 편이라거나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해본 결과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평균 5점 만점에 3.9점 이상을 보여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과 직업에 대한 정보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 중 가장 평균값이 높은 항목은 자녀가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평균 5점 만점에 4.13점을 나타내어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매우 절실함을 나타내었다.

표 V-65 자녀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자녀에게 적합한 상급학교(일반고, 외국어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의 종류	17 (1.3)	50 (3.8)	287 (22.1)	637 (49.0)	310 (23.8)	1,301 (100)
자녀가 적합한 상급학교 (일반고, 외국어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	20 (1.5)	36 (2.8)	284 (21.8)	612 (47.1)	349 (26.8)	1,301 (100)
자녀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	8 (.6)	14 (1.1)	224 (17.2)	638 (49.0)	417 (32.1)	1,301 (100)
자녀가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	6 (.5)	15 (1.2)	209 (16.1)	646 (49.6)	425 (32.6)	1,301 (100)

이러한 정보의 필요성이 학부모의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거주지와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녀에게 적합한 상급학교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 자녀가 적합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방법, 자녀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 자녀가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에 대한 정보의 요구도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의 요구도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의 경우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서 더욱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정책에서 지역별 정보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 외,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66 거주지 규모에 따른 자녀진로관련 요구도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F*
자녀에게 적합한 상급학교(일반고, 외국어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의 종류	3.93(.76)	3.85(.89)	3.95(.88)	3.90(.85)	1.70
자녀가 적합한 상급학교(일반고, 외국어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	3.91(.79)$_b$	3.91(.89)$_b$	4.04(.86)$_a$	3.95(.86)	3.41*
자녀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	4.05(.74)$_b$	4.08(.76)$_b$	4.20(.77)$_a$	4.11(.76)	4.18*
자녀가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	4.07(.74)$_b$	4.09(.77)$_b$	4.25(.70)$_a$	4.13(.75)	7.23***

* $p<.05$, *** $p<.001$, Duncan: a>b

다음으로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방과후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우선 전체 학부모 중 사교육을 포함하여 방과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전체 중 72.6%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7.4%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7 자녀 방과후 교육 경험 유무

	예	아니오	합계
빈도(%)	945(72.6)	356(27.4)	1,301(100)

자녀가 방과후 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쓰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학교수업 보충의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었고, 다음이 학교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등의 순이었다. 2순위에서는 학교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학교수업 보충, 세 번째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였다. 따라서 1, 2위를 모두 고려했을 때 결국은 학교성적을 올려서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V-68 자녀 방과후 교육을 받은 이유

내용	1순위	2순위
학교수업 보충 차원으로	315(33.3)	194(20.5)
학교성적의 향상을 위해	244(25.8)	314(33.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156(16.5)	118(12.5)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113(12.0)	79(8.4)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에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으므로	72(7.6)	69(7.3)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40(4.2)	55(5.8)
기타	5(.5)	4(.4)
합계	945(100)	112(11.9)

이러한 방과후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담이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36.3%, 매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14.7%로, 이 두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51%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9 자녀 방과후 교육비의 가계부담 정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다	부담이 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이 된다	합계
빈도(%)	232(24.6)	231(24.4)	343(36.3)	139(14.7)	945(100)

방과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시 두 개를 순서대로 고르도록 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1, 2순위에서 모두 가장 높은 응답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였고,

2위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였다. 결국,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기는 하나, 형편상 어렵기도 하여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시키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V-70 자녀 방과후 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내용	1순위	2순위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129(36.2)	77(21.6)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87(24.4)	59(16.6)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해서	57(16.0)	17(4.8)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42(11.8)	51(14.3)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15(4.2)	13(3.7)
마땅한 과외교사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13(3.7)	13(3.7)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10(2.8)	15(4.2)
기타	3(.8)	6(1.7)
합계	356(100)	105(29.5)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자면, 학부모 역시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습지원의 욕구가 매우 높은데, 자녀 학습을 위한 지원으로는 다른 것보다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지원해주기 바라는 요구가 가장 크고,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학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 진학할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진로 및 진학을 위해선 사교육을 포함한 방과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응답자의 50%정도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진학 및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3) 교사

다음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10명을

표집하였다. 이들은 현재 다문화종단패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담임교사 또는 해당 중학교 다문화담당교사로 전체의 39.0%는 남자였고, 61.0%는 여자로 여자교사가 더 많았다.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12.6%, 30대가 35.8%, 40대가 28.1%, 50대가 23.2%, 60대가 0.3%였다.

표 Ⅴ-71 지역별 교사분포

지역	빈도(%)	지역	빈도(%)	지역	빈도(%)
서울	35(11.3)	세종	1 (.3)	전북	19(6.1)
부산	17(5.5)	울산	10(3.2)	전남	25(8.1)
대구	15(4.8)	경기	49(15.8)	경북	25(8.1)
인천	14(4.5)	강원	16(5.2)	경남	24(7.7)
광주	10(3.2)	충북	14(4.5)	제주	8 (2.6)
대전	10(3.2)	충남	18(5.8)	합계	310(100)

표 Ⅴ-72 응답 교사의 성별 분포

	남자	여자	전체
빈도(%)	121(39.0)	189(61.0)	310(100)

표 Ⅴ-73 응답 교사의 연령대별 분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빈도(%)	39(12.6)	111(35.8)	87(28.1)	72(23.2)	1(.3)	310(100)

이 학교 중 교육부의 다문화정책학교인 다문화연구학교, 다문화예비학교 및 다문화중점학교사업에 참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85.9%는 다문화정책학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수였다.

표 Ⅴ-74 다문화정책학교 유형별 빈도

	다문화연구학교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해당없음	모름	합계
빈도(%)	4(1.3)	7(2.2)	10(3.2)	268(85.9)	23(7.4)	312(100)

이들에게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부모와 모임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중 71.3%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1년에 2회'한다는 응답이 17.4%, '1년에 1회'한다는 응답이 9.0%, '1년에 3회 이상'모임을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와의 모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75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와의 모임 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2회	1년에 1회	1년에 3회 이상	합계
빈도(%)	221(71.3)	54(17.4)	28(9.0)	7(2.3)	310(100)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은 방과후 수업료 지원이었고, 진로지원의 경우 10%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올라갈 때 약간 증가한 비율이 2016년이 되어서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학습지원으로 17.1%가 응답하였고 다음이 방과후 수업료 지원이었고, 그 다음이 문화체험과 문화공연관람이었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 주로 학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문화체험이나 문화공연관람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중언어교실의 경우는 2014년에 비해 2015년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6년 들어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중언어교실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76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중복응답): 교사 빈도(%)

내용	2014	2015	2016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12(17.4)	101(10.5)	71(15.1)
학습지원(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대학생 멘토링, 학습지 지원 등)	124(19.3)	108(11.2)	80(17.1)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놀이공원방문 등)	93(14.5)	114(11.8)	70(14.9)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57(8.9)	90(9.3)	53(11.3)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67(10.4)	107(11.1)	45(9.6)
한국어 교육 지원	13(2.0)	55(5.7)	15(3.2)
이중언어교실	4(.6)	44(4.6)	8(1.7)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49(7.6)	85(8.8)	31(6.6)
급식비 지원	47(7.3)	75(7.8)	26(5.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4(3.7)	69(7.2)	23(4.9)
진로지원	**35(5.4)**	**89(9.2)**	**33(7.0)**
기타	19(3.0)	27(2.8)	14(3.0)
합계	644(100)	964(100)	469(100)

다음으로 교사가 생각하기에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지원과 심리적응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매년 상위에 언급되었고, 진로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점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에는 심리적응과 학습지원 다음으로 3위로 언급되었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경우 학원비 지원이나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교사들의 경우는 2014년 2.4%가 언급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Ⅴ-77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교사 빈도(%)

구 분	2014
학습지원	239(16.7)
심리적응 프로그램	199(13.9)
문화체험	166(11.6)
방과 후 수업료 지원	145(10.1)
이중언어교실	119(8.3)
진로지원 프로그램	**113(7.9)**
한국어 교육 지원	110(7.7)
문화공연관람	104(7.2)
특기적성 프로그램	93(6.5)
급식비 지원	60(4.2)
물적지원	47(3.3)
학원비 지원	34(2.4)
학습지원	–
기타	3(.2)
없음	3(.2)
합계	1,435(100)

구 분	2015
심리적응 프로그램	131(21.7)
학습지원	115(19.0)
문화체험	75(12.4)
진로지원 프로그램	**65(10.7)**
문화공연관람	40(6.6)
방과 후 수업료 지원	37(6.1)
한국어 교육 지원	29(4.8)
물적지원	26(4.3)
특기적성 프로그램	25(4.1)
이중언어교실	24(4.0)
급식비 지원	20(3.3)
학습지원	–
학원비 지원	–
기타	4(.7)
없음	14(2.3)
합계	605(100)

구 분	2016
심리적응 프로그램	150(25.2)
학습지원	109(18.3)
진로지원 프로그램	**69(11.6)**
문화체험	59(9.9)
문화공연관람	59(9.9)
이중언어교실	37(6.2)
방과 후 수업료 지원	28(4.7)
특기적성 프로그램	24(4.0)
물적지원	22(3.7)
한국어 교육 지원	21(3.5)
급식비 지원	5(.8)
학습지원	–
학원비 지원	–
기타	6(.1)
없음	6(.1)
합계	595(100)

다음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5점 만점에 3.6 이상이었으나, 그 중 교사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프로그램은 심리적응프로그램이었고, 두 번째가 진로지원, 세 번째가 학습지원과 한국어교육지원이었다. 급식비와 물적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교사들이 인식하기에 중요한 사업을 언급한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행될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진로지원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으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확산될 필요성을 시사해주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78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빈도(%)

프로그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응	3(1.0)	4(1.3)	56(18.1)	160(51.6)	87(28.1)	4.05(.78)
진로지원	3(1.0)	4(1.3)	66(21.3)	161(51.9)	76(24.5)	3.98(.77)
학습지원	2(.6)	8(2.6)	72(23.2)	148(47.7)	80(25.8)	3.95(.81)
한국어 교육 지원	6(1.9)	14(4.5)	86(27.7)	136(43.9)	68(21.9)	3.95(.90)
문화체험	3(1.0)	9(2.9)	74(23.9)	155(50.0)	69(22.3)	3.90(.81)
방과 후 수업료 지원	2(.6)	13(4.2)	88(28.4)	139(44.8)	68(21.9)	3.83(.84)
이중언어교실	5(1.6)	9(2.9)	99(31.9)	134(43.2)	63(20.3)	3.78(.86)
문화공연관람	4(1.3)	12(3.9)	100(32.3)	147(47.4)	47(15.2)	3.71(.82)
특기적성	5(1.6)	10(3.2)	117(37.7)	133(42.9)	45(14.5)	3.65(.83)
급식비 지원	10(3.2)	14(4.5)	112(36.1)	115(37.1)	59(19.0)	3.64(.87)
물적지원	4(1.3)	18(5.8)	112(36.1)	125(40.3)	51(16.5)	3.64(.87)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고르도록 한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선별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별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학교 장면에서 다문화청소년만 선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별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든지 등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된 문제는 학생의 소극적 성격이었고,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라는 응답도 1순위 응답 중 세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국내출생자가 아니라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2순위 응답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우수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또는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외 담당 교사의 다문화 교육 이해 부족,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 부족, 가정환경에 대한 콤플렉스, 다른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아 인식 개선 필요, 드러내기 꺼려함, 학교생활 외 참가시간 부족 등의 기타의견이 있었다.

표 Ⅴ-79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빈도(%)

내용	1순위	2순위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어려움	95(30.6)	58(22.7)
학생의 소극적 성격	75(24.2)	41(16.0)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	39(12.6)	31(12.1)
부모의 무관심	20(6.5)	24(9.4)
학생의 한국 문화 이해 부족	14(4.5)	12(4.7)
우수한 프로그램의 부족	14(4.5)	48(18.8)
교사의 낮은 인식과 무관심	13(4.2)	15(5.9)
학교의 지원과 관심 부족	11(3.5)	19(7.4)
기타	2(.6)	8(3.1)
별 다른 어려운 점 없음	27(8.7)	-
합계	310(100)	256(100)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느끼기에 비(非)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반대로 실제 다문화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 한국가정 청소년들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학습능력, 한국어능력, 친구와의 관계, 수업시간의 집중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 준수, 진로탐색 및 준비도 등에서 동등하다 는 응답이 다수였고, 낮다 '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학습능력에 국한되었고, 그 외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특히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을 하되 이들의 다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수행될 경우 이들 집단이 특별히 취약한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표 V-80 비다문화가정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들 특성의 비교

응답 유형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동등 하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합계
학습능력	15(4.8)	108(34.8)	128(41.3)	30(9.7)	29(9.4)	310 (100)
한국어능력	1(.3)	42(13.6)	183(59.0)	40(12.9)	44(14.2)	
친구와의 관계	5(1.6)	48(15.5)	160(51.6)	54(17.4)	43(13.9)	
수업시간의 집중도	10(3.2)	67(21.6)	143(46.1)	57(18.5)	33(10.6)	
교사와의 관계	2(.6)	34(11.0)	161(51.9)	78(25.2)	35(11.3)	
학교 규칙 준수	3(1.0)	17(5.5)	139(44.8)	84(27.1)	67(21.6)	
진로탐색 및 준비도	10(3.2)	57(18.4)	158(51.0)	57(18.4)	28(9.0)	

요약

○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한 경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조사 대상 중 각 22명에 불과함.

○ 다문화청소년이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3년간 종단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비지원이 1위로 뽑혔고, 2016년, 즉, 3학년에 들어서 진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상승함.

○ 어머니들이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은 3년 내내 학원비와 방과후 수업료 지원이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정도가 강해졌음.

○ 학부모가 자녀지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중학교 시기 3년 모두 숙제, 시험준비 등 학습관련 부분이었음.

○ 학부모가 느끼는 진로지도 어려움 정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중 '자녀가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녀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를 찾는 일', 세 번째로 '자녀에게 적합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및 방법', 마지막이 '자녀에게 적합한 상급학교의 종류' 등의 순으로 네 가지 항목 모두 평균 5점 만점에 3.9점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여줌.

○ 자녀 진로와 관련된 요구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더 강한 요구도를 나타냄.

○ 자녀의 방과후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함.

○ 방과후에 자녀가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

고, 다음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수업으로 충분해서 의 순이었음.

○ 교사들 역시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지원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됨.

○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교사들은 2014년 학습지원을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고, 다음이 심리적응 프로그램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응답한 교사들은 모두 심리적응 프로그램을 1순위로 꼽았고, 학습지원을 2순위로 꼽았음.

○ 교사들이 꼽은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은 해마다 증가함.

○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비(非)다문화학생과 다문화학생을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비교하도록 한 결과 교사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학생이 비(非)다문화가정 학생과 차이가 없이 동등하다거나 더 낫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2) 면접조사에 나타난 진로관련 요구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진로 관련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보다 심층적인 상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전국을 서울경기, 대전, 광주, 대전, 부산지역으로 나누고, 한 지역에서 패널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쌍을 4~5쌍씩 선정하였다. 선정의 기준은 청소년의 성별과 어머니의 출신국으로, 성별은 반반씩, 어머니의 출신국은 가능한 다양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조사가 대화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한국말 수준이 중상 이상이 되는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선정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평소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사모임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중학교 교사가 2명이고, 고등학교 교사가 3명이었는데 한 명은 대안학교 교사였으며, 현장전문가는 현재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수년간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 4명이었다. 아래의 표에는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각 대상별 분석결과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다.

표 Ⅴ-81 면접조사 요구분석의 대상 및 내용

대상		내용
학생, 학부모 면접(FGI)	■ 다문화청소년 23명	향후 진로계획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 부모의 진로지원 정도 이중언어 관련 실태와 현황
	■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 23명	자녀의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 자녀 진로를 위해 필요한 요구 자녀 이중언어 관련 실태와 현황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원 현황
교사 및 현장 전문가 면접(FGI)	■ 중학교 교사 2명 ■ 고등학교 교사 3명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현황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현장전문가 4명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현황 현재 다문화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의 문제점 향후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의 방향

(1) 청소년

① 조사대상 및 조사 시기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면접조사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다문화종단조사 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중 총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23명의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다문화청소년은 남자가 13명, 여자가 10명이었다. 어머니들의 한국 거주 년 수는 최소 8년에서 최대 21년까지였고, 대부분 면접조사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일본, 중국,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 키르키스스탄, 과테말라 등이었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도 2명 포함되었다.

표 V-82 2016 심층면접 대상자: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지역	번호	자녀	자녀성별	어머니	출신국	직업	한국 거주년수
서울 경기	1	S1	여	M1	일본	전업주부	17년
	2	S2	남	M2	중국	전업주부	17년
	3	S3	남	M3	키르키스스탄	전업주부	17년
	4	S4	여	M4	러시아	파트타임	17년
	5	S5	남	M5	일본	전업주부	17년
대전	6	S6	남	M6	일본	일본어 강사	20년
	7	S7	여	M7	태국	주부	17년
	8	S8	남	M8	일본	보험설계사, 과외	8년
	9	S9	여	M9	필리핀	주부	19년
	10	S10	남	M10	중국(조선족)	주부	17년
대구	11	S11	남	M11	한국	주부	-
	12	S12	남	M12	일본	주부	16년
	13	S13	남	M13	중국(조선족)	건설현장막일	20년
	14	S14	여	M14	베트남	공장 알바	17년
	15	S15	여	M15	필리핀	공장	18년
광주	16	S16	여	M16	일본	보험설계사	17년
	17	S17	남	M17	중국(조선족)	학교급식 조리사	17년
	18	S18	여	M18	과테말라	미싱사	21년
	19	S19	남	M19	필리핀	식당 종업원	17년
부산	20	S20	남	M20	일본	파트타임	15년
	21	S21	여	M21	중국(조선족)	전업주부	16년
	22	S22	여	M22	한국	전업주부	-
	23	S23	남	M23	중국	중국어강사	10년

조사 시기는 2016년 7월 20일~7월 28일까지 지역별로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83 2016 면접조사 지역별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명수(청소년/어머니)	장소
서울·경기 지역	2016. 7. 28. 오후 2시-4시	5/5	서울 갤럽 본사
대전·충청 지역	2016. 7. 20. 오전 11시-1시	5/5	대전 갤럽사무소
대구·경북 지역	2016. 7. 21. 오후 2시-4시	5/5	대구 갤럽사무소
광주·전남 지역	2016. 7. 22. 오후 2시-4시	4/4	광주 갤럽사무소
부산 지역	2016. 7. 26. 오후 2시-4시	4/4	부산 갤럽사무소

② 조사내용

조사의 내용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졸업 후 진로계획부터 시작하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진로프로그램을 경험해보았는지 여부, 진로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필요성,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습득경로,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어머니 나라와의 관련성, 이중언어에 대한 생각, 이중언어교육의 경험 및 효과성,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Ⅴ-84 면접 내용(청소년)

조사내용
○ 졸업 후 진로계획 ○ 진로프로그램 경험여부(학교나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에 대한 태도 ○ 다문화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생각 ○ 진로프로그램의 효과성, 필요성 ○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양, 원천 등) ○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적 요구) ○ 어머니 나라와의 관련성, 다문화적인 특성을 살려서 직업을 할 수 있는 것 ○ 이중언어 및 이중언어 관련 직업에 대한 생각(또는 그러한 직업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 ○ 이중언어교육 경험 및 효과성 ○ 부모님의 진로 관련 지원(아버지 어머니의 영향)

③ 조사 결과

③-1. 미래진로와 고교 진학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 때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계획은 고등학교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래 진로가 고교 진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고교 진학은 미래 진로를 선택하는 상징적인 결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고교 진학 결정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고등학교 진학 결정과 미래 진로 결정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진학과 맞물려 있었다. 미래 진로가 구체화된 청소년들일수록 자신의 희망 직종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준비와 세부 계획이 구체적이었다. 이들 청소들은 굳이 집과 가까운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일반고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의 명확한 미래 진로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을 고르고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진학 예정인 청소년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학과까지 결정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복합적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주변인들로부터 학교 평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학교 분위기를 감안해 자신이 진학하려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또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 가능한 자격증을 확인하고 취업 전망까지 고려하여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대학 진학을 염두해 두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내신을 잘 주는'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대입 전략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면접자: 진로를 잡으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S13 : 그쪽 분야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면접자: 그럼 고등학교도 아무 고등학교나 가는 게 아니겠네?
S13 : 원래 수성구 살아서 수성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서 어려워서...지금 성적으로는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좀 쉬운 데로 가려는 것도 있구요. 집이랑 가까운 00고등학교 가서 내신 올려서 대학교 가려구요

면접자: 혹시 뭐 예를 들면 뭐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인터넷에 요리사가 되는 법 이런 거 찾아본 적 있어요?
S7 :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의 과, 거기서 따는 자격증 같은 거 찾아보고
면접자: 무슨 과 찾아봤어요?
S7 : 호텔비즈니스 '과요
면접자: 어떻게 그걸 찾아보게 됐어요?
S7 : 선배들 간 고등학교 찾아봤다가 그 과를 봤어요

고등학교 진학 미결정과 진로유예

반면 미래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중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까지 고교 진학이

구체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집과 가까운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아직은 잘 모르지만 '너무 어렵지 않은 '일반고 로 진학하겠다는 경향이 강했다. 또 현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에 맞춰서 진학하는 만큼 고등학교 이후 상황을 고려한 전략 역시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등학교 들어가서 생각 하기로 하며 진로결정을 유예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진로 결정을 유예하는 청소년들은 특정 기술을 배우게 되는 특성화고보다는 대학 진학과 비진학을 향후 결정할 수 있는 일반고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면접자: 00는(어떤 고등학교 가려고 하나요)?
S1 : 저는 집에서 가까운데.
면접자: 집에서 가까운데. 무슨 고등학교 가려고?
S1 : 일반고
면접자: 왜 일반고로 결정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S1 : 고등학교가 몇 개 없어요.
면접자: 동네에?
S1 : 네.

S10 : 저 진로요? 저 고등학교 가서 생각하려구여
면접자: 아 고등학교 가서 생각하려고? 지금은 왜?
S10 : 지금은 생각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S12 : 저도 똑같이 일반고에요.
면접자: 어떻게 하다가 그 학교 선택하게 된 거에요?
S12 : 그냥...아무 생각 없이...

S12 : 저는 부모님께서 인문계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딱히 고를 생각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말대로 하는 거예요.
S12 : 고민하다가 시간가면 좀 그러니까

③-2.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어려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불확신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장 큰 화두는 확신 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모습은 일반 청소년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흥미 와 좋아하는 것 이 미래 직업으로

삼을 만큼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았다. 흥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나의 미래 진로로 결정할 만큼의 관심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일부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듯 보였다.

면접자: 00는 어때요?
S15 : 내가 뭘 잘하는지...몰라요
면접자: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우리가 꼭 잘하는 것만 쫓을게 아니라 관심사를 찾는 노력 해본 적 있어요?
S15 : 아니요
면접자: 그런 얘기 주변에서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물어볼 때 기분이 어때요?
S15 : 막막하죠
면접자: 관심 있는 분야는 뭐에요?
S15 : 지금은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확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역시 청소년들이 선뜻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본인의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신의 관심 영역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자기효능감 부족은 진로 실천준비 단계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면접자: 00같은 경우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데 그걸 접고 유사한 걸 찾는 과정에 있어서...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S21 : 능력...
면접자: 무슨 능력이 필요한데요?
S22 : 나중에 뭘 찾았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미래에 대한 불확신

그러나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있는 청소년들 역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들이 선택한 진로가 미래에도 똫은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이들에게도 내재되어 있었다. 또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성공'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 역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자: 00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뭐야?
S23 :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확신이 안서는 게 가장 큰 문제인거 같아요. 제가 컸을 때 그 직업이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불행하지 않을까..
면접자: 00이는 ?
S21 : 만약에 정신과의사를 한다면 그렇게 몇 년간 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갖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제가 못 버틸 것 같아서
면접자: 그래서?
S21 :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도 성공을 못 할 거라는 두려움?

면접자: 중학교 와서 수학교사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 안에서 방황은 없었어요?
S14 :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면접자: 어떤 고민을?
S14 : 교사가 임용시험을 쳐야하는데 많이 어렵다고 해서...지금 성적으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③-3. 부모의 진로 지원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청소년

다문화가정에서도 자녀의 진로준비를 위한 소통은 주로 외국인 '엄마'가 책임지고 있었다. 엄마와의 대화는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가정에서 이들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중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고교 진학, 성적, 미래 직업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청소년은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대화 시도에 청소년은 대화를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미래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자체를 단절시키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평소에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활발하지 않은 가정에서 더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자: 00은 어때요? 엄마아빠랑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었어요?
S15 : 그냥 가끔씩요
면접자: 엄마가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봐요?
S15 : 아니요
면접자: 그러면?
S15 : 고등학교 어디 갈 거냐고
면접자: 그러면 00은 뭐라고 해요?
S15 : 어..음..그냥 성적 되는대로..
면접자: 그 다음엔 뭘 물어봐요, 00한테?
S15 : 안 물어봐요
면접자: 그거 하나 딱 질문하고 가셔?
S15 : 그냥 끝내요
면접자: 엄마가?
S15 : 아니요 제가요...그냥 알겠다고

면접자: 너 이제 커서 뭐 될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S7 : 물어봐요
면접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S7 : 그냥 암말도 안 해요. 장래희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청소년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부모

반면, 청소년의 제안에 부모들의 반응이 소극적인 경우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하면 부모는 적극적인 격려와 관심보다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고 싶으면 해라,' 또는 '니 알아서 해라'라는 부모의 반응은 마치 중3 청소년에게 미래 진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주는듯한 뉘앙스마저 풍긴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청소년들이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모순을 낳는다. S15과 S7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S15의 경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부모님께 털어놨을 때 부모의 반응은 수동적이다. 부모와 S15의 대화는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된다. S15의 고민은 부모에게 미래 계획을 털어놓기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반면, S23 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진로계획을 듣고 자녀의 계획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녀가 제안한 계획을 보완하며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S21 : 원래 정신과의사를 하고 싶었는데...11년? 간 해야지 의사가 되고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걸리니까...그냥 간호사가...
면접자: 엄마, 아빠는 뭐래요?
S21 : 저 하고 싶은 거 하래요
면접자: 00는?
S23 :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건 심리학 쪽으로..
면접자: 심리학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해졌어요?
S23 : 부모님 말로는 심리학 쪽을 하면 정신과 의사도 괜찮다고 하시고 생물학자도 되기를 바라시고...전 심리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면접자: 학자가 되고 싶구나
S23 : 네...연구자나...
면접자: 그런 건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해준 거야?
S23 : 부모님이 먼저 의사 같은 직업은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심리학 쪽에 관심 있다고 말한 건 저고..
면접자: 00가 심리학 쪽에 관심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관심 갖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S23 : 네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의 적극적인 권유와 동기 부여

실제로 청소년들의 본격적인 진로 구상은 부모의 적극적인 권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청소년들도 부모의 적극적인 권유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청소년은 어렴풋하게나마 향후 자신의 진로를 구상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실천준비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진로 결정을 유예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S17 : 네 맨 처음에 축구선수 할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냥 취미로만 하라고..
면접자: 그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있어서 엄마가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야? 최종 결정은 00이가 내린 거야?
S17 : 결정은 제가 내렸죠. 영향을 준건 엄마..
면접자: 엄마가 축구는 취미로 하고 대신에 경찰이 되라고 얘기하신거야?
S17 : 아뇨 그냥 경찰하면 어떠냐고
면접자: 엄마가 먼저?
S17 : 생각 해 본다고 했죠
면접자: 나중에 보니까?
S17 : 그냥 경찰이 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면접자: 그렇구나...그럼 엄마가 경찰 되려면 어떤 게 좋고 그런 거 도와주셨어? 어떻게 도와주셨어? 엄마가 00를 설득한 거 같은데?
S17 : 그냥 제안만 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정보공유와 구체적인 진로 준비

자녀의 진로 구상에 필요한 부모의 정보 제공은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실제로 자녀의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를 조사하여 제시해주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부모들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자녀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인다. 초기에는 선뜻 나서지 않던 청소년들도 부모의 계속되는 제안에 자신들이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와 미래 진로 관련 정보를 취합하게 된다. 언어적 장벽이 없는 이들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과 주변 선배를 활용해 진학하고 싶은 고교 및 대학 세부 학과, 업무 내용, 구체적인 입시 전략까지 조사한다.

S4 : 네. 샘이 말씀하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면접자: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어? 찾아봤어요?
S4 : 그냥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무슨 과 있는지 알아보고..
면접자: 몇 학년 때부터?
S4 : 중학교 3학년 올라와서
면접자: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그런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S4 : 시키기도 하고 제가 혼자 알고 싶어서..
면접자: 누가 시켜서?
S4 : 아빠가

이 과정에서 진로준비에 필요한 일련의 정보를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고입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로 준비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노력은 청소년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진로결정에 주체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면접자: 00는?
S17 : 전 그냥 경찰대학 홈페이지 가서 무슨 과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면접자: 그래서 뭘 찾아봤어요?
S17 : 형사과랑 업무과...
면접자: 뭘 알고 싶어서 찾아본 거야?
S17 : 제가 하고 싶은 게 형사 그런 건데... 그런 걸 처음에 몰라서 들어가 봤어요.
면접자: 경찰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도 찾아본 거야?
S17 : 그런 거는 주변에서 엄마랑 아는 형이랑 도와줬어요.
면접자: 아는 형은 누구?
S17 : 경찰대 간 형이요
면접자: 엄마도 자료를 찾아서 보여주고 그러셨어?
S17 :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마 스스로 찾아봤어요.
면접자: 엄마가 알아서 찾아보시고 00한테 경찰대 가라면 이런 걸해야 한다고 알려 주신거야?
S17 : 네
S17 : 전 경찰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별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수능 다 1등급 안 맞고 2등급만 맞아도 경찰 될 수 있다고.
면접자: 그런걸 보면 00이는 경찰 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알고 있구나.
S17 : 엄마 때문에... 자세하게 찾아봐요.

문화적 배경과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활용한 진로 모색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달리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일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외국인 부모의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 고등학교 재학 중 언어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갖거나 향후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나라에 대한 배경 지식은 자신의 진로를 구상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면접자: 00는 어떻게 고등학교 계획이 좀 있어요?
S8 : 네, 실업계가서, 전산기계고 가서 엄마가 일본 분이시니까 JPT자격증 준비하고 컴퓨터 배워서 그쪽 갈라고...
면접자: 왜 경찰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
S6 : 일본이 검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경찰이어서..
면접자: 아 일본은 검도하는 분들이 다 경찰을 하셔서?
S6 : 검도관에 경찰이 검도하는 분이 거의 다 경찰이라고
면접자: 그렇구나...그렇게 연결이 됐구나. 00이 일본을 많이 보게 된 거는 엄마의 영향인가요?
S6 : 엄마가 일본분이라서...

③-4. 학교 내 진로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내 진로 지도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학교 내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비롯해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진로지도 역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배경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정보제공으로 채워지는 담당교사와의 진로 상담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경험은 지역을 막론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진로상담 과정을 보면 담임교사는 번호 순서 대로 '학생들을 불러 진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에 들어가면 교사는 우선 해당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의지를 확인한 후 학생의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유형을 설명해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된 고민을 듣고 학생들이 처해 있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접자: 상담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S13 : 샘이 그냥 1번부터 몇 번까지 남으라 한 다음에 한명씩 들어와서 하거든요.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묻는 게. 어떤 고등학교 갈지 생각해봤냐...이런 거 물어보고. 지금 니 성적이 이러니까 인문계 충분히 갈 수 있다 아니면 못 간다 이런 거 말해줘요.
면접자: 아... 고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S13 : 네

직업소개로 채워지는 진로교사와의 상담

객관적인 정보제공자로서의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교 내 상주하고 있는 진로교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이 진로상담실에 찾아가면 간단한 미래 희망 직종을 작성하거나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진로교사는 해당 학생의 적성에 맞는 업종과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격증과 진학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소개해준다.

S21 : 진로 상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한 분씩 진로상담 해주시고. 점수에 따라 어디 갈 수 있다고 알아봐주시고...
면접자: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뭘 물어봐요?
S21 : 종이 주면서 장래희망, 하고 싶은 이유 적으라고 하시고 적으니까 그거에 맞게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가고 몇 년 동안 뭐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면접자: 선생님이 질문하는 건 없었어요?
S21 : 네 그런 건 없었어요.

면접자: 그런 상담선생님한테 상담 받고 도움이 됐어요?
S12 : 도움 된 거는 그냥...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성 맞는 거 좀 찾고..
면접자: 적성 맞는 걸 종류를 어떻게 찾아요?
S12 : 아니요... 찾는다기 보다는 자료를 프린트해서 주세요. 그냥 한 번 해보라고. 흥미는 없었지만 참여는 해봤어요. 그런 거 해보다가 어느 쪽 직업 그런 거 해보다가 끝났어요.

선택의 폭이 좁은 직업 체험

이 외에도 학교 단위에서 추진되는 직업체험, 진로소개 프로그램, 전문강사 초청 역시 청소년들의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진로 소개와 직업 체험의 경우 바리스타, 푸드아티스트, 은행원, 소방관 등 선택이 폭이 넓지 않아 청소년들이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세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면접자: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S21 : 좁은 선택이어서..
면접자: 선택폭이 얼마나 되요?
S21 : 다섯, 여섯 개..
면접자: 어디들 가요?
S23 : 바리스타, 수족관, 기계 만드는 곳도 있고..시장도 가고
면접자: 학교에서는?
S23 : 저희 학교에서는 직업체험으로 해서 2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리스타 체험이나 수족관에 가는지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 없는 학생들은 그냥 다녀오는 거고..

형식적인 진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임하는 청소년

교사의 진로 면담과 진로 소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진로교육이 다소 의무적 ’

이고 형식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진로상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교사가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청소년들 역시 진로상담을 건성으로 임하고 있었다. 미래 진로를 구상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조차 자신의 진로 계획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가 하면, 굳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언급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와 청소년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S14 : 전 그냥 선생님께서 의무적으로 물어보신 거 같아요.
면접자: 형식적으로? 그냥 거기도 번호로 잘라서?
S14 : 고등학교 진학 어디로 갈 건지...
면접자: 선생님이 혹시 OO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S14 : 물어보지 않았어요.
면접자: 그럼 담임선생님이 OO이나 OO 꿈이 선생님이란 거 알고 있어요?
S14 : 모르실 걸요.
S13 : 모르세요.

진로 소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자신의 관심사와 무관한 프로그램 참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결과 선택의 폭이 좁고 자신들의 관심 영역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은 진로체험 시간에 흥미를 갖고 집중하려는 노력을 애써 기울이지 않았다.

면접자: 어떤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없었어?
S17 : 한 번 왔는데...은행 관련된 직업 가진 형 누나들이 와서 직업을 소개해줬어요.
면접자: 들어보니 어땠어?
S17 : 이런 직업도 있구나...
면접자: 열심히 들었어?
S17 : 장난치면서...
면접자: 재미가 없었어? 왜 그랬지?
S17 : 어려웠어요.
면접자: 어려웠구나...내용이?
S17 : 단어도 어렵고...복잡했어요.

③-5.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지원

학업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다문화 지원 센터 프로그램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다문화 지원 센터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며 학교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들에 의하면 지역 사회 내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학업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자: 학교나 사회에서 그런 교육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S8 : 네 근데 제가 아까 거기 다녔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거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거기는 학습지를 주거든요? 거기서 학습지를 그냥 계속하고 싶은데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하니까 가자고 그런 것 때문에 안다니게 된 것 같아요.

과외 선생님 대신 멘토링 선생님

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멘토의 역할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학업지원과 함께 개인 상담의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생 멘토를 통한 학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높아 자발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초등학교 이후 그만두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고교 진학을 앞두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경우 대학생 멘토를 '과외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부족한 학업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접자: 멘토링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어요?
S13 : 네.
면접자: 대학생이 찾아오나요?
S13 : 네.
면접자: 어때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S13 : 만나서 공부하고...
면접자: 1:1로 만나서?
S13 : 네.
면접자: 내용은 멘토가 가져오나요?
S13 : 거의 공부해요.
면접자: 공부해요? 도움이 돼요?
S13 : 네 국어만.
S13 : 오늘도 만났어요.
면접자: 오늘 무슨 얘기 했어요?
S13 : 방학 때 국어를 어떻게 할 건지.

진로 상담사로서의 멘토링 선생님

멘토는 학업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인간적 유대 관계를 쌓은 멘토에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멘토들은 고교 진학과 대입전략 등 미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을 수정·보완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특히 대학 진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멘토는 학업지원과 함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자: 어때요 도움이 돼요?
S13 : 네.
면접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S13 : 공부도 해주는데 상담도 좀 해주니까...
면접자: 어떤 상담?
S13 : 학업 쪽이나 고민,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면접자: 요즘 고민은?
S13 : 3학년 되니까 공부 때문에 학업 쪽으로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쪽.
면접자: 그렇구나. 진로에 대해서도 얘기 해봤어요?
S13 : 네 조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네가 고등학교 가서 더 잘 될 수 있는지..

S21 : 멘토링 자기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랑 맞는 선생님이랑 수업도 하고..
면접자: 주 1회?
S21 : 1회도 하고 2회도 하고..
면접자: 그 선생님이랑 오래 했어요?
S21 : 선생님은 해마다 바뀌어요. 올해는 계속하고 있어요.
면접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심리학자?
S21 : 네. 지금 선생님은 간호사로 생각하고 있어서.. 일반고 아니어도 특성화 가서 바로 취업하는 게 어떠냐..저는 대학 생각하고 있어서..
면접자: 선생님이 그래도 도움이 되나봐요?
S21 : 네.

③-6. 정책 욕구

학업지원에 대한 욕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진로를 계획한 상태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고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국, 영, 수'성적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만 학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한 학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추가적인 교육지원은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절실해 보였다.

S8 : 그냥 고등학교를 가려면 내신이 있어야 하는데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하는데 제가 혼자 하는 게 힘들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니고 있어요.

직업 체험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잡월드'또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23 :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이거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S21 : 다양한 직업 같은 거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

진로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진로 관련 고민을 들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할 대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멘토 또는 담임교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면접자: 00은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도움이 될까요?
S6 : 1:1 상담요.
면접자: 누구랑 하고 싶어요?
S6 : 선생님.
면접자: 담임선생님?
S6 : 네.
면접자: 공부하는데 힘들 때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S17 : 경찰멘토요

④ 소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은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고교 진학에 대한 고민과 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꾸준히 밝혀진 것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흥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미래로 결정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다. 물론 일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미래 진로가 보다 구체화된 상황에서 고교 진학은 물론 대입 전략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능력과 치열한 경쟁사회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다.

진로 결정을 앞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적극적인 호응과 권유 그리고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동기부여가 된다. 실제로 진로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적극적인 호응과 권유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며 진로미결정 상태를 벗어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부모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은 미처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본격적인 진로탐색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언어 능력과 문화적 다양성 역시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특히 일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 배경과 외국어 습득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된 직종으로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부모를 통해 경험한 문화적 다양성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적인 진로지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같이 진로상담과 진로소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 내 진로지도와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진로상담은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기보다 상급학교의 진학 설명이나 특정 직종에 대한 정보제공 성격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 학교에서 운영 중인 진로소개 프로그램 역시 질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진로지도에 청소년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비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특히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생 멘토를 통해 부족한 학업능력을 보충하고 미래 진로 계획에 대한 조언도 얻고 있었다. 비교적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대학생 멘토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V-85 2016 면접 결과 요약: 청소년

진로설정 과정에 있어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간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진로설정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진학 및 그 이후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편임
진로결정을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은 진로확신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 부족
진로와 관련된 가족 내 주 의사소통 대상자는 어머니임
부모와의 소통 수준과 동기부여 정도는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과 연관이 있음
이중언어 능력과 다문화 배경은 자녀의 진로설정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함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지도는 일반 청소년과 함께 이루어짐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상담은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 됨
진로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진로상담은 적성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직업 소개가 대부분임
직업체험 및 직업소개 등의 진로관련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진로지원욕구를 채우지 못함
대부분의 청소년은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효과성이 낮음
지역사회 내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은 학업 및 진로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
멘토링을 통해 학업지원 및 진로상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욕구: 학업지원, 직업 체험 기회 확대, 진로상담 기회 마련

(2) 어머니

① 조사대상

면접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5개 지역의 23명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23명이었다. 각 지역별로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청소년집단과 어머니 집단을 나누어서 각각 동일한 시간대에 FGI를 실시하였다.

② 조사내용

면접내용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대, 진로지도에서 어려운 점, 지원받고 싶은 점, 진로교육 등의 지원경험, 학부모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교육의 주요 원천, 진로에 대해 자녀와 상의하는 정도, 모국어 교육의 경험과 기대 등에 대해 FGI를 실시하였다.

표 Ⅴ-86 면접 내용: 어머니

조사내용
○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대(졸업 후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대) ○ 자녀의 진로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해 지원받고 싶은 점 ○ 진로교육 등 지원 경험 ○ 학부모교육 참여경험여부 ○ 학부모교육의 참여 용이성, 내용의 효과성 ○ 진로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양, 원천 등) ○ 다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것에 대한 생각 ○ 이중언어 및 이중언어 관련 직업에 대한 생각(또는 그러한 직업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 ○ 이중언어교육 경험 및 효과성

③ 조사결과

③-1. 자녀 진로에 대한 기대와 지원의 어려움

자녀 교육 및 진로지도에서의 어려움

첫 번째로,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들은 한국문화 이해와 언어의 부족 등으로 교육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국사회에서 교육시키는 방법, 진학관련 정보 등에 대해 한국 어머니들에 비해 잘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아이에 대해 도움을 많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들도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 다른 가정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부모가 그다지 유능하지 못하다는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고, 결국 부모가 진로에 대해 얘기를 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면접자: 아이들 교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M10: 진로가 어려운거?
면접자: 진로 지도하거나 그럴 때요?
M10: 네..엄마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주변에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듣는 거는 한계가 있고, 고 정도. 엄마가 듣는 만큼 고 정도 밖에 말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죠... 아무래도.
M7 : 최고로 어려운 건.. 애기가 안 따라 주는 거.
M10: 네. 그렇죠. 그것도 있죠.
M7 : 그것도 하나이고, 애기는 엄마를 안 믿는 거예요.
면접자: 아..엄마를 안 믿어요?
M7 : 네. 엄마 아빠는 안 믿는 거예요.
면접자: 왜 안 믿을까요?
M7 : 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자기가 봐도 좋은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좋은 모습을 애기 보는 거 없어. 그래서 애기도 (부모를)따라 가는 거 없고. 믿는 거 없고. 그래서 자기 믿는 건 선생님이나 친구나. 그런 거예요.

특히 엄마들의 경우 자기가 아이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보니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둘 수밖에 없다. 아이도 엄마와 진로에 대해 상의하지 않고, 혼자 정보를 파악하고, 학교 선생님 등과 상담을 하는 등 가정 외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는 스스로 학교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하여 아이를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면접자: 00는 기술 선생님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거 같아요?
M18: 모르겠어요.
면접자: 그냥 갑자기 본인이 얘기를 해요?
M18: 네. 그거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거 저거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고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되는지 알아보고...(그런 거 같아요)
면접자: 아 엄마랑은 진로에 대해 뭐 얘기 해본 적은 없어요?
M18: 네. 없어요.
(중략)
면접자: 그런데 00이 오빠는 자기 진로를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나요?
M18: 스스로 했어요.
면접자: 아 스스로요?
M18: 제가 이제 못해주니까 스스로 했어요. 항상 애들이 내가 뭐..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고, 결국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좋은 학원이나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도 결국 어머니의 정보력이기 때문에, 그 역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M23: 진로 하는 것도 사실 00이 맨날 얘기 하는 것도, 엄마는 사교육 이런 거 너무 모르니까.. 공부 아무리 해도 문제집 잘 풀으라고 하면 여자아이처럼 철 빨리 들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남자 아이들은 그렇게 잘 안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만나면 또 공부는 아무 쪽에든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또 그 쪽으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학교 잘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소식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부족과 문화적 차이, 부모로써의 안타까움

아이의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한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부재하다는 것과, 본국에서의 교육과 너무 다른 실태에 당황스러운 것이고, 다른 한국 학부모처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유능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자녀에게 미안함을 가진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해 주어야 하는 일을 엄마가 가정에서 또는 사교육으로 해결하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매우 낯설고 어렵다.

M2 : 근데 저희 중국이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학교에서.. 전부 학교에서 숙제를 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이제 선생님이 숙제 내놓고 숙제 다 한 다음에 체크를 하시고..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여기는 모든 걸 학원에서 해요.
면접자: 학원에서 하죠?! 그러니까요.
M2 : 그게 안 좋아요. 학교에서 다 모든 걸 책임지고(해야 하는데...)
면접자: 그러니까요. 각자 다 알아서. 엄마가 하죠.
M2 : 예. 엄마가 다 진짜. 어떤 애는 뭐 여기 문화 안 배우고 그 쪽 문화 배우니까 이게 차이점이 많아요. 우리가 배워 주려고 해도. 애 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고.. 우리가 이게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애 키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뒤떨어져요. 네. 문화 차이가 많이 떨어져요. 그게 있어요.

M8: 내가 저희가 다문화니까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걸 당연히 시험에 내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도 깨달았고 나도 그 때 알았죠. 아 학교에서만 하면 점수 안 나오게끔 선생님이 만든다(만드는 구나) 문제를. 그래서 학원에 다녀야 된다고... 중학교 때부터 바로 어려워지면서 어려운데다가 학교에서 안 배운 것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원은 그 성적 위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고등학교 가려면 그거를.. 성적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원도 보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현실을.

M6: 근데 어쨌든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엄마니까.. 교육에만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큰 애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 차이가 나서.. 엄마가 좀 더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가 너무 아쉬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알면 00이도 또 처음이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고 그 능력에 맞는 거 있으면 빨리 찾아서 그 방향을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도 있고...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지만 우선은 진학시스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대학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등을 한국의 중산층 부모들 같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집에 돈이라도 많으면 학원이라도 마음껏 보내겠지만 경제적으로 여건도 되지 않고, 나름대로 EBS를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공부시켜보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M20: (EBS 방송학습에 대해) 학교에서는 틀어주고 애들이 안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 학원을 가야되고.. 고등학교는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우리 동네에서는 뭐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M1: 저도 어머니 말씀대로 싫었어요. 그런 거. 돈 많이 주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됐었거든요.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자녀를 좀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한국 엄마들의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진로나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느끼게 되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등의 넓은 의미의 진로보다는 당장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것 등 주로 진학과 취업에 대한 관심이다.

M1 : 공부는... 글쎄...그게 정말 다문화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정말 그 한국의 시스템이 교육적으로도 너무 일본하고 달라가지고..

면접자: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M1 : 아주 그걸 저는 이제 서야 조금.. 제가 위의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서야 아는데,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교육 안 했었는데, 또 쫌 그 쪽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뭐 교육 같은 거?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해요.

면접자: 그니까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애들 진로나 교육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M1 :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거. 이론적이지만 이런 거 따라하는 한국 엄마들이 많데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우리도) 못 따라 가요. (중략) 싫다, 안 맞다,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쪼금 더 빨리 알았었다면 우리 00이도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었을텐데..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는 주변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런 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모델이 있으면 자녀의 진로 선택에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정보력도 없고, 물어볼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의 부족함에 더욱 더 안타깝고, 구체적인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M17 : (주변에 경찰대 갔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는 애가 공부도 원래 잘했대요. 서울대 의대 가려다가 못 가고 경찰대 붙었는데, 서울대 의대만 못 붙고 다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나 보네요.

M17 : 네. 사관학교도 붙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집 친척들이 경찰관도 두 명이나 있고, 주변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면접자: 그렇죠.

M17 :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정보력도 좀 부족 하지만은 주변에 자기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막연히 열심히 하라는 말만...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막막

아이가 명확한 꿈을 제시해도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이끌어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막연하다. 그러다보니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아이가 잘 했으면 하고 바랄 뿐, 구체적인 전략은 없다. 다만 부모로써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학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학비를 준비 할 뿐이다.

면접자: 00는 앞으로 뭐하고 싶대요?
M19: 경찰..?
면접자: 그래서 경찰 하려면 뭐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엄마가 얘기 해주세요?
M19: 네. 계속 그렇게 경찰 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면접자: 경찰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부모님도 아세요?
M19: 경찰... 그냥...
면접자: 그냥 공부 열심히요?
M19: 공부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돈 빌려야죠.
면접자: 돈을 빌려야 된다고요?
M19: 네 돈 준비하려고요.

③-2. 자녀 진로에 대한 태도 및 가치

대학에 대한 막연한 희망,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열망

면접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말로는 막연하게 대학에 가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중요성은 일반 한국 중산층에서 느끼는 중요성과 온도차가 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학을 간다고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전폭적 지지는 어려운 형편이고,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경향도 있으며,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대학을 가기를 바라지만, 명문대학을 나와서 사회적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는 너무 어리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대학졸업을 원하기도 한다.

면접자: 그럼 00이 대학가는 거.. 00이 대학 가는 거 까지는 원하세요?
M7 : 저는 원하는데, 본인이 가기 싫어..
면접자: 그럼 어머니는 대학까지 가는 건 원하세요?
M7 : 네.
면접자: 00이 어머니도 대학까지는 가는 거죠?
M6 : 네
면접자: 만약 대학 이 다음에 더 공부하길 원하세요?
M7 : 저는 높은데 가고 싶으면 가라고.
면접자: 자기가 하고 싶으면?
M7 : 네. 자기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면 가라고. 제가 얘기 했어요. 00아, 니 가고 싶으면 엄마한테는 보낼게. 너 가봐. 끝까지 가봐라. 그랬어요.
면접자: 그럼 대학까지? 아니면 대학 더 넘어까지?
M6 : 네네. 본인이.
면접자: 원하는데 까지요? 근데 대학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가도 상관없어요?
M6 : 될 수 있으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본이니까.

M1 : (00의 언니 사례에 대해 물어보자) 걔는 요리 쪽으로 가고 싶대요.
면접자: 아 요리 쪽으로요? 그럼 지금 학교 다니는 데가 요리랑 관련 된 학교예요?
M1 : 네네.
면접자: 아~ 마이스터고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가? 특목고 아니고 전문계고 아니에요 그러면?
M1 : 아뇨. 특목고..
(중략)
M1 : 그건 그거로 괜찮은데..좀.....
면접자: 어머니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M1 : 네.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사회에 들어간다는 거 조금 위험한 거 같기도 하고.. 술 많이 마시는 세상이라...또 4년 동안 좀 키워 놓고.. 사회에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런 뜻으로...
면접자: 아 그런 뜻으로요? 네~
M1 : 대학교 이름 같은 거는 상관이 없고...

면접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한 대요?
M2 : 뭐 전문학교를 갈까..
면접자: 아 전문계 고등학교로요? 주변에 있어요?
M2 : 주변에는 없어요 아직. 본인은 뭐가 어디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아 봤대요.
면접자: 오~ 기특하네요
M2 : 다 알아 봤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뭐 성적이 안 되니까.. 자격증이라던지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격증 따면 어디든 이제 들어 갈 확률이 높다.. 그러는데 본인이 노력을 안 하지...
(중략)
면접자: 그러면 00이는 고등학교까지만 가고 대학은 갈 생각이 없대요?
M2 : 갈 생각 없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자: 아..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M2 : 저는 본인이 좋아하는 길로 그냥 했으면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이제 그 쪽으로 해서 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뭐 본인이 (아직)노력 안하니까..
면접자: 네. 00이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하세요?
M2 : 아 안 해요.
면접자: 안 하세요?
M2 : 그거에 대해선 아직 뭐.. 애가 뭐 공부에 대해서 흥미 있으면 조금씩 생각하겠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아직...

면접자: 00는 고등학교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M5 : 어.. 특별히 아직은 어느 고등학교라고 지정은 안했는데..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애 나름대로 특성화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요즘은 인문계가도 대학 가는 게.. 공부만하는 것은 재미없어 하니까.. (중략)특성화고 전형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도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면접자: 아 특성화고 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M5 : 근데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 요즘은 대학 가더라도 졸업한 후에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생각하니까 그냥 특성화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좀 불안한 거죠. 인문계 가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학 진학인데, 특성화고 가면 아무래도 그거 아니거든요.

면접자:00이는 어때요? (고등학교) 정했어요?
M20 :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내신이 잘 나와야 어디라고 갈 수 있는데, 내신이 좀 걱정이 돼요.. 뭐 잘 안된다 그러면 일반 학교로 가고요, 잘 된다고 하면 기술 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면접자: 그러면 고등학교도 그 쪽으로..? 기술 쪽으로?
M20 : 네네. 기계 쪽이나 컴퓨터 쪽

위에서처럼 다수의 사례에서 졸업 후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를 가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으로,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정말로 대학공부를 하고 싶다고 느끼지 않는 한 대학을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면접자: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어떤 고등학교.. 뭐 인문계, 전문계, 마이스터고 이런 거 정했어요?
M20: 아직...
면접자: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럼 언제 정해요? 지금 중3 아니에요?
M20: 중3이요.
면접자: 본인은 얘기해요? 뭐 하고 싶다 라던가.. 조금이라도 얘기 안 해요??
M20: 제가 걱정인 게, 저 쪽에 학교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물어 보는데, 그 때는 첫 째 때는 인문계 가라고 했는데..
면접자: 어디요? 인문계?
M20: 네네. 근데 둘 째 때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공고..
면접자: 아~ 공고. 공업고등학교요.
M20: 네. 기계고나 공고가 좋은 것 같다고 해서 뭐 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가 공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면접자: 어 그럼 00이는 (진로) 정했어요?
M8 : 네. 전산고
면접자: 아 전산고 간대요?
M8 : 네. 근데 그 전에부터 조금 조금 얘기 해봤는데.. (중략) 일단 나는 엄마로서 정보 주고. 내가 아는 정보를 수집하고 주고 이런 길도 있다 이런 길도 있다 이런 직업도 있다 그 말 하고 왔는데..
(중략)
M8 : 근데 우리 집은 자기가 진짜 가고 싶다고 원하지 않는 이상 못 보내요. 안 보내요. 어차피 돈 부담이고 내가 억지로 보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좀 잘 하는 경우도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반드시 명문대를 가야한다는 생각은 강하지 않았다. 또, 일단은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특정한 나이에는 모든 사람이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강박관념으로부터 이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것으로 보였으나, 그만큼 명문대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였다. 그러다보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더 높은 수준의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독려하기 보다는 아이가 선택하는 진로에 대해 부모는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대학을 좀 더 쉽게 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를 진학하여 입시반에 들어가겠다는 생각도 있다.

일반고등학교와는 입시전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집단의 어머니들의 경우 이러한 전략적 판단으로 마이스터고나 전문계고를 보내겠다는 것 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실제로 보다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웬만한 대학을 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낫다는 생각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M16: 00이는 신안에 있는.. 신안군. 그 쪽에 있는 고등학교 가겠다고..
면접자: 아 왜요? 특수 고등학교예요?
M16: 남녀공학인데,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거기가 있대요.
면접자: 아 뭔데요?
M16: 요리도 좀 배우고 싶고.. 바리스타 같은 것도 좀 하고.. 커서는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대요.
(중략)
면접자: 아~ 그렇구나. 그럼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 인거죠? 일반 고등학교 아니고? 대학은 안 간대요?
M16: 대학도 간대요. 자기는.
면접자: 일단은 그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M16: 일단은 고등학교 나와서 그 안에서 가고 싶은데 생기면 또 가고..

M13: 갈 수 있는데.. 가라니까 안 간대..
면접자: 본인이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다니고 싶대요?
M13: 네.
면접자: 그럼 형은 어느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M13: 처음에는 여기.. 관광고 갔었거든요. 관광고 쪽이.. 요리 쪽이 갔었거든요. 요리 하는 거 좋아하고 취미 많으니까. 요리 잘해요 집에서.

면접자: 00는 수학해서 나중에 뭐하고 싶대요?
M14: 그 중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 하고 싶대요.
면접자: 아~ 수학 선생님.
M14: 네. 나중에 부산에서 대학교 가고 싶대요.

면접자: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00이 형) 그래서 00이 형은 관광 쪽으로 할 거예요?
M13: 아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뭐 괜찮다면 얘는 될 수 있으면... 엄마나 한국 대학교 들어오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구요.
(중략)
M13: 00야, 아니면 너 고려대 들어가라. 고려대 쪽은 중국이나 외국어 쪽이 괜찮다면서 많이 받아준다고 그러면서 거기 자료 다 뽑아 주더라 했더니 얘는 서울은 안가고 싶대요.
면접자: 그럼 뭐 중국에서 학교를 가고 싶대요?
M13: 아뇨. 서울 말고 될 수 있으면 대구에서.
면접자: 아 대구에서.
M13: 네. 자꾸 떨어지니까. 혼자서 (같이)지낼 사람도 없고.

대학에 대한 열망, 또는 한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직업에 대한 욕망은 자녀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자녀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공부를 어려워한다고 느끼면 그 상태를 어떻게 하든 극복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보다 좋은 대학, 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녀에게 압박을 가하는 한국 중산층의 부모들과는 달리 '니가 너무 힘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며 아이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경향도 보였다.

> M13: (중략) 요즘은 시험만 한다하면 뭐 한다하면 열심히 해요. 밤에 10시.. 새벽까지 1시, 2시 그렇게 까지 해요. 하는데...근데 점수는...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좀 걱정이 되네요. (중략) 그래서 제가 00한테 '00야, 사범대학 가는 거 좋은데, 도저히 너무 힘들면 선생님 하지 말자.' 그러면 00가 스스로 얘기해요. 여기는 인문대 들어가면, 문과 들어가면, 선생님 빼고 할 거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 거 없으면 그냥 선생님 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아니면 공고로 가던지 아니면 배정이 안 되면 우리도 군인 쪽으로 생각해 보고 지역 군인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낮은 교육 열망에 대한 합리화

자신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낮은 열망에 대해 대부분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 또는 아이가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라고 또는 대학에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리화를 한다. 부모로써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에 보낼 생각이 있지만 애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거나, 억지로 시킨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본인의 적성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며 합리화를 할 뿐, 정작 자녀가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겉으로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어차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실제 사회적으로 대학을 나온 것이 취업에 아무런 도움도,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도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한국사회의 경향성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취약계층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문화집단의 문화적 인식 차이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아마도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면접자: 00는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예요 ?
M19: 고등학교는 그냥 곡성...
면접자: 곡성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요? 아 그래요.
M19: 공부 잘하면 여기서는 광주로 보내요. 근데 공부가 너무 (부족해서) 그냥 곡성으로.
면접자: 아 곡성으로 그냥 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요? 그럼 대학을 갈 생각 이예요?
M19: 대학교는.. 모르겠는데요. 공부 잘하면 우리 애기 아빠는 서울 대학 보낸대요. 근데 공부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해요.

면접자: 부모님은 그럼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M4: 대학교는.. 자기 실력을 봐야죠. 진짜 공부 잘 하면. 더 잘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뭐..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원해야 돼요. 저도 애기를 억지로 놓고 이거 해라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먼저 애들 마음을 물어보고 하고 싶은 거... 저도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른 길로 가 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면접자: 아.. 그런데 한국 어머니들은 억지로 좋은 대학 가라고 좀 많이 그러시잖아요.
M4: 억지로 하면 그거 공부가 안 되잖아요. 애기가 싫은데..
M20: 실력이 돼야 거길 가는데.. 안 되면 어떻게 가냐..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등록금 얼마나 비싼데~

M6: 걔(00이 언니)는 손재주가 있어서... 쟤가 뭐 미용사나 그런 쪽으로. 공부 쪽으로는 좀.. 아니어서...
면접자: 근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얘가 재주가 있든 말든 무조건 공부를 시켜서 일류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M6: 음.. 본인이 저는 하고 싶고 능력이 되면....
면접자: 능력이 되면 하지만?
M6: 네. 일단 본인이 하고 싶고 (적성에) 맞는 거 하라고....

한 사례에서는 자녀가 인근에 있는 일반고를 가지 않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그 학교를 가기를 원하지만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인근의 일반고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로 든 것이 야간자율학습이었다. 어머니가 원하는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11시 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보통 어머니들의 경우 그런 이유로 집 근처에 있는 일반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대로 하라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M7: 자기는 다른 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부여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면접자: 부여여고요?
M7: 네. 근데 부여는 좀 공부를 너무 많았잖아요.
면접자: 아..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요?
M7: 네. 많이 시키는. 10시 11시까지.
면접자: 아 공부...네. 보통 그렇죠.
M7: 근데 00이 성적은 공부 그거는...너무 싫어해요. 그래서...(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라고 했다고)

그러나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 그 자녀가 그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그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학교 담임교사와의 진학상담에서 담임교사가 그 아이에게 '니가 그 학교를 지원하면 입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학교를 가면 거기서 너는 거의 꼴찌 수준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부모가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진로지도 사실을 알았다면, 자녀를 설득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많이 좌우될 필요가 없다거나 니가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거나, 오히려 잘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노력해보자든가 등 지지해줄 수도 있었는데, 이 경우 부모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녀가 하겠다는 대로 두고 볼 뿐이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11시까지 야간자습을 할 수 없어서 일반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겠다는 아이에 대해 그렇게 밖에 아이를 키우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들면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다면, 또는 더 신경을 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공고를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나중에 자신이 깨달아서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는데, 이 사례에서도 역시 대학을 나온다고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방식으로 합리화 하고 있었다.

M10: 저는 처음에 우리 아들이 통역사가 됐으면 하고 엄청 바랬어요. 초등학교 땐 많이 잡아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애기 때 뭐 책이라도 많이 읽어줬으면 공부를 해야겠단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일반고를 갈래, 공고를 갈래? 하니까 자기는 오로지 공고라는 거예요. 왜냐, 일반고는 11시까지 앉아있는 걸 자기는 못 앉아 있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릴 들었을 때 저는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어요. 만약에 어느 정도로 여유가 있었더라면 제가 신경을 쓰고 잘 케어를 했으면 저 정도까지 나쁘진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뭐 이제까지 왔으니까.. 공고도 마이스터고도 괜찮아요. 거기 가도 본인이 그 때 3년 뒤에 깨달아서 나는 더 하고 싶다. 그랬으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 중이예요. 본인이 가서 깨우치도록 저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려고 생각 하는 중이에요.

면접자: 일단 자기 생각을 존중해서 가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M10: 네네. 자기가 하는 일이 행복하면..

면접자: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M10: 그리고 저 고등학교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듣고 나서, 맹목적인 삶은 남는 게 없더라구요. 대전에 4년제 나와도 취직 못하는 거 똑같더라구요. 주변에 있더라고. 네. 집에서 놀아요. 그런 거 보다는(공고나 마이스터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상 무작정 대학에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이 현실적으로 자녀의 적응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달리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그 중 피부색에서 한국인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해서 적응하기 어렵고 자신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차라기 그런 위험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파키스탄 부부에게서 태어나 한국인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하는 바람에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된 S11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교성이 좋고 영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등 장점이 많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운동을 전문적으로 할 만큼 밀어줄 수 도 없고, 학교 성적도 낮아서 공부 쪽으로 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어머니는 미용 일을 하도록 권하고 있었다.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미용사가 되면 한국사회의 차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살 수 있고, 현재 S11의 형이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자녀가 그 일을 하는 데도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여러 가지 생각과 달리 당사자는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열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미용 일은 어머니 혼자만의 생각이어서 이상과 현실간의 안타까운 괴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M11: 00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점이, 피부색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면접자: 아 00 엄마 분은 파키스탄 분이였어요?
M11: 네네. 그니까 그러니까 확연히 얼굴이 다르니까 직업이 한계를 느끼겠더라구요 쟤가요... 치일까봐. 들어가서.. (중략)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심해서 그거(미용)를 택했는데.. 쟤는 아직도 축구, 운동.. 그것도 공부를 잘해야 또 대학 나와야 교사.. 체육교사 쪽으로(갈텐데).. 적성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나왔는데도 단연 그게 우수해요.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는데..
면접자: 뭐 축구요?
M11: 네. 운동, 체육선생을 한다든지.. 매니저를 한다든지, 뭐 보험회사 이런 게.. 애가 워낙 밝고..
면접자: 밝고 명랑하니까~
M11: 밝고 워낙 밝고, 말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하니까.. 리드도 잘 해. 친구들 간에.. 그래서 그게 맞는데 한계가.. 한계가 있는 거야.
면접자: 아.. 어머니 생각 하시기에.. 한국사회에서..
M11: 네. 적응하긴 어렵고.. 한국사람 자체도 어려운데.. 경쟁 사회에서.. 그래서 미용 기술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는 어릴 때는 뭐 경찰도 했는데 경찰도 좀.. 애기 때야 뭐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지는 뭐 아직도 꿈도 크게 없고..

③-3. 자녀의 진로 찾기

부모 사회문화적 자본의 영향

자녀의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경우도 역시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은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반드시 대단한 사회문화적 자본이 아니어도 특정한 분야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다는 것은 자녀의 진로를 찾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들도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를 유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가 컴퓨터 쪽 일을 하시는 분은 자녀에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하고, 어머니 자신이 필리핀 간호사였던 경우는 자녀에게 필리핀으로 대학을 가서 간호대학을 가라고 하기도 하고, 평소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어머니는 물리치료사의 장점을 파악하고 자녀에게 물리치료사가 되라고 지도를 하며, 부모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경우는 자녀가 한의대를 가거나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한다. 물론 이 경우 자녀들이 반드시 이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변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있다는 점에서 그쪽 분야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진로 선택 가능성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M20: 제 권유로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으면 하는데 지금 ITQ자격증도 몇 개를 따긴 하는데.. 제가 얘기해야 그때나 좀 하는 거고 얘기 안하면 아예 관심이 없고..
면접자: 아.. ITQ자격증을 땄다고요?
M20: 네.
면접자: 어머니가 얘기 해줘가지고요?
M20: 네네.
면접자: 아 어머니는 그거 따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M20: 아 저는 원래 컴퓨터를 가르치러 다니기 때문에..
면접자: 아~ 어머니가 전공이 그러시구나.. 그래서 유도를 해 주셨구나..
M20: 네네. 그거라도 어느 정도 알아야 뭐 대학가서 문서도 좀 작성 할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일단은 그거 따고자 해서 하는 거죠.

면접자: 전공 뭐 했으면 좋겠어요?
M9: 00이는 가고 싶은 거 간호사요.
면접자: 아~ 간호사요...엄마랑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M9: 네
면접자: 00는 간호가사 되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M9: 왜냐면 아픈 사람.. 도와주고.. 왜냐면 나는.. 필리핀 간호사예요.
면접자: 아~ 엄마가~아 그러시구나.
M9: 00이도 필리핀 간호사로 가고 싶은데요..
면접자: 아~ 필리핀으로 간호사 하러 가고 싶다구요? 그럼 대학을 필리핀으로 갈 거예요?
M9: 네. 대학. 필리핀으로..

면접자: 아까 물리치료도 얘기 하셨는데 누가 그 쪽으로??
M20: 아 저는 첫째한테 물리치료나 이런 게 좋다고 계속 얘기 했었는데 계속 싫다고...
면접자: 어머님이 혹시 그런 쪽으로, 의료 쪽으로 하셨어요?
M20: 아니요.
면접자: 근데 그 정보는 어떻게 아시고 물리치료를 권하신 거예요?
M20: 아 제가 병원에서 사무실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학과나 그런 거 성격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한국인으로 중국에서 중의를 공부하고 왔고, 어머니는 중국사람으로 역시 중국에서 중의대를 졸업했는데, 한국에서 중의사자격증으로 개업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가정의 경우 부모들은 아직 자신이 못 다 이룬 꿈 때문에 아들에게 의사가 되라고 하는데, 실은 아이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못 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원하면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아이의 성적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M23: 그래서 아들 항상 보고 너가 한의사 하면 안 되냐고.. 성격 상 봤을 때도 괜찮고.. 그리고 진짜 할 생각이 있다 니가 그런 일 한다고 하면 아빠 엄마가 일을 또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중국에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00이는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누가 물어보면, 장래희망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그냥 한의사 한다고...

면접자: 그런 얘긴 자주 하세요? 진로에 대해서. 뭐 한의사 되고 하는 그런 얘기.

M23: 아빠도 한번 심하게 방에서 둘이 같이 얘기 했거든요. 중 2때. 니가 공부 잘하려고 하면 인문계 꼭 가야되고, 근데 공부 대신 잘 해야 된다. 아니면 공부 중간 정도 해서 대학교 들어가 봤자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아니면 그냥 그거 뭐지? 기계 배우는 거? 그런 고등학교 가라. 차라리 기술 하나 배워서.

면접자: 아빠가 그렇게 얘기 하신 거예요?

M23: 네. 그렇게 가게 되면 기술 배워서 잘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공부는 처음에는 그다지 잘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거기 가서는 공부는 잘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해서) 잘 살 수 있다 얘기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한 선택한 결과는 자기 인문계 가겠다고.. 꼭 대학교 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하고 그러면 대학교 들어간다고 해도 니가 목표가 있어야지 그거 공부(할 마음)생기니까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아빠는) 한의사 얘기 계속 하는데 00이는 자기 심리? 상담? 이런 거 쪽 하고 싶다고..

또는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라고 유도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평소 일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아버지가 UN과 관련되어 국제사업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고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자본을 자녀가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같은 다문화집단 내에서도 계층 간의 차이에 따라 자녀들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22: 어릴 때부터. 그리고 막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도와줘야 되고.. 해서 너는 외교관 같은 거 해도 좋겠다니까, 아니 난 UN에서 일 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면접자: 아, UN에서 일하고 싶대요?

M22: 네. UN에서 일해서.. 제 남편 지금도 인도 그 쪽에 화장실 짓고, 학교 짓고 막 그런 거.. 지역 사회 발전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해서 파퓨아뉴기니나 동티모르나 이런 데 가서 살고 싶고.. 인도도 가고 싶고.. 그래서 지금 언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상을 먼저 파악한 아이, 따라가지 못하는 엄마

세상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똑똑하고, 공부까지 잘하는 아이는 사회적 계층의 중요성을 벌써 깨닫고 있다. 어떤 일을 해야 사회적으로 파워를 지닐 수 있는지,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그 외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그에 맞추어서 노력한다. 그러나 인생을 전반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는 그런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자랑스럽고 기쁘지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자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노력하나 하는 생각에 편하게 살라고 말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본인의 가정형편 상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갈 경우 경제적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형편에 맞는 수준까지만 공부를 하라고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막아보지만, 그러나 자신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엄마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오히려 부모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M21: 처음에는 중1때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1하고 중2 올라가니까 공부가 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생각을 바꿔 분거지. 네... 의사는 힘들 것 같고 간호사로 가자. 지는 어쨌든 간호사로 가겠다고 하고.. 근데 나는 그라지. 우리가 지금 돈을 못 버는데.. 일단 부산보건고등학교를 가가.. 거기서 간호사과를 들어가서 돈을 빨리 버는 게 안 낫겠나 하니까 엄마 난 그러기 싫다 하면서 그런데 갔다 내려오면 암만 올라갈 힘이 없는 거라는 거라..

면접자: 아~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어린친구가..

M21: 00는 공부를 잘해서. 중1에서 중2 올라갔는데 힘이 들으니.. 또 생각이 또 바뀌는 거라. 의사도 안 한다고 간호사로 바뀐다고 한 것처럼.. (중략) 00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중상에 올라가면...그러는 기라. 거기 가가 5등 안에 꼽히고 나면 뭐 서울대도 갈 수 있고.(라고 했어요).. 서울대 가지 마라 돈 들고 공부도 못 가르친다 내가 하니까 지가 하는 말이 그래, 엄마 내 공부해가 내가 잘해가 장학금 타서 하면 되지. 엄마 아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항상 그리 생각하는 거라. 몸이 아파가 내가 니 공부를 못 시키는데 니 정도에서 공부를 하라 내 항상 그러는데 우리 다문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00 어머니, 00는 지가 알아서 하고 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아무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거라. 근데 나는 또 듣다 보면, 돈도 많이 드는데.. 한 학기에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장학금 타서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오면서 그러는 거라.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M22: 교사가 되도 참 잘 할 것 같아요.
M21: 그래 나는 간호사로 가지 말고 선생님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엄마 선생님은 너무 하질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니는 간호사도 그렇다 했더니..
면접자: 하질이라고요??
M21: 하질. 예. 선생님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한다고. 그래서 첨에는 지가 그래. 엄마 한 단계 높여도 봤다가 내려도 봤다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내 그래요.
면접자: 참.. 어른보다 더 훌륭하네요.
M22: 그러게요.
M21: 근데 나는 항상 걱정이라.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못 벌고.. 이라기 때문에.. 항상 내려보고 하는데.. 그래 내가 부산 보건고 들어가면 간호사로 들어가면 취직이 되는데 (왜 안가냐) 엄마 그라면 내내 쫄배질만 한다 이거야.

형제자매의 영향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한 형제자매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형이나 누나, 오빠, 언니가 있는 경우는 그들이 진학한 학교나 진로를 동생도 똑같이 밟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진학한 형제자매의 성공여부를 보고 나서 그 진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나름 검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나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간 경우는 동생도 그 학교에 가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형이 미용업을 성공적으로 하면 동생도 미용업으로 유도하게 된다. 청소년 당사자도 언니오빠의 고등학교 생활을 보면서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M5: 어.. 특별히 아직은 어느 고등학교라고 지정은 안했는데..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얘 나름대로 특성화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요즘은 인문계가도 대학 가는 게.. 공부만하는 것은 재미없어 하니까.. 누나가 있어서.. 누나가 특성화고에 지금은 진학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특성화고 전형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도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면접자: 아 네. 그러면 누나는 무슨 특성화고 다니는 거예요?
M5: 아 누나는 디자인 과거든요 걔도. 디자인.
면접자: 네. 누나는 몇 학년 이예요?
M5: 지금 2학년이요.
면접자: 괜찮대요? 재밌대요?
M5: 네, 거긴 괜찮은 거 같대요. 아주 좋아하고요, 학교도 아주 좋고. 그래서 자기도 거기 간다고 하는데... 글쎄 거기 가기에는 좀.. 좀 더 알아보자고..

M15: 근데 오빠가 기술하니까.. 자기도 이게(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오빠가 자동차 기술 하거든요.
면접자: 오빠가 성인 이예요? 아예 학교 졸업 했어요?
M15: 고1이예요.
면접자: 아 고1이예요? 근데 자동차 그 쪽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M15: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대학 안 가면 안 될까? 이러더라구요.

M11: 왜냐하면 이 쪽이 또 우리 사는 그 쪽이 공단 쪽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고 하니까 지가 그 쪽에다 기술을 터득해 가지고 하나 차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형도 머리를 잘 깎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도 형이 다 해주고 직접 다 한 거..
면접자: 형은 몇 살 이예요?
M11: 스물 다섯.. 장가 갔고..
면접자: 아 장가 갔구요?
M11: 그래가지고.. 헤어 쪽으로 한번 진로를 잡아 보고 싶은..
면접자: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M11: 고등학교는 일단 다니고. 졸업 하고.
면접자: 네. 그니까 지금 중3인데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로 가기로?
M11: 그래서 이제 헤어 전문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예요. 대구에는 잘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면접자: 고등학교 혹시, 헤어 쪽으로 할 수 있는 전문 고등학교 있어가지고 거기 나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본인도 그걸 원하고?
M11: 네네.
면접자: 음음.. 그 헤어는 누가 먼저 얘기 한 거예요? 어머님이 얘길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형의 영향을 받아서 저절로??
M11: 제가 그런 것도 있고.. 지도 뭐 형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쪽으로 하면 괜찮겠다 그랬더니만... 괜찮겠는데? 그러더라구요. 본인 말은 또 들어 봐야 확실히 아니까.
면접자: 아아. 저 쪽에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어쨌든 일단은 하겠다 얘길 했어요?
M11: 네네. 확실히 아직 모르겠어요. 꿈은 운동이고.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을 통한 진로찾기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어떤 경우 단순 캠프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면접 대상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목공전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방과후에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다가 자신이 그 쪽을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결국 목공기술 쪽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목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건축디자인 등 관련된 대학 전공을 할 생각도 있다고 발전되어 방과후 활동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체험활동에서 바리스타를 하다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보고, 바리스타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요리에도 관심이 있는 터라 요리 쪽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활동 들이 잘 구성되기만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찾게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면접자: 아 그럼 특성화고 쪽에서도 어떤 걸 공부하고 싶어 해요?
M5: 얘가 목공을 좋아하거든요.
면접자: 어, 그거 괜찮던데요? 목공.
M5: 근데 목공을 좋아하는데, 목공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그런 게 아빠 의견이고.. 그건 나중에 취미생활로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본인도 나무를 다루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나무를 또 좋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대학을 갈까는 또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막연하게 건축 디자인 쪽으로 생각은.. 근데 그거를 하려면 대학은 가긴 가야 할텐데... 근데 또 나무 좋아하는 그 정도는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집은 공부하라고 막 하는 집은 아니거든요.. 전혀. 근데 어느 정도 성적은 그냥 공부는 수업 때 집중 해가지고 애가 워낙.. 성적이 그러니까 영어 빼고는 거의 다 괜찮거든요. 뭐 그래서 특성화고도 본인만 원한다면 뭐 너무 높은데 아니면 뭐 거의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어디로 갈까..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좀 생각 해봐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이예요.

M16: 00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 그 프로그램 같은 체험 할 수 있는 거 그거 거기서 바리스타 체험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제일 잘했대요. 그러면서 사진도 뭐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승무원 같은 것도 하고.. 뭐 대학에서 여러 개 시설이 있나봐요. 학교에서 그런 데도 보내주시고.. 자기가 듣는 거랑 실제로 해 보는 거랑 다르니까..

③-4. 이중언어

때늦은 후회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말을 잘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형편상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어머니들은 한국어를 먼저 제대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또는 한국에서 사는데 굳이 자기 나라 말을 아이가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였다. 어머니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이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한국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한국말을 잘 해야 아이도 한국말을 잘하게 되고, 자신이 모국어를 사용하면 아이가 한국어를 발달시키지 못할 것 같았다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M5: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말을 안 가르쳤어요. 일부러.
면접자: 왜요?
M5: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면접자: 네.
M5: 그 이중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면 좋지만.. 제가 그게.. 귀찮아서.. 그니까 제가 한국말을 배웠거든요. 그니까 어느 정도 제가 해요. 그거를 갖다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뭐.. 불편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 왔다 갔다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모국어로 한국어를 제대로 한 다음에 저도 한국어를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데 그냥 모국어를 제대로 했었으면 나중에 커가지고 일본말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 때 배우면 되지 뭐 굳이 그거를 이중 언어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성격이 너그럽지가 않고..(애들하고 일본말 하면)... 답답해요. 일본말을 하면. 그니까 그냥 그대로 했더니만 애들은 뭐 그냥 만화 보면서 일본 애니 같은 거 보면서 어느 정도 하고 그 정도지, 그 이상은 안 하니까 학교가면 선생님이 왜 일본어 못하냐고..
면접자: 아 말 못 알아 들이니까 답답하셔서요?
M5: 답답한 것도 있고, 한국에서 키우다 보면 한국말로 표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본어로 말 안하게 돼요. (중략)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모국어를 열심히 해라..
면접자: 아 모국어를 제대로 하는 게 더 낫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구요?
M5: 네.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아예 안 가르쳤던 것도 있고.. 지금은 큰 애가 중학교 때 1년 동안 일본어 학교에서 배웠고, 지금은 고등학교 되어가지고 배우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쪼끔 해요.

M10: 처음에 애기 때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가 돼요. 삶이 여유가 있고 하면 충분히 대화도 하고...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두 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막상 둘이 나왔지.. 키워 본 경험도 없지.. 누가 뭐 시댁에 누구 하나 한 분이라도 봐 줄 사람이 없지 어떡해요... 지쳐서 분유 먹이기 바쁜 거예요. 그럼 대화가... 당연히 저는 입을 닫고 살았어요. 이게 애기 말 트기를 3살 넘어서 말을 텄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키워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지 언어는 나는 뒷전이었던 거 같아요. 이게 좋은 상황인데도 왜 못 하냐,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야. (중략) 뭐 그냥 다른데 신경 안 쓰면 충분하게 이중 언어가 가능한데.. 그 당시 저희 때는.. 17년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경제적 여유가 좀 생겨서 가르치려고 잡아요, 그 때는 바로 앉아,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거니까 하면 싫어하죠.

면접자: 공부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M10: 네.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놓친 거 같아요.

면접자: 그럼 00이는 중국말, 한국말 다 잘해요?

M23: 음.. 잘한다고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제가 한국어 배우고 나서는 한국어 쓰려고 하니까 아니면 가끔 중국말 얘기해도 자기는 한국말로 대답하고.. 그래서 중국 친구보다는 훨씬 못했죠. 그래도 한국사람 보다는 좀 잘 하는 거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해도 어렸을 때 그거(외국어) 배우는 거 중요한 거 같아요.

(중략)

면접자: 어머니가 중국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M23: 지금 조금 후회 되는 거 같아요. 처음부터는 제가 한국어 안 배웠고 어쩔 수 없이 중국말만 쓰게 되면 아마 애들 지금 중국어 훨씬 잘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러시아 언니는 집에서는 러시아 말만 썼어요. 그 언니는 애들 대학교 들어 갈 때 까지 한국어 안 배웠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진짜 독한 거 같아요. 자기 한국어 안 배웠기 때문에 애들한테 러시아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진짜 러시아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면접자: 근데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칠 생각은 안하셨어요?

M18: 나는 이제 한국말 배우느라고..

면접자: 아 그러셨구나..

M18: 책도 한글로 다 읽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M15: 우리도 잘못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따라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바로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자: 그게 왜 어렸을 때는 왜 안됐어요?
M15: 저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Stand up' 했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 동서 애기도 있으니까 둘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기가 힘들어 한국말로 해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나 애들 같이 하면 자기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말로 해야겠다 이러길래 그냥 한국말 해버렸어요.
면접자: 아~ 그렇게 되셨구나..
M15: 나도 힘 들으니까 이쪽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무조건 한국말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도 힘드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끝까지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면접자: 그니까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남보다 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불안하니까 한국말을 빨리 먼저 가르치자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M15: 네. 맞아요

이중언어 효용성의 부족

이중언어를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 중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어와 같이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모국어로 지닌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이야기로, 어차피 배워봤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적극적으로 원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러시아어를 가르칠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러시아어를 잘해서 취업하는 것은 바라지만 이미 늦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면접자: 00이는 어때요?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어를 쓰나요?
M20: 러시아어를 쓰긴 하는데,, 어차피 배워봤자 환경이랑 안 맞잖아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대화를 할텐데..
면접자: 아니 요새 그 러시아어가 굉장히 뜨고 있던데?
M20: 근데 그거는 어려운 말 이예요.
면접자: 아 그래요?
M20: 어려워요. 발음적으로도 어렵고 그거를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니까. 누구한테 쓸 거야. 나한테도 쓰기는 하나 두 개 단어는 아는데 그거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문제들도 있고요, 배워도 원인이 그거를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주변에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면접자: 음~ 00이는요?
M4: 00이도 뭐 어렸을 때 조금 배워두다가 걔도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저도 한국말 배워야 했어서. 사실은 전 한국말 하는 게 편해요.
면접자: 아 그러세요?
M4: 네. 그래서 신랑도 맨날 왜 러시아 말 애들한테 안 가르쳐 주냐 그러고.. 일단은 막내 아들이 알아듣긴 하는데 안 따라 해요 애들이. 근데, 재작년에(키르기스스탄) 한번 놀러 갔다 왔는데 동네 엄마 옆에 애들하고 놀면서 너희들 이제 러시아 말 좀 배워라 그랬더니 오히려 그 동네 애들이 한국 말 배웠어요. 그 애들이. 일부러 우리 집까지 와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배우고 다 가르치고 왔지 뭐. 나중에 크면 아무래도 마음먹으면 그 때 진짜 엄마 나라 말 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요.
면접자: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엄마 나라 말을 활용해서 뭐 취업을 하거나 진로를 갖거나 하시는 건 바라지 않으세요?
M4: 그런 건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이제 놓쳤죠. 안 가르쳐가지고...

이러한 생각은 러시아어 같이 흔하지 않은 언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어의 경우 한국에서 매우 흔하게 배우는 제2외국어의 경우도 그렇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를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 일본어가 필요하다면 배우는 것이지만, 엄마가 일본사람이라고 일본어를 배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M1: (일본어 배우는 게)그렇게 플러스는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M5: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큰 애 같은 경우에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만화가는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고등학교 들어 가 가지고 졸업해서 취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자 하는데.. 만화적으로는 역시 일본이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본어를 많이 배우고 싶고 하니까 그런 때는 협조 해주고 그러지.. 특별히 엄마가 일본사람이니까 일본어를 하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문화라고 이중언어 배우는 건 싫어

이중언어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과 달리 다문화청소년들은 어머니 나라 말 배우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외국출신이라는 것이 그 나라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학습되지 않는 한, 어렵게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려 해도 본인이 관심이 없어 하고, 엄마에게 엄마나라 말 하지 말라고 하면 엄마로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면접자: 00이는 어머니 나라 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M9: 네. 왜냐면 어, 애가 영어 너무 어려워해요.
면접자: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신데~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 아니세요?
M9: 아니 근데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선생님. 싫다고 해요.
면접자: 아 싫대요?
M9: 네. 여기는 한국인데 왜 영어 하냐고요.
면접자: 아~ 영어는 왜 하냐고. 한국말만 하면 돼지~
M9: 한국어 많이 배우면 되지...영어 하지마~ 그래요. 너무 어렵다고..그래서 싫어해요. 답답해서

M14: 처음에 00이 베트남어 선생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트남어에 관심 없어요.
(중략)
면접자: 애들이 어머니 나라 말을 잘해서 이쪽으로 전공하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세요?
M14: 어 저 하고 싶어요! 완전! 그런 거.
면접자: 어머니들이 바라시기는 많이 바라시더라구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걸까요?
M14: 애가 안 따라 주니까.
면접자: 아 애가 원하질 않아서?
M14: 네네.
면접자: 아이가 왜 원하질 않죠?
M14: 몰라요. 계속 베트남어 배워라. 나중에 도움 많이 된다고. 엄마는 베트남이 나라니까 나중에 진짜 대박이라고(도움 많이 될 거라고) 했더니 그거 안한대요. 관심 없대요.

그러다보니 어머니 나라 말을 배우기보다는 영어를 더 선호하고, 엄마가 다문화가 될 거면, 미국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중국사람이야... 라고 하기도 한다. 아마 엄마가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사회적 역량으로 인정받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중언어를 스스로 알아서 더 배웠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머니 나라 말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 출신국에 대한 국제적 지위와 평가를 내면화 하고, 그 나라 말을 한다는 것이

크게 자신의 역량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면접자: 00인 형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M17: 00이요? 여동생 하나 있어요. 6학년.
면접자: 아 참 6학년 이라고 하셨죠. 동생은 잘 해요?
M17: 걔는 공부에 관심 없어요.
M16: 어! 똑같애! 우리랑 똑같애
M17: 아 근데 걔는 또 영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중국사람 말고 미국사람 엄마가 오지.. 왜.(중국엄마가 왔어)...
면접자: 어머! 중국어가 뜨고 있어 요즘 이렇게 말 해주시죠.
M17: 영어로 막 대화를 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는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엄마 난 미국사람한테 시집 갈거다 이러더라고요.

주변사람의 태도의 영향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주변사람들의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시부모들이 어머니 나라 말을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강요당하여 한국말만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보다 주체적이고 주관이 확실하여 시부모의 말을 무시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낯선 나라에 와서 한국말도 모르고 사회문화도 모르는 상태의 약한 권력상태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시댁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나라 말로 아이를 가르치기는 어려운 일이다.

M7: 처음부터 애기는 어렸을 때는 같이 얘기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좀.. 엄마하고 애기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싫어해요. 안 된다고.
면접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M7: 아니, 자기 애기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면접자: 가르치지 말라고요? 아, 그래요~
M7: 처음에는 제가 애기한테 태국 말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같이 (태국어) 가르치지 말라고. 애기한테. 태국말로 말하지 말라고...그랬어요.

M19: 그니까 우리 00도 옛날부터 영어로 얘기하고.. 타갈로그 하면 시어머니가 화났어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한국말 하게 하라고.
M16: 우리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그래요. 계속 가르치라고.
M19: 처음에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시어머니가 야. 필리핀 말 하지마. 그냥 한국말. 한국말. 그러니까 또 한국말 배워서..

아이가 이중언언를 하는 것은 어머니의 적극적 사용이 관건으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일본어로 아이를 키운 경우, 일본어를 완전히 습득하게 된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그녀의 시어머니도 일본어로 애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 어머니가 무시하고 일본어로 아이를 키웠고, 나중에 아이가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잘했다고 하면서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본 출신 어머니는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본인도 한국말을 매우 유창하게 하는 케이스였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머니 나라 말을 배우지 않는 것을 어머니 개인의 의지나 역량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가족 관계 내에서의 역동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M16: 00이는 일본어 잘 해요.
면접자: 잘해요? 오~ 어떻게 잘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M16: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다 일본어로 제가 했거든요. 알아듣던 말던. 만화 보여주고... 노래 들려주고... 같이 노래하고.. 해석 하는 것도 일본어 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면접자: 근데 보통 다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일부러 가르치신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M16: 그냥.. 제가 일본어가 자기 모국어니까.. 편하니까..
면접자: 아 그럼 한국말은 또 어떻게 저절로 잘하게 되던가요?
M16: 애들이요?
면접자: 네. 애들이요.
M16: 애들이야 뭐 한국에서 사니까.. 되겠죠.
면접자: 음.. 특별히 그건 신경 안 쓰시고 일본말로 그냥 했는데 잘 된 거구나. 그럼 혹시 한국말이 다른 애들보다 더 늦거나 좀 그런 현상 있었어요?
M16: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 그 중간에 한 유치원 때인가? 섞어서 쓰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분리가 되고...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말리는 경우와 반대로 어머니의 모국어를 아이가 유창하게 하기를 바라서 아이와 어머니가 어머니 나라 말로 소통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당연히 아이는 어머니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밖에 없다.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에 결혼이주한 어머니의 경우 초기에 일본어를 쓰지 말고 한국어만 쓰도록 교육받았으나 남편이 자녀의 일본어 배우기를 적극 권유하여 자녀에게 일본어로 말하게 되고, 현재는 어머니와 아들 간 대화를 일본어로 하고 있었다.

면접자: 그럼 어머니, 일본말을 애들 어렸을 때는 안하셨어요? 초등학교 전에, 애들 키울 때...
M12: 아 애 키울 때는 아니 우리는 한국에 와도 일본말을 쓰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중략)
M12: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무조건 한국에선 한국말만 배워라. 대화 하느라고. 근데 어느 정도 가면서 애기 아빠가 나는 일본말 몰라도 되니까 둘이 일본말 하라고 시켜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③-5.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

학습지원의 필요성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에 비해 중학교에 입학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때 똑똑했어도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스스로 목표를 낮추게 된다. 이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국의 중산층 부모들만큼 강하게 통제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학원이나 개인과외 등을 다니도록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가정의 경우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까지 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원을 보내겠다는 어머니의 경우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가정이었다.

M7: 근데 처음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에 초등학교 하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자기 공부 그거 잘해요.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6학년 까지.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간 중간 나와요.

M15: 이게 엄마 나 나중에 뭐되고 싶어? 이러는데 니가 나중에 간호사 돼 줬음 좋겠어. 이러니까 나 공부는 싫다고 이래 얘기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해 이러면 공부 뭐하려고 열심히 하노! 이래요 촌에서 살다가 이사 와서 그래요.
면접자: 어디 살았었어요?
M15: 촌에 살다가 14년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사.. 촌에서 시내로 이사 왔는데 그 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면접자: 아 전학하면서요?
M15: 어려워서.. 자꾸 떨어진 거예요.

M13: 처음에 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에도 공부 잘 했거든요. 항상 수학은 구십 몇 점.. 근데 오송(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수학 확 떨어지더라구요. 공부는 항상 잘 했어요. 그니까 애들 공부 하는 거 초등학교에서 보면 안돼요. 진짜예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점수는 확 떨어지니까 걱정은 됐는데.. 그 때도 학교에서 항상 진로 상담 했잖아요.

면접자: 아.. 상담을 누구한테 받아요?

M13: 항상 저한테. 애는 항상 받고.. 항상 진로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학교에서 이런 거 진로 나오는 거 체크 하는 거 있잖아요.

면접자: 아 장래희망 같은 거 쓰는 거?

M13: 네네. 그래서 '엄마 나는 뭐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초등학교 때 과학자 하고 싶대요. 근데 나는 의사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는 이미 포기하고.. 포기했고.. 그래서 나는 너 지금 가면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올라가니까.. 수학도 점수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데.. 학원 다녀도 계속 오르지 않아요.

M23: 초등학교 때 까지만 해도 학원 이런 거 안 가고, 그냥 집에 놔둬서 혼자 문제집 풀고.. 혼자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그 때만 해도..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100점 99점.. 그래서 아무 걱정 안했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한 번 시험 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점수 확 떨어지는 거예요. 90점?? 88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상 안 되죠. 항상 100점, 99점 받았다가. 80점 대 나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 학원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 하니까 나중에는 공부방.. 자기 친구들 다니는 공부방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다녔다가 중간에 그만 뒀어요. 그만 두고 그냥 EBS 방송 보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체크하고 그렇게 보고 한다고 하면 자기 혼자도 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그만 둬서 집에 와서 혼자로 공부 시작 한 거예요. 문제는 제 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면접자: 그렇죠.

M23: 네. 그래서 시험 쳐 보니까 똑같이 영어를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하는 거 아무 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영어 공부 전부 예요. 영어 점수도 맨날 80점 대 받아요. A등급 못 받고 맨날 B등급 하니까. 그래서 이번도 영어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친구 다니던 공부방 가겠다고 해서 어제부터 다니고 있어요..

(중략)

면접자: 돈 내는 거예요?

M23: 네. 돈 냈죠. 그래서 사실 조금 부담 되죠. 이 때 까지 사교육 안 다니다가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또 중학생 되니까 사교육이 엄청 비싸잖아요. 간다고 해도 보내야죠. 점수만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린 또 00이한테 큰 기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다보니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현재 정부에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떠도는 이야기에 비해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말한다. 괜히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아이들 공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멘토링보다는 학원에 다닐 수 있는 학원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아이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다.

면접자: 만약에 정부에서 애들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뭐를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M10: 교육이에요. 오로지 교육이에요.
면접자: 어떤 교육?
M10: 그저 애들 학교 공부 잘 할 수 있게끔. 공부죠 그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에서도 돈 엄청 많이 내려 부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에게 오는 돈은 별로 없어요.
(중략)
M10: 어.. 이제 공부하는 걸 도와주려면 차라리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각자 알아서 이 학원 다니고 싶다 하면 학원으로 가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카드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알아서 가서 공부 하죠. 그럼 또 알뜰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 제 생각.. 그냥 제 얘기.

학습지원 뿐 아니라 기본적인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글수업 지원도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져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 교육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상 발음이나 어려운 단어의 의미 등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고, 초기의 국어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습한국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한국인의 발음으로 국어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끊겨서 아쉽다는 것이었다.

M4: 일단은 저희 생각은 애들이 다문화는 아무래도 자격증 따봤자, 자기가 평생 공부해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저희 언어 아니잖아요. 내가 맨날 공부해도 맨날 맨날 모르는 것이 그 때 그 때 올라와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뭐 국어든지 00이, 00이 우리 애들.. 그 국어나 아니면 한 과목은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런 좀 학원이나 그런 거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M4: 그 재작년에 우리 아들이 그.. 한글 무료로 일 년 반 정도 한글 수업 받았거든요? 씽크빅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딸내미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대요. 없어요 이제. 한글도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없고 그냥 돈 내라는 그런 소리죠. 저는 한글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도 발음이 안 되잖아요.
면접자: 아 태어났어도 한글 교육이 따로 필요해요?
M4: 지금 이제 거의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다문화. 그래서 다 돈 내고 다 하는 거예요.
M20: 언어가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언어도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애들한테는 가르쳐 줄 때는 발음이 잘 안될 때 있으면 애들이 또 (그대로) 따라한단 말 이예요. 그래서 교육을 따로 시키잖아요. 유치원이나 방문으로 많이 시키는데, 어떤 엄마들 아예 한국말 모르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사용한단 말 이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지원을 끊으니까...

멘토링에 대한 상반된 경험

어머니들의 경우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들의 반응과는 달리 상반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는 자녀에게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서 좋았다는 입장이었다.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기도 하고, 부모가 주지 못하는 진로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거나 아이에게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이가 학습에 워낙 관심이 없는 경우,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라서 이미 학원에 다니고 있고, 멘토로부터 학습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경우였다.

> M11: 저는 그게(같이 놀아주는 것) 참 좋았어요. 왜냐면 00이도 해봤는데 이게 친화력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공부는 어차피 지가 들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같이 해주고 같이 게임도 하고.. 놀아주니까 애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는 (00이가) 싫어하니까 집중적으로 한 30분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2시간을 하는 중에서도 노는 걸 하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지 마음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니까 애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서 사회성 키웠어요..

> M13: 저는 공부도 좋아하지만 선생님 어울리는 거 많이 배우게 된 거 같아요. 선생님한테서 나중에 진로 뭐 꿈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는 거. 선생님한테 이거 아무래도 대학생 선배니까.. 공부보다 선생님 형이나 누나한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우린 몇 번 했어요. 큰 애도 멘토링 다 했고.. 집에 와서도 했고.

> M23: 그 때 초등학교였을 때. 중학교였을 때는 여자 학생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 진짜 잘했어요. 네. 거기 00대학교 학생인데 공부도 잘 가르쳐 주고.. 옆에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고. 2주, 아니 한 달 한 번씩 이렇게 밖으로 한 번 같이 나가서.. 그런 건 괜찮은 거 같아요. 대학교 가면 너도 이런 모습이다. 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주고..

이에 비해 멘토를 통해 학습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한 가정에서는 멘토링이 효과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공부를 가르쳐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다.

면접자: 네.. 아 그럼 혹시 대학생 멘토링 해본 적 있으세요?
M14: 도움 안돼요.
면접자: 아 도움 안돼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안 되셨어요? 몇 번 이나 해보셨어요?
M14: 저 두 번 했어요. 한번은 00대학교, 또 한 번은 그 00대학교. 자기 집 구미니까 가까우니까 멘토링 연계 했어요. 근데 가서 공부 안하고 그냥 노는 것만.. 삔 만들고.. 머리띠 만들고..
면접자: 몇 학년 때 했어요?
M14: 그 때 00이 초등학교 때.
면접자: 아! 엄마는 공부를 가르쳐 주길 바라셨는데 노는 것만 했어요?
M14: 네. 노는 것만. 만들어 주고. 삔 만들고.. 머리띠 만들고. 뭐 악세사리 만들고. 저는 그냥 공부만 원하고 싶어요. 근데 멘토링은 그냥 노는 것만 해줘요..

그러나 멘토링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주로 멘토로 오는 대학생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대학생이 멘토링 시간을 정해놓고 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 와서 아이에게 혼자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핸드폰을 보고 딴 짓을 한다거나, 옆에서 자고 있거나 한다든가, 또는 아이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때 친절하게 지도하기보다는 멍청아 이것도 몰라 하고 윽박지르는 등 멘토로서 기본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부모는 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은 대충대충 때우고 가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 명 중 한 명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멘토링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주변의 다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는 못한다. 담당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 학생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멘토에게 멘토링 했다고 싸인 해줄 테니까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지만 혹시나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면접자: 학교에서 뭐 공부 별도로 시켜주고 이러는 거 있어요?
M7: 없어요.
면접자: 없어요? 뭐 대학생 멘토링 없어요?
M10: 아! 멘토링 잘 말씀 하셨어요. 제가 (애들)초등학교 때, 이거 교육청에 전화 하고 싶었어요. 대학생 멘토링이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애들 (초등학교)3학년 때인가? 근데 뭐 뉴스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뭐를 굉장히 많이 꾸몄더라구요. 돈 많이 들인 거 같더라구요. 근데 멘토링을 와서는 자세가 잘못 됐어요.
면접자: 아 어땠는데요?
M10: 그거는 교육 받고 와야 돼요. 본인이 단순히 대학생이라고 다 똑같은 대학생은 아니에요. 와서 생각 자체가 이거야. '아 다문화가정은 대충대충 놀아주고 시간 때우다 가면 돼.'그게 다 박혀 있어요.
면접자: 그게 다 똑같았어요?
M10: 다 똑같았어요. 딱 한 애가.. 마지막에 00대 대학생 왔는데 집이 서울 쪽이었어요. 그 학생만 빼고 다 똑같아요.
면접자: 어떻게 하던가요?
M10: 이제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어. '어. 책 꺼내. 이거 풀어.'해놓고 자기는 핸드폰 보고 어느 날인가는 노트북을 갖고 와 아예 대놓고 하고 있더라구요. 엄청 제가 화났어요. 그래서 당장 이튿날 제가 그랬어요. 앞에서는 제가 감히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덩치도 크고 하니깐 남자애고 하니까 혹시나 무슨 보복이 올까봐 이튿날 바로 그 사무실에 목원대에서 운영 했었나 그래요. 목원대가 위탁을 받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보내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풀다가 하나를 못 풀었어. 그랬더니 '야 멍청아 이것도 몰라!'그랬어요.
면접자: 준비가 안됐구나. 하나도.
M10: 주변에도 필리핀 아는 엄마 있지.. 베트남 아는 엄마 있지.. 멘토링 다 받았어요. 어떠냐 했더니 '아 언니 말도 하지마.'거기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냥. 이제 바쁘다고 핑계대고 이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시간은 다 체크 해주고. 수업 다 받은 거로. 왜 그렇게 해주냐고 내가 그랬어요. 왜 수업 안한 거를 해줬다고 가짜 사인을 해주냐. 차라리 안 받으면 안 받겠다고 전화를 해라. 당당하게. 제가 시켰어요. 그니까 주변 그.. 엄마들 반응도 똑같아. 그 자세가 틀린 거예요.

면접자: 아 네.. 00이도 한 적 있어요?
M23: 네. 00이도 중1까지도 했어요. 어 괜찮은 학생도 있지만 좀 약속 잘 안 지키는 학생도 있어요.
면접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학생 이예요?
M23: 네. 대학생. 음 처음에 한 학생은 진짜 안 좋았던 거 같아요.
면접자: 어땠어요?
M23: 그 때 한 번 보니까 학생이 옆에서 자고 있어요. 남자 학생.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랬어요. 그러고 저거 얘기 해놓고 자기 방학동안 고향 들어가야 된다고 갔다 오면 다시 오겠다고 해놓고..
면접자: 어디 간다고요?
M22: 고향.
M23: 네. 그 후에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00이 말로는 학교에서 봤대요. 학교 가서는 또 하고 있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하는 게 있나 봐요. 학교는 가긴 가는데 우리 집은 사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진짜 이미지 안 좋았어요.

M8: 00이가 5학년인가 6학년 때 받았고.. 막내가 저번에 한 번 받으려고 했었는데.. 막내가 받으려고 한 사람이 웃겼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몇 번 전화하다가 못 왔어요. 지금 (얘기 나오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도 연락이 안 오네? 한 번도 수업 안 왔을 거예요.
M10: 어머! 수업 안 왔어?
M8: 네.
면접자: 잠깐만. 아 연락을 하기로 하고요?
M8: 예. 네, 어머니 내가 하기로 했어요~ '뭐 몇 번(연락) 오고 시간 짜고 이거 안 되구나 그날은 어떠나 하다가.. 이거 뭐 연락이 없네..? 자연 소멸
M10: 제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여자 학생 한 번 왔어요. 와가지고 두 시간 딱 해주고는 연락을 안 받아.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웃음)
면접자: 약속을 해놓고서 연락을 안 받은 거예요?
M10: 네. 두 시간 수업 했어요. 두 시간 하고는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받아. 그래서 제가 포기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 학부모들이 말하는 불만이 공통적인 것으로 보아 이는 특정한 몇 명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 멘토링의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멘토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멘토링 전에 부모와 아이가 바라는 목표와 멘토의 목표를 공동으로 정한 후 멘토링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학교 진로교육

학부모들이 알기로 학교에서 특별한 진로교육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검사나 진학상담 등이었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아이 자체도 학교에서 주는 심리검사 결과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체험학습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 주로 경험을 했고, 중학교 때 몇 번 간 적도 있긴 하지만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다.

면접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권해주시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진로교육 같은 거 영향은 없어요? 학교에서 진로교육 같은 거 받은 거.
M20: 학교에서는 그런 거.. 진단? 진단 같은 거 했던 거. 시험지 같이.
M22: 진단 네네.
면접자: 상담지 같은 거요. 네네.
M20: 선생님이 하는 거 있고.. 가서 이야기 하고 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면접자: 아 MBTI나 인·적성 검사 그런 거..
M20: 네네.
면접자: 수업시간에 교육을 시킨 다던가.. 아님 전체 데리고 어디를 가서 무슨 체험을 시킨 다던가.. 그런 경험 없으세요?
M22: 그건 주로.. 초등학교 때..
면접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별로 없었나요?
M22: 중학교 때도 있긴 한데, 그다지..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준 거 같진 않아요.
M23: 00이는 어디.. 간다고 얘기 못 들었는데, 일단 진로 이렇게 검사 하는 거. 성격 상 어느 쪽으로 맞는지 그런 거 있긴 해요. 두 번? 세 번? 한 거 같아요. 근데 그거 뭐 자기 별로... 마땅한 거 없어요. 엄마 이거 그냥 안 봐도 돼. 하고는 그냥 들어 가.

학교 부모교육의 효용성

학교에서 하는 부모교육에 대해 대부분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지만, 하더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평일 일과시간에는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진정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인지 물어본 결과,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학교에서 하는 부모교육이 시간낭비일 뿐 일과를 빼면서까지 갈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학기 초에 가게 되면, 임원을 맡는다든가 돈을 내야 한다든가 하는 불편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접자: 아이들 교육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으세요?
M4: 네. 그런 건 없었어요.
M2: 그니까 학교에서 진로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게 있을 예정이니) 참석 하라. 시간이 안 되서 참석을 못 했어요 저는.
면접자: 그러면 시간만 아니면 참석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M2: 그렇죠.
면접자: 아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M2: 네. 그렇죠. 시간이 안되는 게.

면접자: 네. 그러면 시간만 맞으면 가실 수가 있으신가요?
M23: 네. 가고 싶죠.
면접자: 그러면 뭐를 듣고 싶으세요?
M23: 저도 똑같이 진로.. 아까처럼 일반고도 있는데 00고등학교, 다른 학교도 있고..
면접자: 아~ 학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M23: 네. 하고 나중에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내신도 있고.. 수.....시? 그런 것도 또 뭐 있는데 단어가 새롭다 보니까 그게 뭔 지, 무슨 말인지.. 아무래도 중국이랑 교육제도 쪽은 전혀 다르니까..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면접자: 아이들 학교에서 오라고 한 적 없으세요?
M5: 오라고 한다는 거는.. 학부모 상담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면 학부모 교육..?
면접자: 학부모 교육이요. 학부모 교육.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설명회 같은 학부모 교육을 오시라 이렇게 해도 뭐 교육장에 안 오신다. 사실은 시간도 없으시고..
M5: 그거.. 총회 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임원을 뽑거든요.
다같이: 아 맞아 맞아.
면접자: 아~ 임원으로 뽑힐까봐~
M5: 네. 저는 이제는 아니까 그냥 총회만 참석하고 필요한 것만 받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보통 끝까지 남으신 분이 임원 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분이 끝까지 남으시는 거고.
면접자: 아 그렇구나.
M5: 네. 그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거 학교는 글쎄.. 그거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경험한 부모교육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공부는 알아서 해야 하고, 학원을 다녀야 하고, 학원비가 없으면 끝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서 회비만 내고 오니 어머니들이 다시는 가지 말자고 서로 불만을 공유하고는 그냥 끝나는 수준이었다.

M10: (초등학교) 가면 별 거 없잖아요. 가면 학부모 모이고.. 우리 애들 어릴 때는 회비 받았어요. 한번 가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위주야. 그게 위주. 청소 해주고 그러는 게 위주고. 진심으로 이해 뭐 앞으로 어머니,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학교 시스템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는 선생님 한 분도 안계셨어요. 없었어요. '공부는 알아서 학원 가야해,' 학원은 돈 없으면 못가면 그만. 끝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3학년 후로는 회비를 안 걷었다 하더라구요. 3학년 저는 회비만 냈어요.
면접자: 그럼 더 부담스러우시죠.
M10: 네. 그냥 회비 받고 회장님 엄마가 그냥 콜 해요. 콜 하면 가는 거야. 청소 하자. 청소 해. 그냥 그거였어요. 그럼 회장님 엄마하고 선생님하고만 대화 많고.. 저희는 그냥 청소만 하고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니까 그 생각.. 대부분 엄마들이 '가지 말자.. 이런단 말 이예요. 저희들끼리는.

그러나 한번 가서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학교에서 하는 부모교육이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진학이 걸려있기 때문에 진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일과 시간을 내서 갈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가지 않는 이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한 부모교육의 질이었다. 형식적인 부모교육을 몇 번 하다 보니 학교에서 하는 부모교육이 다 그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갖게 되고, 나중에 중요한 내용을 내실 있게 기획을 해도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지 않는 것이었다. 학교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가지 않더라도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하는 것은 가고 있었다.

M19: 바빠요. 똑같이 바빠요.
면접자: 아 똑같으세요. 네.. 근데 진짜로 중요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가시지 않을까요?
M16: (그렇다면) 가야죠(강한 어조로).

M10: 아니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 중학교 1학년 땐 안 갔어요. 일만 가느라고. 1학년 2학기 때, 우연한 기회에 제가 갔어요. 그 때 제가 알았어요. 학부모 회의를 중학교는 가야돼요! 가면 그래서 조금 정보를 얻어요. 그 때 이제 가면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 가야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 다니더라도 그 하루는 시간 내면 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에 '가봐야 뭐 초등학교처럼..'그 생각을 하거든요. 몰라서 그래. 가면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센터처럼 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 네. 불가능해요.
면접자: 아 학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M10: 네. 그냥 큰 덩어리로.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 이 정도지.. 현지 선생님 오시면 아주 센터에서는 한 서너 시간씩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면접자: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해가지고 그 센터에 오신 선생님이 해주신 세 시간 분량이나 그런 더 자세한 거를 체계적으로 쫙 알려준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가실까요?
M10: 가죠! 그걸 이제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엄마 생각에는 '그냥 학부모회 오라하는 거겠지,' 일 바쁜데,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이란 말 이예요. 저부터도. 나중에 늦게 알았지만. 근데 그거 이러이러한 시스템이다. 이러면 무조건 가요. 그 어떤 엄마도 그 하루는 빼고 간다구요.

면접자: 어머니들을 위한 진로 교육이나 설명회 이런건 없어요?
M18: 네. 그런 건 없었어요.
M17: 네. 없어요. 학교에는 없고.. 각자 보내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진로 그런 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창평고는 갔었어요.
면접자: 창평고가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 예요?
M17: 그렇죠. 광주 시외 쪽은.. 담양 이외 쪽은 내신 20% 안에 들어야 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에야 창평고지 요즘에는 좀 안 알아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냥 집이 담양 쪽이라 내가 편하려면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냥 상담만 교감 선생님한테 받고 왔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어떻게 애들 교육 시키고..
면접자: 아 학교에 대한 설명이요?
M17: 네. 설명회만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는 좀..(부족했다)

학교에서 다문화정체성은 숨기기

엄마들이 학교 부모교육에 가지 않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아이가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자신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엄마가 학교에 오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정보를 듣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고, 다시 이는 아이의 진로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라는 것이 여전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접자: 음.. 아 그래요.. 근데 애들이 안 밝혀요? 그 학교에서 자기가 다문화인 걸?
M20: 잘 안 밝히는 거 같아요.
M5: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M4: 그렇죠. 필요는 없고 묻지도 않고..
M5: 뭐 기회도 없고,
면접자: 아 기회도 없어요? 중학교 가면? 아 그렇구나..
M5: 네. 그니까 너무 생김새가 다르면 모를까.. 보통 아시아 쪽은 그렇게 뭐 차이가 없잖아요. 그니까 뭐 그대로 하는 거고..
면접자: 근데 왜 그 학교에서 조사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다문화라고 본인이 얘길 안한다고 그러던데..
M2: 우리 애도 얘기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면접자: 아니 그래서, 근데 본인도 싫은 거 같아요. 그냥..
M4: 어떤 선생님들은 몰라요. 다문화가정인지.(웃음) 아! 다문화세요? 그러면서 더 놀라요. 워낙 한국말도 잘하고 생긴 것도 뭐..
면접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아이들인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서는 표시를 안 해가지고..
M5: 그걸 애들이 싫어하는 거 같아요.
M2: 네. 말을 안 한대요. 본인이 그러는데 말을 안 한대요.
M4: 그렇죠. 애들도 싫죠. 같이 하는 게 좋죠. 애들한테.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단계별 정보 필요

어머니들은 비록 돈 벌기에 바쁘고 힘들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아이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싶어 하는 욕구는 높았다. 그런데 부모들의 관심은 진로라기보다는 일단 진학이었다.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에 특기자로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과가 있는지 등 진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면접자: 애들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게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걸 학교 같은데서 선생님들이 모아 놓고 알려준다 하면, 뭘 좀 구체적으로 얘길 해줬으면 좋겠어요?
M17: 준비를 어떤 과정을 해야 되나.. 어떤 공부를 위주로 어떤 거.. 면접도 보고 요즘에는 다 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 경찰대 간다 그러면 거길 가려면 요즘에는 뭐 교과 성적 위주.. 또 뭐..
면접자: 아 뭐 내신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요?
M17: 네네. 내신도 그렇고 그 외에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논술 공부도 해오고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데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발판도 놔 줬음 좋겠고.. 공부만 하지 말고 체육 잘 한다던가 뭐를 해야 가산점이 붙는다 이런 거.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본인들이 한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한 단계적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별로 진학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부모가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싶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아이가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교육청에서 제공한 부모교육의 경험이 있는 한 어머니의 경우는 부모교육을 통해 대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었고, 왜 한국의 교육이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M5: 종로 쪽에 그 중구교육청 쪽에서 많이 하는 걸 제가 참석하고 했는데, 작년 인가? 재작년인가?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그 학교에 그 입학제도 인가? 유치원 생 대상으로 한 거 하고,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대학까지 이렇게 간다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처음으로 했었던 거였어요. 제가 지금 여기 산 지가 21~2년 됐는데.. 그 때까지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 쪽으로 아니고요 그 학부모 교육 같은 거.. 학교에서 안내가 오는 걸 많이 알아봐가지고 제가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큰 애가..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셋이 각자 있으니까 그것도 교육청이 달라요 지금. 근데 좋은 점은 교육청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도 다른 거를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네. 그 누나 쪽에서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으니까 그걸 한 번 갔었거든요. 작년에는. 그건 일반 한국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같이 갔었는데 그 때 정말 좋았었어요. 아~ 주 자세한.

면접자: 아~ 어떤 걸 얘길 해 주던가요?

M5: 그니까 지금은, 아까 얘길 하셨잖아요. 그 대학교 입시가 전에까지는 특목고가 전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다는 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대학입시 전형이 그거에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받고 고등학교 입시도 그렇게 바뀐다고.. 그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사회에 나갈 때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지금은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학 입시도 바뀌고 또 어떤 고등학교 입학 전형도 바뀐다. 그런 식으로 그 흐름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대충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도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먼저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었는데 거기서 말씀 하시기에는,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으로 안가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시켜 줄 수 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취직하면 하더라고 금방 그 회사가 망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나마 대기업이 안정되니까 그래서 매달리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그런 상황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더라도 한 50%정도는 취업을 못하고 백수로.. 하면서나 아니면 엄마들이 지금까지 애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강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도 안하고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달려 왔는데 막상 그 방황기가 나중에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직접적인 진학보다는 먼저 대학에 간 선배들이 와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으면 아이가 자극을 받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M16: 제 희망은 그냥 대학에 가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 실제로 지금 다니는 선배들이 와가지고 현장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대학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선배들의 그 살아 있는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통합적 교육 선호, 그러나 다문화집단의 특성이 고려된 교육도 필요

부모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학부모님들과 같이 통합적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언어의 이해부족이라든가 다문화집단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기는 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 수준으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출신 어머니들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별입학이나 장학금 등과 같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 면접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어머니들 오시라고 할 때, 다른 어머니들하고 같이 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다문화 어머니들 모여서 다문화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얘네들만 집중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주길 바라세요?
> M10: 같이해도 괜찮아요.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내용이 애에 대한 공부나 진로에 대해서면 다 같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다문화가정도 옆집에 누가 오던 아 그냥 거기서 왔어요? '그러고 끝이잖아요. 관심 뭐..
> (중략)
> M8: 그래도 혹시나 다문화 아이들에게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뭐 진로에 대한.. 그런 내용 있으면
> 면접자: 다문화 어머니들만 모여도 괜찮다?
> M8: 네.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 면접자: 아 그러네요. 일반적인 아이들의 진로나, 대학 어떻게 가는 거고, 성적 관리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분야 가고 이런 거는 같이 하고.. 다문화 애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건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별도로 해주면 좋겠고.
> M8: 또 이런 것도 좋구요. 이중 언어. 다른 외국어에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방향도 있다. 이런 대학교는 면제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거. 장학금 받겠다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M1: 한번 우리 같이 교육받는데 역시 빠르고 모르는 단어도 많고 해서...
면접자: 그렇죠.
M1: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너무 과도 많고..
M5: 맞아요.
M1: 조건도 너무 많고 해서.. 결국 선생님들이 좋은 과로 좋은 학교에 갈 수 밖에 없다.
면접자: 그게 결론!?
M1: 그거를 따라서. 다문화 가족만 불러가지고 해주셨어요. 많이 갔던 거 같아요.

M20: (진로교육에 대해) 이젠 같이 해야 될 상황 같아요.
M5: 그 학교마다는 다문화가 몇 명 없는 학교도 많잖아요. 그게. 그니까 그런 한 소수의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교가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니까 그럴 거면 교육청에서 하시든가 그런 게 더 낫지..
면접자: 근데 그게 필요해요? 다문화 어머니들만 특별히 모여가지고 하는 게?
M20: 그런 거 있으면 또 뭐...(중략) 있는 다문화를 한꺼번에 다문화센터에서 모여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주던가.. 뭐 대학생 전화해서 중학생 뭐 다 있는 학생들 유치원생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그 날 질문 있으면 던지고 그러면 다른 엄마들도 미리 알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자: 음.. 그러면 각 개별 학교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좀 모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M5: 교육청 아니면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면접자: 네네.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다 모여가지고.
M20: 어차피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센터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서 한번 시켜주면.. (좋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라고 통합교육을 원하는 이유는 학교 내에서 다문화만 별도로 하기에는 숫자 자체가 적어서 어렵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문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듣거나 해도 이해하는 것처럼 앉아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이 외국출신 어머니라는 것을 학교에서 알게 되었을 때 자녀가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해서다.

M2: 근데 애도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너 다문화라고 신청했니? 그랬더니 난 다문화 아니야. 이래요.
M4: 맞아. 그것도 있어..
M2: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있긴 한데 난 그거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면접자: 아 그래요? 신청 안 했대요?
M4: 저도 뭐가 있으면 한국 엄마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게 좋아. 난 다문화야 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 나도 요즘엔 싫더라고요. 애한테 뭐 좀 안 좋은 그런 게 생길 까봐.. 그냥 같이.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더 자세히 다 알아봐서 선생님한테 물어 볼 수 있으니까 특히 막 이렇게 다문화라고 뭐 막 그러는 거..(별로 안 좋다.) 뭐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물론 애들이 일본, 중국, 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상담 및 진로지원을 위한 전문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모들은 부모가 해 줄 수 없는 부분, 또는 부모가 아닌 다른 역할모델이 아이를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부모의 말 보다는 선생님이나 대학생 멘토 등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전문가가 진로를 지도할 경우 애가 그 말을 따라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면접자: 혹시 뭐 아이들 위해서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M11: 개인 상담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개인 상담이요? 왜요? 00이가 상담이 많이 필요해요?
M11: 아니 이제.. 누가 주입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말씀 듣는 거 하고 애들 자기들 말은 조금이라도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사회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는 이게 이렇다 해주시면 아무래도 주입이 잘 될 거 같아서..
면접자: 아~ 진로 쪽으로?
M11: 진로도 그렇고..
면접자: 음.. 전문가가 와서 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상담 해주고 그러면 애가 훨씬 더 잘 클 수 있을 거 같다?
M11: 네네.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문화청소년 캠프

학부모들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캠프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캠프의 경우도 학교가 아닌 지역에서 수행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초기에 다문화청소년만을 뽑아서 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이어서 선별된 당사자들이 불쾌한 감정을 갖거나 하여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으나, 지역사회에서 여러 학교에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은 각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캠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한 가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의 사례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것으로, 가족캠프에서 다른 다문화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감정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평소 가보지 못했던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족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즐겁고 행복하기 까지 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싫어하는데, 지역의 관련기관에서 하는 건 재미있고,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아마도 그건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단위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학교에서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러한 반응들은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선별적 지원이 지양되어야 하고 전반적으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이지만, 모든 선별적 지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 내용의 요구부합성과 질이라는 것이다. 즉, 다문화청소년만 하는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들만을 위한 캠프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학부모 교육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나 지역의 관련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들의 호응도가 높고 효과성도 높으며, 학부모 및 자녀들의 태도도 긍정적이고,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등 그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크고 때로는 상처로 작용하기도 하며, 정체성이 드러날까 걱정하는 심리적 불안상태를 유발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면접자: 다문화 애들 대상으로 캠프 같은 거 많이 가셨나요?
M15: 그거 초등학교 때...어떨 때 엄마랑 같이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 진짜 재밌었어요.
면접자: 아 다문화가족끼리만 가는 거예요?
M11: 네. 가족끼리 같이.
M15: 네. 맞아요. 애들도 행복해 해요.
면접자: 아 그래요?
M11: 그거를 어디서 시행을 하냐면 학교가 아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데..
M15: 네. 맞아요
면접자: 음~ 학교에서는 아니고..
M11: 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데 지역적으로 잘 되어있어요. 00이 형이 공부 조금 배우러 글 배우러 갔을 적에, 가족 단위로 많이 데리고 갔었어요. 몇 번 갔는데 좋더라고요.
M15: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M13: 우리는 갔던 거, 건모 갔던 거 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 가는 거 몇 번 있고요.
M11: 교육청에서 나오는 걸 00이는 싫어하더라고요.
M13: 동구 교육청 있잖아요. 동구 교육청에서 가족 단위해서 가는 거 한번 갔었어요.
면접자: 근데 애들이, 자기 학교에서 그거 가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거 티나고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M13: 아뇨.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M12: 네. 다 잘 해주셔가지고..
M15: 왜냐면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고 싶어도 못가서 그래서 애들도 좋아했던 거예요.
M11: 교육청에서 가는 거는.. 개인 적으로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족단위로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면접자: 그럼 그냥 한국 가정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다문화 애들끼리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M15: 섞어서요. 섞어서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같이 알아가고 만나고 해야 좋아요.
면접자: 응~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구나..
M15: 우리도 엄마들 뭐 어디서 왔는지 서로 얘기하고..
면접자: 아~ 서로 얘기하고 아~
M12: 어! 맞아.
M15: 그게 좋아요.
M11: 그게 엄마들도 재밌더라구요. 다른 나라 얘기하고.. 같이 소통도 되고 아는 사람도 생기고..
M15: 네. 이런 게 좋아요.

M7: 저는 생각은, 애기는 여러 애기 있잖아요. 여러 사람. 여러 나라. 여러 말로.. 그 애기들은 전부 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생각 있는 거. 애기는 방학 때 프로그램 하나만 잘 만나서 여러 사람, 여러 말로. 그거 있잖아요.
M10: 모임처럼?
M7: 예. 그 모임처럼!
면접자: 어떻게요? 자조 모임이요? 아니면 여러 나라 사람들..
M7: 네. 여러 나라. 여러 말로, 만나서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하고.. 얘기 할 수 있고. 자기 나라 뭐하는지(소개하고). 그렇잖아요. 한국말.. 한 사람이 한국말 밖에 없어요. 00이처럼. 필리핀에서 영어도 쓰고, 일본에서 일본어 쓰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자기 모르면 자기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생각해서 그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 내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자기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학교 가고 그냥 갔다 와서 집에만 콕 있고. 아니 대전에서 살고 시골에서 살고 하잖아요. 그거는 많이 만날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아서. 애기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고,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데는 혼자 있어. 애기 혼자 있는 거는 많아요. 그런 거. 다문화는 아직 애기 많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애기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걔가 어딜 가야하나 저 같은 경우의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 어디서 없으니까. 학교는 너무 높지는 않았는데 한국말로는 뜻은 다 알긴 알아요. 근데 애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정보 있다면 이런 거는 만나서 모여서 방학 때. 그거는 좋은 거예요. 자기가 배울 수 있어. 친구들이 배워.

또 하나는 이중언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주말마다 지역에서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개최한다든가 등의 방식으로 아이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 밖에서 어머니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해서, 또는 많은 자녀들을 키우느라 여력이 없어서 아이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지 못한다 해도 어머니 나라 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나라 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언어 수업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나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며, 한 지역사회의 특성화 사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이중언어사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면접자: 아.. 그렇구나.. 아니 보통 생각할 때는 다문화니까.. 아이들의 강점이 어머니 나라 말을 잘하니까.. 그런 점을 갖다가 잘 키우면 우리나라에 굉장한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머니들은 그건 진짜 똑같이 얘기하세요. 굉장히 어렸을 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어머니들: 맞아요.
면접자: 어떡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M14: 그건 엄마가 노력해야 돼요. 처음부터. 임신부터.
면접자: 그럼 엄마 혼자 말고 뭐 사회적으로, 정부나 다문화지원센터 이런데서 뭘 도와주면 그게 가능 할 수 있을까요?
M14: 이제는 토요일 마다 베트남어 수업이 있어요. 구미 다문화센터에. 토요일 두 시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④ 소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첫째로,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과 진로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머니들이 한국문화와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시스템도 이해하기 어렵고,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 부모는 자녀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를 하려 해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학비를 준비하거나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둘째로,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대학진학에 대해 막연하게 희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열망은 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일반적인 한국 학부모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수의 아이들을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 등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간혹 전문계고를 가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전략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였고 대부분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만큼의 성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공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 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대학을 나와 봤자 취업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계고가 더 낫다는 현실적 판단에서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역시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알고 있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부모의 사회문화적 계층이

낮고 경험에 한계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오히려 똑똑한 자녀를 따라가지 못하여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가 많아서 먼저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한 형제자매들의 현재 성공적 적응여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교 등에서 체험한 체험활동도 청소년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넷째, 이중언어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형편상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형편상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지 못했으나 성장하고 보니 가르쳤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너무 늦었다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이중언어를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 중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모국어가 크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게 그 언어를 배워봤자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매우 쉽고 당연한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아이들은 어머니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있었다. 오히려 어머니 나라말을 배우기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중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주변사람의 영향이 매우 결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의 시댁 식구들이 자녀에게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막은 경우, 어머니가 매우 강한 성격이고 자신만의 원칙과 자신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어머니 나라 말을 배우지 못했다. 반대로 주변에서 남편 등이 어머니 나라 말을 가르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당연히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문화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는데, 멘토링 등의 방법보다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자녀들의 경우 멘토링에 대해 매우 좋아했던 것에 비해 어머니들은 많은 경우 멘토링에 대해 별로 효과가 있었다거나 좋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두 가지로 첫째는 애초에 대학생 멘토링을 시작할 때 상호간의 목표와 욕구가 합의가 된 후에 이루어 졌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멘토링을 하러 오는 대학생의 불성실한 태도였다.

일곱째, 학교에서 하는 진로교육은 경험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도 바쁜 일과시간을 빼서 갈만큼의 가치는 없고, 오히려 부담만 안고 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지역사회의 다문화센터 등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의 경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덟째, 학부모들은 주로 자녀의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부족한

한국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초, 중, 고. 대학을 진학할 때 필요한 것, 입시를 위한 준비사항, 장학금 혜택, 다문화 특별전형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아홉째, 학부모 교육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문화가정만 모아서 하는 선별적 학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언어나 이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 번째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상담이나 진로를 지원해 줄 전문가가 있다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끌어주고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캠프 등의 경우도 그 주체와 내용이 효과적이고 즐거운 것이라면 얼마든지 선별해서 운영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였다.

결론적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희망 교육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가정형편상 또는 학부모의 가치와 태도,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과 진로지도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 교사교육이 더불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V-87 2016 면접 결과 요약: 어머니

-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과 진로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대학진학에 대해 막연하게 희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열망은 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일반적인 한국 학부모에 비해 낮은 편
- 다문화청소년 역시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알고 있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체험활동도 청소년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됨.
- 학부모들이 형편상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는 상황임
- 주말에 지역에서 하는 이중언어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 이중언어 학습 및 지도 의지는 그 언어의 사회적 효용성과도 관련이 됨
- 이중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주변사람의 영향이 매우 결정적임
- 자녀의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는데, 멘토링 등의 방법보다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일반적
- 학교에서 하는 진로교육은 경험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
- 지역사회의 다문화센터 등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의 경우는 매우 긍정적임.
- 학부모들은 주로 자녀의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함.
- 학부모 교육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문화가정만 모아서 하는 선별적 학부모교육도 필요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상담이나 진로를 지원해 줄 전문가 필요
- 다문화청소년들의 희망 교육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가정형편상 또는 학부모의 가치와 태도,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할 가능성 시사
-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과 진로지도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 교사교육이 더불어 강화될 필요가 있음.

(3) 교사 및 현장전문가

① 조사대상 및 조사 시기

교사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는 총 5명, 현장전문가 4명이었다.

표 V-88 2016 면접조사 지역별 일시 및 장소

일시	참석자	장소
2016. 8. 12	강00(안산지역 현장전문가), 허00(수원지역 현장전문가)	안산 성포고등학교
2016. 8. 12	김00(안산지역 고등학교 교사), 권00(안산지역 마이스터고 교사) 주00(파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진00(시흥지역 중학교 교사)	안산역 부근
2016. 9. 23	허00(다문화청소년 기관 팀장) 고00(다문화청소년 기관 팀원)	서울 경복궁 역 부근
2016. 10. 5	김00(다문화청소년 대상 대안고등학교 교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② 면접내용

면접내용은 교사와 현장전문가가 조금 달랐는데, 교사는 학교 내 일반학생 대상 진로프로그램 현황,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 별도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내용, 이중언어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성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현장전문가의 경우는 접촉해 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태도 현황, 다문화청소년 대상 별도지원의 필요성,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의 현황과 연계현황, 다문화청소년의 특성 및 역량을 활용하여 진로를 살릴 수 있는지 현실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V-89 면접 내용: 학교교사 및 현장전문가

대상	내용
교사	○ 학교 내 일반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 ○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특별지원의 필요성(국내출생과 중도입국의 경우 각각) ○ 별도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어떤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 ○ 이중언어프로그램의 현황 및 효과성
현장전문가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태도 ○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지원의 필요성(국내출생과 중도입국의 경우 각각) ○ 다문화특성 연계사업 현황(정부, 학교, 민간 프로그램) ○ 다문화특성을 살려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현실성 ○ 아이들은 각종 진로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지

③ 면접 결과

③-1. 학교교사

다문화학생을 위한 별도의 진로지도는 필요하지 않음

교사들은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국내출생 청소년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진로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여러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있듯이 그 정도인 것이지 다문화청소년이 특수하게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 박00: 다문화가정이 엄청 특수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한 그거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이 있을 순 있지만, 그게 얘네 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이 필요하여 진행을 한다고 해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기에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매우 다른 아이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김00: 근데 그 분리 교육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분리를 해야 된다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라고 한 내용이 없잖아

중요한 것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한 것이지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별도의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별도의 진로교육은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00: 그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니까, 특수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국내 출생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일반 애들에 비해서 다만 집에서의 조기 교육이라든지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00초등학교 인가? 거기서 졸업한 6학년 여학생 있어. 이슬람 교 아인데 근데 얘가 중학교 진학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버지 못 가게 한다. 근데 얘는 가고 싶어 한다. 근데 아빠가 못 가게 하니까 이제 어떡해. 집에서 애 보라는데. 동생들.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그럼 이제 대안 학교 아니면 그 검정고시라도 어떻게 볼 수 있게.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이가 좀 많아서 들어왔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니까 여기 졸업 했으니까 고등학교를 나중에 가려면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면 진로 진학에 이 학생에게 필요한 건 사실 진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어떤 인식개선이라든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다 하고 애들이랑 지내는데 별 문제 없는데 얘한테 따로 너를 위한, 아까 얘기 했던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진로 교육을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일반학생 대상 진로지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다문화학생을 위한 별도의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자 교사들의 일관된 의견은 지금 현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진로캠프 등을 통해 업체에 맡기는 일일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회성 진로캠프도 보여주기식인 것은 마찬가지여서 내실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주00: 각 학교 현장에서 지금 진로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로 선생님이 한 명? 그 정도 밖에 안 계셔서 대부분의 일반 선생님들이 진로 교과 수업을 하세요.
면접자: 그 교과 수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주00: 자아정체성에 관련된 내용? 플러스 알파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간접 경험? 뭐 등등등. 그런 것들.
면접자: 교과 수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 년 동안 쭉 가르치는 거예요?
주00: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게 제대로 이루어 지냐.
김00: 그렇지 않죠.
주00: 제 생각에는 대부분 시간이 부족, 그 남는 선생님들이 대체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김00: 학교에 있는 애들을 다 대상 하는 게, 그냥 아니면 아예 그 시간 몰아서 진로 캠프를 하나 하는 거죠. 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권00: 일일 진로 체험.

이는 진로교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착이 되어있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전문담당 교사가 있는 학교도 별로 없다고 하였다. 별도로 진로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릴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교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김00: 진로는 그냥 캠프하고.. 그것만 해도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지긴 했죠. 옛날에 진로는 '얘들아~ 이런 직업이 있어, 영상 보자.'이랬다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한 학기 하고, 아이들이 직업에 참여도 하고.
주00: 지금 진로 교과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김00: 네. 이제 일정 연수 받고.. 이제 3년 인가?
진00: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이 시간표를 다 짜고 나면 남는 시간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도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권00: 어쨌든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수업시간이 만들어 지기는 했죠. 근데 내실에 있어서는...
권00: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니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일반 선생님이라도 그 도구 가지고 운영이라도 해줄 텐데 그런 도구가..
주00: 거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자율학습을 하죠.
권00: 100% 자율학습 하죠. 그러니까 그런 도구가 가치 있게 있어줘도 사실은 안 할 거 같아요.
면접자: 아 그러면 그런 컨텐츠 없이 과목만 만들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지도하시나요? 그 시간엔?
권00: 책이 있어요. 책. 진로활동 책 이라는 책이 있어.
김00: 책을 구입한 애도 있고 아니면, 진로 상담 선생님이 그 영상 이런 거 보여주고.
진00: 커리큘럼을 짜시는 분이 있어요. 책임지시고. 어떤 선생님이.
권00: 전문 상담교사.
면접자: 아 전문상담교사요?
권00: 전문상담교사가 커리큘럼을 짜서 주면 운영을 하죠.
면접자: 아 그니까 상담 선생님이요? 전문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전문상담교사예요?
김00: 아니에요. 좀 달라요. 진로상담과 전문 상담은 좀 달라요. 진로 상담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권00: 근데 대부분 다 상담 선생님들이 진로상담교사를 하죠.
김00: 저흰 따로 있어요. 진로 진학 교사가 따로 있어요.
주00: 누구나 할 수 있는 과목..
권00: 그니까 구성은 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한 분이 부장으로 그냥 다 일처리를 하시죠.

이러한 반응은 학교 교사들이 교육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는 태도로, 사실상 진로교육이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진로상담교사의 연수가 매년 진행되고 있고 교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스스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아졌고,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간접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 진00 :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최근 2~3년 동안
> 진00 : 진로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취지인데, 물론 환경이 안 받쳐줘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거 있고 삐걱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하는 거 자체가 2년 전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진로프로그램

교사들은 현재와 같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진로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한 사례에서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프로그램을 하라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사업비를 내리고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했는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진로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지역의 한 대학에 진로프로그램을 위탁하였다. 위탁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해당 대학이 특별히 다문화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진로캠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애들 컨트롤도 못하고 아이들이 중간에 참석을 하지 않기도 하고 해서 유명무실한 보여주기 식 사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로캠프의 내용들도 실제 진로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이들이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시각에서 진로와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00: 실효성이 아니라 전혀 없다니까. 내가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말은 해놓고 뭘 해놨으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 축제 하듯이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김00: 저희가 여러 개를 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좋은 진로 캠프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얼마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 00부에서 00이랑 00에 그걸 예산을 지원 했어요. 거점 센터 운영하라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 진로 관련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뭘 할 수가 없다보니 대학을 정해놓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게 그 대학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깊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진로 캠프를 다문화가정 애들한테 한 거죠. 근데 그 아이들도 그런 거 없이 좀 빠지기도 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니까 애들 컨트롤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뭐랄까 빛 좋은 개살구? 뭐 이름만 있었던 게 아닌가....

권00: 하면 안 돼. 힘들어. 하면 안 돼. 그니까 애들은 감정적으로 즐거우면 땡이야.

김00: 프로그램이 정말 애들이 뭔가.. 물론 즐거워도 땡이지만 정말 괜찮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하는데 그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과연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더더욱 진로가 아니라 진학이고, 하고 있다면 그건 이벤트적인 행사일 뿐이라는 인식이었다.

진로지도를 위한 사전 연구의 필요성

교사들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사나 교육청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과 현장 교사들의 협력에 기반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의견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 특히 다문화관련 사업들이 전문가의 연구와 현장의 타당성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나 교육청 차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의 내용이 목표한 방향과 다르게 형식만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하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 일이 본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것을 기획자들이 바라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 대상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도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점진적 확산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권00: 그니까 일반 교사나 교육청한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는 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면접자: 음.. 그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김00: 근데 전문가들도 진로에 대해서는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각 다문화 교육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엔) 일반적인 진로 캠프의 형태로 가는 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그런 건 학교에서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학교에서는 위탁을 다 하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 아 1학기에 진로캠프를 했는데 아 중학교에서도 했는데 똑같은 거 또 해.'이런 상황에서 다시 다문화가정 아이들 모아놓고 진로캠프 합니다 해서 올 해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나은 프로그램이냐 라고 했을 때를 조금 생각해 봐야죠.
면접자: 그럼 캠프의 컨텐츠도 다양하진 않은 거네요?
김00: 다 비슷해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정보부족과 교사 교육의 필요성

교사들은 진로지도에 있어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사가 무책임한 진로지도를 하여 아이가 울고불고 하고, 학부모는 정보가 없으니까 당황해서 어쩌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일반 학부모의 경우라면 교사가 혹시 잘못 안내를 했다 할지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경우 정보가 없다보니 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어머니 면접조사에서도 나왔던 사례로 공부를 전혀 못했던 아이는 아니고, 잘 하다가 성적이 떨어진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에 가면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로 아이의 동기를 꺾어 놓았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들이 드문 일은 아니며 교사들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으로 어린 학생의 진로를 잘못 이끄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사실상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며 일반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자신이 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하는 역량 부족한 교사가 진로상담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진로상담교사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김00: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코디 분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얘기를 잠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이제 중3에서 고1 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못 간다. 얘 똑같이 한국말 다 듣고 그냥 평범한 국내출생인데도 애한테 그냥.. 다가잖아요. 1번부터 뭐 10번까지 평준화니까.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런 정보가 어두우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여기서 생활을 했으면 대충 자기의 어떤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하는데 이 어머니는 그렇질 못하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의 얘기를 듣거나 애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애한테 너 (고등)학교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면접자: 일반 고등학교 가려는 건데요?

김00: 네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떡해야 되느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00: 진학적인 측면에서도 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진학에 대한 내용 자체도 잘 모르는데 지금. 당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도 선생님들의 어떤 의식 부재라든지 이거를 더 못 갈 거야.'이렇게 하면 애들이 울고, 학부모님들은 뭐 어떡해야 되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상황인거죠.

교사의 자질 문제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진로지도의 전문성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인터뷰에 응했던 한 교사의 경우는 진로지도 연구회에 있었던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보였고, 아이의 진로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막연하고 책임감 없는 수준의 제안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인 한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어는 잘 하지만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에 가면 글로벌하게 자기의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청소년이 영어와 중국어를 한다고 미국으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매우 단순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진로지도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으며, 무지한 교사의 잘못된 진로지도로 한 청소년의 진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00: 근데 애들을 만나면 정말 뛰어난 애들이 많은데, 외국어를 굉장히 3개 국어 씩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학을, SKY를 못 갈 거 같애. 근데 쟤는 분명히 본국에 있으면 그 정도의 대학에 갈 충분한 실력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회사 보내면 아 쟤는 인정받겠구나. 회사에서. 사장이 좋아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애들한테, 저는 실업계에 있거든요? (중략)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실질적인 상담을 그렇게 해요. 너는 영어 하고, 중국어도 하고. 중국에서 왔는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니 너는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계를 고려한 진로지도 방법 필요

교사들은 학부모의 정보부족 및 한국문화 이해의 한계가 단순히 아이의 학습부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과 학교이탈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교육 시 단순히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진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고 심리적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의 진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로상담교사가 그 애가 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준다거나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면 학교를 이탈하는 일도 없고, 훨씬 효과적인 지로지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김00: (학습부진의 심화로 입시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대해) 그 과정에서 부모가 일반적인 국내 부모와 같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잘 모를뿐더러, 아이에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 부모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부모가 진로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전혀 못 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탈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지거든요. 고등학교를 진학 할 때? 중3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름, 그 아이들은 딱 막혀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업이나 진로에서 학교를 소개하고 이런 학교를 가면 이런 식으로 진학이 가능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것보다 진짜로 정서적인 어떤 자존감이나 아니면 전체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마이너스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비전에 대한 그런 기회가 좀, 그런 걸 줄 수 있는 기회는 좀 진짜 필요한 거 같아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적 가치 차이와 인식개선 필요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들이 한국부모들처럼 학교를 꼭 다녀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그런 부분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한국의 문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식의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집단의 특성으로 고착화 될 수 있고, 이들이 성장했을 때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의 집단적 차이를 유발할 경우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와 인식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권00: 요지는 뭐냐면 성적이 안 되니까 그 성적에 그냥 맞는, 갈 수 있는 데를 가면 된다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게 문화적 차이예요. 동남아나 이런 쪽의 삶을 살아왔던 분들은 그 나라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든 받지 않았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꼭 다녀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 면접자: 네네.
> 권00: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 온 거니까 얘들도 정서적으로 학습을 갖다가 진전을 시켜가지고 내가 뭔가가 발전을 해서 진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감각이 다른 거죠. 그게 부모님들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부모 교육은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교사들도 학부모들 대상 교육은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할 일은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지역의 다문화관련 기관이 더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면 학교보다는 지역사회의 다문화전문기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의견은 일견 학교에서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차로 전체적인 학교차원의 학부모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그 것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학부모를 교육시키고, 학교로

안내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기관이 학부모들과의 연계도 더 잘되고, 동일한 시간에 학부모 교육이 있으면 학교보다는 다문화청소년 기관의 참석자가 훨씬 많으며, 그 이유는 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뭔가를 주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어보였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으나 다문화가정학부모들이 단지 무엇을 받기 위해 학부모교육을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간 지역의 다문화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이 그들에게 유용했다는 그 신뢰를 학교에서는 얻지 못한 것이라는 반성은 없어보였고, 단순히 학교는 하려고 했지만 부모가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주00: 전에 여가부 그 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오히려 진로 교육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오히려 학생 애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진로 교육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그 교육을 할 때,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진로 교육의 포커스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라든가 다 합쳐서 정보 제공을 다 합쳐서 그 쪽에서 해줘야 할 게 많아 보여요.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직접적으로.

권00: 거기에 자녀들 중에서 일부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진로 지도가 그 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냐면 제가 전에도 교육청에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일부 부모들은 애들을 아예 안 보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정보는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일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김00: 논리적으로 보면 학교에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듣겠지? 안 와요. 근데 오히려 그 센터는 뭐 준다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래서 그렇게 암암리에 서로 하다보면 학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간다는 거죠. 진로 이외의 것들까지.

권00: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황당했던 게 그거였어요.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오셨는데 학부모들이 다 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못 간다는 집단적으로.. 거기랑 똑같이 겹친 거예요. 그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거기가 더 규모가 더 높아요. 분명한 거는, 사실 애들 입학 상담하러 어디로 오냐면 학교로 오는 게 아니고요 다 센터로 가요. 센터에서 우리 아이 입학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센터에서 학교로 연락을 하거나 교육청으로 연락이 와요.

③-2. 현장전문가

학교 교사와 달리 현장의 전문가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부사업과 여성가족부사업을 모두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실제로 운영한 경험이 수년간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와 관련한 특정한 사안 뿐 아니라 정부 부처별 사업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현장의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한 방향 등에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통합의 방향으로

가장 먼저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에 있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해 현장전문가들은 진로지도뿐 아니라 모든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통합의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선별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벌써 다문화정책이 10년이 되어서 별도의 선별적 지원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이 모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을 평가할 때 통합프로그램에 대해 가점을 준다든가의 방식으로 통합프로그램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면접자: 교육부도 앞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있어요.
강00: 네. 학교에 돈을 줄 때 방과후에 얘네 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 너무 짜증이 나요.
면접자: 그럼 아얘 다문화청소년 사업 관련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강00: 그렇죠. 아예 애초에 그런 매뉴얼을 만든다면.
허00: 통합으로 가라는 거지.
강00: (평가를 할 때) 통합으로 하는 거를 가점을 더 줘야지. 그러려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문화애들도 만족할 수 있고, 일반 애들도 욕구를 느낄만한 거여야 해요.
(중략)
강00: 예를 들면, 역사가 어려워서 가르쳐야 하는데 얘네들한테 역사 책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체험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아이들도 그거에 흥미를 느낄만한 요소들을 넣어서 같이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非)다문화가정 아이들과의 학업성취 격차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통합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다문화청소년이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학업성취의 격차로, 현장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떨어진다. 초등학교에는 그러한 차이가 크게 없고, 학교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격차를 느끼게 되고, 그 것을 개인적은 노력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현실을 부모보다 더 빨리 파악하고 점차 꿈을 낮게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들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아이들이 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는 것이었다.

강00: 지금 중학생 애들 6년 프로젝트 월드비젼이랑 하는 진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면접자: 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 이예요? 일정하게 와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강00: 네. 비전원정대도 하고, 꿈 지원금이 매 달 계속 나가고, 그러면 그 꿈 지원금이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뭐 할 건지,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지 부모 자조 모임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는 커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꽤 많아 졌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다녀서 미술 지원한 애들은 그렇게 계속 미술로 가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인문계를 갔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애들은 특성화고를 다 갔더라고요. 갔는데 형편이 또 어려우니까.. 특성화고가 고등학교 등록금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야.
면접자: 아 그래요?
강00: 네. 그것도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공부를 중학교 때 영재반도 들어가고 이랬던 애들 이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잘한다, 잘한다 했던 애들인데.. 못 따라 가더라고요.
허00: 못 따라가지. 고등학교 수학이 뭐 보통이야?
강00: 못 따라가서 그래서 꿈이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근데 얘네 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에서 자기들이 정보를 다 듣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허00: 역사.. 사회 공부가 되게 어려워요. 언제부터 어려워 졌냐면 4학년? 5학년 이 때부터..
강00: 4학년에 이제 사회 과목이 나오는데 엄청 어려워요.
면접자: 근데 그게 일반 우리나라에서 한국 가정 아이들보다 취약해요 그게?
강00: 어렵죠.
허00: 왜냐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면접자: 그거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강00: 그럼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낮은 교육열망

본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면담하면서 느꼈던 낮은 교육열망에 대해 현장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그러한 현상이 확실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은 부모의 계층과 경제적 부담감 두 가지를 꼽았다. 즉, 부모들이 본국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높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없고, 시야가 좁아서 아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세계에 대해 비전을 제시해 줄 수도 없으며,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이가 성적도 점점 떨어지게 되면, 굳이 대학을 가기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면접자: 진로 측면에서 국내출생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 비해서 확실히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강00: 어떤 면에서요?
면접자: 그니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엄마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엄마들은 돈이 있건 없건 일단 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야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근데 다문화 엄마들, 얜 공부 그냥 웬만큼 하고요, 잘 못해서 그냥 전문계 고 본인이 간다고 해서 보낸다. 해서 그냥 뭐 옛날로 말하면 실업계고? 이걸 가는 거를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에요.
강00: 음.. 일단은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같아요. 이주한 부모들이 본국에서의 학력 자체가 낮다 보니까 학력에 대한 그런 기대치와 중요성이 확실히 낮은 부분이 있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의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면접자: 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강00: 어차피 이 대학을 보내봤자 그렇다고 내가 얘를 지금 막 학원을 보내서, 저도 지금 중2 아이 하나 보내는데 80~90만원 들어요. 그니까 못 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경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돈을 버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얘네가 일반 아이들과 경쟁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 없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으면 어차피 대학을 나와도 취업 할 수가 없고,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돈을 버는 게 낫다. 라고 되는 거죠.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때 가난한 엄마들 다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래서 다 실업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이들에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자체가 고학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잖아요. 그니까 그 쪽 세계에 가서 어떤 경쟁이나 실제로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 갖는 기대치나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나 예측할 수 있는 거가 부모 자체가 시야가 너무 협소한 거죠.
허00: 일단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커요. 사실 우리 일반 고등학교 보내도 일반 고등학교 공립이 아니고 사립인 경우에는 급식비랑 뭐랑 해서 한 달에 거의 6~70씩 들어가거든요. 고등학교가. 왜냐면 거긴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참고서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얘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고 지금 따라가질 못 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빨리 돈 버는 게 낫고 빨리 엄마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고등학교 나와서 2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게 되어도 만족을 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이의 장래와 현실적 생활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단순히 학원만 보내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보니 학원에 보내고 부모로써 할 일을 했다고 위안을 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엄마도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뒤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한국의 엄마들 못지않다.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대학에 보낸다 해도 대학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장학금을 받아서 다닐만한 경쟁력은 없다보니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강00: 우리가 엄마들을 보면, 아예 정말 빨리 현실에 딱 벌써 현실대로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취업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급여의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장에 가서 150이나 170을 받잖아요?

면접자: 그걸 괜찮다고 생각해요?

강00: 만족을 해요. 그니까 학력에 대한 기대치만 낮은 게 아니라 지금 얘네 들이 당장 돈을 벌면 우리가 볼 때는 먼 미래를 내다 봐서 이 금액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되지만 그 부모들은 당장 150이 들어오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떻게 살지 보다는 그런 게 있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엄마나 이런 엄마들은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학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니까 얘네 들이 영어, 수학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 밖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엄마가 다양한 거를 예측해서 이 아이랑 얘기 하거나 정보를 줄 수 없으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학원가는 걸 좋아하는 애가 없잖아요.

면접자: 근데 엊그제는 우리는 안 보내요.'이러면서 안 보내더라고요.

강00: 돈을 그렇게까지 안 쓰는 거죠. 그렇게까지 돈을 쓸 저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애가 가기 싫지만 얘는 가기 싫어해, 나는 돈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하지만.

강00: 그러지만 그렇게까지 얘도 할 마음이 없고 아니면 또 엄마는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가 또 갈등을 한다고. 나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한다고. 갈등을 할 때 그럼 애가 원하는 거로. 예를 들면 걔가 합기도였나? 뭔가 사범이 되고 싶은 애가 있어요. 선수가 되고 싶은 애가 있어. 근데 엄마는 이 꿈 지원금으로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는 거야. 영어 학원을. 근데 얘는 아니야. 이거로 관비를 내고 싶은 거야. 도장비를.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한 일 년을 중재를 했어요. 일 년을. 둘이 말도 안했다가 이제 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니까 불안한데 뭔가 한국 사회에서의 뭔지는 모르지만 그 불안을 느낀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건 학원가라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이 엄마들은 그냥 어느 정도 애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보내는 거고.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대학 나온다고 해결 뭔가 보장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들의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경쟁은 청소년의 진로 초점을 학습에 두기 때문이고,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능력으로 확산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모델을 개발해 낸다면 계층의 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로 생각되는데, 대학을 나와도 취업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실제 대학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취업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고, 단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불필요하게 등록금을 낭비하기보다, 일찍 내실 있는 진로를 설계하여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문화집단이 전반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고 기능직에 주로 종사해도 그것은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매우 건실한 계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00: 근데 저는 그거를 학습에 초점을 두니까 그런 거 같아요. 학습으로 하면 우리 애들은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중략)

허00: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 아이가 행복한 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학습 쪽으로 가서 보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우리 애들은 다 대학을 다니는데 얘는 전문대를 가거나 취업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은 계층이 거기서부터 분리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거고, 근데 얘네가 만약에 학습을 원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폴리텍이나 이런 데처럼 그 전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 준다면, 그 아이도 빨리 사회생활을 해서 거기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할 때 또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거로 되어야 되고. 일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로 자기가 꿈을 가진 어떤 분야를 찾게 해주는 그런 거. 아까 얘기 했듯이 레인보우와 Job아라 그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깨닫고 부모님들이 그거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방향을 좀 정하는 걸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서. 꼭 대학을 안 나왔지만 성공한 애들을 키워내는. 그런 거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 들은.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자꾸 보여 지고 그런 성공 사례들을 따라 갈 수 있게.

사례관리의 필요성

한 아이의 진로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전문가들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처음 단계에서는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각 아이를 놓고 그 아이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례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부모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인 집체교육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진로지도 및 상담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학부모교육과 진로지도가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단계를 거친 체계적인 교육프로세스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성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허00: 우리가 이 어머님들 대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도 제공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제도나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지해야 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절대 집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면접자: 아 그래요?
허00: 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부모교육을 한다. 이런 거로 하니까 와서 하라고 했을 때에 효과도 되게 떨어지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당면한 문제라고 너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접자: 아 그렇구나.
허00: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를 딱 놓고 내 아이와 지금 어머니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별적으로, case by case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가정마다.
면접자: 그렇죠. 아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허00: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별로 해야 되는 거지 집체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면접자: 그렇다면 어쨌든 일단 모아가지고 그런 케이스로 가가지고 하는 단계 전에, 어쨌든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회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진 좀 해줘야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것도 올 거 아니에요.
강00: 그러면 그거는.. 왜냐면 이게요, 엄마들의 변화는요 전문 강사 하나의 좋은 명강의로 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엄마들은 이 말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를 믿으니까 그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그 때 간혹 우리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부모교육을 들으러 오죠? 그리고 이 부모교육을 어머님이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집단교육도 집단으로 통해서 아주 얇은 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집단 교육에도 참여하게 하고 가족 캠프에도 가게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이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가고, 가서 좋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이 안 되면. 그냥 한계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한 사례로 지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에서는 아이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진로를 함께 찾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21세 남자아이가 학교를 전혀 다닌 바가 없어서 한국사회에서 할 것이라고는 단순일용직밖에 할 것이 없었고 본인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현장의 전문가들이 진로를 탐색하게 하고 설득을 하여 지게차 운전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이 경우 청소년 기관의 상담사가 초기에 학습을 시켜보았으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기술 쪽으로 전환을 하여, 개인적으로 아는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애가 지게차 실습을 하도록 연결해주고, 필기시험을 위해서 개인학습을 시켜주고 하는 등 1:1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이 사례를 소개한 현장전문가는 청소년들의 진로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허00: 그니까 얘는 노가다 쪽에 갈 수 밖에 없는 거야. 무학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얘가 우리가 공부를 시켜 봤는데 학습능력이..... 그니까 해 보질 않았잖아 공부를.
면접자: 그러니깐요. 그것도 해 본 사람이 해야지.
허00: 그니까 얘가 검정고시를 초등부터 하는 건 어떻겠냐하고 공부를 한번 시켜봤더니 안 되는 거야. 공부는 안 돼. 얘는.
면접자: 그럼 한국말은 해요?
허00: 한국말은 하긴 하는데 많이 잘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100% 알아들어요. 다행히.
강00: 지게차가 필기시험이 없어?
허00: 있어.
면접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허00: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계속 개인 학습을 해주고, 그리고 지게차는 운전면허 학원이나 이런 게 없어. 그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게차 11대가 지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분한테 데리고 가서 얘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실기를 연습 시켜 달라. 훈련 시켜 달라. 이래가지고 시험만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얘는 이제 방향을 그 쪽 으로 잡아 가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이 아이하고의 라포 형성이 되어야 해요.
강00: 지금 초기니까 그렇게 1:1로 온 정성을 다 하지.
허00: 그래 그런데, 근데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 아이에 맞춘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고민하니까.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을 까 고민했을 때, 얘는 얘가 말하는 건 자긴 노가다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강00: 그리고 중도입국 애들이 본국에서 그 나이 되면 독립할 나이예요. 우리나라보다 빨리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허00: 그니까 얘가 그런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립지원 쪽을 어떻게 생각 하냐면, 다양하게 일단 애들한테 이것저것 시켜보려고 해요. 지금 예비학교 운영하는 데에서 정말 다양하게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흥미로워 하는 걸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관찰했을 때 느끼는 거를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게 무슨 그냥 너 바리스타 할래? 너 뭐 제빵사 할래?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해서 되는 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끊임없이 그 아이와 소통하고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그래서 이 아이 하나를 정말 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두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부모의 중요성

현장전문가들 역시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부모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이에게 진로를 가르치려 해도 부모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가정이 어렵다고 당장 돈을 벌어오기를 바란다면, 아이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로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즉,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가족이 이 기간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의 지지기반이 약한 편이라서 아이의 진로지원을 할 때 부모에 대한 교육과 부모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 허00: (중략) 부모님하고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부모님과의 소통도.
> 면접자: 누구랑의 소통이요? 애요?
> 허00: 양육자.
> 면접자: 아니면 선생님이랑?
> 허00: 그 아이의 부모. 아아. 사회복지사들이랑. 어. 담당자들이랑.
> 강00: 애만 만날게 아니라 그 부모도.
> 허00: 어. 사실은 애가 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얘가 이런 쪽을 애가 노가다 현장을 나가고 싶어 하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 해주려고 할 때, 어머님도 같이.. 같이 해주셔야 하는 거죠. 이 애를 지지해 주고.. 사실은 지지기반이 없어요. 얘네가 되게 심리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믿고 있다든지.. 왜 부모님이 얘가 잘 하지 않아도 '넌 잘 될 거야.'응원 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 면접자: 전반적으로 그래요?
> 허00: 전반적으로 그래요. 중도입국아이들이 왜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동생이 있거나 그러면 동생만 관심 있어. 얘네들한테는 관심이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모님들의, 가족의 지지기반도 같이 만들어 가고..

매우 활성화된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와 현장전문가의 입장이 동일했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부모교육을 기획해도 학부모들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과는 달리 현장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은 매우 참여도가 높고 매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 전문가는 매년 하는 진학설명회에 50명 정도가 참석하는 등 본인이

운영하는 단체 학부모들은 학부모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학교와 현장의 기관 사이에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그것은 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뭔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의 다문화관련 기관에서는 학부모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강00: 우리 진학 설명회 작년에도 하고, 우린 매 년 하는데.
면접자: 누구한테?
강00, 허00: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들.
면접자: 누가 와서 해요?
강00: 고등학교 입학하거나 대학교 입학 시키고 싶어 하는 엄마들한테, 우리 안산에 특성화 고등학교 부장 교사들이 와서 학교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무슨 과가 있고, 어느 성적으로 갈 수 있고, 외국인 전형 몇 명으로 있고..
허00: 왜 일반 고등학교에서 설명회 하듯이.
강00: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3곳이 왔고 이번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다가 다솜 고등학교하고, 폴리텍 하고 불러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한 50명 가까이 왔어.
면접자: 엄마, 아빠가요? 그렇게 많이? 아니, 아니 선생님. 학교는 선생님들 얘기가 학부모가 안와서 난리라는데..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이유가 있더만, 여긴 확실히 다르네...
강00: 와서 거기서 바로 부장 선생님들하고 입학 상담 아예 해버리고 서류 준비해서 보내고. 우린 또 검정고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학력이 없는 애들. 학교로 갈 순 없지만 학력이 필요한 애들 검정고시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렇지만 검정고시는 검토는 해봐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데 거의 애들이(와요)...

현장 다문화청소년기관의 학부모 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면접에 응했던 현장 전문가는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들이 우리나라의 입시나 교육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도 낮고, 학교 설명회를 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담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별도로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 대상 진로진학 관련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부모들이 자녀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별도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면접자: 선생님네는 일반 학교 다니는 국내 출생자 아이들 위해서 진로 그런 거 해요?
허00: 하려고 준비 하죠. 저희도.
면접자: 어떤 거 할 생각인 거예요?
허00: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면접자: 맞아요.
허00: 입시제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입시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신이라는 게 뭐고.. 학생종합이 뭐고 이런 부분들 학교에 가서 설명 들어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담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머님들한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한국에서 입시 전형은 이런 형태로 해서 수시로 가고, 정시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현장의 다문화청소년 기관에서는 학교에서처럼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통신문만 보내고 안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홍보하고, 센터에 있는 진로진학상담실을 통해 거쳐 간 아이들에게 모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아이들 대학가는 포트폴리오도 같이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등 지속적인 진학진로를 통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 다문화청소년 기관간의 차이는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차이이고, 서로의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였다. 즉, 학교는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업무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현장전문가들은 그 일이 자신의 본업이고, 주 관심 대상이 다문화청소년이기 때문이다.

강00: 홍보하죠. 학교에서도 홍보.. 학교 통해서도 홍보하고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진로진학상담실이 있잖아요. 전담으로.
면접자: 어디. 센터 안에요?
강00: 저희 센터 안에요. 그럼 거기서 1년에 160건.. 한 200건 가까이 상담을 거쳐 가요. 학교 진학 가기 전에. 그럼 거기서 그냥 일반 학교로 보낼지 예비학교로 보낼지.. 서류가 없으면 예비학교로 가야 되고, 서류가 있는 애들은 바로 학교로 그냥 들어가고.. 갔다가 또 위탁 교육이 있다는 거. 검정고시도 있다는 거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밖에 머무르는 아이들은 안녕 공동체 학교로 와서 한국어랑 전인적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다 적제적소로 대학 포트폴리오도 같이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입학도. 그래서 대학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거쳐서 상담한 엄마들한테 다 연락 하고, 또 예비학교나 중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 다 연락 하고 부모들 다 오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들도 우리가 해주니까 좋아하고..

학부모 교육은 중요, 그러나 내용이 더 중요

현장 전문가들은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잘못해서 오히려 어머니들의 불안감만 유발하고, 자녀의 상태가 어머니의 탓인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의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면, 어머니는 자녀가 공부를 하도록 더욱 압박하게 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진로를 함께 찾아가는 방법과 접근방식, 바람직한 태도 등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면접자: 아 엄마들 얘기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 엄마거든요? 근데 좀 더 예전에 내가 애들 진로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을 걸 제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더라구요.

강00: 네 그런데 좋은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잘못하면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게 돼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 자식을 불안 때문에 갈구거든요. 어설픈 불안만 심어주고, 그거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양육 스트레스나 아니면 아이와의 관계 갈등이 더 부추겨 진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엄마가 어떤 관점과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같이 그려줘야 되는 지를.. 뭐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어떤 것들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면접자: 맞아요. 중요하죠.

강00: 안 그러면, 갑자기 불안이 급습해지면 괜히 무리해서 애만 잡고 '너 왜 그러니.'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내용도 지금 전달 체계도 기관 입장에선 중요하고 그냥 순수하게 찾아보면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부터 벌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 전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사항, 초등입학 후 1학년, 저학년, 고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의 학교시스템은 한국어머니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아이에게 맡기고 있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 최대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허00: 근데 진짜 어머님들이 애가 7살이 되면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확실히.
강00: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를 내년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설명회 하자. 중학교 진학 교육. 예비중 부모교실을 하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생각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부모라고 하면, 저학년, 1학년 부모 대상으로 1,2,3학년 청사진을 그리게 하고, 4학년 부모 대상으로 4,5,6 하게하고, 6학년은 또 중학교 예비 중학교에 대한 것들을 하게하고 이런 식으로 짤 수는 있을 거 같아.
면접자: 그렇지. 1년 까진 쭉 어렵지만 그거는 괜찮은 거 같다.
강00: 그 때까진 7세부터 쭉 이어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쭉 하기에는 쪼끔 무리가 있고 저학년에 신경 써야 될 거. 저학년의 아이들이 달성해야 할 과업, 그 다음에 이게 고학년 가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할 순 있을 거 같아.
허00: 그리고 요즘은 중학교 자율학기제 하고 이러는데 어머님들 자율학기제가 뭔지도 모르고.
면접자: 나도 몰라요.
강00: 저도 잘 몰라요.
허00: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어지고 다 서술형, 참여형 이런 수업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더 불리하고 더 불안한데 성적표는 안 나오니까 일단 그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중학교 가며는 앗 뜨거 하는 거죠.

강00: 그래도 기본 틀의 매뉴얼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접자: 아 그 사업의 매뉴얼이요?
강00: 네. 사업의 운영의 꼭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세,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6학년 대상으로 예비 중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자: 그 안에 뭘 넣어야 할지?
강00: 네. 컨텐츠. 아니면 지역 수준에 따라 막 천차만별로 할 거 같아요.
면접자: 그래. 맞아요. 아무리 좋은 틀을 줘도 내용 들어 가보면 너무 뜨악해.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그거를 민간에 바라는 데에다가 하라고 하면 시·도 교육청에서 어쨌든 관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인 거를 줄일 수가 있고, 학교는 부담이 없고.

강00: 우리도 초등학교 입학 준비 교육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 모셔서 아이 보냈을 때 어떤 점이 어려웠는데 뭘 준비해야 하고 이런 거 얘기 하고.. 그렇게 하고 매뉴얼을 줬죠. 준비사항 매뉴얼,
면접자: 아 그런 걸 또 개발 해야겠네 그럼. 각 단계 별로 필요할 것들.
강00: 뭐 하다못해 필통은 어떤 걸 뭘 사야 되는지. 준비물은 어떻게 하고.. 안내장은 어떻게 나오고.. 예방접종 뭐 해야 되고.. 제가 했던 고민을 그래도 다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아이를 처음 보낼 때, 필통을 천을 사야 돼.. 플라스틱을 사야 돼? 크레파스를 12색을 사야 돼.. 36색을 사야 돼.. 48색을 사야 돼.. 사물함은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 거야? 막 오만 가지가.. 그리고 클리어 파일을 어떤 거 보내라는 거지? 실내화.. 그니까 별 개 별 개 다.. 모르겠으니까 멘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 학교 보내고 1학년이 돼서 제가 너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이 엄마들은 오죽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엄마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문방구 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사진 찍어가지고 첫 매뉴얼이 그 때 나와서 그 때부터 시작 한 거였어요. 이거 교육을 해줘야겠다.. 이 매뉴얼을 줘야겠다..

학부모교육의 지역연계 필요성

다문화청소년들의 학부모 교육에 대해 지역연계의 필요성은 현장전문가들도 느끼고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특정한 한 기관이 맡아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특히 여가부의 경우 교육부와 연계하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률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 기관이 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마다 전문성 및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사업이 흘러갈 수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주최를 하되, 그 사업을 지역에 있는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여 프로그램을 짜고 어머니들에게 홍보를 하고, 학교에서도 동시에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진로교사나 진학설명을 맡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때 지역의 여건이 고려된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으로 세분화된 사업계획이 나오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면접자: 만약에 학교하고 지역하고 연계를 하려면 어떻게 연계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 엄마들은 얘기가, 자긴 들었는데 좋긴 좋았는데 그 엄마는 애가 중학교 3학년 이니까.. 애가 잘하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몇 번을 들어야 겠더라. 일반 엄마들하고 같이 들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그래. 그 말도 맞다.'처음 일반 엄마들하고 같이 듣고 그 내용 비슷한 걸 다시 다문화 엄마들끼리 모아서 한 번 더 한다던가 여러 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거. 그런 경우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강00: 아니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민간 그 쪽 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잖아요.

면접자: 그럴 수 있죠.

강00: 그렇게. 단위 학교로 가지 말고. 그 아이들의 홍보는 교육청이 모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진행은 전문 기관에서 하고.

면접자: 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강00: 어 괜찮다! 교육청으로 하면 되겠다.

면접자: 단위 학교 말고. 단위 학교는 힘들어 하니까.

강00: 네네. 그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강00: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다가가 하게 될 텐데 전국의 다가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내려 보내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엔 복지관에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허00: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게 나아요.
면접자: 아 종합복지관. 아니 근데 반드시 어쨌든 지역에 아무데서나 맡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허00: 근데 지방은 사실 없어, 없어.
강00: 지방엔 없어? 종복도 없나?
허00: 그래 종복도 없어. 노인복지관 하나 있는 정도고.
면접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면서 지역하고 연계 해 가지고 컨텐츠를 지역에서 이런 데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선 틀만 만들어 주고...
허00: 내 생각에는 농촌형, 도농복합병, 도시형 이렇게 모델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기존사업의 유사성과 실효성

현장전문가들은 또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로 유사하고 그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기 보다는 바리스타, 메이크업아티스트 등과 같이 매우 단순한 수준의 몇 가지 직종만이 제공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진로탐색이나 직업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에서 바리스타, 제과제빵, 메이크업아티스트 등과 같은 단순한 수준의 직종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진로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몇 명인지 등이 중요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현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투입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00: 그니까 체험 기준인데 그 내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건 걔네가 정해준 대로 해야 돼요.
면접자: 종류가 다 있어요? 뭐예요?
허00: 바리스타.
면접자: 바리스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떡하려고 온갖 다문화 애들이 다 바리스타야.
강00: 자격증을 딸 수가 있으니까.
허00: 그래서 그래요. (자격증을)따기가 쉬우니까.

또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 일을 배우고 직업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이었는데, 성과도 성과이지만 교육의 기간 자체가 짧다보니 더더욱

자격증을 따기 쉬운 바리스타나 운전면허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차라리 다양한 체험을 해서 스스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아무런 진로에 대한 탐색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한 것처럼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인데, 이 의견은 매우 타당해보였다.

면접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체험수준이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그 교육을 받아요?
강00: 10주 밖에 안돼요. Job아라 기본 모형이 10주예요. 10주.
면접자: 그런데 그 안에다가 그 전문 적인 부분을 넣었냐고요?
강00: 거기다가 중급 이상의 한국어를, 그 한국어가 중급 이상의 한국어가 수업에 있고요, 매뉴얼이. 10주 동안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운전면허 취득이나 바리스타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여력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여기서 와서 1년이나 8개월, 10개월 한 애들이 Job아라를 하기에는 이미 자긴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거기 와서 진로에 대한 걸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들은 그걸 못 따라 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바리스타나 운전면허나 이런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인보우에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이 없고, Job아라도 탐색과정은 없는 거예요.

표 V-90 2016 면접 결과 요약: 학교교사 및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국내출생)다문화학생을 위한 별도의 진로지도는 필요하지 않음 ■일반학생 대상 진로지도부터 개선될 필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진로프로그램이 다수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가 필수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정보부족과 교사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계를 고려한 진로지도 방법 필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적 가치 차이와 인식개선 필요 ■학부모 교육은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현장전문가	■기본적으로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함. ■일반학생과 학업성취 격차가 있음.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낮은 교육열망 ■진로지도에 있어 사례관리 필요성 ■부모의 중요성 ■다문화청소년 기관의 학부모 교육은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학부모 교육의 지역연계 필요성 ■학부모 교육의 내용이 중요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 내용이 되어야 함. ■자녀의 진로 및 진학관련 학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필요 ■정부사업의 유사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3.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관련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설문조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비교하였고, 성별, 거주지, 부모학력수준, 가정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분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정책수혜현황과 정책요구도를 설문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심층면접은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학교교사, 현장전문가 등 네 집단을 대상으로 요구도 및 진로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은 한국가정 출신의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낮고 진로장벽은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가정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저소득층에 위치하는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진로장벽인식을 느끼고,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포부수준이 학부모에 비해 낮고,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낮으며 특성화고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현실을 학부모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의 목표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로를 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은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 두 가지 요인에서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장벽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진로관련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지원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약함을 나타내었다. 넷째,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중 학업성취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진로 분야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요구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모두 진로프로그램의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진로지원프로그램을 경험한 빈도는 매우 낮았고,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는 학원비나 방과후수업과 같은 학습지원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일곱째,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의 범위와 그 직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자녀의 진학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여덟째, 자녀진로와 관련된 요구도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의 요구도가 더 높았다. 이는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정보에 더 취약하고 자녀 진로를 위해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에서 이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홉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가정 청소년들과 동등하거나 또는 영역에 따라서 더 잘 적응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다문화청소년이 모든 측면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취약하다는 시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면접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은 진학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진로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일회성 체험프로그램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관련 정보에 대해 매우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지역의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고, 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녀의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은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 만족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불만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넷째, 학부모들의 자녀 학업적 포부에 대한 기대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부족과 언어부족 등으로 자녀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학부모가 지닌 사회문화적 자본의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여섯째, 이중언어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는 높으나 현재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청소년들은 어머니나라 말 배우는 것을 싫어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곱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과 진로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학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여덟째, 진로지도는 단순히 집체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례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홉째 학부모교육은 학교보다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관련기관 및 학교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 Ⅵ 장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현황 및 정책제언

1.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정책현황
2. 정책제언

제 Ⅵ 장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현황 및 정책제언[12)]

1.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정책현황

본 장에서는 우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에 관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정책이 가지는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앞장에서 논의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 현황

(1) 교육부의 진로정책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교육부의 진로지원 정책은 진로교육법과 진로교육법시행령, 진로교육의 중장기계획인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에 근거하고 추진되고 있다. 진로교육법과 진로교육법시행령의 제정은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 중 다문화청소년이 관련되었거나 명시적으로 나타난 조항은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와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진로교육의 활성화), 제3조(진로교육 현황 조사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 등으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진로 및 취업취약계층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13)]

12) 6장은 신현옥과 양계민이 공동집필함.

13) 진로교육법 제5조 2항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다문화청소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로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Ⅵ-1 진로교육법과 진로교육법시행령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 (진로교육활성화시책)	① 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촉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재원 확보 2.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및 직업계 협력 유치 3. 진로지도,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정보 제공, 진로교육과정 편성 등을 위한 지원방안 4. 기타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의 각 호에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진로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경비 2. 북한이탈주민의 학교,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교육에 따른 지원 3.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자율에 필요한 진로교육 훈련 경영지원 제공 4.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5.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계획과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제3조 (진로교육 현황 조사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② 교육부장관은 각 호의 대상 가운데 정책수요에 따라 조사대상을 정하여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되, 그 결과를 당해연도 12월에 공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 및 교직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 및 교직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관련시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을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및 관련시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당 지급자로 결정된 사람과 그 자녀 및 관련시설 6.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및 관련시설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 및 관련시설 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사업관계자 및 관련기관

이와 더불어 진로교육에 관한 중장기 국가계획인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 를 비전으로 학습자는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신장하고, 학교는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체계를 확립하며, 사회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역량 강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 진로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정책 영역을 정하고 있는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진로교육 대상의 확대라는 정책영역 속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균등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진로상담교사 대상 연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기회 제공 등이 계획되어 있고,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상담자료 개발 및 보급, 글로벌브릿지 사업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Ⅵ-2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2016-2020) 중 다문화청소년 관련 부분

영역	추진과제	세부과제 및 내용
2. 진로교육 대상확대	1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강화	①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진로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의 진단 및 처방을 위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발, 보급('16) ○ 사회적 배려대상자 담당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진로상담 · 진로정보 제공 강화('16)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상담, 진로체험 기회 제공('16)
		②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강화 ■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진로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능력 · 문화 등 다문화학생의 장점을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진로 · 상담자료 개발, 보급('16) ○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브릿지 사업 강화('16년 17개 사업단) ○ 언어, 수학, 과학 등에 잠재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에게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브릿지 참여학생: ('15) 709명→('20년) 800명

※ 출처: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사업 중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글로벌브릿지사업

우선 첫 번째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브릿지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계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수학·과학, 글로벌리더십, 언어, 예체능 등 총 4개 분야로 구분된 글로벌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우수 다문화학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연구재단, 2016). 2010년 처음 광주교대에서 글로벌 리더십 이라는 주제로 3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자녀 국제지도자 육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서울교대, 카이스트, 경남대, 광주교대에서 각각 4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전국 17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표 Ⅵ-3 글로벌브릿지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단 수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백만원)	500	830	540	640	880
사업단 수	4	7	7	10	17

※ 출처: 2016년도 글로벌브릿지 사업 세부 시행계획(안)(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 2016)

17개 사업단 별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언어를 주요 주제로 하고 있는 사업단이 경인교대, 가야대, 한양대, 영남대 등 4개 대학이고, 수학과 과학을 주제로 하고 있는 사업단이 서울교대, 대구대, 울산대, 춘천교대, 교원대, 전북대, 제주대, 순천대 등 8개, 예체능을 주제로 하고 있는 사업단이 용인대, 부산대, 그리고 배재대 등 3개, 마지막으로 글로벌리더십을 주제로 하고 있는 곳이 선문대와 광주교대의 2개 사업단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지원에 포함되지만 직접적인 진로교육이라기 보다는 우수한 다문화청소년을 선발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Ⅵ- 4 2016년도 글로벌브릿지사업의 권역별 사업단별 프로그램 내용

연번	권역	사업단	프로그램명	분야
1	수도권	경인교육대	다문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언어
2		서울교육대	글로벌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 · 과학
3		용인대	태권도 수련을 통한 한국인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태권도 인재 육성	예 · 체능
4		한양대(ERICA)	다문화학생 국어 · 영어 능력 계발 프로그램 : ‘다같이 톡톡(talk talk)”	언어
5	영남권	가야대	지역사회 · 지역문화 기반 ‘hang around’언어영재 프로그램	언어
6		대구대	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수학 · 과학+창의 · 융합 · 인성)	수 · 과학
7		부산대	효원 레인보우 국악 오케스트라	예 · 체능
8		영남대	다문화시대의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언어
9		울산대	다누리 과학교실	수 · 과학
10	충청 · 강원권	배재대	우리나라 대표선수 ‘예체능 히든 챔피언”	예 · 체능
11		선문대	다문화가정 청소년 글로벌 리더 육성사업	글로벌 리더십
12		춘천교육대	강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수학 · 과학 영재교육	수 · 과학
13		한국교원대	2015년도 글로벌브릿지 인재교육사업	수 · 과학
14	호남 · 제주권	광주교육대	글로벌 관점과 문화적 감수성을 겸비한 창의적 글로벌리더 양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15		전북대	WAO! Project	수 · 과학
16		제주대	지역 특성에 기반한 글로컬 다문화 창의 인재 양성 사업	수 · 과학
17		순천대	수학 · 과학창의리더 육성사업	수 · 과학

※ 2016년도 글로벌브릿지 사업 세부 시행계획(안)(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 2016)

② 다문화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두 번째로 보다 직접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이 있다. 직업교육의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 하나는 다문화직업교육 대안학교(서울다솜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고에 진학한 다문화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다솜학교는 2012년에 개교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공립대안학교로서 컴퓨터미디어학과와 호텔관광과로 구성되어 각 20명씩 총 40명을 선발하고 있다.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우수학생에 한해 장학금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국가기술자역증이나 민간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인 4급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일반고에 다니는 다문화학생이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5년에는 15개 직업교육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다. 직업교육과정은 미용, 요리, 바리스타, 자동차정비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수강 학생의 수강료, 실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각 학교별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고 전액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Ⅵ-5 2016 교육부 다문화학생 직업교육지정기관

연번	시도	학교	기간	정원	지정분야	운영내용
1	서울	서울다솜학교	16.7월~8월	60	IT-IoT(정보-사물인터넷)바리스타, 칵테일만들기	• IT-IoT(정보-사물인터넷)직업탐색반(한글, 파워 포인트, 드론, 사진,동영상제작운영) • 바리스타-칵테일만들기업탐색반(커피, 칵테일 만들기 운영)
2		서울산업정보학교	16.5월~12월	70	자동차야놀자 외 6개 과정	• 무인항공기(드론)의 제작 및 조종, 자동차야 놀자, 나만의 주얼리 칠보공예반, 바리스타 사이폰 추출, 될 수 있다 사진작가, 기초 네일아트 익히기, 포토샵 달인되기
3		선정관광고등학교	16.7월~11월	45	바리스타달인반외 2개 과정	• 바리스타 달인반, 컴퓨터 달인반, GTQ 그래픽 달인반
4		아현산업정보학교	16.7월~8월	50	꿈을굽는 파티쉐 실전 외 4개 과정	• 꿈을 굽는 파티쉐, 실전 네일아트, 실전 메이크업, 인테리어 모형제작,그린 인테리어
5	부산	부산관광고	16.5월~12월	20	요리, 제과제빵	• 직업교육의 이해, 요리교실, 체험학습, 재능기부 봉사활동
6		아시아공동체학교	16.5월~'17.2월	20	바리스타	• 바리스타 진로반과 자격증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
7	대구	대구공업대학교	16.5월~'17.2월	20	제과제빵, 바리스타, 뷰티(헤어미용)	• 직업 체험(제과제빵, 바리스타, 헤어미용), 진로직업 교육, 적성검사, 문화 체험
8	인천	계산공업고	15.7월~'16.2월	21	제과제빵	• 제과제빵과정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정운영
9		인천생활과학고	15.7월~'16.2월	10	발관리 메이크업	• 발관리 및 메이크업과정 운영을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진로, 직업의식 고취

연번	시도	학교	기간	정원	지정분야	운영내용
10	광주	광주자연과학고	16.7.25 ~8.9.	19	제과/제빵, 바리스타	• 제과 제빵 : 다양한 제조법 (쿠키,머핀, 케익 등) 과 공예(마지팬공예, 툴릿공예 등), 바리스타
11		금파공업고	16.7.25 ~8.12	14	제과/제빵	• 현장감 있은 체험교육을 통해 제과 제빵 과정을 습득하여 미래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의 동기 부여
12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16.4월 ~12월	20	제과제빵, 조리, 미용, 반려동물관리	• 4개 분야(제과제빵, 조리, 미용, 반려동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 각 분야의 이론과 실제, 전문가와의 만남, 견학 및 체험
13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6.8.8 ~8.13	20	자동차관리,CAD, 회계, 진로탐색	• 5박6일 합숙 운영, 교육이수 우수 학생은 대학 자체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과 연계 교육기회 부여
14		신한대학교	16.8.8 ~8.13	20	자동차정비, 바리스타, 한식조리, 메이크업	• 5박6일 합숙 운영, 교육이수 우수 학생은 대학 자체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과 연계 교육기회 부여
15	충북	청주농업고등학교	16.7월 ~8월	30	바리스타, 떡가공, 제과제빵	• 바리스타(40시간), 떡가공(40시간), 제과제빵(20시간) 운영
16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16.6월 ~9월	80	정보(IT, 소프트웨어, 디자인, 회계)	• 정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7과목을 6개월 과정 운영
17	충남	선문대학교	16.7월 ~8월	30	SW교육 (앱인벤터활용)	• 앱인벤터 기초과정 : 앱 인벤터 소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 이해 • 앱인벤터 심화과정 : 팀별 프로그램 작성, 팀별 공동제작 프로젝트 완성
18	충남	혜전대학교	16.7월	19	직업체험, 진로설계, 인성개발	• 직업체험 : 바리스타, 한식, 중식, 서양식, 제빵, 전자캐드 • 진로설계 : 성격유형검사, 진로설계, 커리어로드맵 • 인성개발 : 웃음치료, 인간관계훈련
19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16.4월 ~'17.2월	19	공업(목공, 전기 · 전자, 3D모델링 및 프린팅)	•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진로체험, 학부모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20	전남	남악요리학원	16.5월 ~11월	30	한식, 바리스타	• 한식과정과 바리스타 과정으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 20회 운영(바리스타, 한식 자격과정 운영)
21	전남	아뜰리에 뷰티학원	16.5월 ~12월	30	네일아트, 메이크업	• 네일아트와 메니크업 2개 반으로 나누어 격주로 네일아트와 메이크업을 번갈아가며 토요일 3시간씩 총 9회 운영
22	경북	대경대학교	16.5월 ~12월	35	바리스타, 네일아트, 진로체험	• 자격증 과정: 바리스타, 네일아트 • 진로체험 프로그램 과정: 헤어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글로벌쉐프, 배우, 운동처방사, 모델, 가수, 임상병리사, 안경사, 소믈리에, 드론조종사

연번	시도	학교	기간	정원	지정분야	운영내용
23	경남	한국승강기대학교	16.4월 ~10월	20	기초직업 수학, 영어, 일본어, 제어, 설계, 산업체 현장학습	• 기초직업 영어, 일본어, 수학 향상 프로그램 • 기초기계설계능력 프로그램 (NCS교육과정), 기초로봇제어능력 프로그램
24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16.8월 ~11월	20	바리스타, 네일아트	•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반(이론, 실습, 자격증 취득 준비교육) • 네일아트 자격증 준비반(이론, 실기, 자격증 취득 준비교육)

※ 교육부 내부자료(2016)

③ 다문화멘토링 사업

셋째로 교육부의 다문화청소년 진로관련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멘토링 사업이 있다. 멘토링이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의 기초학력 부진은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한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진로지원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핵심은 대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여 기초학습, 진로지도 등 1:1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이다(약 4,500명 규모). 이 사업은 2010년도 전국의 13개 대학의 교대 및 사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11년에 42개, 2012년 47개, 2013년 52개, 2014년 82개, 2015년 76개 등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사업으로, 2016년도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9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16).

표 Ⅵ-6 다문화멘토링사업의 연도별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만원)	1,500	4,950	4,900	6,750	13,500	6,750	7,200
나눔지기	2,335명	3,736명	4,057명	4,888명	6,918명	4,784명	4,669
배움지기		4,071명	4,733명	4,784명	7,172명	5,288명	5,132
참여대학	13개	42개	47개	52개	82개	76개	91개

※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2016. 11. 30 현재)

④ 이중언어교육

다문화학생의 강점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이중언어 교육지원이 있는데, 각 학교를 중심으로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을 통합하여 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이중언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KDB대우 증권과 협업으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총 7종의 이중언어교재를 보급하고 에듀넷에 올려서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도 하였다. 또한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를 개최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언어영재교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개편을 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⑤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한 교육부의 사업 중 중요한 것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대상의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들 수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고 2016년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2016년 8월 중 총 142명이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의 목적은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다문화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수하는 것이다. 연수의 내용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다문화가정의 배경과 현황에 대한 이해 등 기본적인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분이 총 4시간이고, 다문화학생의 진로진학 현황 및 전문상담 현황에 대한 내용이 2시간, 그리고 다문화학생 대상 상담사례가 총 6시간, 그리고 상담사례연구가 총 3시간으로 총 15시간 동안 연수를 받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Ⅵ-7 교육부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교육과정

연번	과목명	내 용	시수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미래 ○ 다문화감수성 이해와 증진	2
2	다문화가정의 이해	○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자녀의 이해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이해	2
3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및 전문상담의 이해	○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현황 및 특성 ○ 다문화학생 전문상담 현황 및 특성	2
4	다문화 상담의 실제 Ⅰ (학교)	○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및 전문상담 방안 ○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및 전문상담 사례	3
5	다문화 상담의 실제 Ⅱ (유관기관)	○ 유관기관의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및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진학 및 전문상담 방안	3
6	상담 사례 연구 Ⅰ	○ 다문화학생 상담 세미나	1
7	상담 사례 연구 Ⅱ	○ 다문화학생 상담 워크숍	2
개설 과목 총 이수시간			15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내부자료(2016). 2016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운영 계획(안)

⑥ 교육부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평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은 주로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글로벌브릿지, 다문화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 다문화멘토링, 이중언어교육,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연수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글로벌 브릿지사업과 진로·직업교육지원, 다문화멘토링 및 이중언어교육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는 전반적인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의 사업들은 비교적 체계성을 가지고 접근되고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부족한 점을 지원하는 다문화멘토링사업과 다문화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 다문화청소년의 강점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브릿지와 이중언어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진로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진로진학생담교사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연수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큰 틀 내에서 체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들어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와 실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및 일반적인 상담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교사 전반의 인식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첫 단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내실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로, 글로벌브릿지 사업의 경우는 잠재력을 지닌 다문화청소년을 선발하여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그 목적이고 이를 위해 대학의 전문성과 환경여건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해되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대학의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청소년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기존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과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진로교육을 담당한다든지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로, 다문화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 지원의 경우는 지원의 내용이 단기간 습득할 수 있는 저숙련 노동관련 교육이 다수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교육의 내용이 직접적인 취업과 관련이 되기 어려우며, 향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마도 지원의 내용이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배제되고, 연간 지원되는 지원비로 연속성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해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내용을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근거로 연간 기간별 지원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이며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로 장기적인 교육을 기획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어떤 기관의 경우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저숙련 기술 위주의 단순직이나 체험에서 끝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보이며, 보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다문화멘토링 사업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사업의 기획의도에 맞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도 참여청소년들의 경우 다문화멘토링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타당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심층면접 등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살펴보면 일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 등이 발견되는 바, 다문화멘토링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좀 더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제대로 멘토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 모니터링 강화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이중언어교육은 원래 부모 나라 말을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와 언어를 연습함으로써 다문화적 배경을 활용하여 역량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비하여

각 학생별로 부모나라 모국어를 배우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해당 학교에 배정되는 이중언어강사의 언어를 함께 배우고 있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각 학생별 모국어 강사를 각각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각 학교별로 이중언어교육 사업을 하기 보단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기관 등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로,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에는 다문화사회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더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른지, 무엇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지 등 진로지도 관련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연수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진로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지원 '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은 2016년 3월에 발표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이다. 이 대책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한 이래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16. 3. 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특징적인 점은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증가에 따른 성장주기별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재설계하려고 한 점이다. 이 대책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多재다능 프로그램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多재다능 프로그램 '을 들 수 있다. 多재다능 프로그램은 전국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심리 치료와 부모자녀 관계 향상, 사회적 발달, 미래설계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의 전문 기관에게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2016년 현재 전국에 81개소에서 시작하였는데, 내용 중 직접적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것은 미래설계 에 대한 부분으로 자기역량 탐색과 진로소양교육, 직업탐색 및 체험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들고 있다.

표 Ⅵ-8 다재다능사업의 추진체계 및 서비스 내용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상담 심리 치료	청소년부모 개별 및 가족상담, 심리정서 치료 및 미술음악놀이 치료
부모 자녀 관계 향상	부모국가 문화 이해, 가족캠프, 부모 역할 모니터링 및 지도
사회성 발달	사회성 진단, 리더십 강화, 동아리 · 봉사활동, 체험활동
미래설계	동기부여, 자기역량 탐색, 진로소양 교육, 직업탐색 및 체험

※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대책(16. 3. 9) 보도자료에서 발췌

②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둘째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이중언어 환경 조성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언어 환경 사업과 더불어 올해 새롭게 계획된 사업이 이중언어 역량이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함으로써 해외교류 및 해외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중언어사업과 구분되는 것은 교육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청소년이 평소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사업은 학령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이 그 대상이 된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가 모국어로 자녀와 놀이 및 게임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교육시키고, 가정 내 이중언어환경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이중언어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이중언어활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③ 중도입국 청소년 진로 및 취업지원사업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무지개 Job아라'와 '내-일을 Job아라'를 들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성장 배경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특화된 진로지원 사업으로, 2013년에 시작된 '무지개 Job아라'는 만 16~24세 진로를 고민하는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한국어를 포함한 진로탐색, 진로설계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총10주간(총 230시간)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해 인턴쉽 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진학 및 취업 등으로 연계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전국에 3개 기관(서울, 부산, 수원)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총6회 진행되고 있다.

'무지개Job아라'가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라면 '내-일을 Job아라'는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진출을 돕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이다. 내-일을 Job아라는 한국어교육과 함께 각 직업별 훈련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2015년부터 외부기업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무지개청소년센터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한국어와 서비스마인드를 심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기업에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지역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총16주(220시간)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직업훈련과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 실제적인 취업준비를 하게 된다. 상반기에는 3개 지역기관(서울, 부산, 익산)에서 1회씩, 하반기에는 3개 지역기관(서울, 부산, 수원)에서 1회씩, 총6회가 진행된다.

표 Ⅵ-9 무지개 Job아라의 교육 내용 및 시간

영역	세부내용	시간
진로 탐색과정	직장생활 한국어(중국한국어), 진로소양교육, 현장체험	10주 230시간
진로 설계과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대비 교육, 단기직업체험 및 교육, 진로멘토링 및 집단상담	
기타	맞춤형정보제공, 개별 진로상담, 부모상담 사후관리(사례회의, 근황파악 등)	수시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 내부자료(2016)

표 Ⅵ-10 내-일을 Job아라의 교육 내용 및 시간

영역	세부내용	시간
직업훈련	바리스타,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보기능 운용사 등	16주 220시간
자격증 취득과정	바리스타2급, 공연예술분장사3급, 정보처리기기운용기능사 등	
공통교육과정	직업한국어, 직업세계탐색,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작성법, 모의면접 교육 등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 내부자료(2016)

④ 여성가족부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평가

여성가족부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관련 사업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보다는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 국내출생보다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어 보인다. 우선 첫째로, 多재다능의 경우는 2016년도부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 '미래설계'영역의 자기역량 탐색과 진로소양교육, 직업탐색 및 체험 등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도에 사업에 착수한 만큼, 아직 그 성과나 진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점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로,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은 기존의 이중언어교육사업을 교육부가 전담하게 됨에 따라 그와는 구별되게 기획한 사업으로,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부모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획의도대로 잘 되기만 한다면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만 5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대상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무지개 Job아라'와 '내일을 Job아라'가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진로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상으로는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을 졸업한 후 '무지개 Job아라'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을 하고, 그 후 다시 '내일을 Job아라'를 통해 직업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연계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현실적으로 볼 때, 단기간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을 한 후 한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단계로 들어가기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참여하기 어렵고, 제공되는 직업훈련의 내용 자체도 단순기능직의 매우 한정된 직종에 불과하여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사실상 중도입국청소년 전체 수를 볼 때 극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극소수만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를 완비하고 내실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고용노동부

① 한국폴리텍다솜학교

고용노동부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운영을 들 수 있다. 한국폴리텍다솜학교는 2011년 교육부로부터 다문화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2012년에 충북 체천에서 개교를 하였다. 한국폴리텍다솜학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만이 입학할 수 있는데, 2016년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16개국의 출신 다문화 학생 총 131명이 재학 중으로 학생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Computer 기계학과, Plant 설비과, Smart 전기과 등 세 개의 전공 직업교육과정에 각 15명 씩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기숙사비, 식비와 간식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교육수료 후 학생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고, 한 학기 동안 현장학습을 통해 실제 직업체험을 하게 되며, 취업을 알선하고 2년간 교사들이 사후 지도를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폴리텍다솜학교의 경우 직업교육과정 이외에 한국어교육과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과수업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어 수준별 수업(한국어 다래교실 운영)과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육과정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14]의 한국어 교육시수로 인정받아서 학생들의 귀화 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미술심리치료, 푸트테라피,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4)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이수를 하면, 첫째,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귀화시 국적필기 시험 면제 및 국적 면접시험 면제를 해주고, 둘째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의 이수혜택이 주어진다(법무부, 2016).

② 노동부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평가

한국폴리텍다솜학교는 처음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의 기숙학교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국내 출생 다문화청소년도 재학하고 있는 기술교육대안학교로, 교육의 내용은 언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기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졸업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은 중도입국청소년 중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으로 취업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그 만큼 사회적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폴리텍다솜학교에서 훈련받은 기술로 취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취업률과 유지율과는 별도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한다면, 중도입국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제공되는 자리가 매우 적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사례 : 안산시의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지방자치단체 중 이주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안산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운영이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청소년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향후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지역형 진로지원 모델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지원 서비스는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진학지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꿈다리 상담실 운영이다. 둘째, 진로상담을 마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지역 내 예비학교로 연계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로 입학을 연계하여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공교육에서 부적응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 미진학했거나 중단·중퇴하여 학교 밖으로 나온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하여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18세 이상의 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기술교육의 지원이다. 개별 직업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진로탐색과 진로코칭과 함께 그 청소년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또래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표 Ⅵ-11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진로지원 사업

사업구분	지원대상	주요 내용
꿈다리 상담실	만 24세 이하	• 입국초기 진학상담 및 컨설팅 • 대학 입시 지원 • 지역 내 학교 연계 통합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네크워크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 • 진학매뉴얼 제작
검정고시반 운영	만 24세 이하	• 초중고 검정고시 시험 지원 •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 현재 15명(합격률 98% 이상)
공동체 학교	14세~만 24세	• 단계별 기초 한국어 지원 • 한국문화 이해 및 특기적성계발 지원 • 민주시민교육 • 글로벌 마인드 및 진로교육 •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위탁형 대안학교 (꿈빛 학교)	중·고등학교 재학생	• 보통교과 및 대안교과 • 민주시민의식 교육 • 진로탐색 및 문화 · 체육 활동 • 심리 집단 활동
진로기술교육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	• 개별 직업기술 지원 • 바리스타, 제과제빵 집단 자격증취득과정 지원 • 진로탐색 및 진로코칭 • 가족참여 프로그램, 부모교육
심리치료 및 상담	만 9세~만 24세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교 적응력 강화 집단 심리 지원
기타	만 24세 이하	• 청소년 및 가족 사례관리 지원 • 지역기관 및 장학금 연계를 통한 자격증 취득지원

※ 출처: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내부자료(2016)

2)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국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국내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볼 점들도 있다. 우선 첫째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방향성과 원칙이 선정된 후 사업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사업들이 이루어진 경향성이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일반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과 별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그 근거를 중심으로 방향성과 그에 따른 원칙을 가지고 사업들이 개발되고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막연하게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혼재된 이미지를 가지고 기존의 진로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직업기술교육프로그램을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존의 단순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고 마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인다.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지원은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체험활동 제공이나 직업기술교육 제공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방향에 근거한 보다 장기적인 조망에서 기획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공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사회적 효과성을 도출할 것인지, 도출된 효과를 우리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향후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지 등을 교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대상 집단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그 자신 혹은 부모가 외국으로부터 이주를 해왔다는 점 때문에 동질적인 집단인 것처럼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은 그 특성에서 매우 다르고 요구하는 바도 매우 다르다. 또한, 같은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성장환경이 다르며, 그것은 중도입국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꺼번에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으로 묶어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분화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들이 서로 연결성 있게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제공될 수 있고,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일회적 체험 등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주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메이크업아티스트 등과 같이 현재 시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단기간의 교육으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청소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며, 진로보다는 단순히 흥미를 느끼고 경험을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진로를 바리스타, 제과제빵, 메이크업아티스트를 하고자 한다 해도, 이 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매우 다양하며 보다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전문직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직업탐색의 과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교급 또는 연령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체계화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정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기술을 가르쳐서 직업과 관련시키고자 하는 조급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고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너무 조급하게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기 보다는 청소년 자신의 흥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학교밖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사업은 사실상 너무나 양적으로 적고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이 처한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무조건 중도입국청소년의 요구에만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도입국청소년,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후기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체류자격 등 법적인 문제가 함께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시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지원이 직업교육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형편이고,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향후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방향이 먼저 확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법적 신문의 문제들과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의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이 학교밖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배제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에 200개 넘게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교밖에 존재하는 다문화청소년들,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원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센터 종사자의 다문화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센터 종사자들의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에 대한 이해교육 기본적인 이해교육과 함께 학교밖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 서비스 관련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처간 연계나 지역기관 간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의 사업들 자체로도 의미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학부모, 학교교사 및 현장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역 내에서 교육청, 학교, 지역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 협력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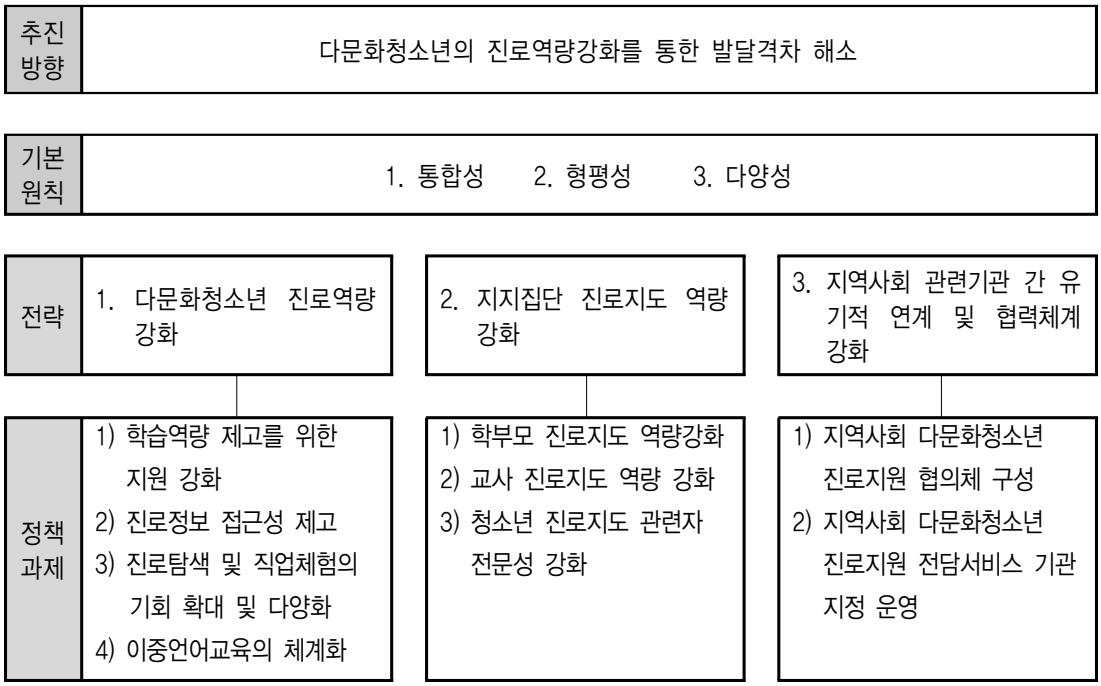
1)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 개발 절차



【그림 Ⅵ-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양계민 외, 2014. p. 388 수정)

2)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기본원칙, 전략 및 정책과제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일과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진로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은『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역량강화를 통한 발달격차 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진로지원정책의 기본원칙은 통합성, 형평성, 다양성이다. 우선 첫째, 통합성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의 지원방식은 다문화청소년을 구별, 분리해내거나 다문화청소년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낙인효과를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양계민 외, 2014)과, 다문화청소년,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진로교육에 관해서는 분리하기 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해야 할 것이고, 다문화청소년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히 부족한 부분 또는 다문화청소년만의 장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형평성의 제고이다.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간의 진로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청소년 중에서도 국내성장 다문화청소년과 외국성장 중도입국청소년과의 진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 및 학습부진의 특성, 문화적 차이 등을 배려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다. 셋째, 다양성의 증진이다.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향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각자의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Ⅵ-2】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기본원칙, 전략 및 정책과제

(1)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크게 전략을 세 가지 영역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역량강화, 두 번째는 지지집단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세 번째는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이다. 각 전략별 정책과제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Ⅵ-1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전략	정책과제
1. 다문화청소년 진로역량강화	1-1.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1-2.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1-3.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1-4.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2. 지지집단 진로지도 역량강화	2-1.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2-2. 교사 진로지도 전문성 강화
	2-3.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전문성 강화
3.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	3-1.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협의체 구성
	3-2.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 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

□ 현황 및 근거

○ 설문조사 결과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후의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음.
-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낮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장벽 인식 중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인식은 학교적응과 성적수준과 같은 학교생활요인과 전반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음.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학업성취요인이 가장 영향력

이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부모로부터 받는 진로에 대한 지지요인임.

- 청소년이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3년간 종단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비지원이 1위로 뽑힘.
- 다문화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으로 안정적인 직업인 교강사나 공무원 등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원하는 직업군은 매우 다양하였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전문직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음.
- 중학교 3학년에 들어서 진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상승함.

○ 심층면접 결과

- 다문화청소년들의 희망 교육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가정형편상 또는 학부모의 가치와 태도,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할 가능성 시사함.
-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과 진로지도 지원은 강화될 필요.
- 중학교에 입학 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정책욕구는 학업지원, 직업 체험 기회 확대, 진로상담 기회 마련 등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상담은 대부분 진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 됨
- 진로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진로상담은 적성검사와 직업 소개가 대부분임
- 체험활동도 때에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됨.
-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진로프로그램이 다수
-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연구가 필수적임.
- 학부모들의 경우 학습에 대해 걱정하지만 진로지도나 학습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있음.
- 부모자녀 모두 이중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절실하지는 않으며, 사회적 효용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부모나라 말을 하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여 어렸을 때 배웠어야 했으며, 중학교 연령 시기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안타까워함.

○ 정책분석 결과

- ▪ 다문화멘토링사업의 질적 수준제고와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 ▪ 농어촌 지역 다문화멘토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 수요자 수에 비해 매우 미미하여 극히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초기적응의 수준에서는 가능하나 직업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님.
- ▪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진로지원프로그램 역시 단순, 저숙련의 몇 몇 기술에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진로탐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추진방향

○ 저소득층 다문화청소년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학습지원 대상을 초등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대상별 진로정보 제공시스템 강화

○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경험을 통한 동기부여 및 진로설계역량 강화

○ 이중언어교육의 다각화 및 지원시스템 체계화

□ 정책과제

1-1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내용 및 방법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내실화 – 대학생 멘토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수퍼비젼 제공, 대학생 멘토링 운영비 책정하여 지원, 멘토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정례적 평가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학습코치(교사) 멘토링, 온라인 멘토링 확대 ■ 농산어촌 등 대학생 멘토링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 청소년지도자를 멘토로 양성 ■ 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부처별 방과후돌봄사업과 연계협력 시스템 강화 ■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복지 사업에서 학습지원 강화,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보강

정책과제 1-1은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기존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멘토링이 잘 되는 경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어머니들의 면담에서 보았듯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할 때 대학생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작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먼저 시키고, 중간에 교육청 등에서 멘토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과정 등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만사항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사전교육에서 미리 주의를 주는 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가정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 등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에도 사전교육이 있으나 실제 멘토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소 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멘토링을 하기 전에 멘토와 멘티 및 학부모와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호간 멘토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성공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이 주변이 있는 지역, 적어도 중소도시는 되어야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경우는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습코치를 확대하고 대학생 뿐 아니라 청소년지도자 등 주변에서 활용가능한 멘토 양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타부처 방과후돌봄서비스 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학습지원과 각종 특기적성프로그램, 진로지도,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과 진로지도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과후돌봄시스템으로, 학교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많은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초등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학생 연령으로 갈수록 학습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 대상 멘토링사업이나 방과후돌봄사업을 확대하여 점차 증가하는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1-2	진로·진학 정보 접근성 제고
내용 및 방법	(국내출생) ■ 학교별 연간 진로교육 계획 필수 사업화 ■ 진로 · 직업 · 진학정보 등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상담 기회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 지역진로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학생 진로 및 직업 정보 제공 (중도입국) ■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교육 교재 및 매뉴얼 제작 -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체험, 직업체험(인턴쉽) 등 다양한 영역별 교재 및 그에 따른 워크북 개발, 관련된 매뉴얼, 동영상 자료 등 개발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도의 우수사례와 현장의 경험지식을 수집하여 및 분석하고, 진로지도 매뉴얼 제작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자료를 체계화하여 아카이브로 구축

정책과제 1-2는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진로지도는 진학지도가 대부분이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탐색의 경우도 매우 한정된 단순, 저숙련 기술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나,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점을 보충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들의 경우 언어부족과 정보부족으로 한국인 부모들처럼 원활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청소년들 역시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제한으로 부족한 정보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통합적으로 진로지도를 하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진로지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접근성 제고방안이 달라져야 하는데,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비(非)다문화가정청소년과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되,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학교별로 연간 진로교육 계획을 필수화 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직업, 진학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상담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진로관련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교육부, 노동부 등)를 각 학교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 지역의 진로교육센터 등이 연계한 각종 진로인식, 진로체험 캠프 등을 활성화 한다.이 때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진로지원의 전문성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특히 학교밖 후기청소년기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국내출생 청소년들과 달리 언어가 부족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진로지도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진학 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도의 우수사례 등을 보급하며,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1-3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내용 및 방법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초등, 중학생: 진로체험 중심 - 고등학생: 직업체험 중심 - 단순· 단기체험: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 - 전문영역체험: 대학교 중심의 글로벌브릿지 사업 확대 ■ 진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무지개Job아라 및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확대 운영 ■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과정 운영방안 연구

정책과제 1-3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기회의 확대 및 다양화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은 몇 가지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초등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달수준에 맞는 기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과정을 초등연령부터 고등연령까지 상호 연계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선행된 후, 이에 맞추어서 초등연령과 중학생연령, 고등학생 연령별로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 비교적 단순한 체험이나 단기간 체험이 가능한 분야는 기존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고,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경우는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 때 글로벌브릿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대학교 교육 이상의 전문적 장기적 교육이 필요한 진로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는 다른 환경적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연령적으로 후기청소년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 및 진로지도과정이 별도로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무지개 Job아라와 내-일을 Job아라의 경우도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급하게 직업기술을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기 보다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진로체험 시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 내 하나의 기업을 섭외하여 해당 기업의 전체 직종에 대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관찰하고, 체험하는 방식을 통해 각 업무 뿐 아니라 전체 기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되는지 이해하고 보다 실질적인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이 필요한 사항, 보다 장기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찾아내고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이 각자 어떤 진로준비를 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전 연구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목적에 맞게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한 후 보급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4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내용 및 방법	■ 이중언어조성사업과 이중언어교육사업의 연계 - 이중언어조성사업 5세 -〉 7세까지 확장, 사업내용 내실화 - 이중언어 활성화를 위한 가족 인식개선 사업 - 8세 이상: 이중언어교육사업 내실화 ■ 발달단계에 따른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이중언어교육 모형 개발 ■ 이중언어교육 개선 및 한국어교육의 체계적 지원 - 이중언어 재능육성 사업(교육부)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질적인 향상 - 개별 언어별로 제2언어로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예: 중국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 베트남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 한국어 교육의 수준별,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정책과제 1-4는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중언어조성사업과 교육부의 이중언어교육사업을 연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조성사업은 앞의 정책분석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나라 말을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이 5세 미만의 유아들이다. 우선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 사업을 7세까지 확장하여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이중언어조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기초적인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이중언어교육사업을 실시하되, 이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별 이중언어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후 유아단계와 초등 및 중등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이 제공한다. 즉, 현재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중학교 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단순히 학교에서 제 2외국어로 배우기보다 학교 등에서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고, 가정에서 어머니와 소통을 통해 연습이 가능한 방식의 실제적 이중언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이중언어교육모형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언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의 주 강사로 활용하고, 교육부의 이중언어교육의 경우 외국어전공자가 주강사로 활동하고 결혼이주여성은 회화강사로 활동하는 등 팀 티칭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수준별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도입국청소년들 대상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KSL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주로 초등연령층을 대상으로,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고, 교우관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지지집단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 현황 및 근거

○ 설문조사

-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진로의식, 학업적 포부, 성취동기, 진로장벽인식 등에서 차이가 남.
-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의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원행동 수준도 달라짐.
- 가정의 경제수준은 자녀의 학업지원, 학습적응 및 학교성적, 부모의 기대, 진로인식, 진로장벽인식 등에 영향을 미침.
- 다문화청소년이 지닌 배경변인과 진로관련 인식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업수준과 월 평균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진로관련 인식요인인 성취동기, 진로의식, 진로장벽인식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이나 학교참여 등 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부모의 교육적 지원, 부모의 진로지원에 대한 자녀의 인식 등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중요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부모가 자녀지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3년 모두 숙제, 시험준비 등 학습관련 부분이었음.
- 학부모가 자녀지도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응답 중 진로관련 부분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중 자녀가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녀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를 찾는 일, 세 번째로 자녀에게 적합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및 방법, 마지막이 자녀에게 적합한 상급학교의 종류 등의 순으로 네 가지 항목 모두 평균 5점 만점에 3.9점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었음.

○ 심층면접

▪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과 진로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대학진학에 대해 막연하게 희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열망은 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일반적인 한국 학부모에 비해 낮은 편
▪ 다문화청소년 역시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알고 있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학부모 교육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문화가정만 모아서 하는 선별적 학부모교육도 필요
▪ 진로지도에 있어 사례관리 필요성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정보부족과 교사교육의 필요성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계를 고려한 진로지도 방법 필요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적 가치 차이와 인식개선 필요
▪ 자녀의 진로 및 진학관련 학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필요
▪ 학부모 교육의 내용이 중요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의 필요
▪ 교사들의 무관심과 비전문성으로 인한 문제

○ 정책분석

▪ 지역 내 부처간 연계 및 협력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교육부, 여가부, 노동부가 유기적으로 연계 및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다문화청소년의 외국출신 학부모에게 한국 교육제도 및 학교환경에 대한 교육, 성장단계별로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과 상담서비스, 자녀진로와 진학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제공받도록 함.

○ 일반 학교교사 및 진로교사 대상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 및 진로지도 전문성 제고

○ 청소년관련 업무관련자(청소년기관, 고용지원센터 증)를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전문성 제고

□ 정책과제

2-1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내용 및 방법	■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진로 및 진학 가이드 개발,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 정보 제공 – 다국어로 학부모의 자녀 진로 및 진학 가이드 개발하고 이를 커리어넷에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누리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출입국관리소 등 공공기관을 통해 다국어로 만들어진 학교 편입학 정보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함. – 커리어넷, 진로정보 소식지 ‘드림레터’, 팟캐스트 방송 ‘진로레서피’ 등에 온·오프라인 매체에 다문화학생 학부모들이 접근하여 진로정보를 볼 수 있는 코너 마련 ■ 연간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적 운영 – 청소년의 교육과정에 따른 연간 학부모교육의 내용을 개발하여 매년 학기초에 시기 및 내용 제공 – 학교급별 진로 및 진학관련 학부모 교육 제공 ■ 예비 학부모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학교제도, 학교생활 안내, 학부모 활동 준비 프로그램 –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 운영 ■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부모 교육 강화 – 부모-자녀관계,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 제공 ■ 자녀상담 및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시도교육청 산하 다문화교육센터의 진로상담기능을 강화, 학부모진로상담실 마련 – 多재다능 프로그램(여가부)을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학부모 자녀상담 기능 강화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밖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문제를 상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정책과제 2-1은 학부모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사회문화적 환경요소의 영향을 받는 요소로 보이며, 학부모들이 자녀 지도에 대해 다소 자신 없어 하거나 정보부족, 역량부족 등에 대해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들이 특정한 계층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지원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를 돕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연간 학부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경우 한국의 학교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자녀의 학습, 진로 및 직업탐색을 위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길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한국의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 연간 단위로 제공할 수 있다. 즉, 학교급별로 연간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추어서 유치원 시기용,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예비중학생용, 중학생용, 예비고등학생용, 고등학생용 등으로 나누어서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진로지원 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단계별 필수사항,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진학가이드는 진로와는 별도로 한국의 교육시스템, 각 학교별 특성과 진학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으로, 외국출신의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시각에서 자세하게 구성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한국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를 위해 다국어로 번역하여 교육부의 커리어넷, 여가부의 다누리콜, 다문화족지원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출입국사무소 등에 비치하고,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연결하며,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학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2	교사 진로지도 역량강화
내용 및 방법	■ 교사대상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사 연수 강화 ■ 세분화된 맞춤형 진로 연수 프로그램 추진 – 학교 관리자, 다문화담당 교사,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등 대상별 연수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관련법과 제도 등 포함된 교육 실시

정책과제 2-2는 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에 따르면 일반 학생들 대상의 진로교육이나 진로교사연수 자체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2016년 처음으로 진로상담교사 대상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없이 던진 교사의 말이 다문화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 대상의 일반적인 진로지도 자료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부분을 강화하며,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에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등 기초적인 단계의 강좌에서 갑자기 다문화학생상담의 사례로 건너뛰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담사례 제시 전에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시 유의해야 하는 점과 그 이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오해와 그로 인해 잘못된 진로지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다루는 중간 단계의 구체적 지도방안이 먼저 포함된 후 사례연구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분화된 맞춤형 진로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다문화청소년의 담임교사, 진로상담교사, 일반교사, 관리교사 등 처한 위치에 따라 좀 더 필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교사들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별도의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에 대상별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청소년진로지도 관련자 전문성 강화
내용 및 방법	■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대상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직업체험기관 등 전문 인력 교육 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진로지도 관련 과목 포함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의 직무연수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진로지도, 상담사례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정책과제 2-3은 청소년 진로지도와 관련된 관련자의 전문성 강화로, 사실상 학교의 진로교육이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학교 내 진로교육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학교보다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등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에 진로체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도 이미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대상 즉,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직업체험기관 등의 담당자들에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 등의 직무연수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도, 상담사례 등이 포함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현황 및 근거

○ 설문조사

▪ 자녀 진로와 관련된 요구도는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남.

○ 심층면접

▪ 지역사회 내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은 학업 및 진로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
▪ 학교에서 하는 진로교육은 경험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
▪ 지역사회의 다문화센터 등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의 경우는 매우 긍정적임.
▪ 학부모 교육은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함.
▪ 다문화청소년 기관의 학부모 교육은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분석

▪ 부처 간 연계나 지역기관 간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지역사회 내 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창업지원센터 등이 진로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추진방향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지역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등이 연계 및 협력하여

진로 지도하는 지역사회 진로지도협의체를 구성함.

○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고, 교육청(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고용정보센터, 직업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청소년에게 진로서비스를 제공함.

□ 정책과제

3-1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내용 및 방법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기도, 서울, 인천 등 다문화청소년이 밀집된 지역에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협의체를 일차 구성(지자체,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및 진로교육센터 등 포함) 후 점진적 확대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전담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여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않은 지역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글로벌센터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및 다문화관련 기관 중에서 적합한 곳을 지정 - 다문화청소년 진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별로의 예산 지원과 함께 센터 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도입

정책과제 3-1은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 내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으로 진로지원의 모든 단계, 즉 정책수립과 실행 단계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주체들이 연계와 협력을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역중심의 진로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부처 수준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청소년기관, 직업교육기관, 기업, 직업교육기관 등이 지역사회 내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3-2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 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내용 및 방법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기관 지정 - 학부모 자녀진로 및 진학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처 발굴 및 매칭 지원 - 지역사회 학교 및 관련기관들과의 연계 -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인력 배치 -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 지역의 창업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다문화청소년 창업 지원

정책과제 3-2는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된 진로지원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협의체에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청소년기관, 진로교육센터 등이 함께 들어오고, 다문화청소년 진로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연간계획 등을 논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한다.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서비스 전담기관의 기능으로는 학부모 대상 자녀진로 및 진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지역사회 내 진로 체험처를 발굴 및 매칭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지역사회 학교 및 관련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과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창업프로그램과 연결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표 Ⅵ-1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정책과제	2017	2018	2019	2020	담당 부처
1. 다문화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1-1.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	○	○	교육부 여가부
	1-2.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	○			교육부 여가부
	1-3.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			교육부 여가부
	1-4.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	○	○		교육부 여가부
2. 지지집단 진로지도 역량강화	2-1.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2-2. 교사 진로지도 전문성 강화	○	○	○	○	교육부
	2-3.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전문성 강화	○	○			교육부 여가부 노동부
3.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 체계 강화	3-1.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협의체 구성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3-2.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 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	○	○	○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강상경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교육부 (2016). **2016 교육부 다문화학생 직업교육지정결과**(내부자료)

교육부 (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 https://www.nhrd.net/board/view.do?dataSid=26146&boardId=BBS_0000004&menuCd=DOM_000000102003000000 (검색일: 2016. 12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 차녀성장지원 이다.** (2016. 3. 9일자 보도자료).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체제구축운영연구** (2004 청소년상담연구-109).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기영락, 임성택 (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1), 63-80.

김경식, 이현철 (2007). 진로결정 수준 변화의 영향 요인. **중등교육연구, 55**(3), 143-164.

김민경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문화적 요인, 부모 및 가족요인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3), 35-53.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 311-333.

김영은, 정철영, 이건남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직업인식, 진로대안영역 및 직업포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69-194.

김유미, 권유정 (2015). 개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층 모형의 적용. **한국인적자원개발연구**, **22**(2), 93-111.

김충기, 천귀순 (2003).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성격 특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6**(2), 1-20.

김혜민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영 (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미애 (2006). 학교밖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4**(2), 147-196.

남부현, 최충옥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5**(3), 117-13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016). **MAPS**. http://maps.gallup.co.kr (검색일: 2016. 12월 28일).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중도입국청소년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법무부 (2016).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 (검색일: 2016. 12월 25일).

선혜연(2015).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 연구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22**, 15-31.

송병국, 전주연 (2006).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1), 235-264.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제1회 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6).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진로지원사업(내부자료)

양계민, 김승경 (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Ⅰ**(연구보고 10-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Ⅰ: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Ⅱ: 총괄보고서**(연

구보고서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남희, 홍은실 (201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4), 143-157.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여성가족부(2016).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대책**(2016.3.9.일자 보도자료)
오현애 (2002). **학교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학교중퇴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6).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3), 357-380.
유소영 (2013).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아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연구보고 CR2002-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Ⅰ** (연구보고 13-R18).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경, 류재윤, 방흥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료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이은설 (2005): **초·중·고 여학생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자영 (2010). **부모-자녀의사소통양식, 가족응집력,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다문화가정과 일문화가정의 비교**.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재희, 이지민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11.
이지민, 오인수 (2013).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3), 193-216.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연구자료 01-1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임숙, 김희재 (2013).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 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정윤경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59-305.

조봉환(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진로교육연구**, 24(2), 219-245.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89-408.

조영달, 박윤경, 이정우, 이경수 (2007). **다문화교육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인식 조사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6). 2016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운영 계획(안)(내부자료).

진성미 (2011). 서울시 초 · 중 · 고교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별 집단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29(2), 133-156.

최윤미, 이문희(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최윤희, 김순자(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3(3), 743-762.

최충옥, 모경환(2007). 경기도 초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39(4), 163-18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소개**. http://www.kihf.or.kr/lay1/S1T244C245/contents.do (검색일: 2016.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2016). **2016년도 글로벌브릿지 사업 세부 시행계획(안)** (내부자료)

한국장학재단(2016). **2016년도 다문화멘토링 사업 시행계획(안)** (내부자료)

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한귀녀, 유순화, 송현아 (2009). 진로장애와 진로포부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7**(3), 211-235.

행정자치부 (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정책 자료실.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46327 (검색일: 2016. 12월 28일).

홍봉선, 남미애 (1998). 복교를 원하는 부산지역 중퇴청소년 부모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141-179.

홍향연, 유태명 (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3), 49-64.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황미경, 문영주 (2012).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 · 직업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9**(4), 1-25.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to control*. N. Y.: W. H. Freeman and Company.

Crites, J. O. (1978). Manual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CBT/McGraw-Hill.

Gati, I., & Saka, N. (2001). High school students 'career-related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79*(3), 331-340.

Herr, E. L., & Cramer, S. 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 (5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Sex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preception of educational and career-related barriers and levels of cop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61-67.

Leong, F. T. (1991). Career development attributes and occupational values of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221-230.

Leong, F. T.,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Ma, P., & Yeh, C. (2010).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fluencing the educational and career plans of chinese immigrant youth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3), 230-245.

Mau, W., & Bikos, L. H. (2000). Educational and vocational aspirations of minority and femal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2), 186-194.

McWhirter, E. H., Torres, D. M., Salgado, S., & Valdez, M. (2007). Perceived Barriers and Postsecondary plans in Mex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119-138.

Ojeda, L., & Flores, L. (2008). The influence of gender, generation level, parents'education level, and perceived barriers on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1), 84-95.

Osipow, S. H., Carney, C. G., Wind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Rojewski, J. W. (1994). Career indecision types for rural adolescents from disadvantaged and nondisadvantaged backgroun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56-363.

Schneider, B., Carnoy, M., Kilpatrick, J., Schmidt, W. H., & Shavelson, R. J. (2007). *Estimating Causal Effects using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designs* (report from the Governing Board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Grants Program). 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참고 법률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 (진로교육활성화시책)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27호, 2015.12.22., 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20%EB%B0%8F%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B%93%B1%EC%9D%98%20%EC%B1%85%EB%AC%B4#undefined (검색일: 2016. 12월 26일).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3조 (진로교육 현황 조사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27호, 2015.12.22., 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20%EB%B0%8F%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B%93%B1%EC%9D%98%20%EC%B1%85%EB%AC%B4#undefined (검색일: 2016. 12월 26일).

진로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36호, 2015.6.22., 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20%EB%B0%8F%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B%93%B1%EC%9D%98%20%EC%B1%85%EB%AC%B4#undefined (검색일: 2016. 12월 26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prepare alternative policy, by longitudinally trac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lassifying their developmental change patterns and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development. Amongst, there are three research objectives for the year 2016. First objective is to establish the 6thyear of longitudinal panel data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Second objective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of career awareness improving plan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career-related awaren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Last one is to contribute to reduce the gap of career development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by deriving career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itially conducted a panel survey on 1,332 households includ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nd over 300 teachers. Second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the 23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school teachers and the field experts. Thirdly, the policies of career support for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Labor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both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parents have shown increasing demand for learning support and career education support. By comparison, as the students' grade goes up,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grades significantly decreases while the level of academic aspirations gradually declines. Hence, it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may sense more realistic difficulties related to their careers. Secondly, the career consciousn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s lower than that of non - multicultural adolescents, while the level of career barrier awareness is higher. In particular, the research identified that the level of career barrier awareness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economic difficulty is higher than the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Thirdly, multicultural adolescents want to have provision of academic supports, enhancement of career experience opportunities, career-counseling opportunities, and particularly, they need experts who can offer career-path related counseling. Fourthly, paren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elt a high need for career-related information, as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to guide their children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language on Korean education system. Nonetheless, as the reliability of parent education offered by existing schools was low,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was accordingly low. Based on these results, three policy strategies and nine policy agendas are derived and suggested to career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longitudinal research, career awareness, career barrier awareness,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Ⅰ / 김기헌 · 하형석 · 신인철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헌 · 하형석 · 신인철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종 · 신현옥 · 최홍일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종 · 최홍일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Ⅲ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Ⅰ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Ⅰ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Ⅰ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Ⅱ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 · 이장주 · 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 · 중 · 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 · 박인영 · 이호경 · 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Ⅰ / 김현철 · 백혜정 · 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 · 최정원 · 강지명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 · 최정원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종 · 정은진 · 정건희

수 시 과 제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 · 정의철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 · 강경균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 · 김기헌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 · 정은진 · 조혜영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 정은진 · 김기헌

수 탁 과 제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 ·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 · 유한구 · 채창균 · 오승근 · 김윤나 · 한영근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Ⅱ / 성윤숙 · 김경준 · 강경균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 · 황여정 · 정윤미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모상현 · 정은주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16-R40 가출청소년 보호 ·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승경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 · 백혜정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 · 오해섭 · 윤철경 · 김경준 · 최용환 · 유설희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윤주 · 유설희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 · 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 · 모상현 · 유성렬 · 김진석 · 정윤미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정은진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 · 문호영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 · 김지경 · 이윤주 · 정윤미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 · 박선영 · 송원영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 · 성은모 · 강경균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헌 · 장근영 · 김지경 · 하형석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 · 최용환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헌 · 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16-S39 제6회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 ·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Ⅳ: 총괄보고서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계문사 전화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 · 정보팀)
ISBN 979-11-5654-124-0 94330
979-11-5654-101-1 (세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233 94330
ISBN 979-11-5654-123-3
ISBN 979-11-5654-101-1 (세트)